경기도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충청남도 Chungcheongnam-do 충북, 대한민국 중심에 서다

2023 가봉태실 국제학술대회 생명탄생문화의 상징 - 조선의 가봉태실, 세계유산을 꿈꾸다!

경기도·경상북도·충청남도·충청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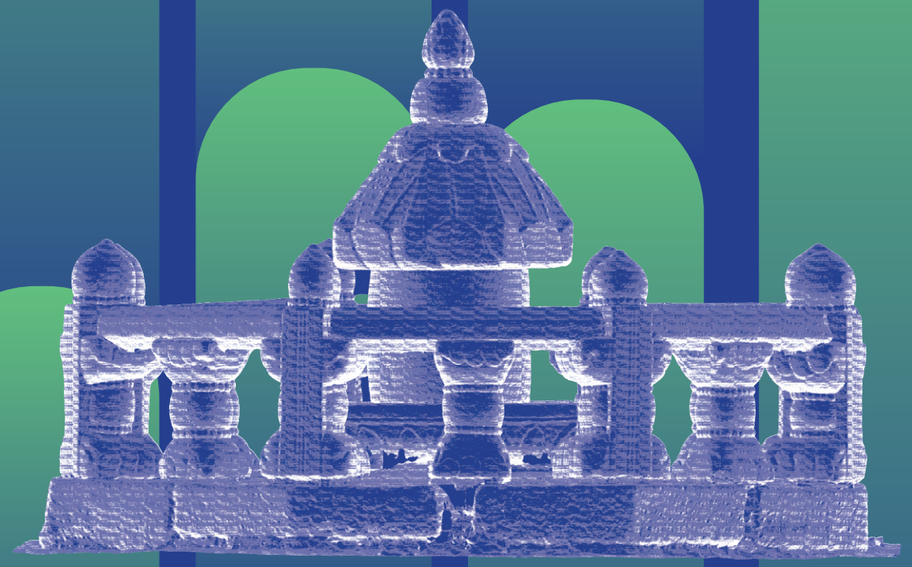
2023 가봉태실 국제학술대회
The Royal Placenta Chambers International Symposium

생명탄생문화의 상징

조선의 가봉태실

A Cultural Symbol of the Birth of Life -
The Royal Placenta Chambers of Joseon as a World Heritage Site

세계유산을 꿈꾸다!



경기도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충청남도 Chungcheongnam-do 충북, 대한민국 중심에 서다 경기문화재연구원 GACE 경북문화재단 문화재연구원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Chungnam institute of history and culture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Chungbuk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생명탄생문화의 상징

조선의 가봉태실

A Cultural Symbol of the Birth of Life -
The Royal Placenta Chambers of Joseon as a World Heritage Site

세계유산을 꿈꾸다!

경기도·경상북도·충청남도·충청북도
경기문화재연구원·경북문화재단문화재연구원·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조선의 가봉태실 세계유산을 꿈꾸다!

2023.10.27.10:00 한성백제박물관 강당

개회식			
10:00~10:30	참가자 등록 / 가봉태실 영상 상영		
10:30~10:40	개회사	이지훈(경기문화재연구원장) 박재영(경북문화재단 문화재연구원장) 김낙중(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이종윤(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축 사 (영상)	김동연(경기도지사) 이철우(경상북도지사) 김태흠(충청남도지사) 김영환(충청북도지사) 이배용(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10:40~10:50	기념촬영		
발표 및 토론			
10:50~11:10	기조강연	**조선왕실의 태실을 통하여 본 세계유산 등재 대상의 재조명**	발표: **이상해**(국민대학교 석좌교수)
11:10~11:50	주제발표1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세계유산 주도 전략: 유산 관리 역량 강화**	발표: **드미트리 보야킨** (Dmitriy Voyakin, 국제중앙아시아연구소 소장) 토론: **강인욱**(경희대학교 교수)
11:50~13:10	중 식		
13:10~13:50	주제발표2	**조선왕실 가봉태실의 석조물 제도와 일본 근세 다이묘 묘 구조의 비교연구**	발표: **마쓰바라 노리아키** (松原典明, 일본 석조문화재 조사연구소 대표) 토론: **김지영**(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객원연구원)
13:50~14:15	주제발표3	**한국의 태처리 문화와 태실**	발표: **심현용**(울진 봉평리 신라비 전시관 관장) 토론: **박재관**(성주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 팀장)
14:15~14:30	휴 식		
14:30~14:55	주제발표4	**조선왕실의 풍수문화와 왕태실의 풍수지리**	발표: **최원석**(경상국립대학교 교수) 토론: **민병삼**(공주대학교 교수)
14:55~15:20	주제발표5	**조선왕실 태실의 진정성과 완전성 연구**	발표: **김경미**(고려대학교 초빙교수) 토론: **김영재**(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15:20~15:45	주제발표6	**가봉태실 세계유산화를 위한 추진과제**	발표: **김회정**(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토론: **길지혜**(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선임연구원)
15:45~16:00	휴 식		
16:00~17:30	**종합토론**		좌장: **최재헌**(건국대학교 대학원 세계유산학과 교수, 이코모스 코리아 이사)
폐회식			

A Cultural Symbol of the Birth of Life -
The Royal Placenta Chambers of Joseon as a World Heritage Site

2023.10.27.10:00 SEOUL BAEKJE MUSEUM

Opening				
10:00~10:30	Registration / Gabong Taesil Screening			
10:30~10:40	Opening Remarks	**Lee Jee-hoon** (Director, GyeongGi Institute of Cultural Properities) **Park Jae-young** (Director, Gyeongbuk Arts & Culture Foundation,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Kim Nak-jung** (Director, Chungnam Institute of History and Culture) **Lee Jong-yoon** (Director, Chungbuk Rese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Congratulatory Remarks (Screening)	**Kim Dong-yeon** (Gyeonggi Province Governor) **Lee Cheol-woo** (Gyeongsangbuk-do Governor) **Kim Tae-heum** (Chungcheongnam-do Governor) **Kim Young-hwan** (Chungcheongbuk-do Governor) **Lee Bae-yong**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Chairman)		
10:40~10:50	Photo Session			
Presentation/Discussion				
10:50~11:10	Keynote	**Mediating World Heritage-scape Through the Placenta of the Joseon Royal Family**	**Lee Sang-hae** (Chair professor, Kookmin University)	
11:10~11:50	Presentation 1	**Central Asian countries' World Heritage Initiatives: Strengthening Heritage Management Capacity**	**Dmitriy Voyakin** (Director, International Institute for Central Asian Studies)	
			Discussant	**KANG In-uk** (Kyung Hee University Professor)
11:50~13:10	Lunch Break			
13:10~13:50	Presentation 2	**A comparative study on the masonry system of the Gabong Taesill of the Joseon Royal family and the mausoleum of daimyo in the modern period of Japan**	**Matsubara Noriaki** (Research Institute of Stone Cultural Heritage)	
			Discussant	**Kim ji-young** (Researcher, Institute of Cross-Culture Studies)
13:50~14:15	Presentation 3	**The Culture of Hiding a Placenta and the Placenta Chamber in Korea**	**Shim Hyun-yong** (Director, Museum Of Uljin Bongpyeongri Sillabi Monument)	
			Discussant	**Park Jae-kwan** (Team Leader, SeongJu Seongsan-dong Tombs Museum)
14:15~14:30	Intermission			
14:30~14:55	Presentation 4	**Feng Shui Culture and the Royal placenta chamber of the Joseon Dynasty**	**Choi Won-seok**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iscussant	**Min Byoung-sam** (Kongju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14:55~15:20	Presentation 5	**A Study of the Authenticity and Integrity of Taesil of the Joseon Royal Family**	**Kim Kyung-mi** (Invited Professor, Korea University)	
			Discussant	**Kim young-ja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Professor)
15:20~15:45	Presentation 6	**Initiatives for the World Heritage Site of Gabong Taesill**	**Kim Hoe-jung** (Researcher, Chungnam Institute of History and Culture)	
			Discussant	**Gil ji-hye** (Researcher, SNU Environmental Planning Institute)
15:45~16:00	Intermission			
16:00~17:30	Discussion		**Chair: Choi Jae-heon** (Konkuk University Professor)	
Closing				

차례

기조강연 **조선왕실의 태실을 통하여 본 세계유산 등재 대상의 재조명** 08
이상해(국민대학교 석좌교수)

I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세계유산 주도 전략: 유산 관리 역량 강화** 22
드미트리 보야킨(Dmitriy Voyakin, 국제중앙아시아연구소 소장)

II **조선왕실 가봉태실의 석조물 제도와 일본 근세 다이묘 묘 구조의 비교연구** 44
마쓰바라 노리아키(松原典明, 일본 석조문화재 조사연구소 대표)

III **한국의 태처리 문화와 태실** 78
심현용(울진 봉평리 신라비 전시관 관장)

IV **조선왕실의 풍수문화와 왕태실의 풍수지리** 104
최원석(경상국립대학교 교수)

V **조선왕실 태실의 진정성과 완전성 연구** 140
김경미(고려대학교 초빙교수)

VI **가봉태실 세계유산화를 위한 추진과제** 160
김회정(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종합토론 좌장: **최재헌**(건국대학교 대학원 세계유산학과 교수, 이코모스 코리아 이사)
강인욱(경희대학교 교수)
김지영(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객원연구원)
박재관(성주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 팀장)
민병삼(공주대학교 교수)
김영재(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길지혜(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선임연구원)

기조강연

조선왕실의 태실을 통하여 본 세계유산 등재 대상의 재조명

Mediating World Heritage-scape Through the Placenta of the Joseon Royal Family

이상해 | Lee Sang-hae
국민대학교 석좌교수 | Chair professor, Kookmin University

기조강연

주지하듯이 세계유산목록 등재는 유네스코가 1972년 제17차 총회에서 채택한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약칭: 세계유산협약)”과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약칭: 세계유산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협약”은 세계유산에 관한 모법에 해당하고, “세계유산운영지침”은 세계유산협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에 해당합니다. 세계유산협약 전문全文은 채택된 이후 지금까지 개정된 적이 없고, 세계유산운영지침은 정부간 위원회인 세계유산위원회와 자문기구들[1]에 의해 1977년 초안이 만들어진 후 지금까지 30회 가까이 개정되면서, 보완되었습니다.[2]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 등재 여부와 기타 주요사항들을 검토, 의결하는 세계유산위원회는 1978년부터 매년 신청한 유산을 심의하여 통과된 유산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협약과 세계유산운영지침에 의하면, 하나의 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려면 반드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를 구비해야 합니다. 이 절대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세계유산 신청 당사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신청 유산의 속성을 파악하여,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도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국은 해당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입증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관련 기관, 단체, 소유자 등과 해결책을 강구해서 그 유산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충족하도록 해야 하며, 그에 따른 예산, 인력, 시간 등이 많이 소요됩니다.

저는 오늘 세계유산협약과 세계유산운영지침에서 규정한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발표 내용의 중심에 두고, 조선왕실의 태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 논의에 참고한 조선왕실의 태실 관련 자료는 「조선왕조 태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기초연구 용역 보고서」**(2021. 12. 발간, 이하 약칭: 1차 보고서)**와 「조선왕조 태실 세계유산 확장 등재를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2022. 7. 발간, 이하 약칭: 2차 보고서)** 입니다. 두 보고서는 모두 상주군에서 발주하였고, 연구는 모두 건국대학교 세계유산연구소에서 수행하였습니다.

두 보고서에는 ‘조선왕실의 태실’의 일반 사항이 다음과 같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

1 세계유산위원회의 자문기구는 세계유산협약 제8조3, 제13조7, 제14조2, 세계유산운영지침 제30조에 근거하여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tudy of the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Cultural Property, ICCROM),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ICOMOS), 세계자연보전연맹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CN)이 자문기구로 지정되었습니다.

2 그 중에서도 세계유산운영지침은 2005년에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개정된 세계유산운영지침은 지금까지 일부 조항의 개정, 보완이 이루고지고 있지만, 기본 틀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태실胎室 혹은 태봉(胎封·胎峰)은 태어난 아기의 태胎를 땅에 묻은 태묘胎墓가 자리한 곳을 의미한다.(1차 보고서 p.357)

태실은 태를 장엄하기 위해 조성된 석물과 석함에 봉안된 유물의 총칭이다.(1차 보고서 p.357)

조선왕실은 재위 중인 왕의 직계 자녀인 왕자(원자, 원손, 대군, 군)와 왕녀(공주, 옹주)가 태어나면 아기태실(阿只胎室)을 조성하고, 왕에 오르면 새로 꾸며서 가봉태실加封胎室을 조성하였다.(1차 보고서 p.358~9)

가봉태실이란 왕자가 왕위에 오르면 태실을 대석, 전석, 우상석, 개첨석 등을 조성하여 장엄 가봉(加封)하고, 귀부龜趺[돌 거북이]와 이수螭首[용을 조각한 비의 머릿돌]를 갖춘 또 하나의 태실비를 세워 그 위계를 높인 태실이다.(1차 보고서 p.366)

태실의 형식은 땅 위 석물인 기단석+중동석+개첨석으로 구성되고, 땅 아래는 석함+태항아리+태지석(胎誌石)+뚜껑돌(蓋石)로 구성된다. 각 태실의 앞에는 태주의 탄생일과 장태일을 새긴 태실비가 세워져있다.(1차보고서 p.360)

조선왕실 태실은 일정한 형태의 조형물을 제작하여 태를 땅에 묻는 방법이 풍수지리사상과 결합한 형태로 이러한 태실의 조성과 형식은 의례행위면서도 유형기념물을 포함한 매우 독특한 유산의 형태이다.(1차 보고서 p.357)

두 보고서에는 또한 '조선왕실의 태실'의 가치와 의미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조선왕실의 태실은 왕실의 자손이 태어났을 때 따라온 태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소중히 여겨서 이것을 보관하기 위한 기념물을 조성하였다. 태란 태아를 둘러싸고 있는 태반과 태아의 배꼽을 잇는 탯줄의 생체조직이다. 태를 묻어 갈무리하기 위해 조성된 태실은 장소의 신성성을 유지하여 그 생명이 평안하기를 기원하는 발복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1차 보고서 p.358)

이러한 장태의식을 통해서 생명존중의 사상을 엿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조선왕실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유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1차 보고서 p.357)

이러한 행위는 태봉 안에 태어난 생명과 함께 나온 태를 버리지 않고 소중하게 보관하여 생명력을 부여한 의식이다. (1차 보고서 p.357)

그런데 두 보고서는 "조선왕실 태실에서 세종의 아들 태실을 함께 조성한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과 일부 가봉태실만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고, "왕비태실은 원형이 대부분 훼손되었"으며, "공주의 태실은 효종의 딸인 숙명, 숙휘, 숙정, 숙경공주의 태실 초장지의 위치는 확인되지만 태실비만 전하고 있고 석물은 없다… 그러나, 현재 공주의 태실도 원형을 갖추고 있는 예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1차 보고서 p.358~9) 이와 함께 두 보고서는 태실의 진정성이나 완전성이 훼손된 것들과 복원된 것들도 있음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가봉태실은 태조 때부터 조성되었으며, 기본적으로 왕실에서 태어난 왕자의 신분에서 왕위를 계승한 모든 조선의 왕은 가봉태실이 있지만, 철종과 고종처럼 태어날 때 왕의 아들이 아닌 상태에서 왕위를 계승한 경우는 태실지가 알려지지 않았다. 가봉태실은 일제강점기에 원래의 자리에서 서삼릉으로 대부분 옮겨졌으나 대부분 초장지가 알려져 있고, 의궤를 통해 형식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원래의 자리로 복원하고 있다.(1차 보고서 p.366)

조선왕실의 왕 27명과 추존된 가봉태실 1곳… 중에서 초장지가 확인되지 않는 인조, 효종, 연산군의 태실지와 원래 태실이 조성되지 않은 철종, 고종의 태실을 제외한 23곳과 추존된 장조의 태실을 포함하여 총 24개의 가봉태실이 확인된다. 이 중에서 유구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여 복원된 사례는 사도세자가 추서된 장조를 포함하여 총 13기에 달하며, 계속 복원하는 추세이다. **(1차 보고서 p.366)**

세계유산협약과 세계유산운영지침의 핵심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개념, 정의 및 구성 요소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해 1). 탁월한 보편적 가치라는 용어 자체의 정의와 개념에 대해, 2).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구성 요소들에 대해 세계유산협약의 내용, 그리고 세계유산운영지침의 개정, 보완의 역사와 함께 살펴본 다음, 이를 바탕으로 발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세계유산협약과 세계유산운영지침에 명시되어 있듯이 하나의 유산을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려면 무엇보다도 그 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구비해야 합니다. 세계유산협약의 전문(前文)은 "문화 및 자연유산 중에서 중대한 관심사가 있는 유산은 인류 전체의 세계유산으로서 보존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 및 자연유산의 효과적인 집단적 보호 체계를 확립하는 협약"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전문(前文)에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모든 인류를 위해 범세계적 차원에서 보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용어 자체에 대한 정의는 없고, 세계유산협약 본문에도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언급하는 조항은 있지만 정의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협약 본문 제1조와 제2조에서 언급됩니다. 협약 제1조는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는 대상은 기념물(monuments), 건축물(groups of buildings), 유적(sites)에 속하는 것이어야 한

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기념물과 건축물은 “역사, 예술 또는 과학의 관점에서,” 그리고 유적은 “역사적, 미학적, 민족학적 또는 인류학적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요건을 구비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협약 제2조는 자연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는 대상은 “미학적 또는 과학적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세계유산협약 제1조에서 우리는 문화유산의 가치는 역사적 관점에서, 예술의 관점에서, 과학의 관점에서, 그리고 민족학 및 인류학적 관점에서 찾아야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1조에는 용어 자체에 대한 정의는 없습니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정의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제11.2조에 “목록은 협약 제1조와 제2조에 정의된 것과 같이 위원회가 향후 작성해야 할 등재기준의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구비하였다고 판단되는 유산으로 구성되어야 한다.”[4]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유네스코는 세계유산협약에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해 정의하는 것은 유보하고, 그것을 세계유산운영지침에 미루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시작하면서, 세계유산위원회와 자문기구가 신청유산의 속성을 근거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신청 유산의 다양한 속성에 근거하여 등재기준을 해석해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존 해석에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그때마다 검토와 논의를 거쳐 세계유산운영지침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관련되는 조항과 등재기준은 개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청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세계유산이란 시간적으로는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를, 공간적으로는 세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방대한 유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고정된 개념으로 정의하기 아주 까다롭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고,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신청 유산의 속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상 언급한 내용은 세계유산운영지침에 명시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정의가 년도별로 어떻게 개정되어 왔는지 몇몇 사례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1977년 세계유산운영지침

1조. 유산의 일부가 특출한 특성을 구비하였으면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

6조. “탁월한 보편적 가치”라는 문구의 “보편적”의 정의는 논평을 필요로 하며, 어떤 유산은 어디서나 모든 사람들이 그 중요성과 중대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고, 문화 또는 시대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 문화유산에 관한 한 “보편적”이라는 용어는 그것이

3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세계유산협약은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한 문화재의 가치와 공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는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 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문화재에 포함될 수 있는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문화재”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범주에 속하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외에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동산 문화재, 무형문화재,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이 세계유산의 범주와 다릅니다.

4 “as defined in Articles 1 and 2 of this Convention, which it considers as having outstanding universal value in terms of such criteria as it shall have established”

그 일부를 이루는 문화를 최고로 대표하는 유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1996년 세계유산운영지침

1조. 유산의 일부가 특출한 특성을 구비하였으면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

2002년 세계유산운영지침

1조. 유산의 일부가 특출한 특성을 구비하였으면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

6조(i). (i) 협약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화, 자연 유산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대한 관심, 중요성 또는 가치가 있는 모든 유산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제적 관점에서 이 중 가장 뛰어난 것들의 선별된 목록만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 자연 유산에 대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협약 제1조와 제2조에 의해 규정된다. 이 정의들은 위원회에 의해 두 가지 기준 세트, 즉 문화유산에 대한 세트와 자연유산에 대한 세트를 사용하여 해석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위원회가 채택한 기준과 진정성 또는 완전성의 조건은 24조와 44조에 제시되어 있다.[5]

2005년 세계유산운영지침

49조. 탁월한 보편적 가치란 국경을 초월하고 전 인류의 현재와 미래 세대에 공통적으로 중요할 정도로 매우 예외적인 문화적 및/또는 자연적 중요성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유산의 영구적인 보호는 국제 사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 위원회는 세계유산목록의 등재기준을 정의한다.

2011년 세계유산운영지침

49조. 탁월한 보편적 가치란 국경을 초월하고 전 인류의 현재와 미래 세대에 공통적으로 중요할 정도로 예외적인 문화적 및/또는 자연적 중요성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유산의 영구적인 보호는 국제사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 위원회는 세계 유산 목록의 재산의 등재기준을 정의한다.

2021년 세계유산운영지침

49조. 탁월한 보편적 가치란 국경을 초월할 만큼 독보적이며, 현재와 미래세대의 전 인

5 2002년 세계유산운영지침 24조는 문화유산에 대한 등재기준 6항목이 제시되어 있고, 44조는 자연유산에 대한 등재기준 4항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류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문화적 및/또는 자연적 중요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유산의 영구적인 보호는 국제사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 위원회는 세계유산목록 등재기준을 정의한다.

이상 예시한 연도별 세계유산운영지침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정의를 보면, 2005년에 운영지침이 대폭 개정되기 전까지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조차 확고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8년부터 등재되기 시작한 세계유산목록을 보면 세계유산위원회는 적어도 1980년대 중반까지는 세계유산 등재 대상 유산을 "최고 중의 최고"에 초점을 맞추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판단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는 등재된 세계유산목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등재된 유산 목록을 보면, 역사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는 유명하고 상징적인 장소, 유적, 건축, 기념물이 많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세계유산을 등재할 때는 당연히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정의는 구체화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지나면서 세계유산위원회는 신청 유산과 유사한 유산에 대한 비교 연구를 세계유산등재신청서에 포함시키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세계유산운영지침도 개정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최고 중의 최고"에 한정해서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2005년에는 세계유산운영지침은 대폭 개정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1977년부터 2021년까지의 몇몇 세계유산운영지침의 총 조항, 쪽 수 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977년 6월 27일에서 7월 1일까지 개체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채택된 세계유산운영지침은 총 27조항이고 11쪽 분량입니다. 1999년 운영지침은 총139조, 50쪽(목차, 부록 1, 2, 3 포함)이고, 2002년 운영지침은 총 54쪽(표지, 목차, 부록 1, 2, 3 포함, 1999년 운영지침을 수정한 것임) 이며, 2005년에 대폭 수정된 운영지침은 총 290조항, 151쪽. 9개 부록, 참고문헌, 색인으로 크게 수정, 보완됩니다. 이 틀은 현재까지의 운영지침의 기본 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08년 운영지침은 173쪽 이고, 2021년 7월 31일 마지막으로 개정된 운영지침은 총 290조항, 188쪽, 15개 부록, 참고문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보면, 세계유산위원회와 자문기구들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하기 위해 전문가 차원의 회의를 수차례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조선왕실의 태실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기 위해 태실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에 대해 강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유산 등재 대상은 "중대한 관심, 중요성 또는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속성을 가진 유산이 세계유산협약에서 제시한 "국가의 경계를 초월하고 모든 인류의 현재와 미래 세대에 공통적으로 중요할 정도로 매우 예외적인 문화적 중요성" 가졌음을 의미하는지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정의가 고정되어 있지 않듯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세계유산 등재기준 역시 수정, 보완됩니다. 여섯 항목으로 구성된 문화유산의 등재

기준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연도별로 몇몇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등재기준 (i)

1977 (i) 독특한 예술적 또는 미적 성취, 인간의 창조적 천재성의 걸작을 나타내는 것이거나, 또는

1980 (i) 독특한 예술적 또는 미적 업적, 인간의 창조적 천재성의 걸작을 나타내는 것이거나 또는;

1994 (i) 독특한 예술적 업적, 인간의 창조적 천재성의 걸작을 표현하거나 또는;

2002 (i) 인간의 창조적 천재성의 걸작을 대표하거나 또는;

2005 (i) 인간의 창조적 천재성의 걸작을 대표하거나 또는;

2021 (i)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에 해당해야 한다.

등재기준 (ii)

1977 (ii) 건축, 기념비적 조각, 정원 및 경관 디자인, 관련 예술 또는 인간 정착지의 후속 발전에 일정 기간 동안 또는 세계의 문화 영역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이거나, 또는

1980 (ii) 건축, 기념비적 예술, 또는 도시계획 및 조경의 발전에 오랜 기간 동안 또는 세계의 문화적 지역 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또는;

1994 (ii) 건축, 기념비적 예술 또는 도시계획 및 조경 디자인의 발전에 오랜 기간 동안 또는 세계의 문화적 지역 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또는;

2002 (ii) 일정한 시기 또는 세계의 문화적 영역 내에서, 건축의 발전이나 또는 기술, 기념비적인 예술, 도시계획 또는 조경설계에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보여주는 것이거나, 또는

2005 (ii) 일정한 시기 또는 세계의 문화적 영역 내에서, 건축 또는 기술의 발전이나 또는 기념비적인 예술, 도시계획 또는 조경설계에 대한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나타내는 것이거나 또는;

2021 (ii) 일정한 시기 또는 세계의 일정한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기념비적인 예술, 도시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의 발전에 인류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보여주어야 한다.

등재기준 (iii)

1977 (iii) 고유하거나, 매우 희귀하거나, 매우 오래된 것이거나, 또는

1980 (iii) 사라진 문명에 대한 독특하거나 적어도 예외적인 증거를 가진 것이거나, 또는;

1994 (iii) 사라진 문명이나 문화적 전통에 대한 독특하거나 적어도 예외적인 증거를 가진 것이거나, 또는;

2002 (iii) 문화적 전통이나 살아있거나 사라진 문명에 대해 독특하거나 적어도 예외적인 증거를 가진 것이거나, 또는;
2005 (iii) 문화적 전통이나 살아있거나 사라진 문명에 대해 독특하거나 적어도 예외적인 증거를 가진 것이거나, 또는;
2021 (iii)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여야 한다.

등재기준 (iv)

1977 (iv) 중요한 문화, 사회, 예술, 과학, 기술 또는 산업 발전을 나타내는 구조 유형의 가장 특징적인 사례 중 하나이거나, 또는
1980 (iv) 역사상 중요한 단계를 보여주는 구조 유형의 뛰어난 사례가 되거나, 또는;
1994 (iv)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단계(들)를 보여주는 건물 또는 건축 앙상블 또는 경관 유형의 뛰어난 사례가 되거나, 또는;
2002 (iv)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단계(들)를 보여주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또는 경관 유형의 탁월한 사례이거나, 또는;
2005 (iv)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단계(들)를 설명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또는 경관 유형의 탁월한 사례이거나, 또는;
2021 (iv)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단계(들)를 예증하는 건물유형,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또는 경관의 탁월한 사례여야 한다

등재기준 (v)

1977 (v) 본질적으로 취약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사회문화적 또는 경제적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진 중대하고 전통적인 건축 양식, 건축 방법 또는 인간 정착의 특징적인 사례이거나 또는
1980 (v) 하나의 문화를 대표하는 전통적인 인간 정착의 우수한 사례가 되어 되돌릴 수 없는 변화의 영향을 받아 취약해진 것이거나, 또는;
1994 (v) 문화(또는 여러 문화)를 대표하는 전통적인 인간 정착 또는 토지 이용의 뛰어난 사례로서, 특히 그것이 되돌릴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졌을 때나, 또는;
2002 (v) 문화(또는 여러 문화)를 대표하는 전통적인 인간 정착 또는 토지 이용의 뛰어난 사례로서, 특히 그것이 되돌릴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졌을 때나, 또는
2005 (v) 문화(또는 여러 문화)를 대표하는 전통적인 인간 정착, 토지 이용, 바다 이용 또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뛰어난 사례, 특히 되돌릴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졌을 때나, 또는;
2021 (v) 하나의(또는 여러) 문화 혹은 특히 되돌릴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진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대표하는 인간의 전통적 정주지, 토지 이용 또는 바다 이용의 탁월한 사례여야 한다.

등재기준 (vi)

1977 (vi) 사상 또는 신념, 사건 또는 사람과 가장 중요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역사적으로 중요하거나 중대한 것이거나.

1980 (vi) 사건과 직접적으로 또는 유형적으로 관련되거나 탁월한 보편적 중요성을 가진 사상 또는 신념과 관련이 있는 것. (위원회는 이 기준이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또는 다른 기준과 함께 목록에 포함되는 것을 정당화해야 한다고 생각함)

1994 (vi) 사건 또는 생활 전통, 사상 또는 신념과 직접적으로 또는 유형적으로 관련되거나 보편적으로 중요한 예술 및 문학 작품과 관련이 있는 것. (위원회는 이 기준이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또는 다른 기준과 함께 목록에 포함되는 것을 정당화해야 한다고 생각함);

2002 (vi) 사건 또는 생활 전통, 사상 또는 신념, 탁월한 보편적 중요성을 지닌 예술 및 문학 작품과 직접적 또는 유형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것. (위원회는 이 기준이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그리고 문화적 또는 자연적인 다른 기준과 함께 목록에 포함되는 것을 정당화해야 한다고 생각함);

2005 (vi) 사건 또는 생활 전통, 사상 또는 신념과 직접적으로 또는 유형적으로 관련되거나 보편적으로 중요한 예술 및 문학 작품과 관련이 있는 것. (위원회는 이 기준은 다른 기준들과 함께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2021 (vi) 탁월한 보편적 중요성이 있는 사건이나 살아있는 전통, 사상이나 신앙, 예술, 그리고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유형적으로 연관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이 기준은 다른 기준들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등재기준은 비록 연도를 달리하면서 변경된 내용을 보이지만 중심 주제는 유지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등재 기준 (i)은 '걸작'인 것을 대상으로 하고, (ii)는 '인간 가치의 교환'을, (iii)은 문화사 또는 문명사에 대한 '증거'를, (iv)는 유산의 '유형'과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v)는 '인류의 정착, 토지 이용 또는 바다 이용의 사례'를, (vi)은 '살아있는 전통, 사상, 신앙 등'이 바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판단하는 중심 주제 입니다.

등재기준 여섯 항목에 대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중심 주제가 정리되면서 세계유산위원회와 자문기구들은 세계유산 등재 대상을 산업유산, 근대유산, 문화경관 등으로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산업유산이나 근대유산은 유산의 속성과 시간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문화경관은 등재유산 대상이 점點에서 면面, 루트[선線]로 확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조선왕실의 태실은 유산의 속성을 새로운 문화 영역으로, 그리고 문화 다양성의 관점으로 해석하여 부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계적으로 태반을 특정 의례를 거쳐 처리하는 장태문화는 문화집단별로 다양합니다. 하지만, 왕족이나 권력집단의 장태 문화와 관련한 장소가 유형적으로 존재하거나 사적지로 관리되는 곳은 한국과 일본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왕실의 장태문화는 아주 다릅니다. 일본은 천황의 태반인 포의를 묻은 곳이 신사가 되거나 신사에 태반을 묻었습니다. 국가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왕실의 장태 문화를 보존하고 태실 등의 유형유산으로 보존해 온 사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제1차 보고서 p.477)**

이런 관점에서 조선왕실의 태실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해석을 더 확대해서 지금까지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유산의 속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이에 따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문화유산의 보존과 복원 전문가들은 유네스코가 세계유산협약을 체결하기 8년 전인 1964년에 베니스헌장(Venice Charter)을 선언하였습니다. 베니스 헌장 제1조는 "역사적인 기념물의 개념은 '단일 건축물(single architectural work)'뿐만 아니라 특정 문명, 중요한 발전 또는 역사적 사건의 흔적이 발견되는 '도시 또는 비非도시 환경(urban or rural setting)'을 포함한다. 이것은 위대한 예술 작품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문화적 의미를 획득한 과거의 보다 더 소박한 작품에도 적용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 등재 여부를 결정하는 세계유산위원회는 베니스헌장 제1조의 정의를 매우 다양한 시각으로 확장, 해석하여 이를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 반영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유산협약이 채택된 후 수십 년간 '문화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정의와 범주는 세계유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재조명, 확장되어 왔습니다. 이는 곧 문화유산의 개념이 문화의 다양성, 지역별 유산 유형의 특별성, 세계유산 대상의 포괄성 등을 인정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함을 뜻합니다.

조선왕실의 태실을 "세계유산의 관점에서" 그 속성을 새롭게 파악하여 탁월한 보편적 타당성을 제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앞으로 과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문헌]

건국대학교 세계유산연구소, 「조선왕조 태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기초연구 용역 보고서」, 성주군, 2021. 12.

건국대학교 세계유산연구소, 「조선왕조 태실 세계유산 확장 등재를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 성주군, 2022. 7.

ICOMOS ed., The World Heritage List: What is OUV?, Defining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f Cultural World Heritage Properties, Paris, International Secretariat of ICOMOS, 2008.

World Heritage Centre,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1977, 1978, 1980, 1988, 1994, 2001, 2005, 2011, 2021.

UNESCO,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Adopted by the General Conference at its seventeenth session, Paris, 16 November 1972.

「조선왕실의 태실을 통하여 본 세계유산 등재 대상 유산의 재조명」에 대한 요약문

하나의 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려면 반드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구비해야 한다. 이 글은 세계유산협약과 세계유산운영지침에서 규정한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발표 내용의 중심에 두고, 조선왕실의 태실을 살펴본 것이다.

세계유산협약과 세계유산운영지침의 핵심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개념, 정의 및 구성 요소에 있다. 이 글은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해 1). 탁월한 보편적 가치라는 용어 자체의 정의와 개념에 대해, 2).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구성 요소들에 대해 세계유산협약의 관련 내용, 그리고 세계유산운영지침의 개정, 보완의 역사와 함께 살펴본 다음, 이를 바탕으로 발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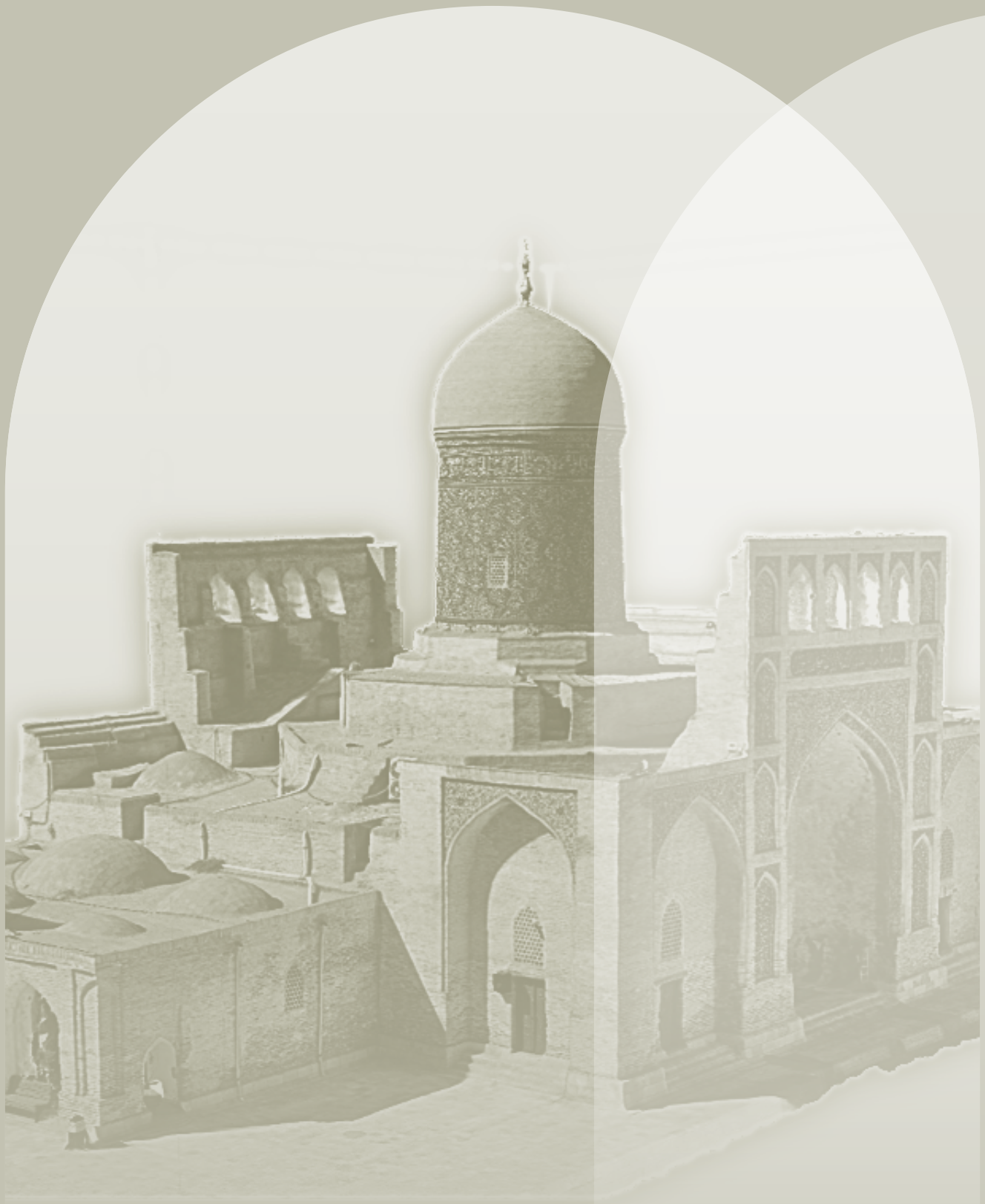
세계유산협약이 채택된 후 수십 년간 ‘문화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정의와 범주는 세계유산운영지침을 중심으로 재조명, 확장되어 왔다. 이는 곧 문화유산의 개념이 문화의 다양성, 지역별 유산 유형의 특별성, 세계유산 대상의 포괄성 등을 인정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함을 뜻한다. 조선왕실의 태실을 “세계유산의 관점에서” 그 속성을 새롭게 파악하여 탁월한 보편적 타당성을 제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앞으로 과제일 것으로 판단된다.

SUMMARY on「Mediating World Heritage-scape Through the Placenta of the Joseon Royal Family」

A heritage must hav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in order to be listed on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This article examines the Placenta of the Joseon Dynasty, focusing on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f world heritage stipulated in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and the World Heritage Operational Guidelines.

The core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and the World Heritage Operational Guidelines lies in the concept, definition and component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This article is about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f World Heritage 1). For the definition and concept of the term “Outstanding Universal Value” itself, 2). The components that serve as the basis for judging outstanding universal value are reviewed along with the history of revision and sup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Operational Guidelines, and the presentation is summarized based on this.

In the decades since the adop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the definition and category of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f ‘cultural heritage’ have been re-examined and expanded around the World Heritage Operational Guidelines. This means that the concept of cultural heritage should be understood as recognizing the diversity of cultures, the specificity of regional heritage types, and the inclusiveness of world heritage targets. It is believed that it will be a task in the future to devise a plan to newly grasp the attributes of the Joseon royal family's placenta ‘from the perspective of world heritage’ and present outstanding universal value.



I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세계유산 주도 전략 : 유산 관리 역량 강화

Central Asian countries' World Heritage Initiatives: Strengthening Heritage Management Capacity

드미트리 보야킨 | Dmitriy Voyakin

Dmitriy Voyakin, 국제중앙아시아연구소 소장 | Director, International Institute for Central Asian Studies

INTERNATIONAL INSTITUTE FOR CENTRAL ASIAN STUDIES
by the UNESCO Silk Road Programme

생명탄생문화의 상징,
조선의 가봉태실 세계유산을 꿈꾸다

중앙아시아 세계문화유산 사업

드미트리 보야킨

2021년 9월

'세계 문명이 교차하는 중앙아시아' 국제회의 개최(우즈베키스탄 누쿠스)

고고학유산 보존과 활용에 관한
중앙아시아 각국 정부와 연구공동체의
공동 비전을 담은 중앙아시아 최초의 전략
문서인 '중앙아시아 고고학유산 관리
원칙에 관한 선언문' 만장일치 채택

고고학과 관광 : 가능성 발굴과 유산 관리

INTERNATIONAL INSTITUTE FOR CENTRAL ASIAN STUD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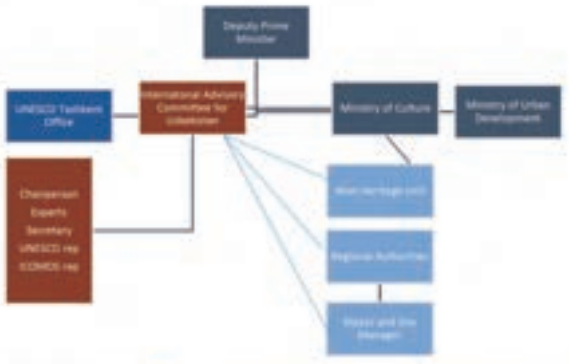
유네스코
우즈베키스탄위원회

SILK ROAD
INTERNATIONAL UNIVERSITY OF
TOURISM AND CULTURAL HERIT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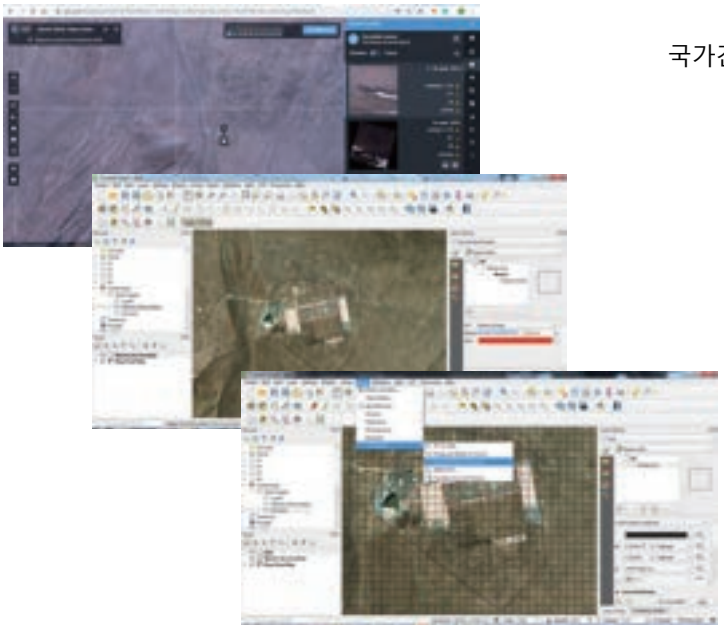
«유산관리»

중앙아시아 최초의
석사 과정 개설

2021년 9월



우즈베키스탄 세계유산을 위한 국제자문위원회



국가간 연속유산 '실크로드 : 창안-텐산 회랑 도로망' 의 구성요소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 방식

제시된 원격 모니터링 방식은 주로 다음 단계에 따라 진행된다.

1. 다음과 같은 필요한 특성을 고려해서 위성 영상 검색 및 내려받기
   a. 관심지역(AOI), 특히 영상을 제 3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b. 잠재적 위험요소 및 침해요소
   c. 공간 해상도 등 영상의 기술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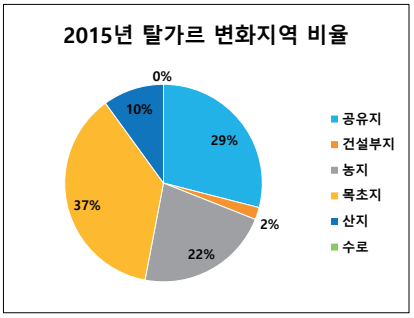
2. QGIS에 업로드 및 위치 참조 달기
   현재 보고서에 제시된, Google Earth, Bing 등에서 원격 탐지 데이터를 내려 받은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영상의 공간 해상도는 좋지만, 외딴 지역의 경우에는 업데이트 횟수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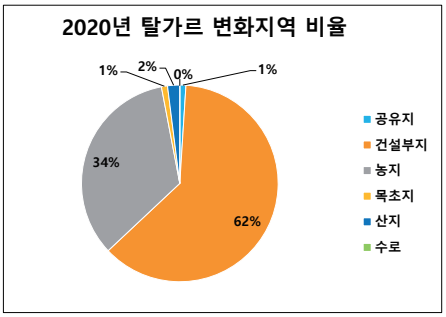
3. QGIS 도구를 활용해 시각적 분석 진행

4. 기록화, 분석 결과 보고서 작성
   이 단계는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과 정리를 위해 필요하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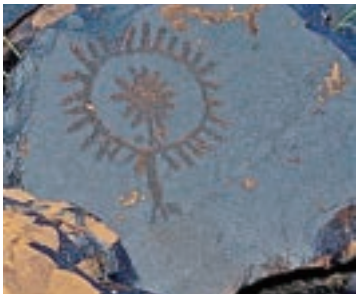
국가간 연속유산 '실크로드 : 창안-텐산 회랑 도로망' 의
구성요소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 방식





UNESCO와 국제중앙아시아연구소(IICAS)가 후원하는
국제자연 • 문화유산공간기술센터(H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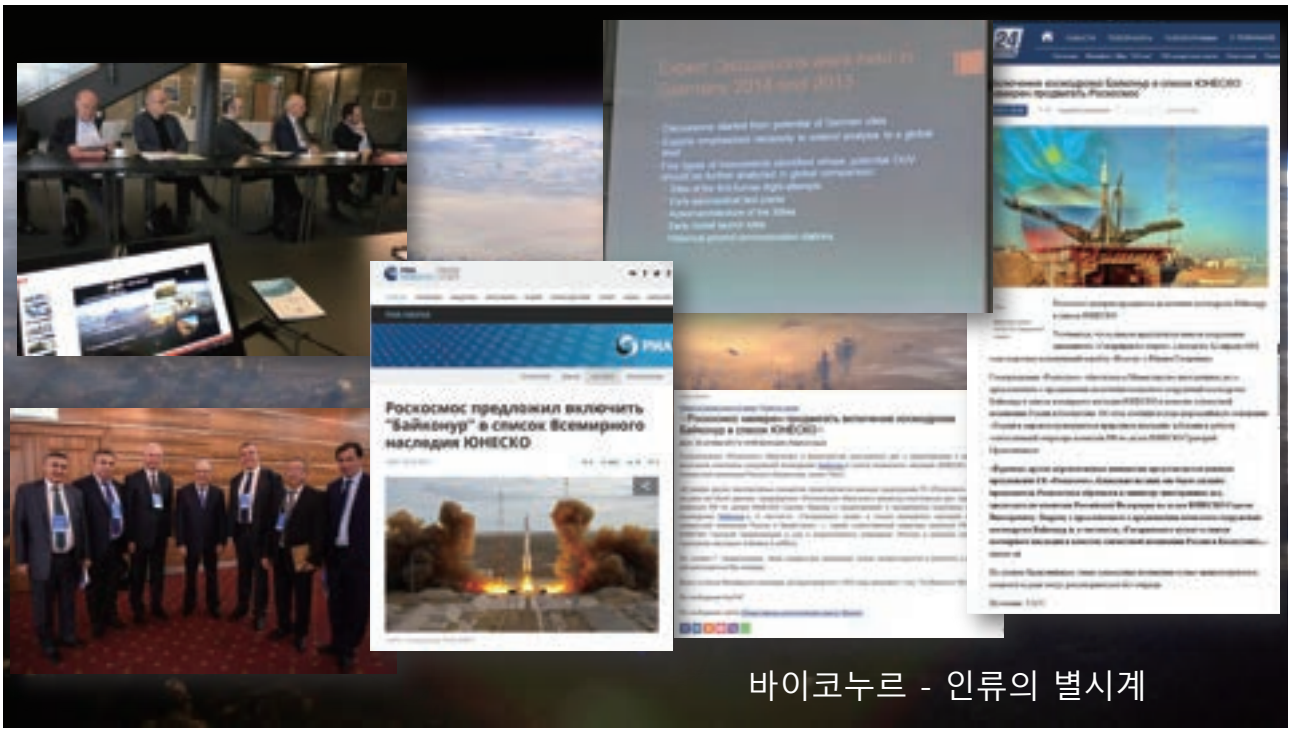
카자흐스탄 남부 아르파우젠 암각화(사진 촬영 : V.Novozhenov, A.Rogozhinsk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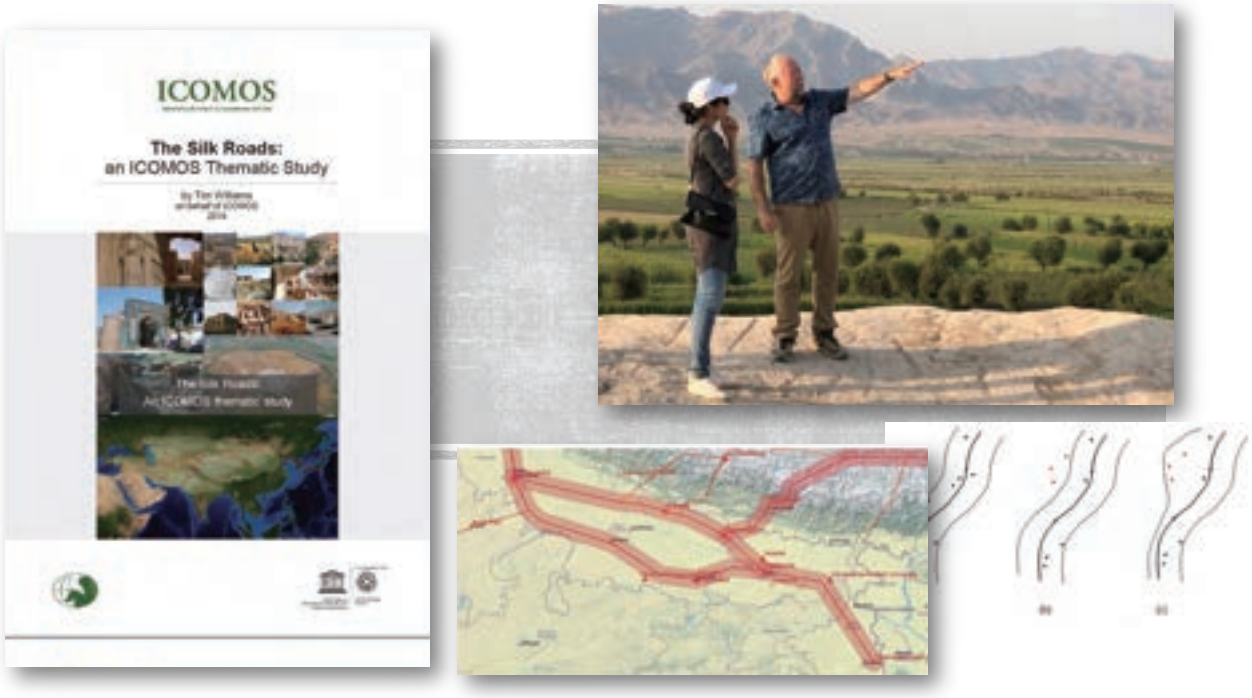


키르기스스탄 페르가나 산맥. 해발 3,500미터 이상. 태양 머리 신(사진 촬영 : V.Novozhenov, A.Rogozhinsky)

중앙아시아 대표 유산
a. 카자흐스탄(작성 : A. Rogozhinsky, V. Novozhenov)
b. 키르기스스탄 (작성 : Bakyt Amanbaeva)
c. 타지키스탄 (작성 : Bobomullo Bobomulloev)
d. 우즈베키스탄 (작성 : Mukhiddin Khuzhanazarov)
e. 투르크메니스탄 (작성 : Ejegul Muradova)

중앙아시아 암각화 문화경관


Роскосмос предложил включить "Байконур" в список Всемирного наследия ЮНЕСКО
바이코누르 - 인류의 별시계


ICOMOS
The Silk Roads:
an ICOMOS Thematic Study

자라프샨-카라쿰 회랑

이전 명칭 : 펜지켄트-사마라칸트-포이켄트 회랑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전문가 모임

CAAL 사업(UCL 대학 및 ARCADIA 기금 협력 사업):

CAAL

- 유물 인벤토리 작성
- 아카이브 자료 스캔(디지털화)
- 첨단 기술 활용 유물 기록화
- 통일된 GIS 데이터베이스 제작
- Arches 플랫폼 기반 최대규모 아카이브 데이터 포털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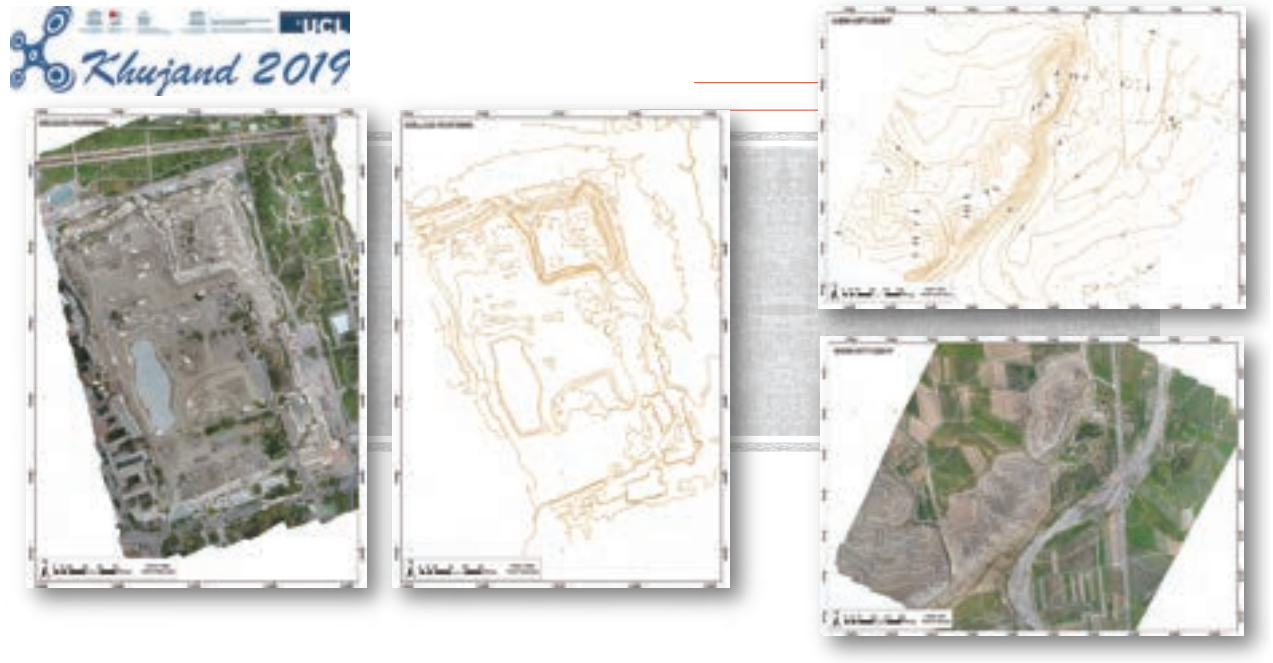
- 구소련 국가 : 기념물 여권
- 신장 : 국가 및 지역 주요 기념물 아카이브 자료
- 아카이브 현황 : 파편적이고 손상되기 쉬운 상태

Arches (버전 4) : 다언어 유산 인벤토리 플랫폼

Arches : 데이터 관리 및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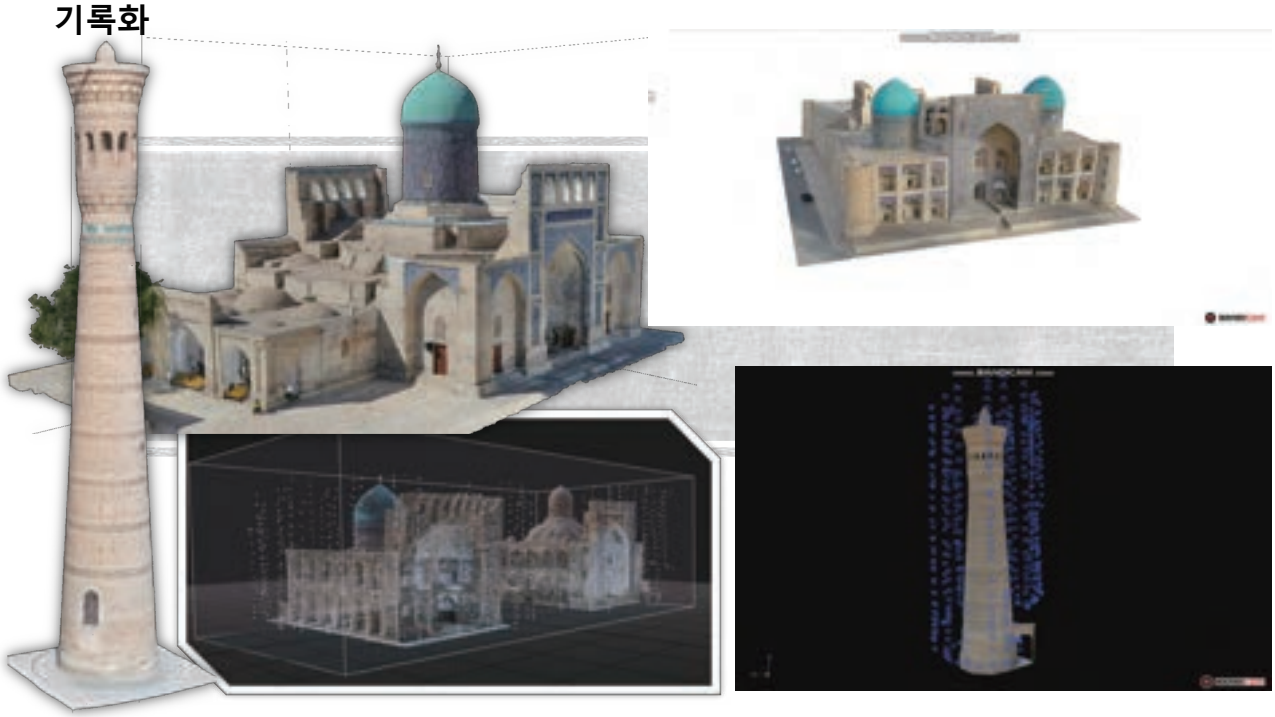
세미나
아슈가바트-메르브-아물

Khujand 2019
세미나
타지키스탄
후잔트(2019)


Khujand 2019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 차세대 전문가를 위한 기록화 및 실습 훈련(2019~2023)

기록화



2020년 9월에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한 신청서

- 신청서 본문 : 1,267 페이지
- 부록(4개) : 1,732 페이지

‘실크로드 : 자라프샨-카라쿰 회랑’ 세계유산 등재

사우디 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제45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기준 (ii), (iii) 및 (v)를 근거로 ‘실크로드 : 자라프샨-카라쿰 회랑’의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되었다(2023년 9월 17일).

‘실크로드 : 자라프샨-카라쿰 회랑’은 866 킬로미터에 달한다. 타지키스탄 9개, 우즈베키스탄 15개, 투르크메니스탄 7개 등 총 31개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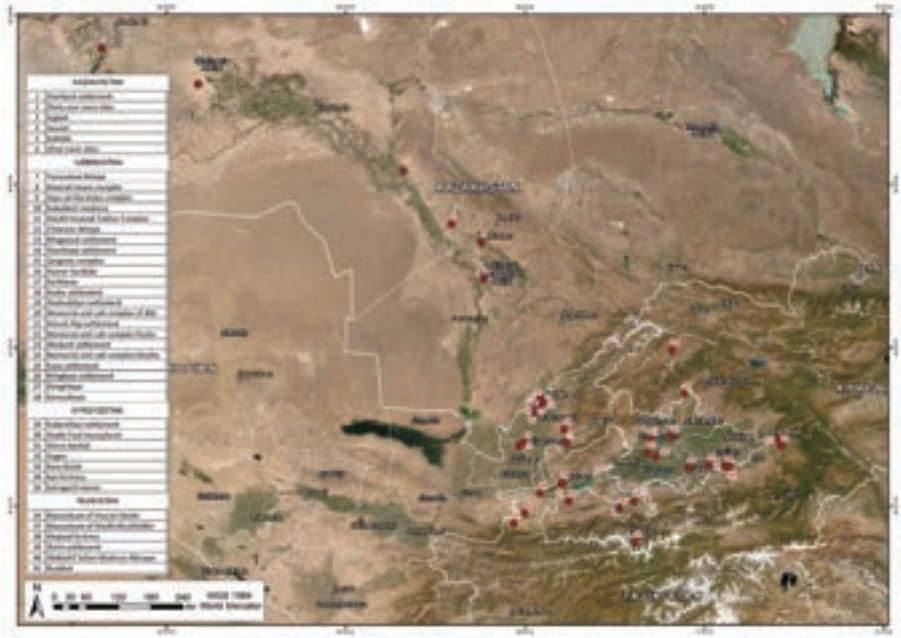
‘실크로드 : 자라프샨-카라쿰 회랑’에 대한 자세한 정보 : http://sr-zarafshan-karakum-corridor.unesco-iicas.org/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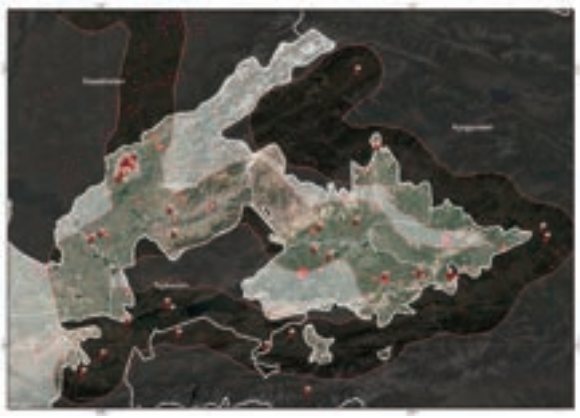
페르가나-시르다리야 회랑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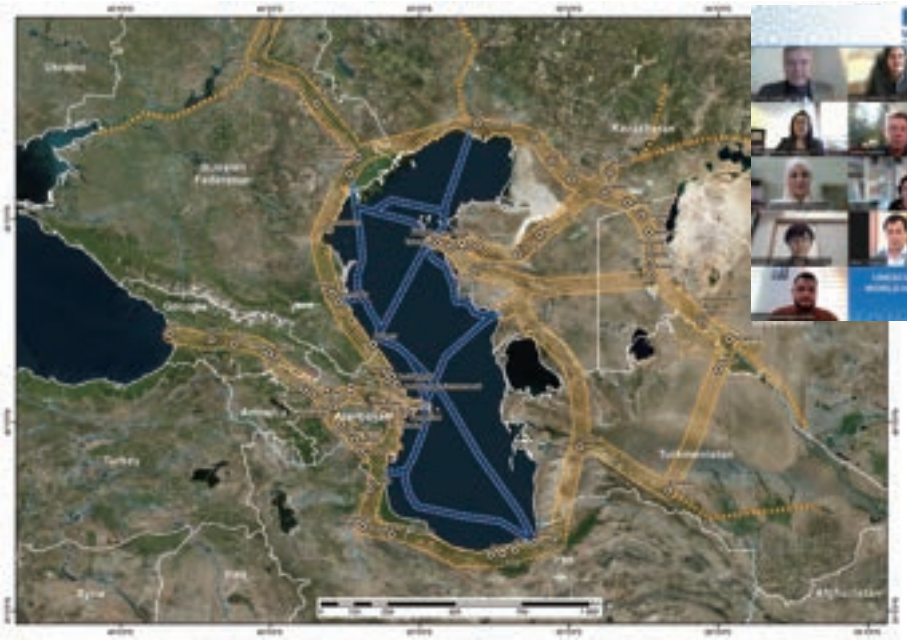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시르다리야 회랑

아제르바이잔

현장 실사 (2019)



볼가강-카스피해 실크로드 회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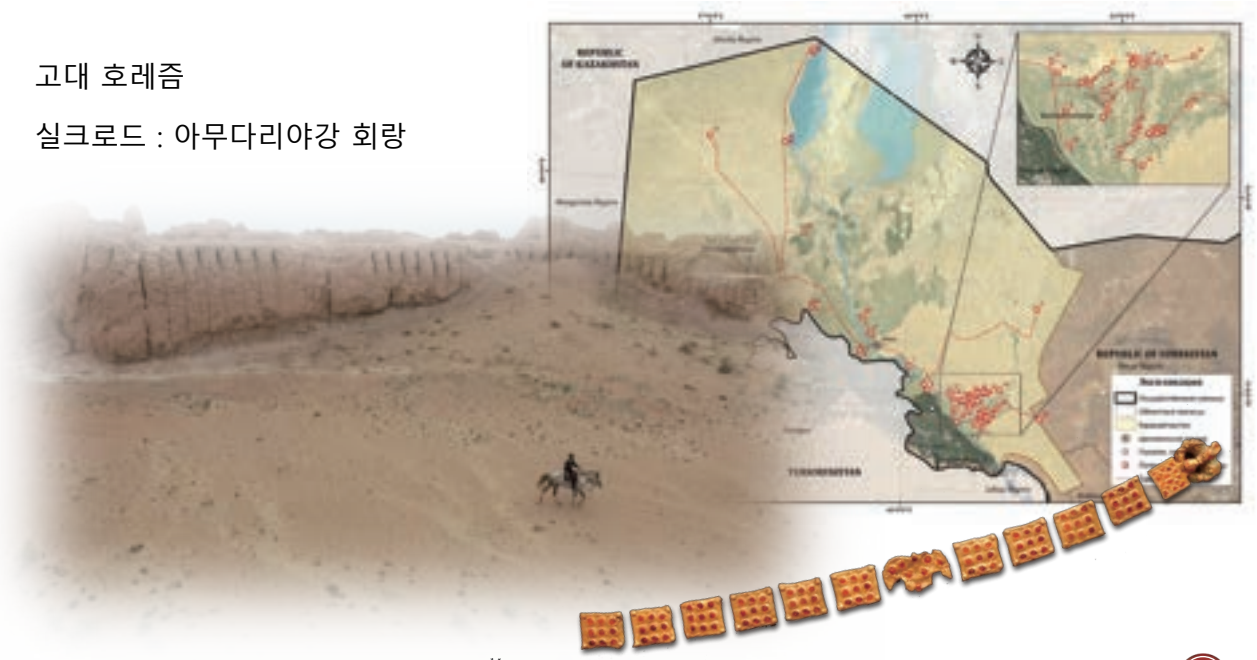
UNESCO 일본 신탁기금 사업
'실크로드 세계유산 등재 지원' 첫 워크숍

볼가강-카스피해 실크로드 회랑

UNESCO 일본 신탁기금 사업(3단계 실크로드) 실무 회의
(2023년 9월 5~8일 카자흐스탄 악타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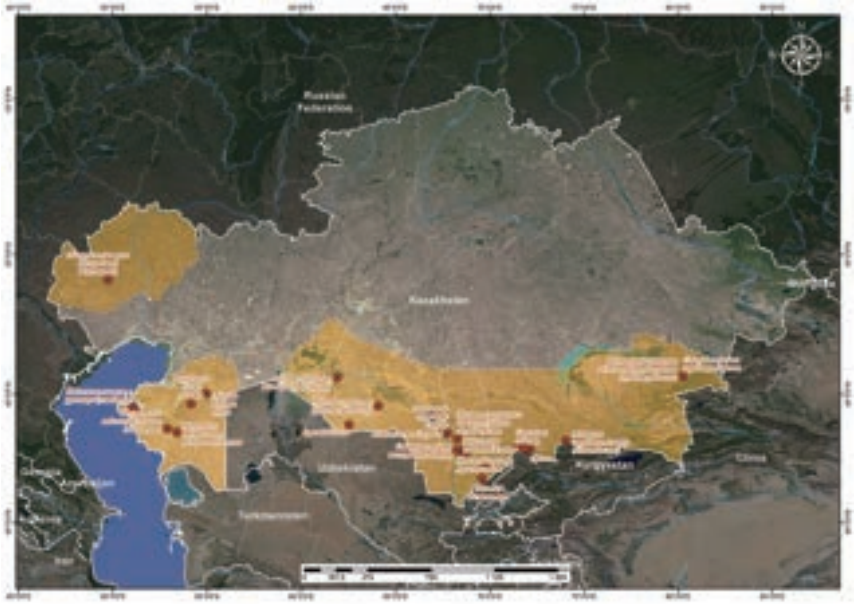
고대 호레즘

실크로드 : 아무다리야강 회랑



ПОТЕНЦИАЛЬНЫЕ СЕРИЙНЫЕ ТРАНСНАЦИОНАЛЬНЫЕ НОМИНАЦИИ

미즈다르칸의 세 언덕



중세 회교 사원과 첨탑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세계유산 주도 전략: 유산 관리 역량 강화」에 대한 토론문

강인욱(경희대학교 교수)

실크로드가 가진 세계유산에서의 잠재성은 토론자 역시 지적한 바 있으며(2019) 당시에 우려했던 자라프샨-카라쿰 세계유산도 등재가 되어서 이제 중앙아시아 5개국은 실크로드를 위한 공동의 유산을 지키고 보존하는 기반이 확립되었다. 이번 발표에서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실크로드를 이란, 아제르바이잔 등 서쪽으로 계속 확장해서 유라시아를 대표하는 여러 국가가 함께하는 세계유산으로 확장해가는 보야킨 박사의 노력을 잘 보여주었다. 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특정 국가의 자랑을 넘어서 세계가 함께 평화적으로 공동의 가치를 구현하는 가장 좋은 예라는 점에서 매우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주도한 발표자의 노력이 함축적으로 잘 반영되었다. 토론자는 유라시아 고고학 전공자로서 실크로드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이번 학술대회는 조선왕조 태실의 선정 가능성을 위한 타당성이 주요한 주제이다.

따라서 본 토론에서는 실크로드 세계 유산의 선정과 연구에서 한국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실크로드 세계유산 선정 경험이 조선 태실의 선정 준비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질의를 하여 발표자 보야킨 박사의 경험과 자문을 얻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첫 번째 실크로드 세계유산의 선정 과정에서 한국의 문화재청에서도 다양한 사업과 기금을 통해서 참여했는데, 제시된 자료에서는 그 부분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아울러 2019년부터 한국에서 ODA사업으로 중앙아시아 문화재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한국이 실크로드 세계유산 등재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또 향후 어떠한 부분에 참여가 필요한지 의견이 듣고 싶다.

두 번째는 태실이라는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유적에서 어떻게 세계적인 보편성에 기반한 가치(OUV)를 확보할지 홍보할지 고견을 듣고 싶다. 실크로드 유적의 경우 여러 나라에 그 유적이 퍼져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과 같이 국가의 정치와 경제의 정책에 활용되기도 한다. 보편적 문화재 가치에 대한 세계적인 연대와 움직임이었다. 반면에 태실은 중국과 일본에는 없는 유일무이하며 독특한 문화재이다. 중앙아시아에서도 태실과 같이 다른 곳에는 없는 유일무이한 유산이 많다. 예컨대, 카자흐스탄의 경우 사카시대의 쿠르간들이 많이 있고, 이들을 세계유산에 등재시키자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태실과 비슷한 지역적으로

한정된 세계 유산에 대한 중앙아시아 각국의 전략을 알고 싶다.

세 번째로 실크로드의 유물과 태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 태실은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한국만의 독특한 장법이다. 그런데 실크로드의 소그드인들에게도 비슷한 유물을 찾아볼 수 있으니, 바로 소그드인들이 남긴 오수아리(골호)이다. 태를 묻는 태항아리에 반해서 화장한 뼈를 묻었다는 점에서 차이는 있지만, 이 유물은 실크로드를 대표하는 독특한 무덤 양식으로 태실과 유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조로아스터교의 독특한 풍습이 낳은 실크로드의 오수아리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으며 또 그 문화재로서의 활용은 어떠한지 궁금하다.

소그드인의 오수아리(비시케크, 키르기스스탄)

성종의 태항아리

[참고문헌]

In Uk Kang 2019 Peace in Central Asia: Prognosis and Solutions for UNESCO's Silk Road Project The Role of UNESCO in the Search for Peac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pp 50~67

Discussion on「Central Asian countries' World Heritage Initiatives: Strengthening Heritage Management Capacity」

KANG In-uk(Professor at Kyung Hee University)

I discussed the Silk Roads in another article in terms of the property's potential for expansion as a World Heritage Site. In the same article, I expressed concerns about a section of the Silk Roads known as the Zarafshan-Karakum Corridor. Now that this section has entered the World Heritage List, frameworks have been fully prepared for the five Central Asian countries to cooperate for the conservation of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ir shared heritage. The presentation by Dr. Dmitriy Voyakin has demonstrated his leading role in the efforts to expand the Silk Roads as World Heritage further west to include other Eurasian states such as Iran and Azerbaijan. The Silk Roads is a stellar case illustrating how World Heritage can be used beyond nationalistic purposes to aim for peaceful endeavor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presentation has succinctly showed his contributions to accomplishing this achievement. I have immense interest in the Silk Roads as an expert in Eurasian archaeology. As this symposium is purposed to discuss the royal placenta chambers of the Joseon Dynasty, however, I will organize my comment in reflection of the main theme of the current event. I would like to seek Dr. Voyakin's expertise and knowledge through my questions regarding such matters as the role played or to be played by South Korea in the Silk Roads program and the lessons to be learned from the Silk Roads for the efforts underway for preparing Joseon's royal placenta chambers for World Heritage nomination.

First, I understand that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has participated in the Silk Roads program through funding and via other projects, a point not clearly marked in the presentation.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has been cooperating with Central Asian countries for the conservation of local heritage as part of it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program as well. It would be appreciated if Dr. Voyakin can share his knowledge and opinions regarding how South Korea contributed to the inscription of the Silk Roads and

what is expected from South Korea for the Silk Roads in the future.

Second, I would like to ask Dr. Voyakin to share his thoughts on how the royal placenta chambers of Joseon, a property of a limited geographical scale, can carve out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As the Silk Roads spans multiple countries, close coordination among them was necessary for its inscription. The Silk Roads is sometimes appropriated for national politics and economies as in the case of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The Silk Roads generated international collaboration and solidarity. Meanwhile, the royal placenta chambers of Joseon represent a unique funerary tradition of Korea, parallels of which is hard to find in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China and Japan. Central Asia is abundant in properties testifying to its distinctive traditions. One example can be kurgans from the Scythian period in Kazakhstan. I understand that there were endeavors made to nominate these kurgans for inscription on the World Heritage List. I would like to know how Central Asian states approach geographically limited properties like the royal placenta chambers when they try to put them on the World Heritage List and what are their strategies in this regard.

Third, I would like to know about Dr. Voyakin's thoughts on relations between artifacts associated with the Silk Roads and the royal placenta chambers of Joseon. The placenta chambers testify to a funerary practice unique to Korea. However, the Sogdian people had a similar tradition, which is evidenced by the surviving "bone jars." While placenta was placed in a jar in Korea, cremated bones were interred in a jar according to this Central Asian tradition. Despite this difference, there are many characteristics this distinctive funerary practice from the Silk Roads shares with Korea's placenta chamber tradition. I would like to know how the bone jars, the evidence of the distinctive Zoroastrian tradition, are managed and how they are utilized as cultural heritage.

II

조선왕실 가봉태실의 석조물 제도와 일본 근세 다이묘 묘 구조의 비교연구

朝鮮王室加封胎室の石造物制度と日本近世大名墓構造の比較研究

A comparative study on the masonry system of the Gabong Taesill of the Joseon Royal family and the mausoleum of daimyo in the modern period of Japan

松原典明

石造文化財調査研究所

마쓰바라 노리아키

松原典明, 일본 석조문화재 조사연구소 대표

Matsubara Noriaki

Research Institute of Stone Cultural Heritage

01
はじめに

朝鮮阿只胎室および加封胎室の上部構造を一見すると、日本の近世大名墓の構造に類似している。

胎室は、胎を納めた主体部（八角形の中心）に当たる部分を囲むように欄干石が巡り、欄干石内部は面裳石・隅裳石が密に敷かれ、その中央部四方石・中童石・蓋簷石（中央胎石）が据えられる。そして欄干石の外側正面に、特に王に即位した阿只胎室は、その前面に亀趺碑が造立された。この様な胎室の上部を石造物で荘厳する点もまた近世大名墓の構造に類似している。

日本近世大名は、戦国期という戦乱の世を乗り越え、徳川家康の家臣となり地方を治めるが、多くの大名は、17 世紀初頭、初代当主が没し、各領知に巨大な墓を築いた。その最初に築かれた墓の構造が、なぜ空間を異にしている朝鮮王陵・加封胎室・阿只胎室の構造に類似しているのかという点を考えてみたい。結論的には、近世大名家の墓所様式成立の背景に、朝鮮の墓制や習俗の一端を受容した結果ではなかろうかと考えている。

そこで、今回は、日本の近世大名墓の構造的な特徴を整理しながら、朝鮮半島の王陵や加封胎室と構造上の共通点や影響について触れてみたい。

目論見としては、朝鮮からの影響とその受容には二段階ある。最初は徳川家康墓所のように立地を重視、平地ではなく山上に墓所を構築する様式を受容した時期。そして第二段階は、平地に墓所を築き、基壇を構えるなどして墓所構造が画一化される中で、神道碑あるいは頌徳碑として亀趺碑を造立するという様式を受容した段階にある。この二段階に亘る様式受容に、朝鮮王陵あるいは胎室の影響があったのではなかろうかと考えている。特に二段階目の亀趺碑を造立する様式は、直接的ではないにしろ加封胎室様式の影響の一端とも考えられないであろうか。

朝鮮は、王陵も胎室も家父長制に基付き血統を重視した継承を国家の儀礼として実践された。一方、日本の近世期の大名墓の造営は、個々の「家」ごとの事情による実践であり、ここに大きな違いがある。幕府は、家の存続を重視することが日本の安定と発展につながると考え、為政者の相続を、血の繋がりがない擬制的親族による継承を認めたのである。この擬制的親族関係は、社会的・政治的なネットワークを広げることに繋がり文化圏をも醸成した。さらに、この文化圏は、特に婚姻関係を基盤にした場合が多く、冠婚葬祭における情報を共有することで、墓所造営において、朝鮮の王陵や胎室のような国家レベルの画一性は見られないものの、冠婚葬祭を基盤にしたネットワークごとの墓所様式の共通性を認めることもある。また、このようなネットワーク醸成は、豊富な知識を有した儒者の役割は大きかったものと思われる。儒者の知識は、『家礼』などのテク

01
들어가며

조선의 아기태실阿只胎室 및 가봉태실加封胎室의 상부구조를 보면 일본 근세日本近世의 다이묘(大名)의 묘墓 구조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조선의 태실은 태를 봉안한 주체부(팔각형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부분의 주위에 난간석을 두르고 난간석 내부에 면상석, 우상석이 조밀하게 깔려 있으며, 그 중앙부 사방석, 중동석, 개첨석(중앙 태석)이 설치된다. 그리고 난간석 외측의 정면에, 특히 왕으로 즉위한 태실은 그 전면에 귀부비가 조성되었는데 이러한 태실 상부를 석물로 장엄하는 점 또한 일본 근세의 다이묘 묘에 나타나는 구조와 유사해 보인다.

일본의 다이묘는 전국기戰國期라는 전란의 시대를 거쳐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의 가신家臣이 되어 지방을 다스렸는데, 많은 다이묘들은 17세기 초 초대 당주初代当主가 사망했을 때 각 영지에 거대한 무덤을 축조하였다. 그 최초로 축조한 묘의 구조가 왜 공간을 달리하고 있던 조선의 왕릉, 가봉태실, 아기태실의 구조와 유사한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는 근세 다이묘가의 묘역의 양식이 성립된 배경으로 조선의 묘제나 습속의 일부를 수용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에 이번에 일본 근세의 다이묘 묘의 구조적 특징을 정리하면서 조선의 왕릉이나 가봉태실의 구조상의 공통점과 영향에 대해 다루어보겠다.

다이묘의 묘제에 있어서 조선의 영향과 그 수용에는 두 단계가 있다. 처음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의 묘와 같이 입지를 중시하고 평지가 아닌 산상山上에 묘소를 구축하는 양식을 수용하던 시기,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평지에 묘를 조성하고 기단을 쌓는 등 묘의 구조가 획일화되는 가운데 신도비神道碑 혹은 송덕비頌德碑로서 귀부비龜趺碑를 세우는 양식을 수용하는 단계이다. 이 두 단계에 걸친 양식수용 과정에 조선왕릉 혹은 태실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특히 두번째 단계의 귀부비를 조성하는 양식은 직접적이지는 않더라도 가봉태실 양식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조선은 왕릉도 태실도 가부장 제도를 바탕으로 혈통을 중시한 계승이라는 차원에서 국가의례로서 시행한 것이지만 일본 근세기의 경우는 묘의 조영에 있어 각각의 '가문'이 실정에 따라 시행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막부幕府는 가문의 존속을 중시하는 것이 일본의 안정과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여 위정자의 권력 상속을 혈연적인 연결이 없는 의제적擬制的 친족에 의한 계승을 인정한 것이다. 이 의제적 친족관계로 인해 사회적·정치적 네트워크를 넓히는 기반이 되어 문화권이 양성되는 효과로도 이어졌다. 또한 이 문화권은 특히 혼인 관계를 기반으로 한 경우가 많아 관혼상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 말미암아 묘소의 조영에 있어서 조선의 왕릉이나 태실

ストから得た情報だけではなく、亀趺碑造立事情などを考えると、朝鮮通信などとの交流を通して得られた外来文化の受容も大きかったものと思われ、墓所造営へ反映された可能性も想定してみる必要もあろうかと思う。そこで、以下、日本の近世大名墓の概要を簡単に触れ、中でも徳川家康の墓所を始めとする山上に墓所を構築する様式と墓所に亀趺碑を伴う様式を中心に、朝鮮からの影響などを探ってみたい。

1. 近世大名墓の構造と変遷の概略

近世大名家墓所は、立地によって、徳川家康墓所が示すように山上に墓所を造営する山上様式と、平地に墓所を築く平地様式とに区分できる。山上様式については、朝鮮半島との関係から別項で示すことにする。先ずは、平地様式の近世大名家墓所について紹介しよう。

平地様式の近世大名家墓所は、山上様式とは別に、発展・展開し、画一化した。そして平地様式は、中世禅僧墓制を引き継ぐ霊廟様式と基壇様式に区分できる。霊廟様式は造営数は減るが、伝統的な正統的墓所様式として大名家は好んだ。基壇様式墓所は、基壇工法の工夫や付帯施設（石柵や墳丘）などが考案され、やがて画一的な大名家墓所構造として定着した。ここでは、この平地様式の墓所の類型を紹介しておきたい。

平地様式墓所は、構造上、以下の３類型（A~C）に分けられる **(図1)**。

Ａ類型は、中世の禅宗様式を引き継ぎ、霊廟内に碑を祀る霊廟様式である。さらに内部に祀る墓碑の基礎によって①壇上積み基壇、②間知基壇③低基壇・基台に細分できる。

Ｂ類型は、Ａ類型の碑を覆っていた霊廟が取り払われ、基壇を築き、墓碑を壇上に祀り可視化する墓所様式である。そして基壇の構築様式により①壇上積基壇様式、②間知積基壇様式、③低基壇様式に区分できる。

Ａ・Ｂ両類型は、埋葬した遺骸上に霊廟・基壇を設け、その中心に墓碑を祀ることを事を基本とするが、墳丘を構築する墓所構造では、碑は遺骸埋葬地より前に置く。

Ｃ類型は、図１には表示していないが、Ａ類型の覆屋や、Ｂ類型の基壇を構築せず、墓碑と墳丘が直接構築される類型である。また墓碑は、墳丘上か墳丘前に据えられる場合とに区分できる。C 類型は極めて少ない。

以上概観した近世期大名家墓所の平地様式の墓所構造は、図１に示したように展開した。中世から連続性があるＡ様式は、近世期を通じ確認できる点から正統的な様式といえる。そして、あまり時間を経ず 17 世紀初頭にはＡ類型の覆屋が無くなり、視覚的に高く祀る方式として、基壇を築くＢ類基壇様式が考案された。この様式の基壇は、寺院建築の建物基壇の影響が考えられる①壇上積基壇が比較的早く用いられ、続いて城などの石垣などの基礎として用いられた②間知積基壇様式・③低基壇様式が工夫された。そして②間知積基壇による墓所造営は、17 世紀後半から 18 世

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획일성은 보이지 않지만, 이러한 네트워크별로 관혼상제를 기반으로 한 묘소 양식의 공통성이 확인되는 경우도 찾을수 있다. 또한 이러한 네트워크의 양성은 풍부한 지식을 가진 일본 내의 유학자들의 역할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귀부비 조성과 관련해서 고려해 볼 때 유학자들의 지식은『가례』등에서 얻은 정보뿐만 아니라 조선통신사와의 교류를 통해 얻어진 외래문화의 수용도 크게 작용하여 묘의 조영에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상정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하 일본 근세의 다이묘 묘의 개요를 간략히 언급하고, 그 중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묘소를 비롯한 산상에 묘소를 구축하는 양식과 묘소에 귀부비를 수반하는 양식을 중심으로 조선으로부터의 영향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근세近世 다이묘(大名) 묘의 구조와 변천의 개요

다이묘가의 묘소는 입지에 따라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묘소가 보여주듯 산상에 묘소를 조영하는 산상양식과 평지에 묘소를 조영하는 평지양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산상양식은 조선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별항으로 제시하기로 하고, 먼저 평지 양식의 묘소를 소개하겠다.

평지 양식은 산상 양식과는 별도로 발전하고 전개되어 가면서 획일화하였다. 평지 양식은 중세의 선승묘제禪僧墓制를 잇는 사당 양식(원문은 靈廟樣式)과 기단 양식基壇 樣式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당 양식은 조영수는 적은 편이지만 전통적인 정통 묘소 양식으로 다이묘가 선호하였다. 기단양식 묘소는 기단공법과 부대시설(석책과 봉분) 등이 고안되어 곧 획일적인 다이묘가 묘소구조로서 정착되었다. 여기에서는 이 평지 양식의 묘소 유형을 소개하고자 한다.

평지 양식 묘소는 구조상 다음과 같은 3유형(A~C)으로 나뉜다(도 1).

A 유형은 중세의 선종 양식을 이어받아 영묘 내에 비석을 모시는 묘 양식이다. 또한 내부에 모시는 묘비의 기초에 따라 ①단상쌓기(壇上積) 기단, ②간지석間知石 기단, ③낮은 기단(低基壇)·기대基臺로 세분할 수 있다.

B유형은 A유형의 비석을 덮고 있던 사당이 제거되고 기단을 쌓아 묘비를 단상에서 제사함으로서 가시화하는 묘소 양식이다.

그리고 기단의 구축양식에 따라 ①단상쌓기 기단 양식(균일한 크기로 직각으로 가공한 석재를 규칙적으로 쌓은 기단: 역자주), ②간지석쌓기 기단 양식(석축에 사용되는 사각뿔 모양의 석재의 바닥 면이 겉으로 드러나도록 쌓고 안쪽의 석재 사이를 충진하는 방식: 역자주), ③낮은 기단 양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A·B 두 유형은 매장한 유해 위에 사당과 기단을 설치하고 그 중심에 묘비를 모시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봉분을 구축하는 묘소구조에서 비석은 유해 매장지보다 앞쪽에 둔다.

C유형은 도 1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A유형의 가옥시설이나 B유형의 기단을 구축하지 않고 묘비와 봉분이 직접 구축되는 유형이다. 또한 묘비는 봉분 위나 봉분 앞에 세워지는 경우로 세분된다. C유형은 매우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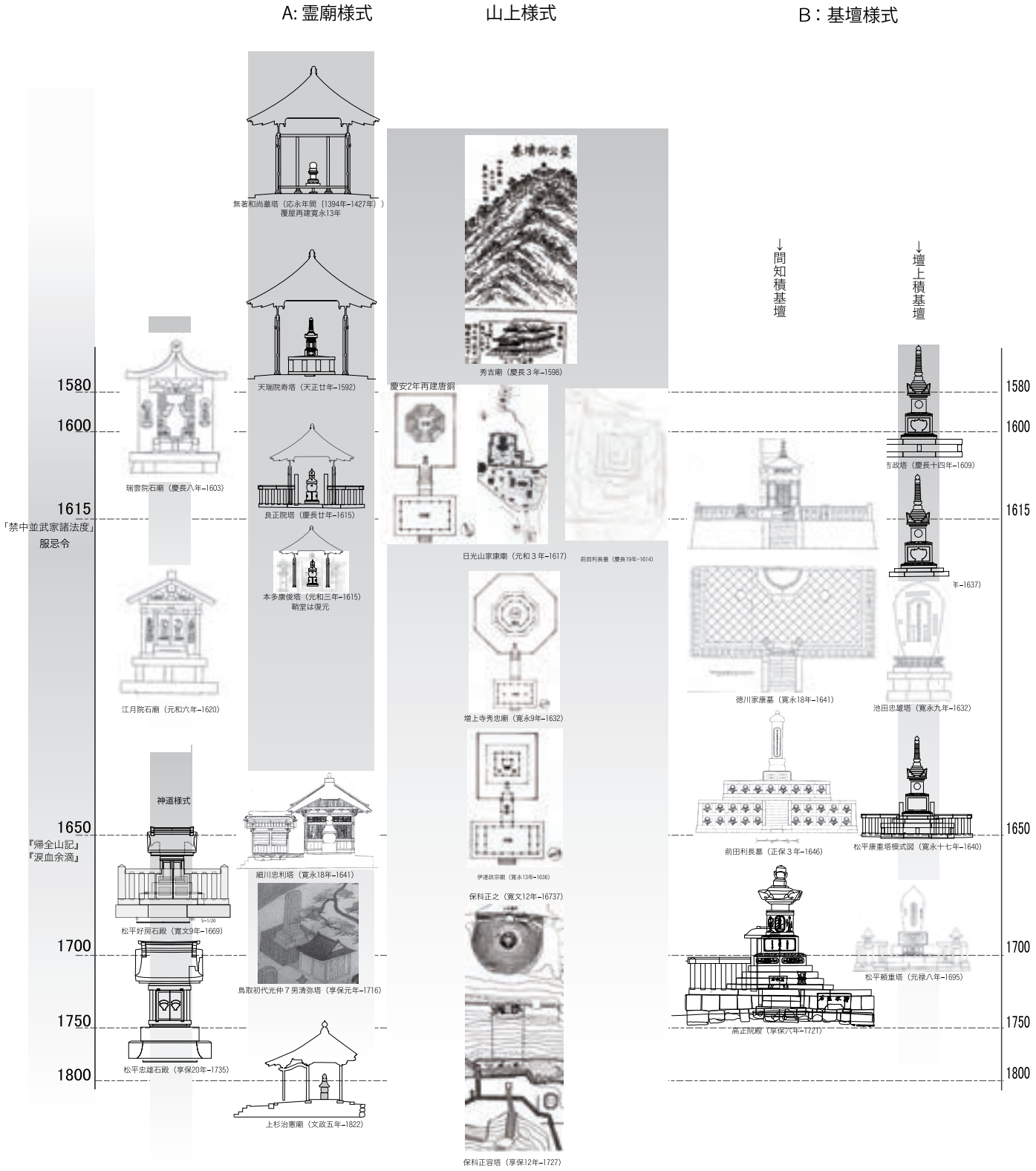


図1　近世墓所構造様式変遷分類図
일본 근세 묘소구조 양식변천 분류도

이상 개관한 근세기 다이묘가 묘소의 평지 양식 묘소구조는 도 1과 같이 전개된다. 중세부터 연속성이 있는 A양식은 근세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통 양식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17세기 초에는 A유형의 가옥 시설이 없어지고 시각적으로 높이 모시는 방식으로 기단을 쌓는 B류 기단 양식이 고안된다. 이 양식의 기단은 사찰건축 건물 기단의 영향으로 생각되는 ①단상쌓기 기단이 비교적 빨리 사용되었고, 다음으로 성벽 축조 등의 기초로 사용된 ②간지석쌓기 기단 양식과 ③낮은 기단 양식 순으로 고안되었다. 그리고 ②간지석쌓기 기단에 의한 묘소 조영은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초까지 획일적인 묘소구조로서 보급되었다. 한편, B류 기단 양식이 획일적 묘소 구조로 보급되는 가운데 새롭게 묘비, 신도비, 송덕비로서 귀부비가 추가되는 묘소가 17세기 중엽 이후 등장한다. 귀부비가 부속된 묘소에 대해서는 산상 양식의 묘소구조와도 관련되므로 나중에 별항으로 소개하겠다.

이상 근세 다이묘의 묘소에 대해 소개하였는데, 이른바 무가(武家)의 묘소구조이다.

참고로 일본의 근세 천황 관계의 묘소에 대해서도 언급해 두고 싶다.

고코우묘 천황(後光明天皇) 이후의 근세 천황, 황후는 교토(京都)의 쓰키노와노미사사기(月輪陵)를 묘소로 하고 있다. 천황 황후묘소 구조는 B류 단상쌓기 기단위에 천황은 13층탑, 황후는 보협인탑(寶篋印塔)을 묘비로 조성하고 있다. 또한 장제를 언급하면 근세천황은 고코우묘 천황의 장례를 선례로 삼아 이를 본 떠 매장되었으며, 주희의 『가례』에 의한 유장儒葬임이 문헌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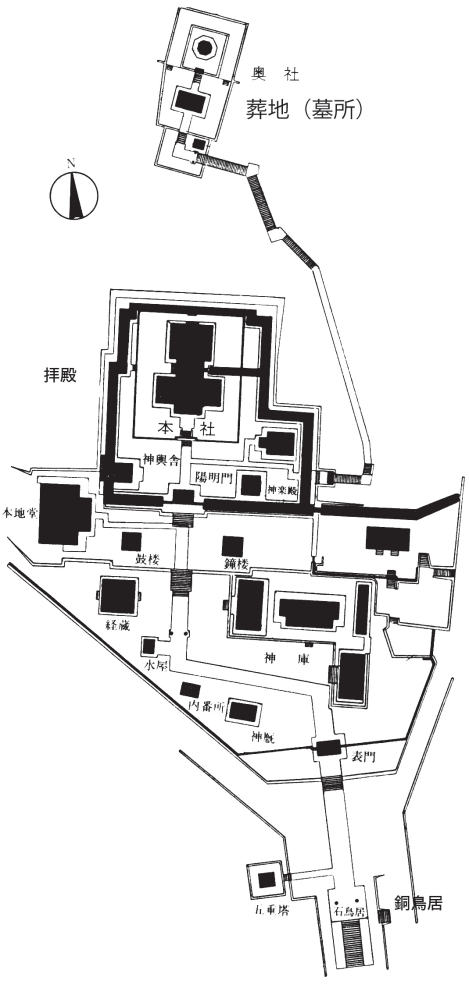


図2　徳川家康日光廟平面図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닛코묘(日光廟) 평면도

2. 산상양식 묘와 조선왕릉의 접점

산상양식으로 분류하는 특징은 입지立地에 있다. 낮은 산의 능사면 혹은 산정상에 유해를 매장한다. 시설 상부는 중세 이래의 사당(A류)을 건립하는 것과 기단을 설치하고 그 위에 묘비를 모시는 양식(B류)이 있다. 경사면 아래에 배전拜殿을 설치하였다.

필자가 아는 한 중세에는 유해를 산 위에 모시는 양식의 묘소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근세의 시작점이 되는 첫 묘소인 도쿠가와 이에야스 묘소의 구조(도 2)를 분석하면서 그 연원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지역을 불문하고 아시아적인 시각으로 넓게 바라보았을 때 거대한 공간구성을 가진 묘역으로서 베트남 완조왕릉

紀初頭には、画一的な墓所構造として普及した。また一方で、B類基壇様式が画一的墓所構造として普及する中、新たに墓碑・神道碑・頌徳碑として亀趺碑が付帯される墓所が 17 世紀中葉以降登場する。亀趺碑が付属する墓所については、山上様式の墓所構造とも関連するので後に別項として紹介する。

以上、近世大名の墓所を紹介したが、所謂、武家の墓所構造である。参考までに近世天皇関係の墓所についても紹介しておきたい。

後光明天皇以下、近世天皇・皇后は、京都の月輪陵を墓所とした。天皇・皇后墓所構造は、B類壇上積基壇の上に天皇は 13 重層塔、皇后は宝篋印塔を墓碑とし造立している。なお、葬制につて触れると近世天皇は、後光明天皇の葬礼を先例としてこれに倣って埋葬されていて、朱熹『家礼』による儒葬であることが文献研究から明らかになっている(1)。

2. 山上様式墓所と朝鮮王陵との接点

山上様式とした分類の特徴は、立地にある。低山の丘陵斜面あるいは山頂に遺骸を埋葬する。施設上部は、中世以来の霊廟（A 類）を建立する場合と、基壇を設けその上に墓碑を祀る様式（B類）である。さらに斜面下に、礼拝所（拝殿）を設置している。

管見では、中世において遺骸を山上に祀る様式の墓所は確認できない。そこで、近世の初源的初墓所である徳川家康墓所構造（**図2**）の淵源を考えてみたい。

巨大な空間構成を有する墓域につて、地域を問わず広くアジアに求めると、管見ではベトナムの阮朝王陵が挙げられる。広域な空間構成の墓域に霊廟と拝殿を有する点で共通するが、立地の違いがある。またフェイ王朝の成立年代は、中国の影響下において 19 世紀初頭であるため家康墓所に対する影響という意味では、除外される。次にベトナム王朝以外では、中国・朝鮮の王陵があげられる。中国王陵は、平地を利用した寝陵であるのでこれも対象外であろう。

一方、朝鮮王陵は、風水によって陵の場所を選地しており(2)、王陵の空間構成は、地形に影響されるものの、主体部を斜面上方に設置し、その前面斜面下に拝殿を設置しており共通するのではなかろうか。

顕陵(3)の空間構成（**図3**）を具体的に見てみると、紅箭門で結界された聖域内は、長い直線的な参道を設置し、参道を進むとT（丁）字閣という拝殿が設えられている。この拝殿には、儀礼に応じて木主が祀られる。拝殿は、舌状に張り出した丘陵先端上の主体部（墳丘）を望む位置に設置している。墳丘（陵寝）の正面中央に八角形笠の燈籠、墳の正面に遊魂台が配される。また墳丘の周囲に武人・文人・動物（虎・羊）など計 84 余が封墳を囲み護っている。地形的には、先に触れたように、風水に従い背山臨水の山麓に撰地し、四方を山や丘陵に囲まれたいわゆる小さな盆地状の地形を兆域としているのが特徴である。

阮朝王陵을 꼽을 수 있다. 넓은 묘역의 공간구성에 사당과 배전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입지의 차이가 있다. 또한 페이 왕조의 성립 연대는 중국의 영향하에 19세기 초이기 때문에 이에야스 묘소에 대한 영향이라는 의미에서는 제외된다. 다음으로 베트남 왕조 이외에 중국, 조선의 왕릉을 들 수 있는데 중국의 왕릉은 평지를 이용한 침릉寢陵)이므로 이 또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조선왕릉은 풍수에 따라 능의 장소를 선정하고 있으며[2] 왕릉의 공간구성은 지형에 영향을 받지만 주체부를 사면 상부에 설치하고 그 전면 사면 아래에 배전을 설치하고 있어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현릉[3]의 공간구성(도 3)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홍살문으로 결계된 성역 내에는 직선적인 긴 참도參道를 설치하고 참도를 따라가면 T자각丁字閣 이라는 배전이 설치되어 있다. 이 배전에는 의례에 따라 목주木主를 모신다. 배전은 설상舌狀으로 뻗은 구릉의 끝에 주체부(봉분)의 위치를 잡아 설치하였고, 봉분(능침) 정면 중앙에 팔각형의 지붕을 가진 석등, 봉분 정면에 혼유석이 배치된다. 또한 봉분 주위에 무인·문인·동물(호랑이·양) 등 총 84여 개가 봉분을 둘러싸고 있다. 지형적으로는 앞서 언급했듯이 풍수에 따라 배산임수의 산기슭을 선정하고 사방이 산과 구릉으로 둘러싸인 이른바 작은 분지 형태의 지형을 조역으로 삼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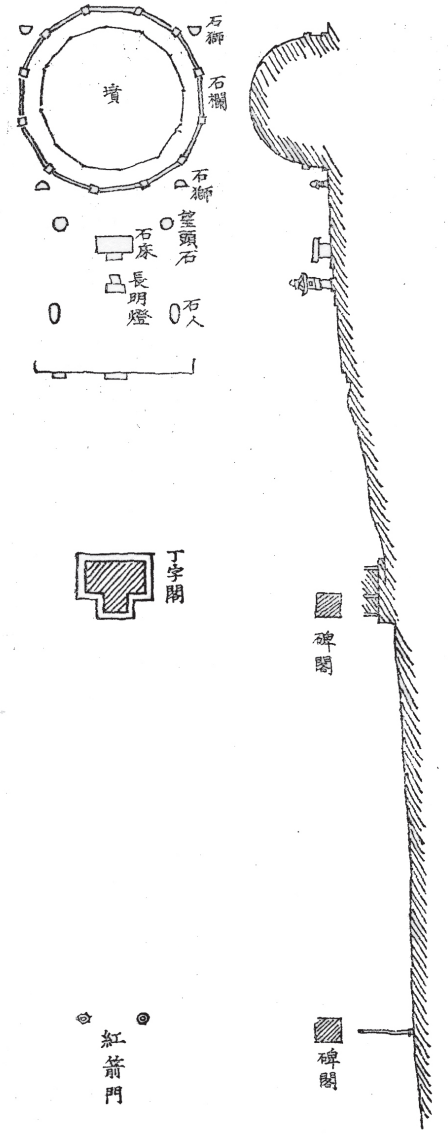


図3. 朝鮮王陵第5 代文宗:顯陵{1441 沒}(註3)
조선왕릉 제5대 문종: 현릉(1441沒)

이상과 같이 자연 지형을 이용하여 쌓은 역대 조선왕릉의 공간구조양식에서 볼 수 있는 홍살문, T(丁)자각, 그리고 구릉 단부에 마련된 능침양식은 이에야스(家康) 묘소(도 2)의 문(도리이[鳥居]), 배전拜殿, 봉분묘라는 양식에서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이에야스의 장송葬送은 문헌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으나 묘소 양식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되지 않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간구조의 유사성 등으로 미루어 그 연원에 대해 조선 왕릉양식과의 비교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조성 배경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주시하고자 한다. 이에야스는 생전에 가해자인 일본과 조선과의 복잡하고 어려운 외교협상에서 수교를 위한 협상에 스스로 적극 대치했다. 사이쇼 조타이(西承笑兌), 게이테츠 겐소(景徹玄蘇), 키오우 엔니(虛應円耳) 등 임제선臨濟禪 승려의 중개로 조선 중기의 고승인 송운대사松雲大師와 회견하고 교섭에 임했다. 선승 등은 대선지식大善知識의 송운대사와 시문詩文을 교환하며 친분을 쌓았다.[4] 이때 무대는 교토이지만 하야시 라산(林羅山)도 함께 친교를 나누었다고 한다.[5] 이처럼 송운대사의 끈기 있는 노력으로 일본의 장

以上のように自然地形を利用して築かれた歴代朝鮮王陵の空間構造様式に見られる紅箭門、T（丁）字閣、そして丘陵端部に設けられた陵寝の様式は、家康墓所（**図2**）の門（鳥居）、拝殿、墳墓という様式に共通するのではなかろうか。

家康の葬送については、文献研究から明らかにされているが、墓所様式についてはあまり触れられてこなかったが、これまで見たように、空間構造の類似性などから、その淵源は朝鮮王陵の様式との比較検討が必要であろう。そこで、造立背景のいた単として次の点を注視したいと考えている。家康は、生前、自ら加害者である日本と朝鮮との複雑で困難な外交交渉において、国交修復のための交渉に積極的対峙した。西承笑兌・景徹玄蘇・虚応円耳等の臨済禅僧侶を仲介として松雲大師との会見・交渉に向き合った。禅僧等は大善知識の松雲大師と詩文の交換から親交を重ねた[4]。この時舞台は京都であるが、林羅山も親交を深めいていたという[5]。この様に松雲大師の辛抱強い尽力により日本の障壁が取り除かれ、朝日関係の修復の糸口が開かれた。慶長 12 年（1607· 宣祖 40 年）には、漸く両国の通信関係が樹立再開した。この様な経緯を考えると、秀吉の犯した重罪に対する要求である「犯陵賊縛送」などの事情を背景に、家康は朝鮮王陵の様々な葬墓制についての情報を得ることが多かった可能性は否めない。家康にとって性理学(朱子学)に基づいた秩序だった朝鮮王陵の葬墓制への憧憬が、自らの山上墓所様式構築に反映させたのではなかろうか。ここに朝鮮王陵との大きな接点があったのではなかろうか。

近世日本における徳川家康墓所様式は、その後の日本国内において、所縁の有る大名家が受容・変容させ派生した。特に山上様式に亀趺碑が伴うようになる点は、朝鮮王陵や胎室の様式からの何らかの影響の可能性を示唆してしてはいないだろうか。後に示すが、会津藩歴代藩主墓所で確認される八角形の石造物や、巨大な亀趺碑造立の淵源は、胎室との関係を想起させる。

先ず、山上様式墓所における亀趺碑の伴う墓所を紹介したい。

朝鮮王陵様式のように風水による選地と思われる山上様式の墓所は、18 世紀前半頃までに下記の各地の大名らが造営した。

土佐藩（高知県）山内家墓所は筆山、大洲藩（愛媛県）加藤家墓所は龍護山、岡山藩（岡山県）池田家墓所は和意谷、会津藩（福島県）保科家墓所は美祢山と院内、盛岡藩（岩手県）南部家墓所は桜山、水戸藩（茨木県）水戸徳川家墓所は瑞龍山、加賀藩（石川県）前田家墓所は卯辰山に、鹿島藩鍋島家墓所（鹿児島県）は圓福山に墓所を設けており、風水に則った丘陵地頂や低山頂部に家康墓所様式を取り込んだ山上様式の墓所であると理解している。

さらに、初期の家康墓所様式には備わっていなかった新たな要素として、17 世紀中葉以降から 18 世紀初頭（**図4**）に、山上様式の墓所に鎌首を持ち上げたタイプの亀趺碑が造立される点は特徴的あり、朝鮮の影響を想起させる。17 世紀中葉以降から 18 世紀初頭は、幕府儒者として林羅山・林鵞峰などが朝鮮通信使を介して情報交換を積極的に行た時期であり、多くの情報を入手している。また､当時､対馬藩を介して『東医宝鑑』をはじめ多くの医学書などを懇願している時期でもあった。そして多くの中国文献は、朝鮮経由で翻刻され、日本に移入されていることを捉えると、墓

벽이 제거되고 조일관계 수복의 실마리가 열렸다. 게이초(慶長) 12년(1607, 선조 40)에는 점차 양국의 통신관계가 수립, 재개되었다. 이러한 경위를 고려할 때 히데요시(秀吉)가 저지른 중죄에 대해 요구되었던 '犯陵賊縛送'(왜란 중에 조선왕릉을 파헤친 일본군을 압송하라는 조선의 요청; 역자주) 등이 있었던 배경으로 이에야스는 조선왕릉의 다양한 장묘제도에 대한 정보를 얻을 기회가 많았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야스에게 성리학(주자학)에 기초한 질서였던 조선왕릉의 장묘제도에 대한 동경이 자신의 산상묘소 양식 구축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이것이 조선왕릉과 큰 접점이 되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근세 일본에 있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묘소 양식은 이후 일본 내에서 이에야스와 연결이 있는 다이묘 가문이 수용하고 변용되어 파생되어 갔다. 특히 산상양식에 귀부비가 동반되는 점은 조선왕릉이나 태실 양식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후술하겠으나 아이즈번(會津藩)의 역대 번주 묘소에서 확인되는 팔각형 석조물이나 거대한 귀부비 조성의 연원은 태실과의 관계를 상기시킨다.

먼저 산상양식 묘소에 있어서 귀부비를 동반하는 묘소를 소개하고자 한다.

조선왕릉 양식과 같이 풍수에 의해 땅을 가려 선택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산상 양식의 묘소는 18세기 전반경까지 아래 각지의 다이묘들이 조영하였다.

도사번(土佐藩, 高知縣)의 야마우치가(山內家) 묘소는 히쓰잔(筆山)에, 오즈번(大洲藩, 愛媛縣) 가토가(加藤家)의 묘소는 류고잔(龍護山)에, 오카야마번(岡山藩, 岡山縣)의 이케다가(池田家) 묘소는 와이다니(和意谷)에, 아이즈번(會津藩, 福島県)의 호시나가(保科家) 묘소는 미네잔(美祢山)과 경내, 모리오카번(盛岡藩, 岩手縣) 난부가(南部家) 묘소는 사쿠라야마(櫻山)에, 미토번(水戶藩, 茨木縣)의 미토 도쿠가와가(水戶德天家) 묘소는 즈이류산(西龍山)에, 카가번(加賀藩, 石川縣)의 마에다가(前田家) 묘소는 우타츠야마(卯辰山)묘소에, 가고시마번(鹿兒島藩) 나베시마가(鍋島家)의 묘소(鹿兒島縣)는 엔푸쿠잔(圓福山)에 묘소를 두고 있어 풍수에 따른 구릉지 정상이나 낮은 산 정상부에 묘소를 조성하는 이에야스 묘소의 양식을 접목한 산상양식의 묘소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초기 이에야스 묘소 양식에는 갖추어져 있지 않았던 새로운 요소로 17세기 중엽 이후부터 18세기 초(도 4)에 산상양식의 묘소에 거북의 목을 치켜든 유형의 귀부비가 조성되는 점은 특징적이어서 조선의 영향을 상기시킨다. 17세기 중엽 이후부터 18세기 초는 막부 유학자로서 하야시 라산(林羅山), 하야시 가호(林鵞峰) 등이 조선통신사를 통한 정보교환이 적극적으로 행해진 시기로서 많은 정보가 입수되었다. 또한 당시 쓰시마번(對馬藩)을 통해 『동의보감』을 비롯한 많은 의학서 등을 요청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했다. 그리고 많은 중국 문헌은 조선을 경유, 번각飜刻되어 일본으로 이입되고 있음을 주목한다면 묘소의 구조나 상장제 등도 이러한 일본 유학자들의 정보교환을 통해 조선에서 도입되었을 가능성도 등한시할 수 없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도 모든 측면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근세기 일본의 묘소에 조성된 귀부비의 주된 목적은, 중국 능묘와 같은 거대한 신도비가 아니라 조선의 태실에서 보이는 태주胎主의 정당성이나 왕위를 나타내는 귀부비(태주의 이름)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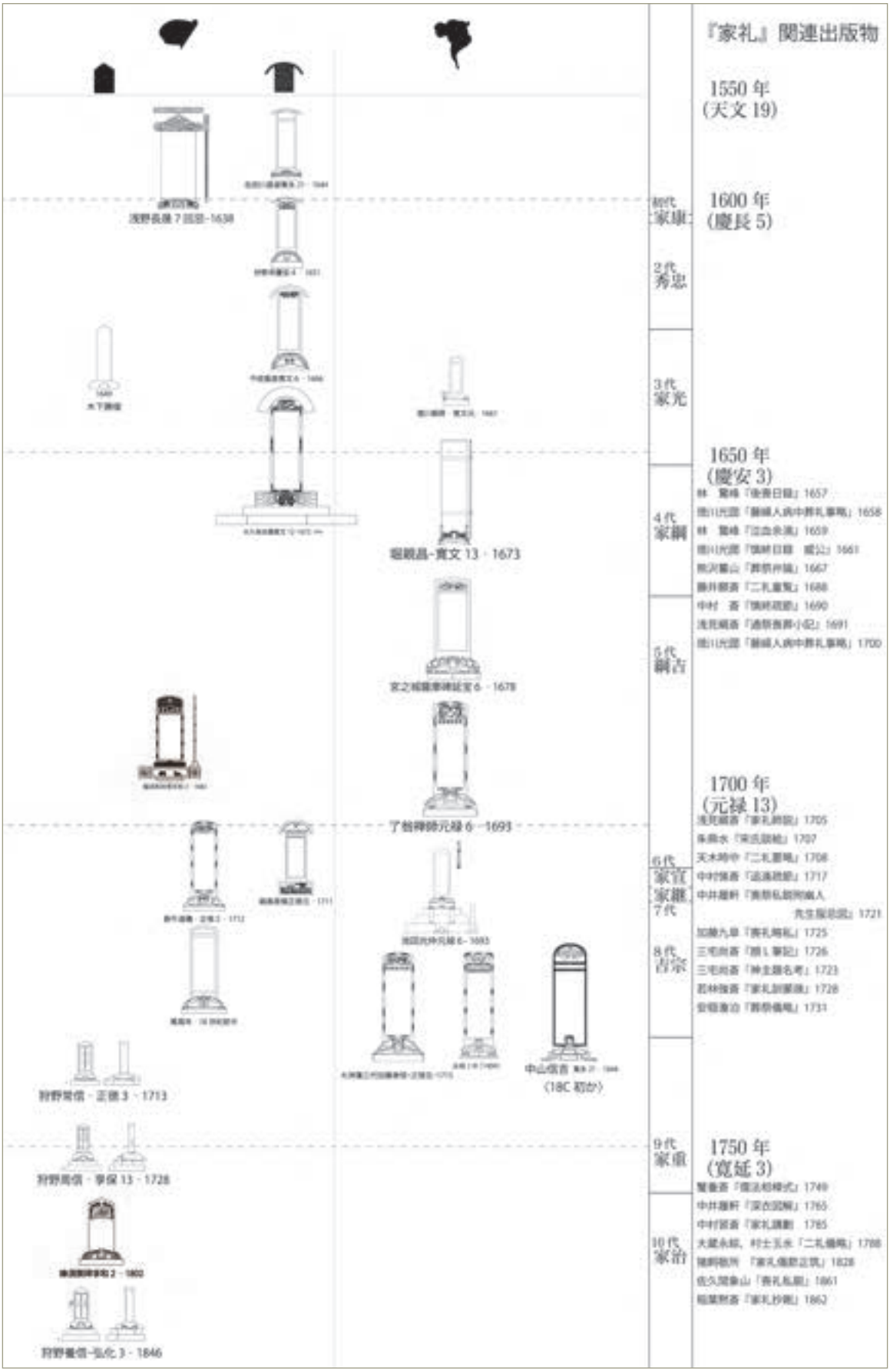


図4　近世亀趺碑一覧　일본 근세 귀부비 일람

에 가깝다. 일본의 경우는 비신에 피장자의 덕이나 공적을 기록하여 기억하고 무궁을 기원하는 명문이 새겨졌다.

조선왕릉이나 태실에 수반되는 귀부비는 국가차원으로 혈연원리에 기초한 조상제사의례를 실천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일본의 경우는 국가와는 별개로 의제적 혈연관계에 의한 각 가문별 상속의 정통성과 귀종성을 보여주기 위한 비이다. 이 점은 일본 특유의 토착적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6]

또한 귀부비의 조성이 활발해진 17세기 중엽에서 18세기 전반의 시기에 화장이었던 장제가 17세기 중엽 이후 불교에 구애받지 않고 토장을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7] 이 점은 쿠게(公家)의 일기 등에 나타난 천황의 장송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이묘들의 묘소 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난다.[8] 귀부비의 조성배경과의 관계는 유장儒葬과의 관계에서 주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구체적으로 주요 다이묘가의 산상양식묘소와 귀부비 조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도사번 야마우치가 묘소[9]의 구조는 낮은 기단 양식으로 그 중심에 육각형 3단의 기단을 설치하고 묘비를 세우는 양식으로 이에야스묘 양식을 계승하고 있다. 또한 4·7·9·11대 번주묘 묘비 앞에 신도비로서의 귀부비가 세워져 있는데, 4대 번주의 사망에 따라 겐로쿠(元祿) 15년(1702)에 조성된 것이 최초이다. 또한 야마우치가의 역대 번주들의 장제는 문헌사료를 통해 유장이었음이 확인되는 점도 주시하고자 한다. 또한 교토(京都)의 야마우치가의 초대 묘소로 꼽히는 묘심사파(妙心寺派) 사원에는 목제 귀부비가 남아 있어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図6. 中村惕斎挿図(註20)
나카무라 데키사이(中村惕斎) 삽도[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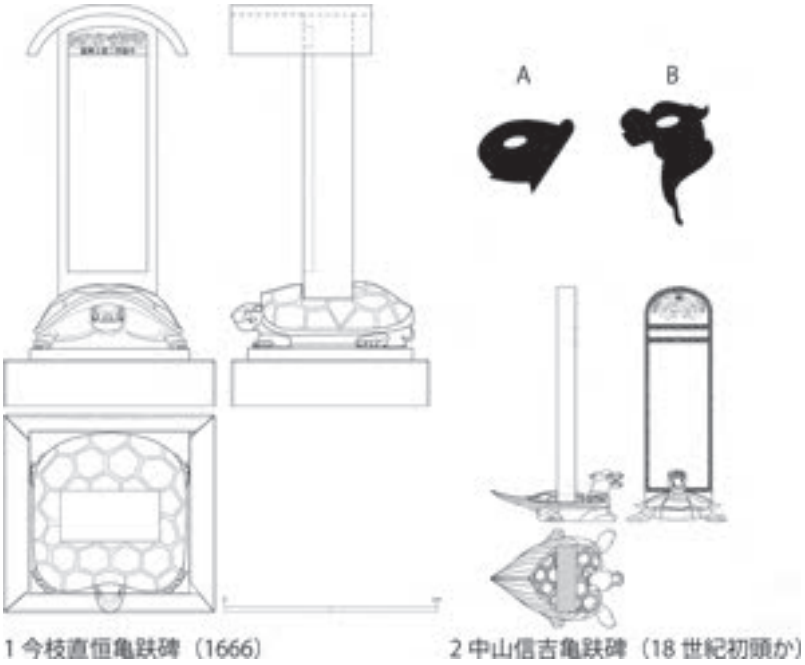


図5. 近世亀趺碑碑首分類略図 일본 근세 귀부비 비수(碑首) 분류도

図7.『三才図会』(註21) 『三才圖會』[21]

所構造・葬制なども、儒者の情報交換を通じ、朝鮮から取り入れた可能性も等閑視出来ない。そのためにもあらゆる点で積極的な検討が必要であろう。

そして、墓所に造立された亀趺碑の主な目的は、中国陵墓のような巨大な神道碑ではなく、朝鮮胎室に認められる胎主の正当性や皇位を示した亀趺碑（胎主名）の目的に近い。日本の場合は、碑身に被葬者の徳や功績を記し記憶に留め、無窮を願う銘が刻まれた。

朝鮮王陵や胎室に伴う亀趺碑は、国家によって血縁原理に基づいた祖先祭祀儀礼を実践するために必須な碑であるが、日本の場合は、国家とは離れ、擬制的血縁による各家ごとの相続の正統性と貴種性を示すための碑であった。この点は日本独特の土着的要素といえるのかもしれない[6]。

さらに、亀趺碑の造立が盛んになった 17 世紀中葉から 18 世紀前半の時期は、葬制について示すと、17 世紀中葉以降、それまで火葬であった葬制は、天皇家をはじめ多くの大名家では仏教に拘わらず土葬を選択した。つまり朱熹の『家礼』をテクストとして治葬に則った儒葬が実践されていた[7]のである。この点は、公家の日記などからも天皇の葬送でも確認でき、大名有縁の人々の墓の調査結果からも明らかである[8]。亀趺碑の造立背景との関係は、儒葬との関係において注視したい。

そこで具体的な主な大名家の山上様式墓所と亀趺碑造立を挙げておきたい。

土佐藩山内家墓所[9]の構造は、低基壇様式でその中心に六角形３段の基台を設け墓碑を据える様式で、家康墓様式を引き継いでいる。また、4･7･9･11 代藩主墓の墓碑前に神道碑としての亀趺碑が据えられているが、4 代の死没に伴い元禄 15 年（1702）に造立されたのが最初である。また、山内家の歴代藩主の葬制は､文献史料から儒葬であったことが確認されている点も注視したい。また、京都における山内家初代の墓所とされる妙心寺派寺院に、木製亀趺碑が遺っており調査を実施したので今後纏めたい。

大洲藩加藤家墓所[10]（**図8－11~15**）は、低基壇墓所と亀趺碑が一体となる墓所様式である。２代加藤泰興墓所は、亀趺碑は石柵の外に神道碑として造立されており、３代加藤泰恒墓では、石柵内に墓碑と共に設置されている。泰興は延宝五年（1677）没､3 代泰恒（泰興の孫）は正徳５年（1715）に没した。亀首は両碑共に獣首であるが、蛇腹の鎌首を大きく挙げた獣首と柔らかに挙げた獣首との変化が見ら、亀の尾も３代亀趺碑は蓑亀様式（**図6**）である点は時間的な変化として捉えられよう。なお、加藤泰興は山崎闇斎との関係も親密であり、闇斎父が仕えた足守藩主木下利房から槍を指南されていた[11]。

和意谷にある岡山藩池田家墓所[12]（**図 8－5~8**）は、初代光政の祖父輝政の墓を京都妙心寺護国院から改葬し造営が開始された。完成は寛文９年（1669）である。墓碑は、亀趺碑を据え、碑の背後に巨大な馬鬣封を築きあげている。円首の碑身は 270 ㎝あり、上部に方形の穴を貫通させ、その穴を挟んで両側に「天禄壁邪」が向かい合っている。碑身正面はには「参議正三位源輝政卿之墓」と刻んでいる。亀趺首は、蛇腹の鎌首を持ち上げるが牙はなく耳を有しており、獣首としては穏やかな面相で貔貅（ひきゅう）に似た　瑞獣の表現である。尾の表現は蓑毛を房状に表した蓑亀様である。蓑亀の様式から考えると、日本化した亀趺碑と言えるのかもしれない。葬制は、以下歴代は儒葬であっ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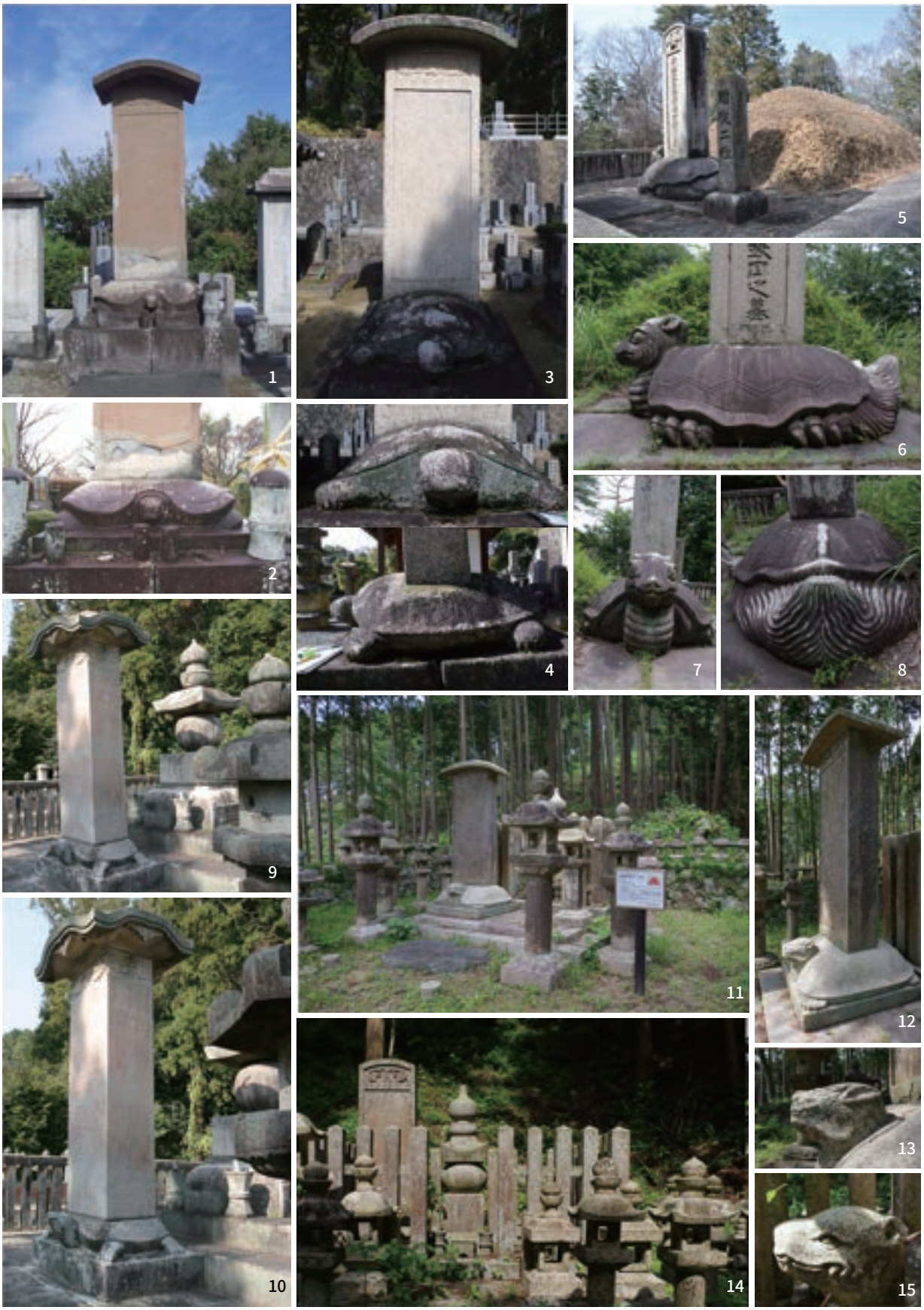


図8. 近世大名墓と亀趺碑 일본 근세 다이묘 묘와 귀부비

図9. 色々な亀趺碑 다양한 귀부비

오즈번(大洲藩) 가토가(加藤家)의 묘소[10](도 8-11~15)는 낮은 기단 묘소와 귀부비가 일체가 되는 묘소 양식이다. 2대 가토 야스오키(加藤泰興)의 묘소는 석책 밖에 귀부비가 신도비로 조성되어 있으며, 3대 가토 야스쓰네(加藤泰恒) 묘소의 경우는 석책 내에 묘비와 함께 설치되어 있다. 야스오키는 延寶 5년(1677), 3대 야스쓰네(야스오키의 손자)는 正德 5년(1715)에 사망하였다. 귀수(龜首)는 두 비 모두 짐승머리(獸首)이고, 사복(蛇腹)에 겸수鎌首(뱀머리와 같이 낫모양으로 굽은 목; 역자주)인데, 목을 크게 든 형태에서 부드럽게 든 형태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거북의 꼬리도 3대의 귀부비는 미노가메(蓑龜, 등에 이끼나 말이 붙어 도롱이를 입은 것 같은 남생이로 상서롭게 여김; 역자주) 양식(도 6)인 점은 시간적 변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가토 야스오키는 야마자키 안사이(山崎闇斎)와도 친밀하였고 안사이의 아버지가 모셨던 아시모리 번주(足守藩主) 키노시타 도시후사(木下利房)로부터 창술槍術을 익혔다.[11]

와이다니(和意谷)에 있는 오카야마번(岡山藩) 이케다(池田) 가문의 묘소[12](도 8-5~8)는 초대 미쓰마사(光政)의 조부 데루마사(輝政)의 묘를 교토(京都) 묘심사 호국원(妙心寺護國院)에서 와이다니로 이장하기 시작하여 寬文 9년(1669)에 완성하였다. 묘비는 귀부비를 세우고 비 뒤에 거대한 마갈형 봉분(馬鬣封)을 쌓아 올리고 있다. 비신碑身은 높이 270㎝이며 상부에 방형의 구멍을 뚫고 그 구멍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천록天祿과 벽사辟邪'가 마주 보고 있다. 비신 정면에는 「參議正三位源輝政卿之墓」라고 새겨져 있다. 귀부 목형태는 사복蛇腹에 겸수鎌首를 취하고 있는데 송곳니는 없고 귀를 가지고 있어서, 머리는 온화한 얼굴로 비휴貔貅를 닮은 서수瑞獸의 표현이다. 미노가메의 꼬리 표현은 털을 송이 형태로 나타낸 모양이다. 이러한 미노가메 양식은 일본화된 귀부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미토 도쿠가와가 묘소[13](도 9-11)의 번주묘는 간지석 쌓기 기단 위에 귀부비와 배후에 마갈형 봉분이나 마제형 봉분(馬蹄封)을 축조한 양식이다. 초대 번주 요리후사(頼房) 이래로 역대 묘는 같은 형식의 묘소이다. 비신 상부는 둥글게 하여 이수를 배치하고 정면에 피장자명을 새겼다. 귀부비는 사복에 겸수를 치켜세웠으며 이빨을 가진 머리로 표현한다. 번주는 『문공가례』에 의한 장례를 유언하고 실천되었다.

근세에 조성된 귀부비의 형태적 특징(도 5)은 비 상단 부분과 비수碑首에 있다. 상부에 지붕(蓋)[14]을 얹고 구갑에서 직선적으로 올라오는 형태의 비석(도 5-1·A)으로, 1640~1660년대에 조성된 근세 초기적인 귀부비 형태이다. 부대석은 통상 거북의 형태(도 7)이다. 또한 정상부가 둥글고 비수는 겸수이며 송곳니가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귀부(도 5-2·B)는 1660년대에서 1720년대에 조성되었으며, 산상 양식에 귀부비가 수반되는 시기에 부합한다. 또한 이 형태의 대부분은 미노가메(도 6)형식이다. 이러한 귀부비 또한 일본 귀부비의 토착화를 보여주는 경향으로 볼 수 있는지는 향후 과제로 삼고자 한다. 중국문헌인 도 7의 귀부와 비신은 병행하고 있으며, 정상부는 이수로 쌍용희주형이수雙龍戲珠形螭首 양식이다. 도 8-5~8의 이케다 데루마사(池田輝政)의 묘비가 이에 해당하는데 쌍용 희주雙龍戲珠가 아닌 천록 벽사天祿辟邪가 양각되어 있다. 피장자의 품계는 정삼위이므로 '천록벽사'로 상응하는 것이다. 중국의 제도를 수용하고 있으나 꼬리부분이 미노가메 양식(도 6)인 점에서 볼 때 역시 토착화된 귀부비라 할 수 있다.

水戸徳川家墓所[13]（**図9－11**）の藩主墓は、間知石積基壇上に、亀趺碑と背後に馬鬣封・馬蹄封を築造している様式である。初代藩主頼房以下歴代墓は同様式の墓所様式である。碑身上部は円首で魑首を配し、正面に被葬者名を刻み、亀趺碑は、蛇腹の鎌首を挙げた牙歯を有する獣首である。藩主は『文公家礼』による葬礼を遺言し実践された。

近世に造立された亀趺碑の形態的特徴（**図5**）は、頂部と碑首にある。頂部に笠（蓋[14]）を載せ、甲羅から直線的にでる碑首の碑（**図 5-1·A**）は、1640 年代 ~1660 年代に造立されている近世初期的な亀趺碑形態である。趺の亀は通常の亀の形態（**図7**）である。また、頂部が円首で碑首が鎌首で、牙のある獣首を特徴とする亀趺（**図 5-2· B**）は、1660 年代から 1720 年代に造立されており、山上様式に亀趺碑が伴う時期に合致している。この亀の形態の多くは、蓑亀（**図6**）という形態である。この様な亀趺碑もまた、日本における亀趺碑の土着化を示しているのであろうか。今後さらなる検討を重ね解明できればと思う。中国の文献の図 7 の亀と碑身は並行してしており、頂部は螭首で双龍戯珠型螭首の様式である。図 8—5~ 8 の池田輝政墓碑はこれに該当するが、双龍戯珠ではなく天祿辟邪が陽刻されている。被葬者の品階は、正三位であるので「天祿辟邪」で相応ということになる。中国制を受容しているが、尾の部分が蓑亀様式（**図6**）である事から考えると、やはり土着化した亀趺碑であるといえよう。

3. 朝鮮王陵·加封胎室と保科家墓所

上記に触れた山上様式の墓所の中で、特に会津藩保科松平家初代藩歴代藩主の墓所[15]様式（**図 10·11**）は、極めて特殊で国内に類例を見ない。石造物の特殊性や主体部の構築上の特徴などから、朝鮮王陵、あるいは胎室の影響を無視できないのではなかろうかと考えているので紹介してみたい。

墓所の立地は、自然地形の緩やな丘陵の南面する斜面に築かれ山上様式である。斜面の下から、拝所・亀趺碑・献燈籠・碑（表石—被葬者名が刻まれている）・鎮石（八角形—主体部で下部に遺骸）が直線的に並ぶ空間構造（**図7**）を有している[16]。歴代の亀趺碑は、2.5m 四方の大きさの亀の上に、約５mの碑身を載せ、四面前面に頌徳碑文が刻まれている。立地と空間構造は王陵に類似し、主体部の上に据えられた「鎮石」（**図 10·11**）は、八角形の基礎石の上に八角柱の竿石、八角形の笠石を載せる様式で、形態的には、胎室の主体部の「蓋簷石（がいえんせき）」（**図 12、16 世紀中葉**）に類似している[17]。

保科家の葬送は、吉川惟足が中心となり、吉川神道による葬送として理解されていて筆者も同様な位置付けをしていた。鎮石の八角形は、神道的な八角形であるとも解釈できるが、ここで注視したいのは、吉川惟足の弟子である山崎闇斎が歴代の葬送に関わっており、亀趺碑の撰文を山崎闇斎が行ている[18]点にある。筆者は、思想史は門外漢であるが、思想史の研究によれば、山崎闇斎は、明代儒学に対して批判的であり、『文会筆録』の中では、朝鮮の李滉（イハン）（退渓）を高く評価し、その思想から大きな示唆を受けているという[19]。朝鮮儒学への関心は、儒学だけにとどまらなか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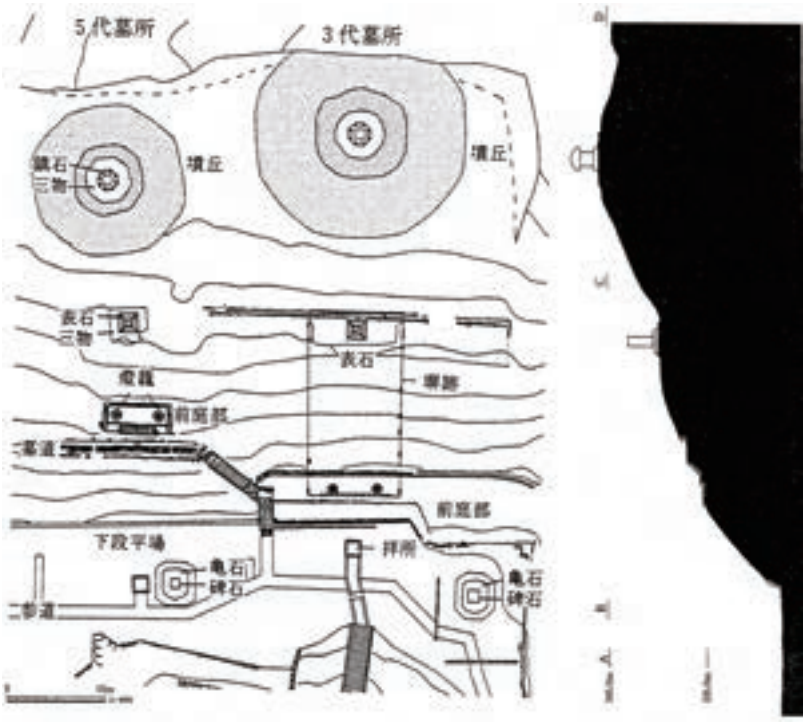


図10. 会津藩墓所構造図（註13 より） 아이즈번(會律藩) 묘소 구조도(주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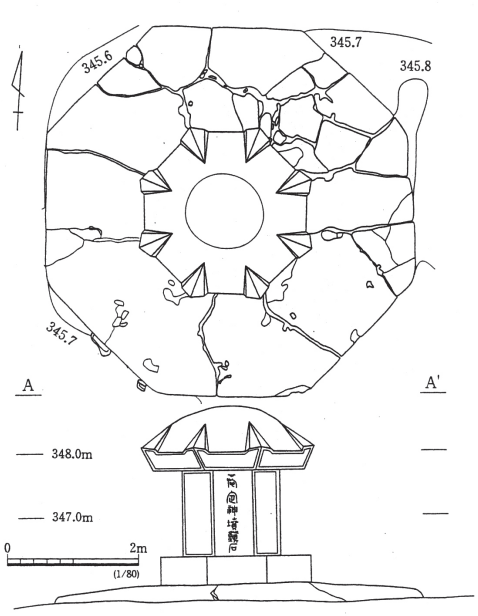


図11. 保科松平家5 代鎮石とその平面図（註13）
호시나 마쓰다이라가 5대, 진석과 평면도(주13)

3. 조선왕릉 가봉태실과 호시나가(保科家) 묘소

위에서 언급한 산상양식의 묘소 가운데 특히 아이즈번(會津藩)의 호시나 마쓰다이라 가문(保科松平家)의 역대 번주의 묘소[15](도 10, 11)는 일본 내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매우 특수한 양식이다. 석물의 특수성이나 주체부 구축상의 특징 등으로 보아 조선왕릉 혹은 태실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묘소의 입지는 자연지형의 완만한 구릉에 남측 사면에 축조된 산상 양식이다. 사면 아래에서 배전, 귀부비, 석등, 비석(피장자명이 새겨진 표석), 진석鎭石(팔각형으로 하부에 유해)이 직선적으로 늘어선 공간구조(도 7)를 가지고 있다.[16] 역대 귀부비는 2.5m 사방 크기의 귀부 위에 약 5m의 비신을 얹었고 네 면의 전면에 송덕비문이 새겨져 있다. 입지와 공간구조는 왕릉과 유사하며 주체부 위에 놓인 진석(도 10·11)은 팔각형 기초석 위에 팔각기둥의 간석竿石, 팔각지붕을 얹는 양식으로 형태적으로는 태실 주체부의 개첨석(도 12, 16세기 중엽)과 유사하다.[17]

호시나 가의 장송은 요시카와 고레타리(吉川惟足)가 중심이 되어 요시카와 신도(吉川神道)에 의한 장송으로 해석되었고 필자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 진석의 형태는 신도적인 팔각형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요시카와 고레타리의 제자인 야마자키 안사이가 역대 장송에 관여하고 있으며, 귀부비 찬문을 야마자키 안사이가 담당하고 있다[18]는 점에 주시하고 싶다. 발표자는 사상사는 문외한이지만 사상사 연구에 따르면 야마자키 안사이는 명대明代의 유학儒學에 대해 비판적이며,

た可能性も否めない。それが巨大な亀趺碑造立に示されているのではなかろうか。保科家墓所の空間構造は、王陵の様式を重視し、これに倣い墓所構造を構成し、巨大な亀趺碑を神道碑として設けた可能性が高い。また鎮石は、胎室の主体部と類似する点は、先の墓所間近に亀趺碑を設置する様式に取り入れられた可能性を想定している。この点は､胎室加封碑（亀趺）との配置関係（図12）が、日本国内における山上様式墓所に加わった亀趺碑を伴う墳墓様式成立の一部に何らかの影響を与えたことを想定しておきた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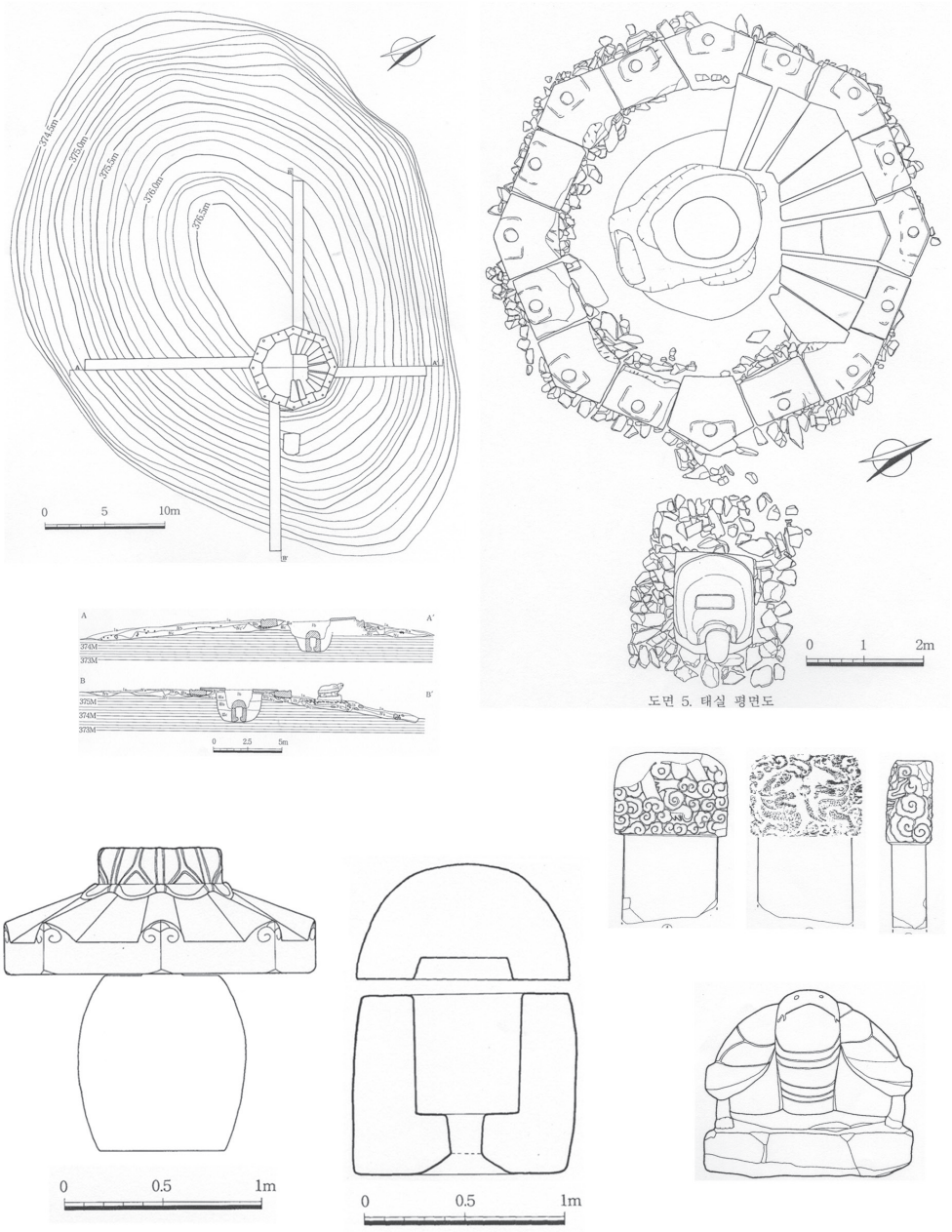


図12. 仁宗胎室平面図（註16 加筆） 인종 태실 평면도(주16)

그의 저서인『文會筆錄』에서는 조선의 이황(퇴계)을 높이 평가하여 그 사상으로부터 큰 시사를 받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19] 조선 유교에 대한 관심은 유교에만 그치지 않고 그것이 거대한 귀부비 조성으로 나타났을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다. 호시나가의 묘소의 공간구조는 왕릉양식을 중시하여 이를 본떠 묘소구조를 구성하면서 거대한 귀부신도비를 세웠을 것이다. 또한 진석이 태실의 주체부와 유사한 점은 앞선 묘소 근처에 귀부비를 설치하는 양식에 도입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다. 이 점은 태실가봉비(귀부)와의 배치관계(도 12)가 일본 내 산상양식 묘소에 등장한 귀부비를 수반하는 분묘양식 성립의 일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두고자 한다.

図13. 明宗大王胎室 複製品(國立故宮博物館)
명종대왕태실 복제품(국립고궁박물관)

図14. 正祖大王胎壺(国立古宮博物館)
정조대왕 태호(국립고궁박물관)

02
おわりに

大名家墓所構築における構造様式の淵源は、朝鮮王陵と胎室の構造に求められる可能性を探った。特に徳川家康墓所は、山上様式で低山に埋葬されている点は、朝鮮王陵の影響の可能性を指摘した。家康と朝鮮の惟政（松雲大師）の国交修復を願った交渉により回復し、日本は、朝鮮文化の受容の機会を得た。これらの事から家康の朝鮮王朝への憧憬は非常に大きかったと想像する。

また、国内の大名家墓所構造の様式的の展開では、一部の大名家によって山上様式の墓所造営が 18 世紀前半くらいまで実践されている点を紹介した。中でも会津藩保科正之及び院内墓所の石造物の形態や埋葬様式・空間構造は、早い例で、特に国内では類を見ない墓所構造をしており朝鮮の胎室構造にその淵源の可能性がある点を示し、神道に傾倒した藩主であったというこれまでの評価に加えて、儒臣であった山崎闇斎がキーパーソンであった可能性を指摘し、山崎闇斎が朝鮮の儒者・李滉（退渓）の思惟に傾倒していた研究などにもふれ、直接的ではないにしても朝鮮儒教の影響も大きかった可能性は否めない点を指摘した。その影響の結果として、葬送では『家礼』の「治葬」に則って行い、墓碑は、「胎室」主体部に用いられた中央胎石の様式を用いたことに繋がっており、墓所造営に伴う巨大な亀趺による神道碑の造立を可能にしたと思われる。保科家の造墓は、朝鮮の影響を受容し、咀嚼して土着的な祖先祭祀儀礼として実践されたものと捉えておきたい。

最後に、皇位に即位の場合、亀趺碑を加封碑として造立した朝鮮の胎室儀礼は、血縁原理に基づいて国家儀礼として実施され続けたことは、国家治世という意味において非常に重大な社会的役割を担った。世界に誇る類を見ない独自の文化であり、世界遺産として永く保護され貴重な文化として未来に継承されることを望んで已まない。

今回、朝鮮加封胎室制度と近世大名墓の構造の比較研究の機会を与えていただいたことに、深く感謝申し上げます。近世・近現代と日本の侵した恥ずべき行為については、個人的に遺憾に堪えません。しかし、寛大な配慮により今回の発表の機会を得て、両国の密接な関係について認識を新たに出来たことに感謝いたします。

微力ながら、加封胎室が世界遺産として登録され、様々な記憶の遺産として永遠に受け継がれることを、願って已みません。

末筆ながら、Edyy lee、キム・ビョンワン先生、韓国シンポジューム事務局をはじめ、内容の準備に際して李芝賢先生には大変お世話になりましたこと記して感謝を申し上げます。

02
맺으며

지금까지 일본 다이묘가의 묘소구축 구조양식의 연원과 조선왕릉 및 태실구조와의 유사점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도쿠가와 이에야스 묘소는 산상 양식으로 낮은 산에 매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선왕릉의 영향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이에야스와 조선의 유정惟政(송운대사)의 국교수복을 염원하는 협상에 의해 회복되어 일본은 조선문화 수용의 기회를 얻었다. 이러한 점에서 이에야스의 조선왕조 동경은 매우 컸다고 생각된다.

또한 일본 다이묘가의 묘소 구조의 양식적 전개에 있어서는 일부 다이묘가에 의해 산상 양식의 묘소 조영이 18세기 전반 정도까지 실천되고 있는 점을 소개하였다. 그 중 아이즈번의 호시나 마사유키 및 묘소내 석물의 형태나 매장양식·공간구조는 이른 예로 특히 국내에서는 유례가 없는 묘소구조를 하고 있어 조선 태실구조에 그 연원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신도神道에 경도된 번주였다는 그동안의 평가와 함께 유신이었던 야마자키 안사이가 핵심인물이었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안사이가 조선 유생 이황(퇴계)의 사유에 경도되었던 연구 등도 언급하여 직접적이지는 않더라도 조선유학의 영향의 비중도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 영향의 결과로 상장례에서는 가례의 치장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묘비는 태실 주체부에 사용된 중앙태석 양식을 이용한 것으로 이어져 묘소 조영에 거대한 귀부신도비의 조성을 가능케 하였다고 생각된다. 호시나 가의 묘 조성은 조선의 영향을 수용하고 한층 체화하여 토착적인 조상제사 의례로 실천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왕위의 즉위가 이루어질 때 귀부비를 가봉비로 조성한 조선의 태실 의례는 혈연 원리에 따라 국가 의례로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국가 치세의 측면에서 매우 중대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조선의 태실은 세계에 자랑할 유례없는 독자적인 문화이자 세계유산으로 오랫동안 보호되고 귀중한 문화로 미래에 계승되기를 바란다.

이번에 조선 가봉태실 제도와 근세 다이묘묘 구조 비교연구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근세와 근현대에 일본이 범한 부끄러운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유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너그러운 배려로 이번 발표의 기회를 얻어 양국의 밀접한 관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립니다.

미력하나마 가봉태실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다양한 기억의 유산으로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은상, 김병완 선생님, 한국의 심포지움 사무국을 비롯하여 내용 준비에 있어 이지현 선생님께 많은 도움을 받았으므로 이 지면을 빌어 감사드립니다.

(번역: 이지현)

註

1　野村 玄　2006『日本近世国家の確立と天皇』(216-228頁、清文堂出版)。
2　来村多加史　2011「朝鮮東九陵の視察報告と兆域の選定に関する所見」(『陵墓からみた東アジア諸国の位相―朝鮮王陵とその周縁―』文科省グローバルCOEプログラム関西大学文化交渉学教育研究拠点)。
村山智順 1971「朝鮮の風水」(円光大学民俗学研究所『民間信仰資料叢書』5、朝鮮総督府{調査資料第三一輯} 昭和6年刊の複製)。
3　東京帝国大学工科大学　1904『東京帝国大学工科大学学術報告』第6号(朝鮮建築調査報告)。
4　古瀬珠水　2018「興聖寺開山虚応円耳和尚撰『諮詢仏法録』について―十状の質問と松雲大師お詩文―」日本古写経研究所研究紀要第三号)。
5　貫井正之　2001「壬辰丁酉倭乱および戦後の日朝交渉における惟政(松雲大師)の活動に関する考察」『朝鮮学報』178,121―126 朝鮮学会)。阿部吉雄　1965『日本朱子学と朝鮮』(東京大学出版会)。
6　澤井啓一　2000『〈記号〉としての儒学』(光芒社、7~12頁)。
7　註1に同じ。公家·柳原紀光の日記に承応期の天皇は『文公家礼』によって葬送されことが記されている事から明らかである。
8　松原典明　2012『近世大名葬制の考古学的研究』(雄山閣)。
9　高知県文化生活部文化推進課　2015『土佐藩主山内家墓所調査報告書』。土佐山内家宝物資料館 2012『土佐藩主山内家墓所調査報告書』。
10　実査。松原典明編著　2018『近世大名葬制の基礎的研究 ― 公益財団法人高梨学術奨励基金特定研究助成成果報告書』(雄山閣)。
11　澤井啓一　2014『山崎闇斎』(ミネルヴァ書房、179頁)。
12　実査。
13　徳川ミュージアム　2017『国指定史跡 水戸徳川家墓所 水戸徳川家墓所保存整備事業報告書Ⅱ』。
14　『大明會典』巻之二百三 - 洪武元年定(1368)·墳塋石獸の条に下記の通り品階により碑の仕様が決められていた。
跌、螭首。六品以下、許用碣、方跌、圓首 庶人塋地九歩、穿心一十八歩、止用壙志碑碣石獸
公侯石碑、螭首高三尺二寸。碑身高九尺、闊三尺六寸。龜趺高三尺八寸
一品石碑、螭首高三尺。碑身高八尺五寸、闊三尺四寸。龜趺高三尺六寸
二品石碑、蓋用麒麟、高二尺八寸。碑身高八尺、闊三尺二寸。龜趺高三尺二寸
三品石碑、蓋用天祿闢邪、高二尺六寸。碑身高七尺五寸、闊三尺。龜趺高三尺二寸
四品石碑、圓首高二尺四寸。碑身高七尺、闊　二尺八寸。方趺高三尺
五品石碑、圓首高二尺二寸。碑身高六尺五寸、闊二尺六寸。方趺高二尺八寸
六品石碑、圓首高二尺。碑身高六尺、闊二尺四寸。方趺高二尺六寸
15　会津若松市教育委員会　2003『史跡会津藩主松平家墓所保存·管理·活用基本計画』(会津若松市文化財調　査報告書第86号)。
16　会津若松市教育委員会2004·5『史跡会津藩主松平家墓所』。
17　氷川市　1999『仁宗胎室発掘調査報告書』(慶州北道文化財研究院学術調査報告　第3集)。
18　近藤啓吾　1990「保科正之の葬儀」(『神道史研究』第38巻第1号)。千葉栄編　1972『会津鑑』(神道文化　叢書3)。同1999『儒葬と神葬』(国書刊行会)。
19　註11―291頁。
20　中村惕斎 編『頭書増補訓蒙図彙大成 21巻』[2],谷口勘三郎[ほか8名],寛政1[1789]. 国立国会図書　館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 https://dl.ndl.go.jp/pid/2556824 (参照 2023-10-10)。
21　(明) 王圻 纂集 ほか『三才圖會 106巻』[16],萬曆37[1609] 序刊. 国立国会図書館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 https://dl.ndl.go.jp/pid/2574381 (参照 2023-10-11)
図版7·8
図7：1·2京都府悲田院永井家、3·4高槻市伊勢寺永井家、5―8岡山県和意谷池田家、9―10兵庫県榊原家、
11-15愛媛県加藤家
図8：1―4岡山県池田家、5―7京都府和束、8ー10京都府仏国寺、11茨木県水戸徳川家、12ー14長崎県高家

주

1 野村 玄,『日本近世國家の確立と天皇』, 清文堂出版, 2006, pp.216-228.
2 来村多加史,「朝鮮東九陵の視察報告と兆域の選定に関する所見」,『陵墓からみた東アジア諸國の位相—朝鮮王陵とその周縁—』, 文科省グローバル COEプログラム関西大學文化交涉學教育研究拠点, 2011; 村山智順,「朝鮮の風水」(円光大學民俗學研究所『民間信仰資料叢書』5, 朝鮮総督府調査資料 第三一輯, 昭和6年刊(1971)의 복제본.
3 東京帝國大學工科大學,『東京帝國大學工科大學學術報告』第6號, 朝鮮建築調査報告, 1904.
4 古瀬珠水,「興聖寺開山虚応円耳和尚撰『諮詢仏法録』について—十状の質問と松雲大師お詩文—」, 日本古寫經研究所研究紀要第三號, 2018.
5 貫井正之,「壬辰丁酉倭乱および戦後の日朝交涉における惟政(松雲大師)の活動に関する考察」,『朝鮮學報』178, 朝鮮學會, 2001, pp.121-126 ; 阿部吉雄,『日本朱子學と朝鮮』, 東京大學出版會, 1965.
6 澤井啓一,『〈記號〉としての儒學』, 光芒社, 2000, pp.7~12.
7 주 1과 같다. 쿠게(公家) 야나기하라 노리코(柳原紀光)의 일기에 승응기 천황은『문공가례』에 의해 장송되었음이 기록되어 있다.
8 松原典明,『近世大名葬制の考古學的研究』, 雄山閣, 2012.
9 高知県文化生活部文化推進課,『土佐藩主山内家墓所調査報告書』, 土佐山内家宝物資料館, 2012;『土佐藩主山内家墓所調査報告書』, 2015.
10 실지조사, 松原典明編著,『近世大名葬制の基礎的研究 —公益財団法人高梨學術奨励基金特定研究助成成果報告書』, 雄山閣, 2018.
11 澤井啓一,『山崎闇斎』, ミネルヴァ書房, 2014, p.179.
12 조사에 의함.
13 徳川ミュージアム,『國指定史跡 水戸徳川家墓所 水戸徳川家墓所保存整備事業報告書Ⅱ』, 2017
14 『大明會典』卷之二百三 洪武元年定(1368) 墳塋石獸에 아래와 같이 품계에 따라 비석의 제도가 정해져 있다.
碑, 龜趺, 螭首, 六品以下, 許用碣, 方趺, 圓首 庶人塋地九步, 穿心一十八步, 止用壙志 碑碣石獸公侯石碑, 螭首高三尺二寸. 碑身高九尺, 闊三尺六寸. 龜趺高三尺八寸
一品石碑, 螭首高三尺. 碑身高八尺五寸, 闊三尺四寸. 龜趺高三尺六寸
二品石碑, 蓋用麒麟, 高二尺八寸. 碑身高八尺, 闊三尺二寸. 龜趺高三尺二寸
三品石碑, 蓋用天祿闢邪, 高二尺六寸. 碑身高七尺五寸, 闊三尺. 龜趺高三尺二寸
四品石碑, 圓首高二尺四寸. 碑身高七尺, 闊 二尺八寸. 方趺高三尺
五品石碑, 圓首高二尺二寸. 碑身高六尺五寸, 闊二尺六寸. 趺高二尺八寸
六品石碑, 圓首高二尺. 碑身高六尺, 闊二尺四寸. 方趺高二尺六寸
15 會津若松市教育委員會,『史跡會津藩主松平家墓所保存・管理・活用基本計画』, 會津若松市文化財調査報告書, 第86號, 2003.
16 會津若松市教育委員會,『史跡會津藩主松平家墓所』, 2004.5.
17 氷川市,『仁宗胎室発掘調査報告書』, 慶州北道文化財研究院學術調査報告 第3集, 1999.
18 近藤啓吾,「保科正之の葬儀」,『神道史研究』 第38卷 第1號, 1990; 千葉栄編,『會津鑑』, 神道文化叢書3, 1972; 앞의 필자,『儒葬と神葬』, 國書刊行會, 1999.
19 주11~29.
20 中村惕斎 編,『頭書増補訓蒙図彙大成 21巻』[2], 谷口勘三郎(외 8명), 寛政1(1789), 國立國會図書館 디지털콜렉션. https://dl.ndl.go.jp/pid/2556824 (参照 2023-10-10)
21 (明) 王圻 纂集,『三才圖會 106卷』[16], 萬曆37(1609) 序刊, 國立國會図書館. 디지털콜렉션 https://dl.ndl.go.jp/pid/2574381 (参照 2023-10-11)

参考文献

篠原啓方編 2011『陵墓からみた東アジア諸国の位相―朝鮮王陵とその周辺―』文科省グローバルCOE プログラム関西大学文化交涉学教育研究拠点)。
篠原啓方 2022「双龍戲珠型螭首からみた文化交涉―朝鮮・中国の例を中心に―」(『東アジア文化交涉研究』15 巻419-434 頁)
川上 貢 2005『禅院の建築―禅僧のすまいと祭享』(中央公論美術出版)。
篠原啓方 2012「朝鮮時代の胎室加封碑に関する予備的考察」(『東アジア文化交涉研究』5巻)
王維坤 2003「死者の口に貨幣を含ませる習俗の再研究」(『考古学に学ぶ(Ⅱ)』同志社大学考古学シリーズ刊行会)。
岡林孝作 2004「中国における木棺と棺形舍利容器」(『シルクロード研究』Vol21)。
田世民 2012『近世日本における儒礼受容の研究』(ぺりかん社)。
古田 博司 1992「朝鮮王朝前期葬喪礼教化政策」(『史学』62)
村山智順 1971『朝鮮の風水』(円光大学民俗学研究所『民間信仰資料叢書』5 朝鮮総督府{調查資料第31 輯} 昭和六年刊の複製)
野村 玄 2000「近世天皇葬送儀礼確立の政治史的意義 - 後光明天皇葬送儀礼の検討を中心として - (大石学編『近世国家の権力構造―政治·支配·行政―』岩田書院)後に2006 清文堂『日本近世国家の確立と天皇』に所収。
李 芝賢 2022「朝鮮王室凶礼における明器・服玩について」(松原典明編『近世大名の葬制と社会』近世大名墓の新視点2、雄山閣)。
沈 賢容 2022「朝鮮王室胎室の立地と構造」(松原典明編『近世大名の葬制と社会』近世大名墓の新視点2、雄山閣)。

參考文獻

篠原啓方編,『陵墓からみた東アジア諸國の位相―朝鮮王陵とその周辺―』, 文科省グローバル COE プログラム関西大學文化交涉學教育研究拠点, 2011.
篠原啓方,「双龍戲珠型螭首からみた文化交涉―朝鮮・中國の例を中心に―」,『東アジア文化交涉研究』15巻, 2022, pp.419-434.
川上 貢,『禅院の建築―禅僧のすまいと祭享』, 中央公論美術出版, 2005.
篠原啓方,「朝鮮時代の胎室加封碑に関する予備的考察」,『東アジア文化交涉研究』5巻, 2012
王維坤,「死者の口に貨幣を含ませる習俗の再研究」,『考古學に學ぶ(Ⅱ)』, 同志社大學考古學シリーズ刊行會, 2003.
岡林孝作,「中國における木棺と棺形舍利容器」,『シルクロード研究』Vol21, 2004.
田世民,『近世日本における儒礼受容の研究』, ぺりかん社, 2012.
古田 博司,「朝鮮王朝前期葬喪礼教化政策」,『史學』62, 1992.
村山智順,『朝鮮の風水』(円光大學民俗學研究所『民間信仰資料叢書』5 朝鮮総督府{調查資料第 31 輯}昭和六年刊の複製, 1971)
野村 玄,「近世天皇葬送儀礼確立の政治史的意義 - 後光明天皇葬送儀礼の検討を中心として - 」,『近世國家の権力構造―政治·支配·行政―』, 岩田書院, 2000)이후,『日本近世國家の確立と天皇』, 清文堂, 2006에 수록,
李 芝賢,「朝鮮王室凶礼における明器・服玩について」,『近世大名の葬制と社會』近世大名墓の新視点2, 雄山閣, 2022
沈 賢容,「朝鮮王室胎室の立地と構造」,『近世大名の葬制と社會』近世大名墓の新視点2, 雄山閣, 2022.

「조선왕실 가봉태실의 석조물 제도와 일본 근세 다이묘 묘 구조의 비교연구」에 대한 토론문

김지영(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객원연구원)

마쓰바라 노리아키 선생님의 발표문은 17세기 초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양식의 일본 근세 다이묘 묘의 구조적 특징을 중심으로 낮은 산의 능사면 혹은 산 정상에 조성하는 조선 왕릉과 태실의 입지, 가봉加封한 태실의 석물 구조와 귀부비와 같은 특정 요소의 비교를 통하여 그 보편성과 특수성을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마쓰바라 선생님은 석조문화재 전문연구자로서 가시적이고 영구적인 석물의 고고학적 유사성에 관심을 가지고 일부 근세 다이묘 가의 묘역에 등장한 새로운 양식이 조선의 묘제나 습속의 일부를 직·간접적으로 수용한 결과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의 중요한 '맥락'으로 도쿠카와 이에야스의 조선에 대한 선망과 적극적인 외교의 결과 게이초慶長 12년인 1607년(선조 40) 양국 관계가 다시 수립, 재개된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17세기 초기 이야에스 묘소에 등장하지 않던 신도비 혹은 송덕비로서의 귀부비가 17세기 중엽 이후부터 18세기 초 주요 다이묘 가의 산상 양식 묘소에 조성된다는 점을 주목하여 막부 유학자인 하야시 라산, 하야시 가호 등과 조선에서 온 통신사와의 학문적 교류 과정에서 유교식 묘소의 구조나 상장제가 도입되었을 가능성도 제시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발표문은 태를 묻고, 시신을 묻는 동아시아 '매장埋藏 문화'를 거시적 차원에서 논의하고, 그 '가능성의 역사'를 고찰하기 위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발표문은 역사인류학자로서 조선시대 왕실 여성의 출산문화와 왕의 자녀들의 '태胎'를 묻고 태실을 조성하는 '일회적인' 장태의례藏胎儀禮에 관한 '기록'을 '미시적'으로 연구해 온 저에게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유물을 거시적으로 연구하시는 마쓰바라 선생님도, '오염된' 문헌을 미시적으로 연구하는 저도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역사적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같은 입장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선시대 가봉 태실의 세계 유산적 가치를 조명하고자 하는 이번 국제학술회의에서 마쓰바라 선생님의 발표는 인간 생명이 시작되는 근원인 '태'를 조선 왕실 특유의 방식으로 묻음으로써 조성된 '태실'과 인간 생명이 소멸된 시신屍身을 묻는 방식을 서로 연관 지어 사유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분은 다를지라도 조선 왕의 '사회적' 탄생과 일본 다이묘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의미화하기 위해 동일하게 '의례'와 '석물'을 활용했다는 공통점이 나타납니다. 특히 국왕의 가봉 태실은 왕이 즉위한 이후 즉위한 왕의 태를 묻은 아기 태실의 상부에 새롭게 석물을 더하여 장엄莊嚴하는 '가

봉’을 통하여 왕의 신성성과 위엄을 상징적으로 드러내 줍니다. 왕릉과 사체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가봉 태실 주변에 하마비와 금표비를 따로 세우는 것도 국왕의 초월성을 극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본격적으로 마쓰바라 선생님 발표에 관하여 토론자로서 세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조선은 건국 이후 1404년부터 교린交隣 정책의 일환으로 통신사를 통하여 일본과 활발한 교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진전쟁으로 국교가 단절되었고, 10년 후인 1607년 전란 중 사로잡힌 피로인을 쇄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답겸쇄환사回答兼刷還使를 일본에 파견하였습니다. 그리고 1636년부터 1811년까지 총 9차례 통신사를 파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조선 전기부터 한일 양국간 일본국왕사日本國王使와 통신사를 통한 문화교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선 전기부터 조성되었던 조선의 왕릉과 태실이 특히 17세기 중엽 이후 일본 다이묘의 묘제 양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현재 한국 경상남도 사천시 시청에는 세종과 단종의 태실을 수개하고 표석을 수립하고 제작한 의궤 3종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특히 『세종대왕태실석난간수개의궤世宗大王胎室石欄干修改儀軌』(1책 7장)는 1601년(선조 34) 3월에 제작된 것으로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의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의궤에는 세종의 태실이 파괴되어 다시 수개하게 된 이유로 “왜적의 손에 더럽혀진 세종대왕의 御胎가 간 곳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당시 재위 중이었던 왕 선조는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조 정랑이 경상남도 곤양(현재 사천시) 땅으로 직접 내려가 자세히 살펴본 후 1599년(선조 32) 10월에 선조에게 현장조사 보고를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 *“태실 외면의 石欄干이 모두 훼손 파괴되고, 柱石 8개 중 2개는 절파되었으며, 橫竹石 8개는.....예전 그대로이고 薄石과 蓮葉石, 中童石도 모두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나 이지러짐은 없습니다. 태실의 石甕은 완존하나 蓋石은 뽑혀져 옮겨..모두 破碎되었는데....”*

위 기록은 전쟁으로 조선의 왕릉뿐만 아니라 태실 또한 심각하게 파괴되었던 정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통신사 재교류 이전에 오히려 전쟁에 참여한 다이묘들의 전쟁 경험과 기억이 더 직접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일제강점기에도 전국에 조성되어 있던 조선 왕실의 태실이 파괴되고 서삼릉으로 집단적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파헤쳐진 원래 태실 자리에 민묘民墓가 새로이 조성되었습니다.

둘째, 근세 다이묘의 산상 양식 묘소의 등장과 귀부비의 조성이 활발해진 이 시기에 다이묘들은 불교에 구애받지 않고 화장火葬에서 유장儒葬을 선택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 예로 도사번 야마우치가 묘소, 오즈번 가토가의 묘소, 와이다니에 있는 오카야마번 이케다 가문의 묘소, 미토 도쿠가와가 묘소의 번주묘를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하여 유교식 장례 방식을 논한 일본 유학자들의 글이나 『주자가례』 이외에 조선 왕실의 유교 의례, 특히 상장례에 관해 기록한 문헌이 있는지요? 특히 17세기 조선 사회는 왕실 의례 논쟁을 계기로 유학자들을 중심으로 예

학이 발달한 시대였습니다. 100여 년 정도 유행처럼 퍼진 신식新式 다이묘 묘제에 유교식 장례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들이 활발했을 것 같은데 관련 기록이 남아 있는지요? 그리고 새로운 방식의 유교식 묘제를 선택한 일본 근세 다이묘들의 무덤 안에 사후세계와 생사관을 파악할 수 있는 부장품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시기 조선에서는 유교식 상장례와 제사를 통하여 종법적 가족 질서와 부계혈연조직인 문중이 형성되었습니다. 근세 다이묘 가문의 형성에 있어서 혈연적 연결이 없는 '의제적 친족'에 의한 권력 계승과 유교식 상장례는 어떤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요?

3. 귀부비의 용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조선 전기 1404년 신의왕후神懿王后의 제릉齊陵에 처음으로 귀부비 형식의 신도비를 제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등장한 신도비는 태조 건원릉 신도비, 태종 헌릉 신도비, 세종의 영릉 신도비까지만 세워집니다. 제왕의 사적은 모두 국사國史에 기록되므로, 사가私家처럼 비를 세울 것이 없다고 하여 문종 대 이후 왕릉에 귀부비 형식의 신도비가 사라집니다. 반면, 16세기 반정공신을 중심으로 귀부비 형식의 신도비가 세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왕릉에서 신도비가 사라진 것과 달리 가봉 태실의 귀부비 제작은 조선 전기부터 지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단종태실표석건립시의궤世宗端宗胎室表石竪立時儀軌』에 따르면, 1734년(영조 10) 세종대왕의 가봉 태실에 표석을 새로 제작하였는데, 이때 농사철에 백성을 부리는 것이 어려워 1,170명의 승군이 4~5일간 동원되었다는 기록이 보입니다. 이와 같이 귀부비 조성에는 상당히 많은 인력과 물력이 투입됩니다. 이때 세워진 가봉 태실비의 전면과 후면에는 "世宗大王胎室(앞) 崇禎紀元後一百七年甲寅九月初五日建(뒤)"라고 새겼습니다. 일종의 표석表石으로 사용되었고, 이를 귀룡대석龜龍臺石이라고 합니다. 거북과 용을 조각함으로 상징성을 확보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비교했을 때, 다이묘의 묘에 조성되는 귀부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새겨지는지요? 그 실용적, 상징적 용도는 무엇입니까?

松原典明氏「朝鮮王室加封胎室の石造物制度と日本近世大名墓制構造の比較研究」について

キム・ジヨン(ソウル大学・比較文化研究所)

松原典明氏の発表は、17 世紀初以降に日本近世大名の墓に現れる新たな様式の構造的特徴を中心に低山の丘陵斜面あるいは山頂に造成する朝鮮王陵と胎室の立地や加封した胎室の石造物構造、亀趺碑といった要素の比較を通じてその普遍性と特殊性を明らかにすることを試みている。特に松原氏は石造文化財の専門研究者として可視性と永久性を持つ石造物を用いて、その類似性に考古学的関心を注ぎ、近世大名家の墓所の一部に現れる新しい様式が朝鮮の墓制や習俗の一端を直間接的に受容した結果である「可能性」を語られた。その重要な「脈絡」として徳川家康の朝鮮に対する羨望や積極的な外交を合わせた結果、慶長 12 年の 1607 年 (宣祖 40) に両国の関係が、再び築かれ、再開された点に注目した。また、17 世紀初、家康の墓所にはなかった神道碑または頌徳碑としての亀趺碑が 17 世紀中頃 ~18 世紀初頃から主要大名家の山上様式の墓に造成されることを指摘された。林羅山、林鵞峰などの幕府儒学者や朝鮮通信史との学問的交流の中で、儒教式の墓制及び葬制が取り入れられた可能性も提示している。つまり、胎を納め、遺骸を埋葬する東アジアの「埋蔵文化」を巨視的な観点で考察し、その「可能性の歴史」を考えるに当たり重要な糸口を与えた発表として評価（理解）できる。

また、歴史人類学者である討論者にとっては、朝鮮時代の王家女性の出産文化と王系の子供たちの「胎」を納め、胎室を造成するという「一過的」な藏胎儀礼の「記録」をもって「微視的」な研究を続けてきたところで、新たな洞察を得られた発表文である。一方では遺物を巨視的な視野で研究されている発表者も、「汚染された」文献を微視的観点で研究する討論者も歴史的事実に基づいた「歴史的想像力」を求められている面では同一な立場であると言える。特に、今回朝鮮の加封胎室における世界遺産的価値を照明するこの国際学術大会であるこそ、松原氏の本発表は、人間の生命が始まる源である「胎」を朝鮮王室ならではの方式で納める「胎室」と、そして人の命が尽いた遺体 (遺骸) を納める葬制を関連付けて思考する必要性について力説することから、大いに示唆に富むと考えられる。また、身分は違うけれど、朝鮮の王の「社会的」誕生と日本大名の死を政治的な意味を付与するため、「儀礼」と「石造物」を用いていることで共通している。特に国王の加封胎室は王に即位後、当王の胎を納めた阿只胎室の上部に石造物を加えて荘厳する「加封」を通じて王の神聖性と威厳を象徴的に示している。加封胎室の周辺に下馬碑と禁標碑を別途に設

定することも国王の権威の優越性を表われる。

本論に戻り、討論者は松原先生の発表について、三つの質問をします。

1．朝鮮は建国後、1404 年から交隣政策の一環として、通信使を通じて日本と活発な交流を始める。しかし、壬辰戦争（豊臣秀吉が朝鮮に侵攻し引き起こした戦争:訳者註）で国交が断絶され、10 年後となる 1607 年戦乱中にとらわれた被虜人を刷還する問題を解決するため、「回答兼刷還使」を日本に派遣し、そして 1636 年から 1811 年まで、計 9 回の通信使を派遣するように、朝鮮の初頭から「日本國王使」や通信使を通して、朝日間の文化交流が始まる。そこで、朝鮮の始めから造成し始まる朝鮮の王陵と胎室が、特に 17 世紀半ば以降、日本大名の墓制様式に影響を及ぼした理由について伺いたい。ちなみに、現在韓国の慶尚南道泗川市の市役所には世宗 (セジョン) と端宗 (ダンジョン) の胎室を改修し、標石の製作した記録がのこされた儀軌の 3 種が所蔵されている。特に『世宗大王胎室石欄干修改儀軌』(1 冊 7 章) は、1601 年 (宣祖 34)3 月に製作された書物で、現存する最古の儀軌の一つである。ここには世宗の胎室が破壊されて、また改修となった経緯について、「倭寇の手に汚された世宗大王の御胎が跡形もない」と書かれている。当時、在位中の宣祖は事の深刻さを理解していた。その後、禮曹正郎（正五品）が慶尚南道の昆陽（現在、泗川市) に派遣され、綿密に視察した後、1599 年 (宣祖 32)10 月に宣祖に次のように報告される。

「胎室の外側の石欄干が全て毀損され、柱石 8 石のうち 2 個はぶち壊され、横竹石 8 個は（中略）以前のままで薄石と蓮葉石、中童石いずれもあちこちに散乱しているが、欠けられたところはありません。胎室の石甕は完存ながら蓋石は、抜かれて移され（中略）すべて破砕され・・・」

上記は、戦争で朝鮮の王陵だけでなく、胎室の毀損が深刻な情況であることを証拠している。このような記録からみると、通信使の再交流の以前の時期に、戦争に加担した多数の大名が経験した戦争の記憶がより直接的な動機 (理由) になったのでないか想定できる。知られているように、植民地時代にも全国の朝鮮王室の胎室が破壊され、西三陵へと一斉に移され、それに掘り出されたもとの御所には民墓が造成されるようにされた。

2．近世大名の山上様式墓の登場と亀趺碑の造成が活発になったこの時期に大名たちは、仏教に拘わらず火葬から儒葬を選択されたとする。そして、その事例として、土佐藩山内家墓所、大洲藩の加藤家の墓所、和意谷にある岡山藩の池田家墓所、水戸徳川家墓所の藩主墓などが挙げられた。これに関して、儒教式の葬礼方式を論じた日本の儒者たちの文章や出版物、また『朱子家礼』の他に、朝鮮王室の儒教儀礼、特に喪葬礼について記録された文献が存在していたら教えていただきたい。特に 17 世紀の朝鮮は、王室儀礼の論争を重ねることにより儒学者たちを中心に「礼学」が発達した時代である。100 年余りに大名墓に流行りのように広がった儒教式の葬儀という新たな方式を墓制に取り入れるため、議論が活発であったと思われるが、関連記録は残っているか。そして新しい方式の儒教式墓制を選んだ日本近世大名墓の中に来世観を覗けるような副葬品はどのようなもの

があったのか。また、同時期、朝鮮では儒教式の喪葬礼と祭祀を通じて宗法的家族秩序と父系血縁による門中（家門）が形成されたが、近世大名家の形成において、血縁的なつながりのない「擬制的親族」による権力継承と儒葬の相互関連性について、ご見解をお聞きしたい。

3. 亀趺碑の用途について質問します。1404 年、朝鮮の神懿王后の齊陵に初めて亀趺碑形式の神道碑を設立し始まるが、この後神道碑は、太祖の健元陵神道碑、太宗の憲陵神道碑、世宗の霊陵神道碑まで造成し続ける。諸王の史跡はすべて国史に記録の故、私家のように碑を建てる必要はないとされて、文宗代（1452）以降、王陵に亀趺碑形式の神道碑は見られない。一方、16 世紀の反正功臣を中心に亀趺碑形式の神道碑が建てられ始まる。王陵から神道碑が消えていたことと異なり、加封胎室の亀趺碑の製作は朝鮮前半から続いたものとみられる。『世宗端宗胎室標石建立時儀軌』によると、1734 年 (英祖 10) 世宗大王の加封胎室に標石を新たにするに人手を求めるが、農煩期のために働き手が足りてなく、1,170 人の僧軍が 4~5 日間動員されたというように、亀趺碑の造成にはかなり多くの人力・物力が投入される。この加峰胎室碑の前面と背面には「世宗大王胎室 (前)　崇禎紀元後一百七年甲寅九月初五日建 (後)」と刻まれている。これは標石として使われ、「亀龍台石」と称する。亀と龍が施され象徴性を表す。これにつき、大名の墓に造成された亀趺碑には具体的にどのような内容が刻まれているのでしょうか。また、その実用的、象徴的用途はどのようなものでしょうか。

III

한국의
태처리 문화와 태실

The Culture of Hiding a Placenta and the Placenta Chamber in Korea

심현용 | Shim Hyun-yong

울진 봉평리 신라비 전시관 관장 | Director, Museum Of Uljin Bongpyeongri Sillabi Monument

01
머리말

사람은 엄마의 배 속에서 성장하여 10개월만에 출생을 하게 된다. 출산을 하게 되면 태가 부산물로 남게 되는데 이때 남겨진 태는 신성시하여 함부로 버리지 않고 소중히 처리하였다. 이렇게 태를 처리하는 문화를 '장태문화藏胎文化'라 하는데 이는 세계 보편적 문화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장태문화는 한 나라에서 발생해서 다른 나라로 전해지는 문화전파에 의해 생긴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가지는 동일한 사유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한국에서도 태를 신성시하여 함부로 버리지 않고 갈무리하였다. 그 시기는 삼한시대까지 올라가나 모두 구전에 의한 것이라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삼국시대부터 장태문화가 문헌기록에서 처음 확인되며, 고려시대 와서는 장태문화가 왕실에서 왕과 세자에 한해서 태실이 조성되고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의 태실제도를 계승하면서도 왕과 왕의 모든 아들과 딸, 그리고 원손까지 그 대상이 확대된다.

우리나라 태실은 지금까지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삼한시대 8개소, 삼국~후삼국시대 20개소, 고려시대 35개소, 조선시대 161개소(왕 24개소, 추존왕 2개소, 왕비 3개소, 아기태실 132개소), 전설이나 지명의 259개소(남한 236, 북한 23) 등 모두 483개소가 조사된다. 이중 전설이나 지명으로 전해지는 259개소 중에서 28개소는 조선시대 태실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태실은 왕실문화로서 세계에서 한국에만 나타나는 유일한 장태문화이다. 이 태실胎室은 태묘胎墓(태무덤, 태반무덤), 태실묘胎室墓(태실무덤), 태실릉胎室陵, 태릉胎陵, 태총胎塚, 태실봉胎室封, 태분胎墳, 태분묘胎墳墓 등 다양하게 불려왔다. 특히 조선시대에 가장 활발하게 조성되는데 이는 개인의 운명을 국운에 연결시켰기 때문이다.[1]

그동안 우리는 태를 처리한 후 만든 시설을 '태실'이라고 지칭하며 무비판적으로 사용해왔다. 하지만 왕실에서 국가적 의례로 행해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조성된 태실에 한정해서 칭하여야 한다. 필자는 이런 점에서 고려 이전에 조성되었다고 구전되어오는 태실은 특별한 시설없이 태처리 문화의 한 방법인 단순 매태에 의한 것이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례를 행하고 독특한 시설을 한 고려와 조선 왕실의 태실과 구분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태처리 문화에 대해 사료를 찾아 그 시원을 살펴보고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왕실에서 태실을 조성하기 시작하고 조선시대에도 계승되어 국가적 의례로 더욱 체계화되어 발전된 태실제도에 대해 그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심현용, 2015, 「조선시대 태실에 관한 고고학적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심현용, 2016, 『한국 태실 연구』, 경인문화사.

02
한국의 태처리 문화

태를 처리하는 장태문화는 현대에 들어와 과학의 발전으로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면서 더 이상 행해지지 않고 사라지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집에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태를 처리하는 문화가 조사되었다. 이에 의하면 태를 땅에 묻는 매태埋胎, 태를 불에 태우는 소태燒胎, 태를 물에 띄워 보내는 수태水胎, 태를 말려서 보관하는 건태乾胎 등 크게 4가지 방법으로 태를 갈무리 했다는 것이 전국적으로 확인된다.[2]

한국에서는 이른 시기부터 태를 처리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삼한시대 장태 현황

번호	태주	위치	비 고
1	소문국 [조문국] 왕	경북 군위군 의흥면 연계리 (안태봉)	구전
2	소문국 [조문국] 왕	경북 의성군 봉양면 길천1리 산10 (태봉산)	〃
3	이서국 왕자	경북 청도군 이서면 수야리 산161 (태봉산)	〃
4	마한왕	전북 익산시 여산면 호산리·태성리 (성태봉, 성티)	〃
5	마한왕	전북 익산시 삼기면 연동리 (태봉)	〃
6	가락국왕	경남 김해시 장유면 응달리 (태봉산)	〃
7	가락왕	경남 창원시 진해면 장천리 (행암산)	〃
8	가락국왕	경남 창원시 상남면 천선리 (태봉산)	〃

이 〈표 1〉에서 마한 2개소, 진한 3개소, 변한 3개소 등으로 모두 8개소의 삼한시대 태봉이 조사되었다. 이 〈표 1〉로 보아 한국의 장태풍속이 삼한시대까지 올라갈 수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표 1〉은 모두 구전口傳에 의한 것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전혀 확인되지 않아 그대로 믿을 수가 없다. 다만 태처리 문화의 전승 시기를 민속적으로 짐작하는데 도움이 될 뿐이다.

2 임동권, 1999(1975 초판), 『한국의 민속』,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3,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산속편-』상·하.

이후 삼국시대~후삼국시대에도 태처리 습속과 관련된 장태가 〈표 2〉와 같이 조사된다.

〈표 2〉 삼국시대~후삼국시대 장태 현황

번호	태 주	위 치	비 고
1	신라시대 (김유신)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봉리 산20 (태령산, 길상산, 태산, 태장산, 장태산, 태봉산)	『삼국사기』
2	신라시대(왕)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본말리 산125-1 (태봉)	구전
3	신라시대(왕자)	경북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산208-15 (태봉, 안태봉)	〃
4	신라시대(왕자)	경북 울진군 평해읍 월송리 산15-1, 산15 (태봉재, 화구태봉)	〃
5	신라시대(왕자)	경북 경산시 남천면 금곡리 산54-6 (태봉산)	〃
6	신라시대(왕자)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죽정리 산62, 산67 (안태봉, 암태봉) 및 죽정리 산56 (바깥태봉, 숫태봉) [태봉산]	〃
7	신라시대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리 산22-2 (사산, 용산, 태봉산)	〃
8	신라시대 (임금의 아기)	경북 군위군 의흥면 지호리 산1 (안태봉, 태봉)	〃
9	신라시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보은리 (태봉산)	〃
10	신라시대	전남 광산군 서방면 태봉리 [현,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태봉산)	〃
11	신라시대 또는 신라시대 높은 사람 또는 고려 중엽의 장군	경북 청도군 매전면 덕산리 산255 (태봉산)	〃
12	신라시대	경북 경주시 현곡면 라원리 산139-1 (비장산, 금곡산, 안태봉, 태봉산, 시루봉)	〃
13	신라시대(문무왕)	전남 고흥군 풍양면 송전리 산1 (천등산 동봉)	〃
14	신라시대 왕자 후보지	경북 청도군 풍각면 안산리 산142 (안태봉)	〃
15	신라 진평왕 태자	경남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 391 (태봉)	〃
16	백제시대(왕실)	전남 곡성군 곡성읍 서계리 및 삼기면 금반리 (태봉산, 안태봉)	〃
17	백제시대(왕)	충북 옥천군 군서면 은행리 (태봉산)	〃
18	가야시대	경남 고성군 고성읍 우산리 (태봉산, 연화산)	〃
19	삼국시대(왕자)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미장리 산45-5, 산46 (삼태봉산 중에 중태봉)	〃
20	태봉국(궁예)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동막리 (태봉산)	〃

이 〈표 2〉에서는 신라 15소, 백제 2개소, 가야 1개소와 어느 나라인지 모르는 1개소 등 19소의 삼국시대와 태봉국 1개소의 후삼국시대 등 모두 20개소가 조사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구전에 의한 것이어서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다만, 신라시대 김유신의 태를 묻었다는 문헌기록이 『삼국사기』에 처음으로 확인된다.

> ① 만노군萬弩郡은 지금의 진주鎭州(지금 충북 진천)이다. 처음 유신庾信의 태胎를 높은 산[高山]에 묻었으므로 지금까지 태령산胎靈山이라 한다.
>
> (『삼국사기』(1145) 권41 열전1 김유신 상)

위 사료 ①을 비롯하여 『고려사』(1451), 『세종실록지리지』(1454) 등의 문헌기록[3]은 김서현이 만노군 태수로 부임하여 부인 만명이 20개월 만에 김유신을 낳아 태를 진천현 남쪽 15리에 있는 높은 산[高山]에 묻었는데, 이로 인해 그 산을 태령산(해발 454m)이라 하였으며, 사후에는 사우를 짓고 국가 제사를 거행했다는 것이다.

김유신은 595년(신라 진평왕 17)에 출생하였으므로 6세기 말에는 신라에 장태풍속이 있었음은 확실하다. 그런데 김유신은 가야 왕족의 후손으로 김유신의 태를 묻은 사람은 그의 부모였으므로 장태풍속, 즉 매태는 김유신의 부모세대 이전부터, 즉 늦어도 6세기 중엽부터 신라나 가야에 이미 행해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김유신의 장태 사례만 가지고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당시 김유신 가문에만 장태풍습이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대의 귀족층 또는 왕실에서도 장태가 행해졌을 것이다. 그러므로 당시 장태풍속은 귀족이나 왕실을 중심으로 늦어도 6세기 중엽 이전에 이미 시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 김유신 태실은 고고학적으로도 확인된다. 이 태실은 김유신 탄생지와 함께 '진천 김유신 탄생지와 태실'이라는 명칭으로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 김유신 태실은 고산준령高山峻嶺의 산 정상부<그림 1-①>에 석축을 쌓고 그 위에 평면 원형으로 가장자리에 2~3단의 호석護石을 돌리고 그 안쪽에 흙을 넣고 상부를 편평하게 하여 잔디를 심은 형태이며, 주위로는 태령산성이 돌려져 있다. 태실 하단의 석축은 현고 약 1.2~1.8m, 직경 약 9m의 타원형으로 남아있으며, 태령산성은 높이 1.2~2m, 전체 둘레 약 190m이다. 특히 석축 위 태실은 원래 둥근 반구상半球狀이었는데 헬리포트 건설로 윗면이 유실된 것을 직경 3m, 높이 35㎝의 평면 원형 석단石壇을 만들고 잔디를 심어 <그림 1-②·③>과 같이 복구하였다고 한다.[4] 이로 인해 필자는 김유신 태실의 원형原形을 평면 원형·단면 반원형의 반구형半球形 모양을 한 무덤과 같은 봉분封墳 형태를 한 것으로 추정하여 왔는데,[5] 이와 다르게 김유신 태실의 원형이 새로이 밝혀졌다.[6]

---

3 『삼국사기』(1145)와 비슷한 내용이 『고려사』(1451) 권56 지10 지리1 양광도 청주목 진주, 『세종실록지리지』(1454) 권149 충청도 청주목 진천현, 『삼탄집』(이승소, 1513) 권4 시 '過胎灵山',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권16 충청도 진천현 산천, 『증보문헌비고』(1908) 권21 여지고9 산천3 충청도 진천, 『상산지』(1933) 권상 산천, 『조선환여승람』 진천군(1937) 산천에서 확인된다.

4 정영호·조익현, 1999, 『진천김유신장군사적 학술조사 보고서』, 한국교원대학교 박물관, 38쪽; 조익현, 2000, 「진천지역의 김유신사적에 대한 재검토」, 『고문화』 55, 한국대학박물관협회, 60~61쪽.

5 심현용, 2015, 「조선시대 태실에 관한 고고학적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2~34쪽; 심현용, 2016, 『한국 태실 연구』, 경인문화사, 64~68쪽.

6 심현용·김종헌, 2021, 『경기도 태봉 태실』, 경기문화재연구원, 18~20쪽.

〈그림 1〉 김유신 태실과 태령산성 전경

① 태령산 원경〈남동→북서〉 ② 김유신 태실 근경〈복구 후〉 ③ 김유신 태실과 태령산성 원경 ④ 김유신 태실〈1961년 2월 촬영〉

즉 원래 김유신 태실은 산 정상부에 직경 8m 정도의 둥글고 뾰족한 돌탑 형태를 하고 있었는데, 1995년 2월 군부대에서 이 돌무더기 모양의 태실을 파괴하여 삭평하고 군용헬리콥터장을 만들었다. 이후 이를 안 관련 종친회의 복구요청으로 그해 5월 지금과 같은 모습〈**그림 1-②**〉으로 복구되었다는 것이다.[7] 이는 훼손되기 전의 1961년 2월에 찍은 김유신 태실의 사진〈**그림 1-④**〉에서 확인되는데, 1961년 사진에서 태실은 자연석을 쌓아 원추형 돌무더기 형태를 하고 있어 증언한 내용이 사실이다.[8] 다만 태실 주변에 돌려져 있는 돌담 형태의 태령산성이 태실과 세트인지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태령산성에서 삼국·통일신라시대 토기편이 수습되는 것으로 보아 김유신 태실과 같은 삼국시대에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후술하는 구형왕릉의 석축 담장의 예와 규모로 보아 산성이라기보다는 태실을 보호하기 위한 담장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7 김정하, 2018, 「흥무대왕 김유신 장군 태실에 대한 소고」, 『남강문학』 10, 남강문학회.

8 종친회 관련자의 증언에 의하면, 김유신 태실은 종친회에서 지금까지 관리하며 제사를 지내왔고, 그림 1-④의 사진은 종친회 관계자가 1961년 2월경 찍은 것이라 한다. 또 1961년 사진의 돌무더기 형태 김유신 태실은 경남 산청군 왕산의 가락국 전 구형왕릉과 매우 비슷하며, 태실 상부에 세워진 직경 약 10㎝, 높이 약 7~8m의 참나무 기둥 2개는 1958년 미군부대가 군사용 지도 제작을 위해 세운 삼각점 표식이라 하였다. 그리고 태실 주변에서 고려~조선시대 파란색·하얀색 도자기편들이 수습되었는데, 이로 보아 옛날에도 지속적으로 태실에 제사를 지냈던 것 같다고 하였다.

〈그림 2〉 전, 구형왕릉 전경
① 전, 구형왕릉 앞면 전경 ② 전, 구형왕릉 봉석 좌측면·뒷면 전경

이와 관련하여 같은 시기의 '산청 전傳 구형왕릉仇衡王陵(사적 제214호)'이 참고 된다. 가야 구형왕릉은 가락국(금관가야)의 마지막 제10대 구해仇亥(또는 讓王)의 능이다. 이 구형왕릉은 경남 산청군 금서면 화계리 산16번지에 위치하며, 서쪽에서 동쪽으로 뻗어 내린 산의 기슭에 경사면을 따라 앞쪽에 잡석으로 7단의 기단식 석단을 쌓고 맨 위단 정상부에 타원형의 반구형 돌무덤[封石]을 한 피라밋형 석릉石陵이다. 앞면 중앙에서의 전체높이 7.15m, 하단 너비 25m이며, 4단 중앙에 높이·너비 40㎝, 깊이 68㎝의 감실을 설치하였다. 주변으로는 높이 1m 내외의 석축 담장을 돌려 왕릉을 보호하고 있다.〈그림 2〉

이 구형왕릉은 6세기 중엽에, 김유신 태실은 6세기 말에 조성된 것이다. 그런데 그 조성 시기가 그리 차이 나지 않는다. 김유신 태실과 구형왕릉은 잡석으로 쌓은 돌무더기와 주변에 석축 돌담이 돌려져 있는 등 전체적인 형태가 너무나 유사하여 동일한 모티브(motive)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전술했듯이 김유신 태실은 그의 아버지 김서현이 조성했다. 구형왕(재위 521~532)은 김서현의 조부이며, 김유신의 증조부이다. 그렇다면 김서현이 아들 유신의 태실을 조성하면서 그의 조부인 구형왕의 능을 알고 있는 김서현이 이를 참조하여 김유신의 태실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1995년 2월 파괴되기 전의 원추형 돌탑모양〈그림 1-④〉은 김유신 태실 처음 조성 당시의 형태를 그대로 간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김유신 태실은 원형과 다르게 잘못 복원된 것이므로 바로 잡아야한다.

② 설악산 진전사 원적선사는 서당西堂의 법法을 이었고, 명주(지금 강릉)에서 살았다. 선사의 휘는 도의道義요, 속성은 왕王씨다. 북한군 사람이다. 임신하기 전에 그의 아버지는 흰 무지개가 뻗어서 방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고, 어머니는 스님과 잠자리를 같이하는 꿈을 꾸었는데, 깨어나니 이상한 향기가 방 안에 가득하였다. 부모는 깜짝

놀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런 상서로움을 보건대 반드시 聖子를 얻을 것이오." 그 뒤로 반달이 지나자 胎氣가 있었는데, 胎中에서 39개월 만에 태어났다. 태어나던 날 저녁에 갑자기 기이한 스님[異僧]이 석장錫杖을 짚고 문 앞에 와서 "오늘 낳으신 아기의 태[兒胎]를 강가의 우뚝 솟은 산[臨河之嶺]에 두시오"하고는 홀연히 사라졌다. 마침내 스님의 말에 따라 태를 그곳에 묻으니, 큰 사슴이 와서 한 해 내내 떠나지 않고 지켰는데, 오가는 사람들이 보고도 해치려는 생각을 내지 않았다. 이러한 상서祥瑞로 하여 출가하였기에 법호를 명적이라 했다.

(『조당집(祖堂集)』(952) 권17 「설악진전사원적선사(雪嶽陳田寺圓寂禪師)」)

위 사료 ②는 중국 남종선을 신라에 전한 도의선사(765년 전후~830년 전후)의 태를 묻었다는 기록이다. 도의선사가 태어난 저녁에 이승異僧이 나타나 태를 강가 우뚝 솟은 산에 매태하라고 일러주었고, 이에 따라 태를 묻으니 큰 사슴이 와서 지켰다는 것이다.

도의선사가 765년(혜공왕 1) 전후에 태어났으므로 8세기 중엽 민간民間에 태처리 문화, 즉 장태문화가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또 사슴이 이곳을 지키고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태와 매태 장소의 신성성을 암시한다.

이러한 통일신라의 장태문화는 다음과 같이 고려시대에도 계속 행해지고 있다.

③ … 대사는 법휘가 형미이고, 속성은 최씨이다. … 함통 5년(864, 경문왕 4) 4월 10일에 탄생하였다. 대사는 날 때부터 남과 다른 모습이었으며, … 다음 해(919, 태조 2) 3월에 드디어 문제자 한준과 화백 등을 불러 말하기를 "개주開州(지금 황해도 개성)의 오관산五冠山은 ○○의 장태처藏胎處이다. 이 산은 산세가 매우 아름답고, 지맥이 편평하고 안정되어 있어 무덤을 쓸 만한 곳으로 마땅하니, 반드시 존귀한 분의 명복을 빌 수 있는 곳이다. 스님들과 유사有司는 빨리 산사山寺를 짓고 석탑을 조성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 탑이 만들어지자 스님들이 울면서 시신을 받들어 (새로) 만든 무덤에 옮겨 장사葬事를 지냈다. 2년이 지나 (임금께서) 조詔를 내려 말하기를, "(대사의) 선덕禪德을 널리 드러내기 위해서는 의당 아름다운 이름을 내려야 마땅할 것이다."고 하였다.

(「고려국고무위갑사선각대사편광령탑비명(高麗國故無爲岬寺先覺大師遍光靈塔碑銘)」(921))

위 사료 ③은, 무주(지금 전남 광주) 출신의 선각대사 형미(864~917)가 죽자 태조가 재위 2년(919) 형미의 제자들에게 ○○의 태가 묻힌 개주의 오관산에 추모하는 절을 짓고 유골을 봉안하는 탑을 세우게 하여 재위 4년(921) 완성되자 최언휘로 비문을 짓게 한 것이다.

고려 태조가 919년(태조 2) 개성 오관산이 장태처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나말여초에 장태습속이 일반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한국에서 태를 소중히 여겨 처리하는 장태문화는 김유신에서 보듯이 신라 '6세기 중엽'에 귀족층이나 왕실을 중심으로 행해졌고, 도의선사에서 보듯이 통일신라 '8세기 중엽'에는 민간에까지 확대되었으며, 선각대사에서 보듯이 나말여초 '10세기 초'에는 성행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전술한 사료 ①과 달리 사료 ②·③에서 풍수지리가 접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즉 혜공왕 1년(765) 전후에 매태 장소로 물이 흐르는 주변의 우뚝 솟은 산[臨河之巓]이 선정되고, 산 정상[山頂]에 5개의 작은 봉우리가 둥그렇게 관冠처럼 생겼다하여 불린 오관산이 선정되고 있다. 물이 흐르는 주변의 우뚝 솟은 산[臨河之巓]과 둥근 봉우리[圓峯]는 후술하겠지만,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돌혈의 형국〈**그림 4**-①〉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6세기 중엽에는 풍수지리와 관련없이 고산준령에 태를 묻었으나, 8세기 중엽에는 명당인 돌혈의 형국에 매태하였다. 이는 태실의 풍수적 입지조건을 제시한 당나라 일행선사(683~727)의 『육안태법』(『태장경』)이 한국에 적용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후 도선(827~898)에 의해 한국의 풍수사상이 9세기에 확립됨에 따라 10세기 초에는 돌혈에 매태하는 것이 성행하여 일반화되었던 것이다.[9]

결국 한국의 태처리 문화[藏胎文化]가 중국의 풍수지리와 접목되어 명당인 돌혈에 조성되기 시작하는 시기는 '8세기 중엽 이전'으로 올려볼 수 있으며, 이는 일행의 『육안태법』이 전래된 이후의 일이다. 이러한 풍수지리의 적용은 후술하겠지만 고려와 조선시대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태실이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돌혈의 형국에 조성되는 것은 마치 태아가 탯줄로 산모에게 직접 연결되어 있듯이 돌혈에서 긴 내맥을 통해 부모산에 연결된 만물의 형상을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산 정상에 기가 응축된 돌혈을 선택하여 태를 묻음으로써 산천의 좋은 기가 태신胎神을 통해 태주胎主에게 동기감응同氣感應하여 좋은 일이 있게 된다는 풍수논리가 적용된 것이다.[10]

9 沈賢容(李芝賢 譯), 2022,「朝鮮王室胎室の立地と構造」,『近世大名の葬制と社會』近世大名墓の新視点 2, 雄山閣.
10 민병삼, 2016,「태실의 풍수적 생명사상 연구」,『영남학』,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03
한국의 태실

1. 고려시대 태실

고려시대에도 계속해서 장태가 행해졌는데, 왕실에서 태실을 조성하는 것이 다음의 문헌기록에서 확인된다.

〈표 3〉 고려시대 태실 현황

번호	태주	위치	비고
1	1대 태조	경기도 개성시 박연리[대흥동 태안] (태안사, 태봉산)	『신증동국여지승람』
2	12대 순종	강성군[현, 경남 진주시] (장수사)	『대각국사문집』
3	17대 인종	경남 밀양군 초동면 성만리 산107-2 (태봉산, 구령산)	『신증동국여지승람』
4	18대 의종	신령군[현, 경북 영천시 신녕면·화산면·화북면·화남면과 경산시 와촌면 일대] (향복사)	『용수사개창기』
5	22대 강종 (1172, 명종 2)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리 산83 (용문사, 용문산, 좌비봉)	『고려사』,「중수용문사기」 / 기양현 승격
6	20대 신종 (1198, 신종 1)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구, 경기 김포시 검단면 대곡리] (태봉산)	『고려사』/ 김포현 승격
7	24대 원종	황해도 서흥군	『고려사』/ 서흥현 승격
8	25대 충렬왕 (1274, 충렬왕 즉위년)	경북 영주시 순흥면 배점리 (초암동, 소백산, 태봉산)	『고려사』/ 흥년현 승격
9	충렬왕후 (제국대장공주)	경북 영주시 순흥면 배점리 (소백산, 태봉산)	「해동지도」, 『증보문헌비고』
10	26대 충선왕 (1278, 충렬왕 4)	경상도 안동부[현, 경북 안동]	『고려사』
11	27대 충숙왕 (1313, 충숙왕 즉위년)	경북 영주시 순흥 (소백산, 경원봉, 경원사)	『고려사』/ 흥주 승격
12	29대 충목왕 (1347, 충목왕 3)	경북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 산17 (욱금동, 소백산, 태봉산, 문필봉)	『고려사』/ 순흥부 승격
13	31대 공민왕 (1353, 공민왕 2)	강원도 원주시 행구동 산104-1 (치악산[군둔치=고둔치], 태봉산, 치악태봉)	『고려사』/ 원주목 승격
14	32대 우왕 (1376, 우왕 2)	경북 안동시 예안면 태곡리 산39 (태봉, 태복등)	『고려사』/ 예안군 승격
15	33대 창왕	?	『고려사』

이와 같이 〈표 3〉에서 고려시대 태실은 『고려사』,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의 문헌기록에서 15개소가 조사된다. 고려 1대 태조(877~943, 재위 918~943)부터 태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12대 순종부터는 다수의 태실이 조성되었다.

그런데 〈표 3〉을 살펴보면, 고려시대에는 왕과 왕위王位를 이을 태자만 태실이 조성되고 대부분 읍격이 승격되는 공통점이 보인다.

인종(후술 참조), 강종과 충선왕은 태자 때 태실이 조성되고, 순종·의종은 알 수 없으나, 나머지는 왕위에 오른 후에 장태되었다.

특히 명종의 태자인 강종의 태를 보주(지금 경북 예천)에 묻고 기양현으로 그 읍격을 승격시켰다. 이후 임금(신종, 원종, 충렬왕, 충숙왕, 충목왕, 공민왕, 우왕)의 태를 묻은 곳은 모두 읍호를 승격시키고 있다. 이러한 승격제도는 고려시대 와서 처음 생긴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태실제도는 고려 초에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시기가 지나면서 어느 때부터 제도적으로 성립된 것 같다.

고려 말 왜구가 침입해 왔을 때 우왕이 경상도 안동에 있는 자신의 태실을 보호하라고 안동부사에게 지시하는 『고려사』의 기록[11]에서 고려 왕실이 국가적 차원에서 태실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로 보아 고려시대에는 태실 조성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제도적으로 시행된 것은 분명하다. 이는 다음의 고려 과거제도에서도 파악된다.

> ④ … *광종이 쌍기의 의견을 채용하여 과거로 인재를 뽑게 하였으며, 이때로부터 문풍文風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그 법은 대체로 당나라 제도를 많이 채용한 것이다. … 과거에는 제술, 명경 두 과가 있었고 의복, 지리, 율학, 서학, 산학, 삼례, 삼전, 하론 등 잡과가 있었는데 각기 그 전문 과목에 대하여 시험치고 출신出身을 주었다. … 지리업地理業의 방식은 첩경貼經 방법으로 2일 내에 실시하되 첫날에는 『신집지리경新集地理經』에 10조條를, 다음날에는 『유씨서劉氏書』에 10조를 첩경 시험 쳐 이틀 동안 것이 모두 6조 이상씩 통通하여야 한다. 『지리결경地理決經』8권, 『경위령經緯令』2권 합하여 10권을 읽히는데, 문리와 글 뜻을 잘 안 것이 여섯 궤机가 되어야 하며, 문리 잘 안 것이 네 궤가 되어야 하며, 『지경경地鏡經』4권, 『구시결口示決』4권, 『태장경胎藏經』1권, 『가결訶決』1권 합하여 10권을 읽는데, 문리와 글 뜻을 잘 안 것이 여섯 궤라야 하는데, 문리를 잘 안 것이 네 궤가 되어야 한다.*
>
> *(『고려사』(1451) 권73 지27 선거1 과목1 과거 인종 14년(1136) 11월)*

위 사료 ④에서 잡과 지리업 과거시험에 『태장경』을 읽게 하였다. 태를 묻는 시기와 이유를 기록한 『태장경』이 풍수 관료의 과거시험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풍수사의 고유업무 중 하나가 장태였으며, 국가차원에서 태실이 조성되어 제도로 성립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늦어도 『태장

11 『고려사』(1451) 권135 열전48 신우 계해 9년(1383) 7월.

〈그림 3〉 고려 인종과 광종 태봉산
① 고려 인종 태봉산 ② 고려 강종 태봉산

경』이 시험과목에 포함된 시기인 '1136년(인종 14)'부터는 풍수지리의 원칙에 의해 태실 입지가 선정되었을 것이다. 다행히 고고학적으로도 인종 태실이 확인되어 입증된다. 왜냐하면 인종 태실의 입지가 풍수지리적으로 돌혈의 형국에 해당되기 때문이다.〈그림 3-①〉

인종(1109.10.4~1146.2.28, 재위 1122.4~1146.2)은 제17대 임금으로 제16대 예종(1079.1~1122.4, 재위 1105.10~1122.4)과 순덕왕후 이씨의 장남이다. 인종은 1115년(예종 10) 2월 왕태자에 책봉되었으며, 1122년(예종 17) 왕위에 올랐다. 고려시대에는 왕과 왕위를 이을 태자만 태실이 조성되었으므로 인종 태실도 태자가 된 이후~왕으로 재임한 사이(1115년 2월~1146년 2월)로 볼 수 있으며, 더 좁히면 '1115년 2월~1136년 11월'사이로,[12] 인종이 태자 때 태실이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태실이 조성될 장소인 생기生氣가 뭉쳐있는 '돌혈'을 찾아내는 풍수지리적 방법은 전술하였듯이 이미 '8세기 중엽'에는 적용되어 10세기 초에 일반화되었으므로 인종 태실도 풍수지리가 적용되었음은 당연하다.

그리고 강종 태실도 그 위치가 파악되어 조성되는 입지를 살펴볼 수 있다.

> ⑤-1) *안동의 임내인 보주(지금 경북 예천)는 태자의 태를 묻은 곳[胎藏]이므로 현령으로 승격시켰다.*
>
> *(『고려사』세가 권19 명종 2년(1172)6월)*

> -2) *신묘년(1171)에 음양관이 지금 태자의 장태지胎藏地를 절문 밖 좌비봉 꼭대기[左臂峯頭]에 점쳐 정하였다.*
>
> *(『중수용문사기』(1185))*

12 심현용, 2015, 「고려시대 태실에 관한 고고학적 시론」, 『강원사학』 27, 강원사학회.

-3) 고려에서 보주로 고쳐 안동 임내에 속하게 하였다. 명종 2년(1172) 임진에 태자의 태를 묻었으므로[胎藏] 기양현으로 고치고 현령을 두었다.

(『세종실록지리지』(1454) 경상도 안동대도호부 예천군)

-4) 명종 2년(1172)에 태자의 태胎를 묻고[藏] 기양으로 고쳐 승격시켜 현령으로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권24 경상도 예천군 건치연혁)

위 사료 ⑤는 강종(1152.5.10.~1213, 재위 1211.1.~1213.8.)이 태자로 있을 때 1171년(명종 1) 예천의 용문사 좌비봉으로 장태지가 선정되어 1172년(명종 2)에 장태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 용문사 바깥 '좌비봉(또는 왼쪽에 있는 비봉)'으로 추정되는 곳(예천군 용문면 내지리 산83)에 조선시대 폐비윤씨의 가봉태실이 조성(1478)되어 있다.〈그림 3-②〉 이 태실의 입지가 바로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돌혈의 형국에 해당된다.[13]

이러한 태실의 풍수지리적 입지 조건인 '돌혈'의 형국은 조선시대의 기록이지만 다음에 잘 나타나 있다.

⑥ 지난 선조 때인 만력 33년(1605)에 공주 태봉은 200보로 제한한다는 정탈定奪을 예조에서 받아 시행했다는 기록이 지금 『관상감등록觀象監謄錄』에 올라 있습니다. 무릇 태봉胎峯은 산꼭대기[山頂]에 쓰는 것이 예例이다. 원무元武(玄武)는 없으며, 내맥來脈來龍·청룡靑龍·백호白虎·안대案對(案山)는(를) 살펴서 택하는 것(일)이라고 합니다[凡胎峯例用於山頂元無來脉龍虎案對看擇之事云].[14] 이번 왕녀 태봉 보수步數는 선조 때 규정[定式]대로 따르는 것이 마땅할 듯 하오니 … 아뢴 대로 하라고 윤허允許하였다.

(『태봉등록』현종조 임인(1662, 현종 3) 2월 초1일)

---

13 민병삼, 2021, 「예천지역 태실의 풍수적 특징 -문종·장조·폐비윤씨·문효세자·오미봉 태실을 중심으로-」, 『예천의 태실과 조선시대 태실문화』, 민속원, 145~148쪽.

14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 선행연구자들(박주헌, 2004, 「태봉의 풍수지리학적 입지특성 연구(순조, 세종 왕자, 예종 태봉을 중심으로)」, 대구한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쪽; 권영대 역, 2006, 『국역 태봉등록』, 국립문화재연구소, 38쪽; 박대윤·천인호, 2010, 「조선 성종 태봉의 풍수지리적 특징 비교 -초장지와 이장지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33,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342쪽; 박대윤, 2010, 「조선시대 국왕태봉의 풍수적 특성 연구」, 동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29~30쪽; 김태일, 2012, 「조선의 왕릉과 태봉의 비교 연구 -동기감응론과 풍수이론 중심으로-」, 동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134~135쪽; 이재완, 2013, 「경북 예천지역 태실에 관한 일고찰」, 『고궁문화』 6, 국립고궁박물관, 116쪽; 심현용, 2015, 「조선시대 태실에 관한 고고학적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74쪽; 김두규, 2015,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과 풍수」, 『영남학』 28,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28쪽; 윤진영, 2015, 「조선후기 태봉도의 사례와 도상의 특징」, 『영남학』 28,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74쪽; 심현용, 2016, 『한국 태실 연구』, 경인문화사, 156쪽; 박대윤, 2018, 『조선 국왕태봉의 풍수적 특성』, 시간의물레, 25쪽; 박상구, 2020, 「조선왕실 태실의 풍수적 입지조건과 가치 고찰」, 『풍수명당 설계와 장례 문화』 1, 맑은샘, 124~126쪽; 최원석, 2021, 『조선왕실의 풍수문화』, 지오북, 206쪽; 장지연, 2022, 「고려 왕실의 태실에 대하여」, 『역사와 현실』 124, 한국역사연구회, 270쪽)은 '元無'를 '원래 ~는 없다(아니다)'로 번역하여 대부분 "무릇 태봉은 산의 정상을 쓰는 것이 전례이며, 내맥이나 좌청룡 우백호나 안산은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로 잘못 번역[誤譯]하였다. 즉 '내맥이 없고 용호가 마주 보는 곳'이라든가 '내맥이 없고 좌청룡·우백호·안산이 마주 보는 곳도 없어야 한다'든가 '내맥이나 좌청룡·우백호·안산은 따지지 않는다'라고 하여 풍수 논리와 완전히 배치(背馳)되는 설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민병삼이 '元無'에서 '元'이 '元武(玄武)'라는 것을 처음으로 밝혀내고(민병삼, 2016, 「태실의 풍수적 생명사상 연구」, 『영남학』 31,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36쪽) 본문과 같이 풍수이론과 맞는 올바른 번역[凡胎峯例用於山頂, 元無, 來脉龍虎案對看擇之事云]을 완성하였다.(민병삼, 2021, 「예천지역 태실의 풍수적 특징 -문종·장조·폐비윤씨·문효세자·오미봉 태실을 중심으로-」, 『예천의 태실과 조선시대 태실문화』, 민속원, 130~133쪽). 이는 태봉의 입지 조건으로 부모산은 있지만 현무는 없이 내룡이 탯줄처럼 길게 이어져 내려오다 결인속기(結咽束氣)하고 비룡승천(飛龍昇天)하여 내맥이 하늘로 솟아올라 혈장(穴場)을 만드는 풍수지리의 돌혈 형상을 제대로 설명한 것이다. 이후 심현용도 자신의 견해를 철회하고 민병삼의 2021년 설을 지지하였다.(沈賢容, 2022, 「朝鮮王室胎室の立地と構造」, 『近世大名の葬制と社會』 近世大名墓の新視点 2, 雄山閣, 244쪽)

위 사료 ⑥은 태실의 입지 조건으로 "태실은 산꼭대기에 쓰는데, 현무는 없으며 내맥이나 좌청룡·우백호와 안산을 살펴서 택하는 것이 원칙이다."라 하여 길지를 명확히 설명하였다. 이는 풍수지리에 의해 부모산父母山(主山)이나 사신사四神砂 등이 태실의 입지에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은 전하지 않아 알 수 없지만 중국 당나라 일행張一行(683~727)의 『육안태법』과 명나라 왕악(1485~1505)의 책,[15] 그리고 누구의 저술인지 알 수 없지만 『안태서』[16]에 태실 입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림 4〉 무현무의 태실입지와 현무수두의 풍수입지 비교[17]
① 무현무〈無玄武〉의 태실입지 ② 현무수두〈玄武垂頭〉의 풍수입지

그러므로 태봉산은 부모산에서 주맥主脈이 혈처穴處까지 내맥來脈의 경사가 낮아지다가 혈 뒤에서 갑자기 결인속기結咽束氣한 후 하늘로 높이 솟아 반구형 또는 삿갓형[笠形]의 봉우리를 이루고 그 정상에 태실의 혈장穴場을 형성한다. 그 주위에는 좌청룡과 우백호가 감싸고 앞에는 안산이 있는 곳이고 특히 현무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지형은 풍수지리적으로 와·겸·유·돌窩鉗乳突의 사상四象 중에서 '돌혈突穴'의 형상形狀에 해당하는 것이다.[18] 〈그림 4〉

그리고 〈표 3〉을 자세히 살펴보면, 순종長壽寺·의종嚮福寺·강종龍門寺은 태장소胎藏所로서 사찰이 지정되고 있다. 이는 태장胎藏된 곳의 사원寺院이 왕실 원당願堂으로써 태실 수호사찰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왕녀의 태실은 전혀 조사되지 않는다. 다만 유일하게 왕비로서 충렬왕(1236~1308, 재위 1274.6.~1298.1., 복위 1298.8.~1308.7.)의 비인 제국대장공주 장목왕후(1259~1297)의 태가 경상도 순흥에 묻

15 『세종실록』 세종 18년(1436) 8월 8일(신미).
16 『세종실록』 세종 26년(1444) 1월 5일(을묘).
17 민병삼, 2021, 「예천지역 태실의 풍수적 특징 -문종·장조·폐비윤씨·문효세자·오미봉 태실을 중심으로-」, 『예천의 태실과 조선시대 태실문화』, 민속원, 134쪽.
18 심현용, 2015, 「조선시대 태실의 입지에 대한 재검토」, 『대구사학』 118, 대구사학회.

혔다고 한다. 이는 『고려사』(1451)에서 확인되지 않고, 『해동지도』(1750~1751) 「경상도 풍기현지도」주기의 산천草庵洞 在小白山藏高麗忠烈王后胎[초암동은 소백산에 있으며, 고려 충렬왕후의 태를 묻었다]과 『증보문헌비고』(1908)[19]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초암동은 이미 충렬왕의 태가 묻힌 곳으로 문헌기록에 나타나므로[20] '忠烈王胎'가 '忠烈王后胎'로 잘못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또 장목왕후는 중국 원나라 세조의 딸로 1272년(원종 13)부터 중국에 입조해 있던 태자(충렬왕)와 1274년(원종 15) 혼인하고 태자가 왕위에 오르자 1274년 11월 고려에 왔는데, 중국에서 그녀의 태를 가져와 한국에 장태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결국 고려 왕실의 태실문화는 장태문화의 습속에서 처리되어오다가 늦어도 12세기 초 예종 때부터 의례화되어 제도적으로 성립되고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되었으나, 후술하는 조선시대처럼 체계적으로 정립·발전되지는 못하였다.

2. 조선시대 태실

조선 왕실은 초기부터 태실에 관심이 지대하였다. 국가에서 태실을 조성할 때 태실도감을 설치하고 풍수지리에 능통한 대신大臣을 선정하여 태실증고사로 삼아 전국으로 명당을 찾게 하였다. 태실지로 마땅한 곳을 찾게 되면 지형을 그린 「태봉도」를 왕에게 바치고 그 과정을 의궤로 남겼다.

조선시대 들어와 태실은 아기태실阿只胎室과 가봉태실加封胎室로 구분된다. 아기태실은 태를 돌혈이라는 태봉산에 갈무리하여 조성되는 최초의 태실을 지칭하며, 가봉태실은 아기태실의 주인공이 왕위에 오르면 석물을 화려하게 치장하여 가봉하는 태실을 말한다. 그러므로 두 태실의 신분적 위계가 달라 유물과 구조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21]

태조는 권중화를 태실증고사로 삼아 길지를 찾게 하였는데, 권중화는 산수형세도를 그려 바쳤다.[22] 태종은 하륜으로 태실증고사를 삼았으며,[23] 세종도 정이오를 태실증고사로 삼아 태실산도를 바치게 했다.[24] 이렇게 태실 주변을 그린 「태봉도」는 현재 장조, 순조, 헌종, 순종의 것만 남아있다.

태실에 수지기[守直]를 두는 것은 태종에서 처음 확인되는데, 태종 가봉태실에는 태실 시위품관 4명과 수호인 10호를 두었다.[25] 태실 조성을 관장하는 태실도감의 설치는 세종 때 처음 확인되나,[26] 전례前例를 따라 설치한다는 것으로 보아 이전 시기, 즉 고려시대부터 설치되었던 것 같다.

---

19 『증보문헌비고』(1908) 권231 직관고18 외관2 도호부사 경상도 인동도호부사.
20 『고려사』(1451) 권57 지11 지리2 경상도 안동부 흥주; 『경상도지리지』(1425) 경상도 순흥도호부; 『세종실록지리지』(1432) 권150 순흥도호부;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권25 경상도 풍기군 산천·고적; 『여지도서』(1757~1765) 경상도 풍기군 산천·고적 및 경상도 순흥부 건치연혁.
21 沈賢容(李芝賢 譯), 2022, 「朝鮮王室胎室の立地と構造」『近世大名の葬制と社會』近世大名墓の新視点 2, 雄山閣.
22 『태조실록』 태조 2년(1393) 1월 2일(무신).
23 『태종실록』 태종 1년(1401) 7월 23일(경술).
24 『세종실록』 세종 즉위년(1418) 10월 25일(신축).
25 『태종실록』 태종 1년(1401) 10월 8일(계해).
26 『세종실록』 세종 즉위년(1418) 8월 14일(신묘).

조선 초 태조, 정종, 태종, 세종은 민간인 때 장태되었던 태를 옮겨와 길지에 태실을 조성하였다. 이로 보아 고려 말에도 계속해서 장태문화는 민간에 일반화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조선 초 태조, 정종, 태종, 세종, 문종은 태실을 조성하고 그 지역의 읍격을 승격시키고 있는데, 이는 고려시대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다. 그런데 네 임금 모두 처음부터 가봉태실이 조성되며 특히 태조의 가봉태실이 재위 2년(1393)에 충남 금산에 조성되는 것으로 보아 가봉태실의 구조는 조선이 시작되면서 처음부터 고려와 다르게 확립되었던 것 같다.

이들 왕 중 세종은 태를 옮겨 봉안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27] 즉, 안태사가 태를 이안할 때 안태처에 채붕을 짓고 나희를 베풀며, 지나가는 고을에는 관문에 채색 누각을 짓고 위의를 갖추어 교외에서 맞이하게 하였으며, 각 도의 감사와 수령은 자기 관내를 넘어 오지 못하게 하였다. 또 안태 후 3년에 한 번씩 지내는 태실안위제를 태조와 정종 때 행하지 않았다하여 폐지시켰으나,[28] 지속적으로 장태 시 예법을 정비해 나갔으며,[29] 장태안위제는 실시하여[30] 의례절차를 규정해 나갔다.

세종은 세자(문종)[31]을 제외하고 진양대군(세조)를 비롯한 대군과 왕자 등 18명의 아들과 원손(단종)의 태실을 1438년 3월~1442년 10월 성주 선석산 태봉 한 곳에 조성하였다.[32] 이로써 고려시대에 왕과 태자만 태실을 조성하던 전통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왕위를 잇지 않는 모든 아들과 왕비까지 태실을 조성하게 된다.

또 세종은 소헌왕후의 가봉태실에는 품관 8명과 군인 8명을, 동궁(문종) 아기태실에는 품관 4명과 군인 4명으로 수호하게 하여 가봉태실과 아기태실에 차등을 두어[33]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시작하였다.[34]

그리고 문종은 왕세자(단종)의 1차 아기태실이 성주 선석산 태봉에 있는 것을 재위 1년(1451)에 경상도 성주 가야산 내 법림산으로 택정하여 2차 아기태실을 조성[35]하면서 태실 사방四方에 금표비를 세웠다.[36] 이것이 보수 제한의 첫 문헌기록이다.

또 태봉 부근의 절은 축령祝靈하는 곳으로 삼아 옛날 태실의 예例와 같이 하였다.[37] 즉 태조는 봉루사, 정종은 직지사, 태종은 태봉사, 소헌왕후는 초암사, 정희왕후는 수타사, 문종·장조는 명봉사, 세조는 선석사, 단종은 선석사·법림사, 폐비 윤씨는 용문사, 인종은 백지사(은해사), 명종은 문수사, 선조는 오덕사, 인조는 정토사, 정조는 정양사, 순조는 법주사, 순종은 정암사 등의 사찰이 태실 주

27 『세종실록』 세종 즉위년(1418) 11월 5일(신해).
28 『세종실록』 세종 3년(1421) 10월 10일(기해).
29 『세종실록』 세종 15년(1433) 7월 22일(계유).
30 『세종실록』 세종 21년(1439) 1월 10일(기축).
31 심현용, 2021, 「예천 문종과 장조 태실의 구조와 복원」, 『예천의 태실과 조선시대 태실문화』 예천박물관 학술총서 2, 민속원.
32 심현용, 2015, 「성주 선석산 태실의 조성과 태실구조의 특징」, 『영남학』 27,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33 『세종실록』 세종 21년(1439) 1월 16일(을미); 심현용, 2023, 「조선초 영주 소헌왕후 태실의 조성과 왕비 태실 구조」, 『제15회 유계영주향토사연구발표회』, 영주문화유산보존회.
34 심현용, 2016, 『한국 태실 연구』, 경인문화사, 117~118쪽.
35 『문종실록』 문종 1년(1451) 3월 6일(을사); 『세조실록』 세조 4년(1458) 7월 8일(계사); 심현용, 2012, 「조선 단종의 가봉태실에 대한 문헌·고고학적 검토」, 『문화재』 45-3, 국립문화재연구소.
36 『문종실록』 문종 1년(1451) 3월 6일(을사).
37 『문종실록』 문종 1년(1451) 1월 22일(임술).

변에서 확인되는데, 고려시대 태실 수호사찰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다.[38]

성종(1457~1494, 재위 1469~1494)은 경기도 광주에 있는 자신의 태실을 재위 2년(1471)에 가봉한다. 그러나 성종은 풍수설은 거짓이 많아서 미덥지 않으므로 그동안 하삼도에 하던 장태를 멀고 가까운 곳에 관계없이 길지를 찾아 가까운 경기도에서 정하도록 지시하였다.[39] 그러나 이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며, 세조 때에도 경기도에 조성하게 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성종 때부터 태실 조성의 대상자가 다시 확장된다.

즉 재위 7년(1476)에 딸도 태실을 조성하였다. 이렇게 성종 때 왕녀의 태실이 처음 조성되며, 그동안 왕과 왕의 아들 및 원손에 한해 설치되던 태실을 딸에게까지 그 범위를 넓혔으며, 이때 조선 왕실의 태실제도가 완전히 확립되었다.[40]

이는 성종이 길례吉禮·가례嘉禮·빈례賓禮·군례軍禮·흉례凶禮에 대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1474)와 통치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1485)을 완성하고 반포하여 국가의 전반적인 체제를 완성하였는데, 태실제도도 이 일련의 과정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태실제도의 확립은 고고자료인 태호·태함·아기비·중앙태석의 유물과 아기태실의 지하 및 지상구조 변화에서도 파악되는데, 조선 초기의 과도기적 현상이 성종 때 들어와 모두 정형화定型化되었다.[41]

성종은, 재위 24년(1493) 권정이 태봉을 구하기 어려우므로 여아女兒의 경우, 특히 옹주의 태는 한 곳에, 그리고 가까운 곳에 묻자고 건의하자 관상감에 알아보게 하였다.[42] 하지만 이미 경기도 광주의 성종 왕녀 2개소 태실(1481.7.), 경북 밀양의 성종 왕녀 2개소 태실(1481.10.) 및 경북 상주의 성종 왕자인 안양군과 완원군 태실(1484.10.)이 각각 한 곳에 장태되고 있었다.

중종(1488~1544, 재위 1506~1544)도 성종처럼 풍수설은 믿을 수 없다면서 태실증고사를 파견하지 말고 지리관을 보내 해당 도의 감사와 함께 길지를 찾게 하며, 장태지도 가까운 경기도에서 선정하게 한다.[43] 그러나 이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

이러한 여러 왕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조선은 임진왜란(1592~1598)을 겪으면서 태실제도에 더욱 큰 변화가 발생한다.

그동안 평시에 태실증고사를 뽑아 태봉으로 합당한 곳을 찾아 3등으로 나누고 장부를 만들어 관상감에 보관해 두었다가 장태할 시기가 오면 임금에게 보고하여 추천한 3곳 중 1곳을 낙점[三處備望] 받아 장태하는 것이 전례였다. 그런데 임진왜란으로 태봉 장부가 불타 없어지자 1602년(선조 35) 선조는 태실증고사를 파견하던 제도를 없애고 각 도道의 도사에게 그 일을 담당하게 하였으며, 도사는 관상감의 지리학 관원을 데리고 태봉으로 적합한 곳을 살펴 등급을 분류하여 미리 장부를 만들어 두었다가 사용하게 한 것이다.[44]

---

38 탁효정, 2023, 「조선 왕실 태실수호사찰의 역사적 유래와 기능」, 『역사민속학』 64, 한국역사민속학회.
39 『성종실록』 성종 7년(1476) 11월 28일(무진).
40 심현용, 2016, 『한국 태실 연구』, 경인문화사, 121~122쪽.
41 심현용, 2021, 「조선시대 태실제도」, 『예천의 태실과 조선시대 태실문화』, 민속원, 29쪽.
42 『성종실록』 성종 24년(1493) 10월 10일(신미).
43 『중종실록』 중종 12년(1517) 11월 23일(을미).
44 『선조실록』 선조 35년(1602) 6월 25일(을묘).

이러한 지시는 중종도 재위 12년(1517)에 하였으나, 준행되지 않았기에 선조 때 와서 태실증고사를 파견하던 관행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특히 인조(1595~1649, 재위 1623~1649)는 재위 21년(1643) 세 아기의 태를 나이 순서에 따라 한 봉우리에 같이 장태하도록 하여 태실 조성에 드는 공역工役을 줄였다.[45] 이는 고고자료에서도 확인된다.

이후 효종도 경북 김천에 숙명공주와 숙경공주의 태를 한 산에 묻고(1660.10.), 강원도 원주에 숙휘공주와 숙정공주의 아기태실을 함께 조성(1662.11.)하며, 현종(1641~1674, 재위 1659~1674)도 충남 부여에 명혜공주와 명안공주의 아기태실을 한 곳에 조성(1670.3.)한다.

이러한 정책을 이어받아 숙종은 앞으로는 태봉을 각각 설치하지 말고 산 하나를 골라 한꺼번에 나열하여 묻고 아기비만 세우게 하였다.[46] 이는 한 개의 태실이 한 산을 다 차지하는 폐단을 지적한 것이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또 숙종 때에 들어와 태조, 인종, 명종, 선조, 현종 등 선왕들의 훼손된 가봉태실을 보수하고 태조와 명종 가봉비를 개건하여 태실에 관심을 보였다.

특히 영조(1694~1776, 재위 1724~1776)는 지금까지의 어느 임금보다도 태실 폐단을 해소하고자 장태 범위와 석물 규격 축소, 동태동강론, 궁궐 안 어원의 장태 등 여러 차례 강도 높은 노력을 하였다.

그중 지금까지의 어느 개선 방안보다 더 획기적인 '태봉윤음'을 재위 34년(1758)에 반포한다.

> ⑦ *임금이 숭문당에 나아가서 승지에게 명하여, 태봉윤음胎峰綸音을 입으로 불러 쓰게 하였는데, 이르기를, "이제 상고[覽考]해 온 『실록實錄』을 보니, 광묘光廟(세조)의 잠저潛邸 때 태봉胎峰이 성주 선석산星州 禪石山에 있는데, 여러 대군과 여러 왕자의 태봉이 같이 있기 때문에 예조에서 다시 봉封하기를 청하매, 그때 민폐를 위하여 동태의 교[同胎之敎]가 있었는데, 단지 다시 돌만 세우게[竪石] 하였으니, 아름답고 거룩하다. 이로써 보건대, 근래에 태봉을 반드시 봉우리 정상[峰頂]에 하는 것은 바로 그릇된 예이고 또 예조의 「초기草記」 중 '동강同崗'두 자를 보더라도 정상頂上이 아님을 가히 알 수 있다. 동태同胎의 아우를 형의 태봉 아래에 묻고 손아래 누이를 손위의 누이 태봉 아래에 묻는 것은 이치의 떳떳함이다. 하물며 예전의 고사故事가 있으니, 비록 동강에 묻는다하더라도 무슨 혐의로움이 있겠는가? 지금은 한 태를 묻는 데에 문득 한 고을을 이용하니, 그 폐단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이것도 마땅히 조종의 제도[祖宗之制]를 본 받아야 될 것이니, 이 뒤로는 새로 정하지 말고 차례로 이어서 묻되, 한 산 등성이가 비록 다하였을지라도 한 산 안[一山之內]에 또 다른 산등성이他崗를 이용할 것이며, 그 이어서 묻는 곳은 서로의 거리가 2, 3보에 지남이 없도록 하라. 이른바 동생을 형의 태봉 아래에 묻는다는 것이다. 세자와 여러 서자의 장태는 이미 그냥 두라고 명하였으나, 이 뒤에는 비록 여러 적자와 군주가 있을지라도 원손과 두 군주의*

45 『태봉등록』 인조조 을유(1645, 인조 23) 윤6월 17일.
46 『태봉등록』 숙종조 무오(1678, 숙종 4) 6월 24일.

장태한 산[藏胎之山]을 같이 이용할 것이며, 일후日後에 대군·왕자 이하의 장태도 그렇게 하도록 하라. 대代의 멀고 가까움을 구애하지 말고 산등성이가 다하는 것[崗盡]으로 한정할 일을 운관雲觀에 분부하라."하였다.

(『영조실록』영조 34년(1758) 3월 24일(경술))

위 사료 ⑦은 영조가 『조선왕조실록』에서 이전의 태실 기록을 살펴서 "세조가 자신의 아기태실을 가봉할 때 성주 선석산 태봉에 여러 대군·군 아기태실과 함께 있는데도 옮기지 않았고 석물은 가봉비만 추가한 것"을 태실 폐단을 줄이는 모범 사례로 언급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태봉은 반드시 산 정상에 할 필요가 없으므로 형제·자매의 태를 같은 산등성이[同岡]에 차례로 이어 묻고, 한 산등성이가 다하면 한 산 안에 또 다른 산등성이를 이용토록 하는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성종의 계축년(1493) 지시, 인조의 계미년(1643) 지시, 그리고 숙종의 무오년(1678) 지시인 '동태동강론同胎同岡論'을 계승한 것이다.

다시 영조는 7년 후(1765, 영조 41) 장태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길지에 묻지 말고 궁궐 내 어원御苑에 묻게 하는 파격적인 지시를 내린다.

⑧ 경복궁의 위장衛將이 옛 궁궐[舊闕]의 곁에서 석함石函 하나를 얻어서 바쳤다. 임금이 가져오게 하여 보니, 곧 석함에 태를 봉한 것[封胎]이었는데, 석함 표면[石面에 '壬子乙巳五月日寅時生[왕자는 을사년 5월 ?일 인시에 태어남]'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임금이 옥당에 명하여 『보략譜略』을 상고하여 찾아 아뢰라고 하였다. 이어서 하교하기를, "국초의 헌릉 능 위에 있는 사방석이 민폐가 크다고 하여 성조聖祖께서 친히 능소陵所에 나아가시어 양편석兩片石으로 고치게 하셨다. 『국조능지國朝陵誌』에 옛날에는 돌로써 하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정축년(1757, 영조 33) 이후에 열조의 검소한 덕을 우러러 본받아 도자기[磁]로 대신하게 하였다. 막중한 곳인 능도 오히려 그러하였거든, 하물며 그 다음 가는 것이겠는가? 장태하는 폐단은 내가 익히 아는 바이다. 옛날 예[古例]를 고치기 어려우나, 지금 옛 궁궐에서 장태 석함을 얻었는데, 이는 '중엽 이후'의 일이다. 전에 이미 봉태한 것은 지금에 와서 논할 것이 없고, 지금부터 장태는 반드시 어원의 정결한 곳에 도기 항아리[陶缸]로 묻게 하고 이로써 의조儀曹에 싣게 하라."하고, 드디어 정식定式으로 삼았다.

(『영조실록』영조 41년(1765) 5월 13일(정해))

위 사료 ⑧의 조치는 영조가 옛 궁궐에서 우연히 발견한 태함으로 인한 것이다. 영조는 구궐에 장태한 것은 '조선 중엽 이후'의 일이라 하면서 1758년(영조 34)의 '태봉윤음'을 변경하여 어원의 정결한 곳에 도기 항아리에 태를 담아 묻게 하는 더 강한 개선책인 '을유년(1765) 수교'를 내렸다. 이후의 왕들도 영조의 조치를 따르려고 노력하였다.

정조(1752~1800, 재위 1776~1800) 때에는 영조의 개선책에 대해 논쟁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 관행을 따르면서도 새롭게 정립하기도 한다.

그는 영조의 '을유년(1765) 수교'를 받들어 재위 7년(1783)에 원자(문효세자)의 태를 어원에 묻으려 하였다. 그러나 원자는 왕위계승자이므로 1등 태봉에 묻어야 한다는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경상도 예천에 아기태실을 조성한다.[47] 이로 인해 영조의 '을유년(1765) 수교'는 2등 이하에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계묘년(1783) 결론)되었다.

한편, 정조는 태실제도에서 전례도 없는 새 규례를 만들어 아버지 사도세자의 아기태실을 재위 9년(1785)에 가봉한다.[48] 이는 아버지를 임금의 지위로 격상시켜 정조 자신의 왕위 승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조치에 의한 것이다.[49]

또 재위 14년(1790)에 원자(순조)의 태를 1등 길지를 찾아 보은에 묻게 되는데,[50] 태함은 연석으로 만들고 승군僧軍을 사역시키지 않는 등 물력物力과 인력人力을 감축하도록 '경술년(1790) 수교'의 개선책을 제시한다.[51] 이후의 왕들도 이러한 정조의 '계묘년(1783) 결론'과 '경술년(1790) 수교'의 개선책을 준행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와 같이 숙종의 '무오년(1678) 수교', 영조의 '태봉윤음(1758)'과 '을유년(1765) 수교', 정조의 '계묘년(1783) 결론'과 '경술년(1790) 수교'는 태실 조성의 폐단을 줄이려는 애민정신愛民精神의 발로發露였다.

이와 같이 조선 왕실은 태실에 대한 관념이 이전 왕조보다 강하여 고려의 태실제도를 계승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변화·발전시켜 나갔다. 즉 고려시대에는 왕과 세자만 태실을 조성하고 태실이 조성된 지역의 읍격을 승격시키거나 태실 주변 사찰을 수호사찰로 지정하였다. 조선도 이러한 고려의 태실제도를 계승하면서도 15세기 중엽 세종 때부터 모든 아들의 태실을 조성하여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고, 태실조성에 대한 절차나 의례도 국가적으로 체계있게 정립하였다. 15세기 후엽 성종 때에는 대상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딸까지 태실을 조성하여 태실제도를 완전히 확립시켰다. 이후의 임금들은 이를 유지하면서도 숙종, 영조, 정조 등 여러 임금들은 태실의 폐단을 줄이는 개선책을 내놓기도 하였다.

또 조선 왕실에서는 태실의 구조에 있어서도 고려와 다르게 조성하였다. 즉 아기가 태어나면 처음에 분묘와 비슷한 모양의 아기태실을 조성하는데, 이 태주가 후에 왕이 되면 아기태실에 왕릉처럼 팔각 난간을 두르는 등 화려하게 석물을 치장하여 가봉태실을 조성하여 태주의 위치에 맞게 차등을 두었다.

---

47 『원자아기씨장태의궤』(1783).
48 『춘관통고』(1788) 권68 가례 태봉 정조 8년 갑진(1784) 9월·9년 을사(1785) 정월.
49 심현용, 2016, 『한국 태실 연구』, 경인문화사, 133~134쪽; 심현용, 2021, 「예천 문종과 장조 태실의 구조와 복원」, 『예천의 태실과 조선시대 태실문화』 예천박물관 학술총서 2, 민속원.
50 『정조실록』 정조 14년(1790) 7월 7일(을유)·8월 17일(을축).
51 『원자아기씨안태등록』(1790).

04
맺음말

이상으로 한국의 태처리 문화가 언제부터 시행되고, 이 장태문화가 왕실에서는 태실로 발전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한국은 구전에 의하면 삼한시대부터 태를 감추는 장태습속이 있었으며, 이 장태문화는 현대 얼마전까지도 풍습으로 남아 유지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장태풍습은『삼국사기』에 김유신의 태를 충북 진천 태령산에 묻었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하여도 장태문화가 풍수지리와 접목되지 않았다. 그런데 통일신라시대부터 중국의 풍수지리와 접목되어 돌혈이라는 형국에 장태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장태문화의 일종인 매태방법에서 발전한 태실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들어와 왕실에서 국가적 차원으로 행하게 되며, 조선시대에는 태실제도가 더욱 확립되어 가장 활발히 조성되어 많은 문헌기록과 고고자료를 남기고 있다.

이렇게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태실은 민간의 장태문화藏胎文化에서 발전되어 왕실의 태실문화胎室文化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 태실문화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문화로 세계에서 유일한 문화로 그 가치는 매우 높다.

태胎는 산모와 아기를 하나의 생명공동체로 연결하는 매체이기에 출산 뒤에도 소중히 다루었다. 민간에서는 태를 불에 태우거나 땅에 묻거나 물에 떠내려 보내거나 말리는 방법의 장태문화가 있었다. 그러나 왕실에서는 태가 당사자는 물론이고 국운國運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인식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의례화되어 태실을 조성하고 관리하였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태실을 조성하거나 보수할 때 태봉도나 의궤(또는 등록)를 편찬하고, 지도 제작 시에도 태실을 표시하여 백성들에게 그 중요성을 더욱 각인시켰다.

이렇게 조선 왕실에서 태를 신성시하고 중요시하여 태실제도를 확립하고 자녀의 태를 전국 길지에 묻어 태실을 활발히 조성한 이유는 태를 잘 묻음으로 인해 병을 막아 수와 복을 길러 무병장수無病長壽하게 하고, 또 어질고 어리석음과 성하고 쇠함이 모두 태에 달려있으니 신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태가 자녀의 운명을 결정하고, 왕이나 왕자 및 왕세손의 경우는 국가의 운명까지 결정되어 나라의 근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깊게 깔려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풍수지리와 접목되면서 그 핵심이론인 동기감응론同氣感應論에 따른 것이다.

조선시대 태실은 아기태실과 가봉태실로 구분된다. 이 태실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태실도감을 설치하고 관상감에서 풍수지리적으로 돌혈突穴에 해당되는 길지를 찾고 선공감繕工監에서 물자를 준비하며, 태봉산 주변 지형을 그린 태봉도와 태실 조성의 전 과정을 기록한 의궤도 제작하여 많은 인력과 물자가 들어간다. 또 시역始役(석재를 구하는 공사 시작) → 고후토제告后土祭(개기 새벽에 토지신에

게 고하는 제사) → 개기開基(터파기 공사) → 발태發胎(태를 봉출·운반) → 장태藏胎(태를 안치) → 봉토封土(태를 묻고 봉분을 만듦) → 태신안위제胎神安慰祭(태신에게 제사) → 필역畢役(석물 설치 등 공사를 마침) → 사후토제謝后土祭(토지신에게 사례하는 제사) 등의 절차와 각종 제사가 시행된다. 이때 중앙에서 태실증고사, 지관(상지관·술관·상토관). 중사, 안태사, 종사관, 서표관, 감역관(간역관·감동관·감동사), 배태관, 주시관, 전향관 등의 많은 관원들을 지방으로 파견한다. 그리고 태실을 수리할 때도 선고사유제(고제·고유제·고사유제: 사유를 고하는 제사) → 시역·고후토제 → 필역 → 사후토제 등의 절차와 각종 제사가 행해진다. 이러한 절차와 의례는 짧은 기간에 정립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거쳐 확립되었다.

「한국의 태처리 문화와 태실」에 대한 요약문

사람은 태를 신성시하여 버리지 않고 소중히 처리하였다. 민간에서는 태를 불에 태우거나 땅에 묻거나 물에 떠내려 보내거나 말려 보관하였는데, 이렇게 태를 처리하는 문화를 '장태문화藏胎文化'라 한다. 이는 세계 보편적 문화로 한국에서도 태를 신성시하여 장태하였다. 그 시기는 삼한시대까지 올라가나 신빙성이 떨어진다. 신라시대 김유신의 태를 묻었다는 기록이 처음 확인되며, 고려시대에는 왕실에서 왕과 세자에 한해서 태실이 조성되고 조선시대에는 이를 계승하면서도 왕과 왕의 모든 아들과 딸, 그리고 원손까지 그 대상이 확대된다. 이러한 태실은 왕실문화로서 세계에서 한국에만 나타나는 유일한 장태문화이다.

그런데 삼국시대에는 장태문화가 풍수지리와 접목되지 않았다. 통일신라시대부터 중국의 풍수지리와 접목되어 돌혈이라는 형국에 장태되기 시작한다. 이는 풍수지리의 핵심이론인 동기감응론同氣感應論에 따른 것이다. 특히 왕실에서는 태가 당사자는 물론이고 국운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인식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의례화되어 태실을 조성하고 관리하였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태실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에서 태실도감을 설치하고 관상감에서 길지를 찾고 선공감에서 물자를 준비하며, 의궤도 제작하여 많은 인력과 물자가 들어갔다. 이러한 절차와 의례는 짧은 기간에 정립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거쳐 확립되었다. 이 글은 이러한 과정을 살펴본 것이다.

「한국의 태처리 문화와 태실」에 대한 토론문

박재관(성주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 팀장)

발표자께서는 불모지에 가까웠던 태실 연구를 한 단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한 연구자로서 전국의 태실을 직접 찾아다니는 등 풍부한 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연구 성과를 발표한 바 있다. 본 발표도 그동안 발표자께서 진행하여 온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그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글이다.

먼저 발표자는 삼한시대부터 이어져 온 한국의 태처리 문화가 현대에 들어와 과학의 발전으로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면서 더 이상 행해지지 않고 사라지고 있지만, 매태, 소태, 수태, 건태 등 크게 4가지 방법으로 태를 갈무리해왔음이 전국적으로 확인된다고 하였다. 또한 이른 시기부터 태를 처리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면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삼한시대에 조성되었던 태봉을 비롯하여 삼국시대 및 통일신라시대의 태봉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문헌 기록으로 처음 확인되는 김유신 태실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고, 현재의 모습이 원형과 다르게 잘못 복원된 것이므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발표자는 도의선사와 선각대사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나말여초에 상태 습속이 일반화되었다고 하면서 한국에서 태를 소중히 여겨 처리하는 장태문화는 6세기 중엽에 귀족층이나 왕실을 중심으로 행해졌고, 통일신라 8세기 중엽에는 민간에까지 확대되었으며, 나말여초 10세기 초에는 성행하였다고 하였다. 특히 발표자는 6세기 중엽까지는 풍수지리와 관련 없이 장태하였으나, 관련자료들을 볼 때 그 이후의 장태는 풍수지리와 접목되어 명당인 돌혈에 조성되고 있다면서 태처리 문화가 산천의 좋은 기가 태신胎神을 통해 태주胎主에게 동기감응同氣感應하여 좋은 일이 있게 된다는 풍수 논리가 적용되었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발표자는 장태문화의 일종인 매태방법에서 발전한 한국의 태실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들어와 왕실에서 국가적 차원으로 행하게 되었다면서 시대별로 살펴보았다. 고려시대의 태실에 대해서는 문헌기록상 태실이 모두 15개소가 확인되고 있다면서 왕과 왕위를 이을 태자만 태실이 조성되고 이후 대부분 읍격이 승격되는 공통점이 보인다고 하였다. 전체적으로 고려시대의 태실제도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제도적으로 시행된 것은 분명하지만 초기에는 장태문화의 습속에서 처리되어 오다가 늦어도 12세기 초 예종 때부터 의례화되어 제도적으로 성립되고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되었으나 조선시대처럼 체계적으로 정립·발전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았다. 조선시대의 태실과 관련해서는 조선 왕실은 태실에 대한 관념이 이전 왕조보다 강하여 고려의 태실제도를

계승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변화·발전시켜 나갔다고 하였다. 즉 고려시대에는 왕과 태자만 태실을 조성하고 태실이 조성된 지역의 읍격을 승격시키거나 태실 주변 사찰을 수호사찰로 지정하였는데, 조선도 이러한 고려의 태실제도를 계승하면서도 15세기 중엽 세종 때부터 모든 아들의 태실을 조성하여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고, 태실 조성에 대한 절차나 의례도 국가적으로 체계 있게 정립하였다. 15세기 후엽 성종 때에는 대상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딸까지 태실을 조성하여 태실제도를 완전히 확립시켰으며, 이후의 임금들은 이를 유지하면서도 숙종, 영조, 정조 등 여러 임금은 태실의 폐단을 줄이는 개선책을 내놓기도 하였다고 하였다.

이상의 발표문을 통하여 우리는 한국에서의 태처리 문화의 시작과 변천, 왕실에서 특별히 이루어진 태실 조성에 이르는 장태문화를 접해볼 수 있었다. 대체로 발표문에서 제시한 발표자의 주장과 의견에 대하여 본 토론자 역시 이견이 없고 대체로 동의하는 바이다. 다만 본 발표의 토론자로서 의무를 다하고자 발표문에서 궁금한 몇 가지 내용에 대한 발표자의 추가적인 의견을 듣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발표자는 고려 왕실의 태실문화가 장태문화의 습속에서 처리되어 오다가 늦어도 12세기 초 예종 때부터 의례화되어 제도적으로 성립되고,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되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문헌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태실 관련 기록을 바탕으로 추정한 것인지 아니면, 구전까지 포함하여 검토한 결과인지 의견을 듣고자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고려 태조 태실 관련 기록, 성종조에 처음 시행된 과거의 잡업인 지리업의 시험과목에 태장경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미 고려 초에 국가적 차원의 태실이 조성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지 궁금하다.

다음으로 발표자는 고려시대 순종(장수사), 의종(향복사), 강종(용문사)의 태장된 곳의 사원이 왕실 원당으로써 태실 수호사찰의 역할을 하였으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고려시대 태실 수호사찰의 전통을 계승하여 가봉태실 주변 사찰이 동일한 역할을 하였음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일부 가봉태실의 경우에는 수호사찰을 확인할 수 없는 일도 있어서 수호사찰이 가봉태실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태실의 관리상의 필요로 수호사찰이 있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발표자는 태실은 왕실문화로서 세계에서 한국에만 나타나는 유일한 장태문화라고 하였는데, 이는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인 “조선의 가봉태실, 세계유산을 꿈꾸다”에 적합한 언급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가봉태실 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한지, 그 보존상태들, 예를 들면 태실을 찾을 수 없는 경우, 태실지가 훼손되어 없어진 경우, 태실을 발굴조사하여 복원한 경우, 원위치에서 이동된 경우 등을 고려했을 때, 전부를 아우를 수 있을지 아니면 일부를 제외하고 추진할 수 있을지, 그렇게 한다면 선정기준은 어떻게 할지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들어보고자 한다.

Ⅳ

조선왕실의 풍수문화와 왕태실의 풍수지리

Feng Shui Culture and the Royal placenta chamber of the Joseon Dynasty

최원석 | Choi Won-seok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01
여는 말

조선은 풍수문화를 꽃피운 왕조였다. 동아시아의 어느 시대 어느 왕실보다 풍수를 폭넓게 활용했고 철저히 실천했다. 탄생과 삶, 그리고 죽음으로 이어지는 공간생활사 전반에 풍수는 큰 영향을 주었다. 길지를 찾아 태실을 조성했고, 풍수를 따져 궁궐에 살았으며, 생명이 다한 몸을 명당에 묻었다.

조선왕실에서 태실을 조성하는 목적은 고려와 마찬가지로 길지에 갈무리함으로써 풍수의 좋은 영향을 받기 위해서였다. 태 주인의 건강과 수명, 인성과 화복뿐만 아니라, 왕실의 번영과 왕조의 운명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믿었기에, 태실풍수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취급했다.

조선왕실에서는 고려왕실의 태실 관행을 한편으로는 계승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발전시켰다. 우선 태실 제도와 기구를 새롭게 정비하고 편성했다. 공식적인 문서 기록과 그림을 통해 태실과 관련한 정보도 관리했다. 왕실에서 태실을 만들고 관리하는 대상의 범위도 고려의 왕과 왕세자에 대비해 대군과 왕자, 공주와 옹주, 왕후까지 그 조성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실제적인 태실 형태에 있어서도 모둠 태실을 조성한 것도 차이점이다. 풍수로 인하여 조선시대 왕태봉 경관의 입지 관념과 형태도 변화되었다. 입지관념은 풍수의 영향을 받아 영지에서 길지로 바뀌었고, 입지형태는 기존의 높은 산봉우리에서 조선시대에 와서 해발고도 200미터 내외의 작고 나지막한 봉우리로 바뀌었다.

이 글은 왕태실(왕태봉)의 풍수지리를 조선왕실의 풍수문화라는 거시적 맥락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세부적인 주제와 내용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왕실 풍수문화의 특색에 관해, 동아시아 시선으로 궁성·산릉·태실을 살펴보고, 사상적, 이론적, 사회적, 심미적인 측면에서 각각 조명한다.

둘째, 조선왕실의 풍수문화를 토대로 태실풍수를 고찰한다. 태실풍수는 태실의 풍수적 조성과 관리, 왕태실의 풍수지리라는 두 가지 측면을 주로 검토한다.

셋째, 태실의 풍수적 조성과 관리에 관해서는, 태실 입지 관념의 변화, 태실 입지에 풍수를 따진 이유, 태실의 제도적 정비와 풍수, 태실지 조성 절차와 풍수, 태실 및 태봉의 풍수적 관리, 태봉의 그림유산과 풍수, 태실 풍수의 시대적 변화에 관해 살펴본다.

넷째, 왕태실의 풍수지리에 대해서는, 왕태봉의 입지 경관과 국왕의 태실풍수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살펴본다.

맺는 말에서는 조선왕실 풍수문화의 사회문화적 순기능과 역기능, 조선왕실 풍수의 공과功過 평가, 문화재를 경관유산으로 보는 시선 등에 관해 언급하고자 한다.

02
조선왕실 풍수문화의 특색

1. 풍수문화의 동아시아적 변용

동아시아인들이 활용한 풍수는 사상사적으로 운명론 혹은 천명론에 대한 안티테제이자 변혁사상이었다. 하늘에 의해 정해진 운명을 땅이라는 지리적 조건을 통해 바꿀 수 있다는 일종의 사상혁명이었다. 그러한 풍수를 통해 지배층은 권력을 연장하려했고 세력을 다투었으며, 피지배층은 신분상승을 도모하려 했다. 하지만 풍수의 개명론改命論은 도리어 땅 그 자체의 절대적인 영향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결정론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미완의 탈운명론이자 지리결정론인 셈이다.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모순을 안고 동아시아의 풍수문화는 전개되었다.

조선왕실의 풍수문화는 조선시대만의 고유한 문화현상이 아니라 중국풍수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조선적인 특징으로 구성된 역사적 산물이었다. 그것은 중국의 풍수원리를 준용해 실천한 것이지만, 조선의 실제 지형과 현실 사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운용한 면으로는 달랐다. 그래서 조선의 왕실문화에서 풍수라는 요소는 동아시아 여러 왕조문화사에 비추어볼 때도 특징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조선왕조의 태실은 중국이나 일본, 베트남, 류큐[琉球]를 비롯하여 동아시아의 여타 풍수문화권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조선왕실의 출산문화 유산으로 가치가 크다. 특히 태실은 풍수적 생명사상과 철학사상으로 담고 있는 문화유산이기도 하다.[1] 비록 일제강점기에 원형이 심각하게 훼손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태실 유적이 현지에 남아있고, 조선후기에 제작된 수많은 태실 관련 문헌과 그림도 기록유산으로 현존한다.

조선왕조의 궁성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에 입지했다. 평원에 자리한 동시대 중국이나 베트남 등과는 입지여건에서 분명한 차이가 나타난다. 한양의 도성도 주어진 산지사면을 따라 자연스럽게 구불구불한 모습이다. 주위 사방의 산들이 잘 드러나는 것도 궁궐경관에서 보이는 한국적 특색이 된다. 한양의 궁성은 다양한 형태의 풍수비보를 실행했고, 도성의 산림보전을 정책적으로 법제화했다는 것도 다른 나라와 대비된다.

조선왕조의 산릉도 동시대의 중국 명·청조와 베트남의 응웬[阮]조에 비교해 특색이 나타난다. 능의 규모나 형태, 부속시설의 배치와 조경도 다르지만, 자연지형적인 배경의 차이에 따른 능의 입지도 다르다. 조선왕실에서 왕릉을 '산릉'이라는 일반명사로 쓰는 까닭도 산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지

1 민병삼, 「태실의 생명사상」, 『영남학』 31, 2016, 222쪽

형적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조선왕조의 산릉 경관은 자연친화적이고 순자연順自然적인 모습이 두드러진다. 명당조건에 요구되는 인위적인 물길의 조성도 중국이나 베트남에 비해 최대한 줄였다.

2. 풍수문화의 사상·이론·사회·심미적 특색

조선왕실의 풍수문화를 개관해 볼 때 그 사상적, 이론적, 사회적, 심미적인 특색은 각각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인성풍수의 윤리와 사상, 명당풍수론의 실천과 산줄기 풍수, 풍수담론의 사회정치, 풍수경관의 자연미학이 그것이다.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인성풍수의 윤리와 사상이다. 인성풍수란 풍수행위에 있어서 개인적인 심성과 사회적인 윤리를 강조한 풍수사상의 경향이다. 조선왕조가 썼던 풍수교과서의 하나였던 『지리신법호순신』에, "길흉의 조건은 땅에서만 구할 수 없으며 사람의 덕德을 본받아 따른다."고 했다. 길흉이 작동하는 조건에서 사람의 덕이 주主고, 땅의 풍수는 부副라는 것이다. 그래서 풍수의 관건은 "스스로 수양하여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했다. 인성의 함양과 윤리의 실천을 강조한 풍수사상이다. '땅의 길흉은 사람의 덕에 부합해 따른다'는 인성풍수의 천명이다.

조선왕실은 풍수의 사회윤리도 강조했다. 풍수 실행 과정에서 세종을 비롯하여 성종, 영조, 정조 등 여러 왕들은 민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태실이나 산릉 조성 등의 풍수를 실천하고자 했다. "나는 인정人情이 안정된 뒤에야 풍수[地理]도 좋아진다고 생각한다.(『정조실록』, 13년 7월 11일)"라고 선언한 정조의 이 말은, 조선왕실의 풍수운용에 대한 사회적 기준과 윤리를 한마디로 대변하는 표현이다.

둘째, 명당풍수론의 실천과 산줄기 풍수다. 조선왕실은 철저하게 명당풍수론을 실천하여 그것을 현장에서 엄밀하게 적용하려 했다. 국가의 대사로서 한양 궁성의 터잡기와 풍수비보, 태실의 조성은 조선전기에 집중되어 풍수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했다. 산릉의 조성과 관리는 조선왕조 전시기에 걸쳐 명당풍수론에 따라 준행되었다.

개념적으로 명당풍수는 비보풍수와 함께 한국풍수를 구성하는 두 기둥이다. 명당풍수는 이상적인 땅을 찾아서 자리잡는 풍수이고, 비보풍수는 부족한 땅을 보완함으로써 명당으로 가꾸는 풍수이다. 사실 명당풍수와 비보풍수는 둘이 아니다. 세상의 어느 명당도 실제로는 비보하게 마련이고, 세상의 어느 비보도 명당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조선왕조의 어떤 궁궐이나 산릉도 명당풍수론으로 선택하였고 비보풍수론으로 보완하였다. 역사적으로 볼 때 명당풍수는 조선왕조에서 치중했고, 비보풍수는 고려왕조가 중시한 풍수담론으로 대비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명당풍수는 산수 그 자체의 가치를 중시하는 자연학의 속성을 지니고, 비보풍수는 산수에 대한 사람과 문화의 상보적 가치를 강조하는 인문학의 속성을 지닌다. 풍수지리적인 논리에 더 충실하고 철저하고자 했던 조선왕실은, 땅의 자연적 명당 조건을 치밀하게 따져보고 적용하는 데에 지나칠 정도로 열심이었다.

특히 조선왕실은 명당풍수의 실천과 활용에서도 산줄기 주맥의 파악과 보전을 중시하였다. 이러

한 경향은 궁궐풍수의 실행 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세종대의 주맥 논쟁을 보면, 풍수이론에 전제하여 실제 산줄기의 지형조건이 명당 요건과 구성 형태를 가늠했다는 정황도 짐작된다. 산줄기와 주맥이 혈의 자리와 향의 배치를 선택하는 가늠자가 된 것이다.

일반적인 중국풍수론은 모양새를 중시하는 형세론과 앉음새를 중시하는 방위론으로 대별된다. 각론으로는 용龍·혈穴·사砂·수水·향向 등으로 체계화한다. 그 용이 산줄기이다. 명당을 찾는 순서로 볼 때 산줄기가 처음이다. 그런데 각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 중국풍수는 물이 가장 중요했다. 조선왕실에서 교과서로 썼던 『금낭경』이라는 중국풍수서에서 "득수得水가 우선이고 장풍藏風은 그 다음"이라고 한 것도 그 방증이다.

하지만 조선왕실에서는 실제로 물줄기(득수)와 사방산(장풍)의 요건 보다 산줄기의 용맥龍脈 조건을 더 중시해서 따졌다. 중국풍수의 일반론에 한국적 특수성(지형·문화·역사 등)을 반영해서 실천하였던 것이 조선왕조의 풍수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풍수담론의 사회정치다. 조선왕실에서 실행한 궁성, 태실, 산릉의 풍수는 대규모 공사와 관리 인력이 소요되는 국가적인 대사였다. 그래서 왕실의 정치권력 관계, 거리의 접근성, 농번기의 민력 동원 조건, 지방 군현의 행정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 특히 산릉은 자리 선정과 시설 조성에 있어 정치권력과 깊은 연관성을 맺으면서 전개되었다. 산릉의 이장은 왕권과 신권 등 다양한 왕실의 권력집단 간의 대립과 갈등이 잘 드러난다.

조선왕실에서 풍수를 실천한 것은 그 결과로서 기대하는 풍수적 소응과 효과만으로 한정되지 않았다. 풍수 행위는 왕권을 강화하고 드러내는 정치사회적인 수단으로도 적극 활용됐다. 그것은 정치적 동기를 지니고 이루어졌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공간적 통치전략이기도 했다. 국왕은 궁성과 태실, 산릉의 풍수 입지와 경관 조성을 통치자의 절대적인 권위와 위엄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이용했다.

그래서 왕실풍수의 이행 과정은 정책 결정자의 의지나 정치적 역학 관계가 반영되었다. 왕권이 강력할 때에는 왕이 주도했다. 태종과 세종이 능자리 선정을 주관하던 때도 그랬고, 정조가 현륭원(사도세자)의 입지를 결정하고 건물 배치까지 관장할 때도 그랬다. 반면에 왕권이 미약할 때는 권신權臣들이나 척신戚臣들이 산릉의 일을 좌지우지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한 경우도 허다했다.

왕실풍수는 왕권의 정통성 확보에도 유용한 수단이었다.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인조는 재위 중에 난리(정묘호란)를 겪는 등의 국가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정원대원군)의 묏자리를 이장하고 능으로 격상해 왕위의 정통성을 세우고자 했다. 광해군도 경덕궁(경희궁)과 인경궁의 조성을 통해 정치적인 주도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조선왕실에서 실행된 산릉의 입지선정과 이장과정을 둘러싼 치열한 쟁론은 국가적 대사를 둘러싸고 각 정치세력 간에 벌이는 주도권 다툼이자 경합이기도 했다. 풍수가 매개된 산릉의 이장은 권력집단 간에 상대를 정치적으로 숙청하는 데에도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이렇듯 능의 풍수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치세력간의 다툼은 조선왕실 풍수정치의 독특한 한 면이다.

중종의 계비 장경왕후의 희릉을 이장하는 과정도, 권신 김안로가 조종하여 정적인 정광필을 제

거하려 의도적으로 꾀한 것이었다. 중종의 정릉도 문정왕후, 윤원형, 보우가 결탁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공고히 하는 한편, 소생인 명종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풍수를 핑계로 이장한 것이었다. 선조 당시에, "모두들 선왕조 때 간신들이 산릉의 일을 가지고 죄를 얽어 살육한 것만을 생각했다(『선조실록』, 33년 9월 2일)"라고 통탄한 사관士官의 표현은, 산릉의 일이 왕실에서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되었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해준다.

넷째, 풍수경관의 자연미학이다. 조선왕실의 풍수경관은 500년의 역사가 빚어낸 풍수미학의 결실이다. 오랜 세월 집단적으로 공유한 지리지식이었던 풍수를 현지에 구현한 선조들의 손길은 전통적인 자연미학으로 승화했다. 조선왕실의 풍수경관은 산수의 자연미에 인문적 품위와 격조를 더한 아름다움이었다. 산수의 동정動靜이 잦아든 자리의 앉음새(입지), 산수의 방향과 자세에 순응한 놓임새(배치), 산수의 크기와 성정에 맞춘 생김새(비례와 규모), 이 모두가 주위 지형지세와 어우러져 빚어내는 미묘한 앙상블…. 그것은 자연과 문화가 어질게 만나고, 진선미가 구분 없이 하나된 참하고 고귀한 아름다움으로 꽃피었다.

40여개의 산릉이 갖춘 천연스런 자연미학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가치로까지 평가됐다. 지방 곳곳에 자리잡은 봉긋한 태봉에 사뿐히 올라앉은 태실의 모습도 정겹기만 하다. 구불구불한 산허리에 걸친 한양도성이 보여주는 무경계無境界의 심미, 절제와 품격을 갖추고 조형된 궁궐건축의 정제미整齊美는 주위 산들과 멋들어지게 어우러지면서도 왕실의 권위를 유감없이 보여준다. 중국 북경의 자금성紫禁城이나 일본 교토[平安京]의 왕성[御所]에서 보기 어려운 조선궁성만의 매력은, 풍수를 활용해 한양의 자연지형을 살릴 수 있었던 선조들의 심미적 안목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03
조선왕실의 태실풍수

1. 태실의 풍수적 조성과 관리

조선의 왕실에서는 풍수 길지에 태실을 조성하여 태를 특별하게 관리했다. 태실은 풍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선왕실의 출산문화이기도 하다. 왕실의 태실문화는 지덕地德과 풍수에 기댄 왕조 번영의 희구希求였다. 따라서 고려에 이어 조선왕실에서는 태봉을 선택하고 태실을 조성하는 데 신중했으며 제도적으로 태실을 관리하였다. 왕실의 태실 조성 이유와 동기, 태실지의 입지와 경관은 풍수와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

〈그림 1〉 조선왕실의 생애주기와 풍수유형

조선왕실이 궁성과 왕릉뿐 만 아니라 태실까지도 풍수원리로 입지를 선정했고 관리했다는 점은 여타 동아시아 왕실의 풍수문화와 비교해 볼 때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이웃 중국과 일본의 왕실만 하더라도 태실풍수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태실은 초기에 왕실에서 중요하게 취급하였다. 그러나 태실의 조성과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왕실의 부담과 백성들의 폐해가 누적되면서 중후기에는 그 가치가 약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분위기는 태실지를 왕도와 가까운 경기 권역에 선택하는 방편으로도 나타났고, 하나의 태봉에 여러 태실을 조성하는 형식으로도 드러났다.

1) 태실 입지 관념의 변화-영지靈地에서 길지吉地로

한국에서 태실 조성의 역사적 기원은 늦어도 6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국사기』에 "처음 김유신(595~673)의 태를 높은 산에 묻었으므로 지금까지 태령산胎靈山이라 한다."라고 기록했다.[2] 이처럼 충북 진천에 김유신의 태실을 조성하여 산이름을 태령산이라고 했고, 신라 때부터 그 태실의 사당에서 제사를 지냈던 사실도 알 수 있다.

김유신의 태를 갈무리한 산의 이름을 당시에 '태령산胎靈山'이라고 불렀다. 산이 지닌 고대적인

2 『삼국사기』 권41, 열전, 김유신 상.

신령한 상징성에 더하여 태를 묻은 장소의 신성성을 고취시키는 명칭이다. 산이름으로 짐작할 수 있듯이 신라 태실지의 장소적 성격은 신령한 땅, 영지靈地였다. 그런데 이것이 고려와 조선으로 갈수록 풍수의 영향을 입으면서 길지吉地로 그 장소성이 바뀐다. 길지는 흉지와 상대되는 말이다. 풍수를 통해 땅의 길흉을 따져본 후에 얻은 좋은 땅이 길지다.

김유신의 태실지에서도 확인되듯이 태실지의 위치는 신라 때부터 산꼭대기에 조성했다. 이러한 입지 관성은 고려와 조선으로 이어지는 태실의 산꼭대기 입지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럼 언제부터, 어떤 연유로 태실지가 산꼭대기에 들어섰을까?

김유신 태실지의 산꼭대기 입지를 풍수의 영향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태실풍수의 영향으로 본다면 이미 6세기 말부터 풍수를 적용한 셈이 되지만, 신라왕실에서 풍수가 정착한 시기로 추정되는 8세기 말보다는 너무 앞서기 때문이다.[3] 정작 풍수에서도 산꼭대기 혈자리 지정은 매우 드문 경우이다. 그렇다면 신라 때의 산꼭대기 태실지 입지는 관습적으로 하늘에 가장 가까운 장소라는 고대적인 상징성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추정된다.

신라 김유신의 태실은 크고 높은 태령산(453미터)의 꼭대기에 있지만,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의 태실은 작고 나지막한 봉우리(보통 200미터 내외) 꼭대기에 위치한다. 이 사실은 태실지 입지경관의 관념과 형태가 변화된 것을 나타낸다. 그 배경 중의 하나로 중국에서 전래된 『태장경胎藏經』 등과 같은 태실풍수의 입지논리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풍수에서 명당지는 크고 높은 산보다는 작고 낮은 봉우리를 길지로 판정하는 경향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태실문화는 전통적으로 전래되어 오다가 풍수의 영향을 받아 변용되었다고 판단된다.

2) 태실 입지에 풍수를 따진 이유

풍수사상이 지배했던 전통시대에 자손의 성품과 건강, 출세 등은 장태藏胎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좋은 땅(길지)에 태를 갈무리함으로써 그 당사자胎主가 땅의 감응을 얻어 일신의 건강 뿐 만 아니라 사회적인 성공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묘지풍수가 조상의 뼈를 매개로 땅의 생기와 감응을 통한 후손 발복이라는 경로인데 비해, 태실풍수는 당사자의 태가 길지의 생기에 접해 감응함으로써 본인 발복이라는 경로로서 차이가 난다.

왕실에서 태실을 조성하는 목적도 길지에 갈무리함으로써 풍수의 좋은 영향을 받기 위해서였다. 명당에 묻은 태는 그 사람의 건강과 수명, 인성과 화복뿐만 아니라, 왕실의 번영과 왕조의 운명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믿었다.[4] 그래서 태실지의 풍수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취급했다. 실록에 드러난 태실풍수의 인식을 요약해서 보자.

---

3 최치원의 「대숭복사비명」에 기록된, 798년에 신라왕실에서 곡사를 원성왕릉으로 바꾸어 쓰는 결정에 준거하여, 왕실풍수의 정착으로 판단한 것이다.

4 장지연, 「고려 왕실의 태실(胎室)에 대하여」, 『역사와 현실』 124, 2022, 272쪽에 의하면, 고려 왕실의 태실도 태실 주인의 복을 빌 뿐만 아니라 왕실 권위를 상징하고 국가적인 기원을 펼치는 장소였다고 했다. 고려 왕실 태실의 국가 비보적인 역할과 기능으로 해석이 가능한 측면이다.

음양학을 하는 정앙이 글을 올렸다.

> *"당나라 일행一行이 저술한 『육안태六安胎』의 법에 말하기를, '사람이 나는 시초에는 태로 인하여 자라게 되는 것이며, 더욱이 그 어질고 어리석음과 성하고 쇠함이 모두 태胎에 관계있다. …남자의 태가 좋은 땅을 만나면 총명하여 학문을 좋아하고 벼슬이 높으며 병이 없을 것이요, 여자의 태가 좋은 땅을 만나면 얼굴이 예쁘고 단정하여 남에게 우러름을 받게 되는데…. 그 좋은 땅이란 대개 (봉우리가) 단정하고 우뚝 솟아 위로 하늘에 닿은 듯해야 길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 *또 왕악王岳의 책을 보건대, '만 3개월을 기다려 높고 고요한 곳을 가려서 태를 묻으면 수명이 길고 지혜가 있다.'고 했으니, …길지를 가려서 이를 잘 묻어 미리 수명과 복을 기르게 하소서".*
>
> *『세종실록』, 18년 8월 8일*

풍수학에서 아뢰었다.

> *"『태장경(胎藏經)』에 이르기를, '하늘이 만물을 낳는데 사람으로 귀하게 여기며, 사람이 날 때는 태로 인하여 장성하게 되는데, 그 현명하고 어리석음과 성하고 쇠함 모두 태에 달려있으니 태란 것은 신중히 하지 않을 수가 없다.'…남자가 만약 좋은 땅을 만난다면 총명하여 학문을 좋아하고, 아홉 가지 경서(九經)를 배워 뛰어나고, 잘 생겨 병이 없으며, 관직이 높은 곳에 승진되는 것입니다."*
>
> *『문종실록』, 즉위년 9월 8일*

조선왕조의 풍수지식은 고려왕조보다 더욱 이론적·제도적으로 발전했다. 그래서 태실의 조성에 있어서도 풍수를 더 치밀하게 적용했다. 태실지는 풍수를 잘 아는 중신이나 관상감의 풍수전문가가 선정했다. 기존에 조성한 태실도 더 길한 곳을 가려 옮기기도 했다. 현존하는 태실지의 입지지형에 공통적인 패턴을 보이는 까닭은 입지 결정에 일정한 준칙이 있었기 때문이다.

3) 태실의 제도적 정비와 풍수

일찍이 고려왕실에서도 왕과 세자의 태를 소중히 보관했고 태실을 제도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했다. 국가적인 태실의 조성과 관리에 풍수와 관련시킨 증거는 지리(풍수)분야의 과거科擧 제도에도 있다. 시험 과목으로 태를 안치하는 방법과 효험을 기록한 『태장경』를 포함한 것이다.[5] 『태장경』은 고

5 『고려사』 권73, 지, 선거1 과목1 과거 인종14년.

려왕조가 실시했던 잡과雜科 지리업地理業 과거 시험과목의 하나이며, 태실풍수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을 것이다.

조선왕조에 와서는 태실 제도와 기구를 새롭게 정비하고 편성했다. 조선전기는 태실을 조성할 때 태실도감胎室都監을 설치해 임시 기관으로 운용했다. 풍수에 밝은 중신을 태실증고사胎室證考使로 임명해 명당길지를 선택하는 책임을 담당하게 했다. 태실지 선정과 조성, 관리 등에 있어서 법제화된 지침과 규정도 만들었다.

왕실에서 태실을 만들고 관리하는 대상의 범위도 시대적으로 차이가 났다. 고려왕조에서는 왕과 왕세자에 한정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왕조에서는 점차로 대군과 왕자, 공주와 옹주, 왕후까지 그 조성 대상을 확대했다. 성종 때부터 왕녀(공주)의 태실 축조가 일반화되었다.[6] 조선의 세종·숙종·영조가 모둠 태실을 조성한 것도 고려왕실과의 차이점이다. 세종 때에 성주에 조성한 왕자태실이 대표적인 것으로 지금까지도 현존한다.

조선왕실에서 태실 풍수를 담당한 제도적 기관은 세조 때 서운관書雲觀에서 이름을 바꾼 관상감觀象監이었다. 『서운관지』에 기록한 풍수 관원의 태실 관련 직임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산실청産室廳을 설치할 때: 범철관泛鐵官(방위를 정하는 관리) 1명과 배태관陪胎官(태를 모시는 관리) 1명을 참상參上(6품 이상 종3품 이하) 이상의 관원들 중에 임명한다.*
> *- 태를 안장할 때: 영사와 제조가 관상감에서 소장하고 있는 태봉 관련 기록(『胎封簿籍』)을 참고하여 세 후보지를 임금에게 올려 낙점을 받는다.*
> *- 대왕 태실의 비석을 만들어 세우거나 석물을 수리할 때: 감역관監役官이 나아가 작업을 감독한다. 교수와 훈도 중에서 뽑아 보낸다.*
> *- 태봉의 후보지로 장부에 기록해 둔 곳을 살펴보러 갈 때: 상지관은 교수, 훈도 또는 그런 직을 지냈던 관원들 중에서 임명한다.*
>
> *『서운관지』*

4) 태실지 조성 절차와 풍수

조선왕실의 태실 조성은 정해진 절차와 의례가 있었다. 아기가 태어나면 태실지를 선정하는 일에 착수한다. 왕태실의 경우, 전기에는 태실 조성을 총괄하는 임시 관서로서 태실도감胎室都監을 설치했다. 그리고 풍수에 밝은 중신重臣에게 태실증고사胎室證考使라는 직책을 맡겨 안태할 길지를 찾았다.

후기에는 각 도의 도사都事가 관상감의 지리학 관원을 대동하여 태실지를 선정했다.[7] 관상감 및 풍수학 관원[相地官]은 태의 갈무리를 실무적으로 담당했다. 미리 태실이 될 만한 후보지는 예비로

6 심현용, 『한국 태실 연구』, 경인문화사, 2016, 92~112쪽. 122쪽 주.
7 심현용, 『한국 태실 연구』, 경인문화사, 2016, 126쪽.

태실 장부에 등록해 두었다. 태실을 조성하고 수리할 때는 반드시 날을 가렸다. 필요하다면 새로 길한 곳으로 옮기기도 했다. 아래의 관련 기록을 보자.

> *중궁(中宮:왕비)의 태를 처음에는 양주 동면 마을 사이에다 갈무리했는데, 다시 길한 곳을 가려서 옮겨 갈무리하도록 명했다.*
>
> *『세종실록』, 20년 1월 20일*

> *원자元子의 태봉을 예천에 정했다…상지관을 보내 살펴보도록 하여 결정하게 한 것이다.*
>
> *『정조실록』, 7년 8월 5일*

> *"등록謄錄을 살펴보니, 대왕 태실의 석물을 개수할 때에는 관상감으로 하여금 날을 가리게 한 뒤에…일을 시작하도록 하고…."*
>
> *『승정원일기』, 고종3년 1월 8일.*

태실지는 관상감에서 세 군데의 후보지를 올려서 왕의 선택(낙점)을 받았다. 남자의 태는 출생 후 5개월, 여자의 태는 3개월 되는 날에 맞추어 태실에 안치하는 것이 왕실의 관례였다.

> *태봉으로 적합한 곳은 전에 이미 기록한 곳들이 있으므로, 그 중 세 곳을 올리니….*
>
> *『태봉등록』, 영조6년 1월 5일*

> *원손의 태봉을 강원도 영월부 하동면 정양리 계족산 서쪽 기슭 계좌정향으로 정하고, 계유년 정월을 기다렸다가 날을 잡아 거행하도록 했다. 대개 남자의 태는 5개월이 되어서 묻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이다.*
>
> *『영조실록』, 28년 11월 25일*

왕이 태실지를 낙점하면 곧바로 일을 착수한다. 태실 조성은 택일擇日, 개기開基, 후토제后土祭, 발태發胎, 태신안위제胎神安慰祭, 사후토제謝后土祭 등의 순서로 길일을 가려 의례를 거행했다.

> *"장태 길일은 다가오는 갑술년 2월 28일 진시辰時입니다. 공사를 시작하는 날[擇日]은 갑술년 정월 28일 진시이며, 터를 여는 것[開基]은 다가오는 2월 12일 진시이며, 후토제는 같은 날 꼭두새벽에 거행하고, 태를 꺼내는 것[發胎]은 2월 24일 진시이며, 태신안위제는 봉토 후에 즉시 하고, 사후토제는 제사를 끝낸 뒤에 하도록…."*
>
> *『태봉등록』, 숙종 19년 10월 23일*

5) 태실 및 태봉의 풍수적 관리

조선왕실에서 태봉의 관리는 능陵·원園의 제도와 동일하게 취급했다. 태봉에는 규정된 영역을 두고 보전과 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금표禁標를 설치해 소나무 벌목, 태실지 훼손 등을 방지했고, 태봉에 지형이 손상된 언덕에는 보토補土했다.

> *태봉에 표식을 하여 농사를 짓거나 나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원릉園陵의 제도와 같이 했다.*
>
> *『현종개수실록』, 11년(1670) 3월 19일*

> *안태사 윤이림의 장계에, "신이 이달 24일에 명을 받들고 태를 모시고 떠나서, 이 달 27일에 청주목에 있는 태봉 점혈처點穴處에 도착했습니다. 28일 진시辰時에 태를 안치했으며, 신들 일행은 공사를 완전히 마친 뒤에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방화구역[火巢] 내에는 경작하는 민가가 별로 없었으므로, 규정된 거리 척수尺數에 따라서 금표를 세웠습니다."*
>
> *『태봉등록』, 숙종21년 2월 1일*

> *"손상된 부분을 모두 보토하여 완전히 메웠습니다. 태봉의 뒤쪽으로 40보 아래로 뻗어 내린 산맥이 부분 부분 끊겨서 거의 평지가 되다시피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이 31척, 넓이 10척으로 흙을 채워 완전하게 구축했습니다. 그 위에 소나무를 심어서 지금까지 오고가던 도로를 막아 통행을 금지 시키도록 했는데…."*
>
> *『태봉등록』, 영조7년 2월 29일*

태실의 풍수적 관리 필요에 따라 태실지에 인위적으로 숲을 조성하기도 했다. 성주 고을 북쪽 17리는 천수泉藪라는 숲이 있었다. 선석산禪石山 태실(세종대왕자태실)의 좌청룡이 낮고 약해서 숲과 나무를 무성하게 길러 비보한 것이었다.[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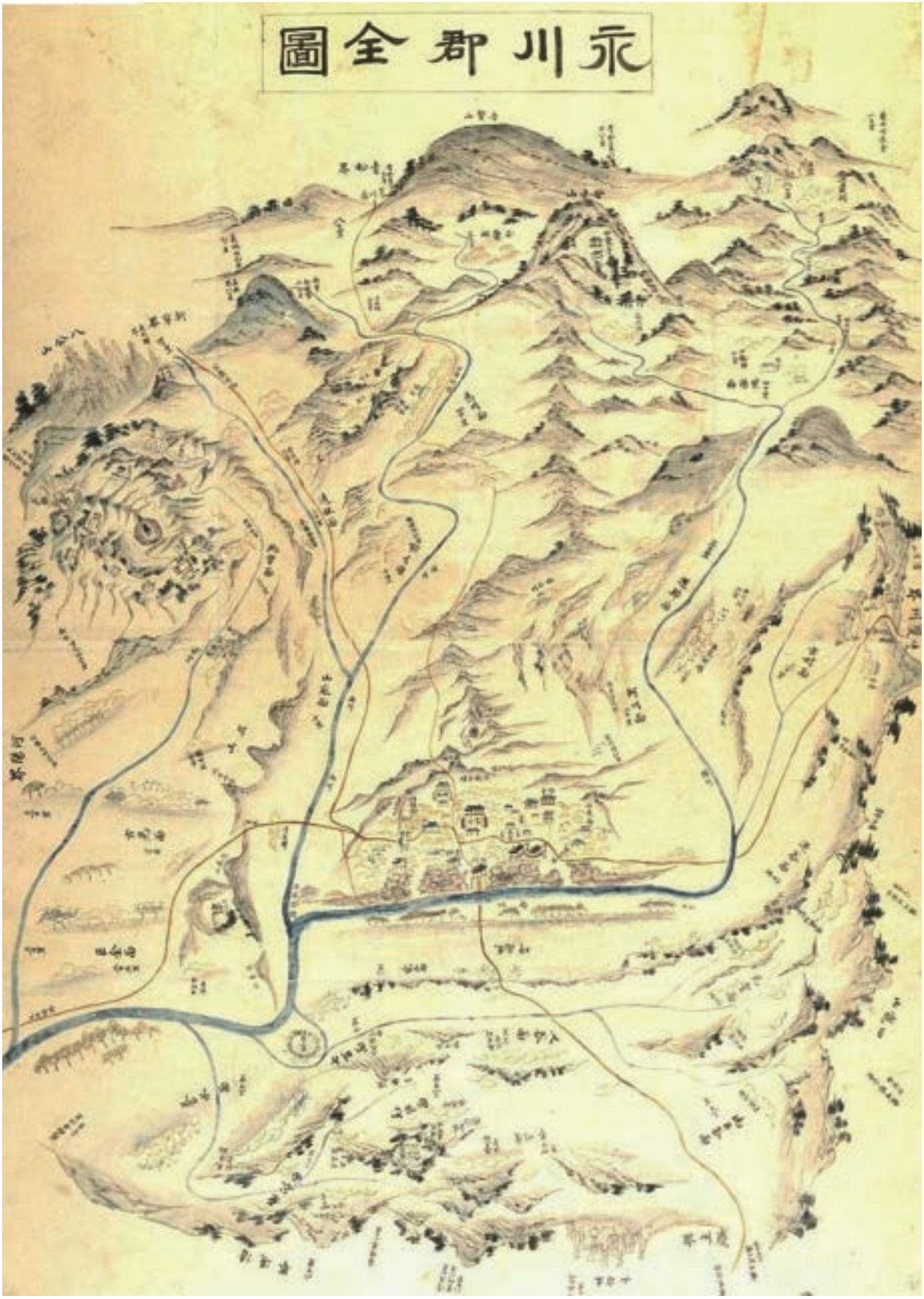
6) 태봉의 그림유산과 풍수

조선왕조는 공식적인 문서 기록과 그림을 통해 태실과 관련한 정보를 관리했다. 태실 등록 등의 고문헌에는 풍수적 택지 및 조성 과정,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고, 태봉도는 풍수적 산도의 영향이 투영되어 있다.

---

8 『京山志』(1677), 藪澤

〈그림 2〉 순조태봉도(1806, 장서각)



〈그림 3〉『1872년 지방지도』의 인종 태실도

태실을 조성한 후에 태봉도를 그렸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서 소장하고 있는 태봉도는 「장조태봉도」(1785), 「순조태봉도」(1806), 「헌종태봉도」(1847), 「태봉산도」(1929) 등이 있다. 그리고 『선원보감』(1931)에는 서삼릉의 태단胎壇을 그렸다. 그밖에도 『해동지도』(18세기 중반), 『1872년 지방지도』 등의 조선후기의 군현지도에는 태봉을 그리고 표기하고 있는데, 왕실의 중요한 경관이기 때문이었다.

7) 중후기로 갈수록 약화되는 태실 풍수의 비중

조선왕조에서 태실의 비중은 중후기로 갈수록 약화되었다. 태실지를 조성하는 데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과 엄청난 백성들의 노동력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태실이 가지는 풍수적인 가치와 위상도 작아졌다. 그래서 15세기 후반부터 태실지도 기존의 원거리 지방 보다는 근거리 경기나 도성 가까운 곳으로 정했다.

성종은, 태실지의 풍수에 크게 길한 감응이 없어 허탄虛誕하니, 가까운 경기에서 태실지를 고르라고 명했다. 신하들이 왕비의 태실을 수호하고 경작을 금하도록 주청하자, 백성의 폐해가 없도록 그대로 두게 한 적도 있다.

중종도 도성 가까운 곳에 태실지를 선택하게 했다. 태실지가 백성들에게 끼치는 폐단과 관리들이 원거리로 행차하는 어려움 때문이었다. 중종은 풍수설은 믿을 수 없고, 태실지를 고르고 안태하는 것은 무익無益하다고 말했다.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후반에, 태실의 조성으로 인한 백성들의 폐해와 태봉 풍속의 폐단에 대해 많은 지식인들이 비판적으로 인식했다는 사실도 확인된다.

조선후기에 왕실 태실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인 인식과 분위기로 말미암아, 태실 영역 내에 민간인의 경제적 활동을 허용하거나, 태실 조성으로 발생된 손실을 나라에서 보상해주기도 했다.

현종은 공주의 태 갈무리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백성을 보상하게 했다. 정조는 원자元子의 태봉지 근방에 백성의 무덤이 있어 옮길 사정이 되면 차라리 다른 곳을 구하라고도 했다. 그리고 순조는 태봉 금표禁標 안에 있는 백성들의 집을 헐지 말고 논밭도 묵히지 말라고 명하였다.

조선후기에 와서 하나의 태봉을 정해서 여러 태를 한꺼번에 안장하도록 했다. 왕실의 공주나 옹주까지도 태봉을 정하고 태실을 조성하여 백성들에게 커다란 부담과 폐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 현실적인 해결책으로서 숙종은 왕실에서 태봉을 쓸 때 개별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의 산을 정해서 조성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표석만 세우고 석물을 쓰지 않게 해서 공사의 부담을 대폭 감소시켰다. 이러한 모둠 태봉 형식은 영조 때에도 같은 이유로 시행되었다. 이미 세종 대에 성주에 조성된 왕자 태실(세종대왕자 태실군)이 그 본보기였다.

영조도 태봉을 조성하는 데 드는 폐단을 고려해서, 같은 태생[同胎]이라면 태실지를 굳이 봉우리 꼭대기로 따로 정하지 말고 같은 산의 다른 등성이를 이용해 갈무리하도록 했다. 정조는 1등 태봉의 경우는 기존대로 길지를 구해서 갈무리하도록 하고, 그 외의 태는 내원內院의 정결한 땅에 묻도록 명했다.

2. 왕태실의 풍수지리

1) 왕태봉의 입지 경관

조선의 왕태봉은 대부분 한강 이남의 하삼도下三道(충청·전라·경상도)에 분포해 있다. 성종과 중종만 경기도에 있다.[9]

왕 태실지가 주로 지방에 있었던 까닭은, 좋은 땅(길지)을 구하려 먼 거리도 마다했기 때문이었다. 『중종실록』에서, "원자元子의 태봉胎封은 가리지 않을 수 없다"는 표현은 이러한 정황을 일러준다.[10] 중후기에 태실풍수의 비중이 약화됨에도 불구하고 왕 태실지는 지방에 많았다.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들이더라도 왕 태실지는 지방의 길지를 골라 썼던 것이다.

왕 태실이 입지한 지형에는 모두 공통점이 발견된다. 대부분 봉긋한 봉우리의 꼭대기에 태실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돌출형 태봉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봉우리 정상에 태실이 들어서는 모습은 조선후기의 태봉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태봉등록』(1643~1740)과 실록에 태봉의 입지지형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서술이 있다.

> *좋은 땅이란 대개 단정하고 우뚝 솟아 위로 하늘에 닿은 듯해야 길지가 된다.*
>
> *『세종실록』, 18년 8월 8일*

> *나라의 제도는 반드시 들판 가운데의 둥근 봉우리를 선택하여 그 꼭대기에다가 태를 갈무리하여 태봉이라 했다.*
>
> *『현종개수실록』, 11년 3월 19일*

> *"무릇 태봉은 산꼭대기에 쓰는 것이 상례이며, 원래 내맥來脈이나 좌청룡·우백호나 안대案對(마주하는 산)는 터 잡는 데에 없다고 합니다."*
>
> *『태봉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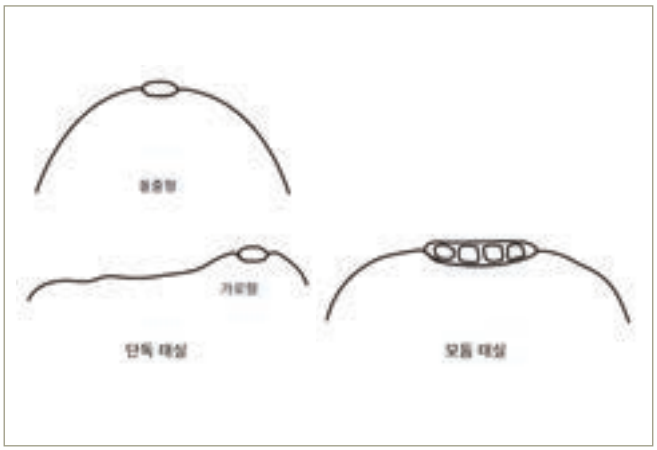
다만 예외적으로 태조와 성종 태봉은 가로로 길쭉한 언덕 위에 자리 잡았다. 가로형 태봉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조선왕조에서 태실풍수의 터잡기 원리와 방식은 일반적인 주택풍수(양택) 및 묘지풍수(음택)와는 달랐다. 명당에 이르는 산줄기 내맥이나, 사방산[四神砂, 청룡·백호·주작·현무] 등 명당 필수 요건의 전형적인 지형지세가 수반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

9 장지연, 「고려 왕실의 태실(胎室)에 대하여」, 『역사와 현실』 124, 2022, 258쪽에 의하면, 고려의 왕태실도 태조 왕건의 태실이 있었던 개성뿐만이 아니라 경상도 진주, 안동 및 예천, 경기도 김포, 황해도 서흥, 강원도 원주 등 비교적 개성에서 먼 지역에 입지한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10 『중종실록』, 12년 11월 23일.



〈그림 4〉 태실 형태별 태봉 유형

〈그림 5〉 태봉의 입지지형 경관 유형

다만 한국적 지형특성상 현상적으로는 풍수적 입지 조건(특히 來脈·四神砂 및 案對)을 보이는 것도 다수 있다.[11] 실제 조선왕실의 왕태봉을 조사해보면, (개발로 훼손된 몇몇 예외적인 태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태봉이 산줄기 내맥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왕태봉의 입지경관 형태도 들판 가운데에 솟은 독봉형獨峰形이라기보다는 산줄기에 이어진 비산비야非山非野의 연봉형連峰形이다. 이렇게 태실의 입지지형에 이론과 실제의 차이가 나는 것은, 산줄기와 산록이 발달한 한국적 산지지형 조건에 기인한 때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태봉의 입지경관이 왕릉(묏자리)의 풍수적 입지에서 요구되는 기본 요건인 주산 및 입수入首 등의 내맥來脈, 좌청룡·우백호·남주작·북현무 등의 장풍藏風, 수구水口 등의 풍수적 물길[得水], 기타 방위를 따진 좌향坐向 조건 등을 엄격히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앞서 인용했던 태실지 선정 기준에 대한 옛 문헌의 표현도 그렇고, 현존하는 왕태봉의 입지에서도 풍수일반의 입지 패턴으로는 예외적인 경우가 많다.

왕 태실지의 입지지형 경관은 단순하게 산간·야산·들판(조망) 입지의 봉우리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산 속에 있는 산간입지 태봉은 정종(황악산·문종(명봉산)·세조(선석산)·인종(팔공산)·순조(속리산) 태실지가 해당한다.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비산비야非山非野의 야산입지 태봉은 태조·세종·단종(성주)·예종·선조·숙종·영조·정조·순종·헌종 등의 태실지가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들판을 바라보고 있는 들판(조망) 입지 태봉은 태종·단종(사천)·성종·중종·명종·광해군·현종·경종 태실지 등이 해당한다.

11 이와 관련하여 심현용은 현존 태실의 입지가, "주산을 뒤로 하여 맥이 연결된 우뚝 솟은 반구형 또는 삿갓형의 산봉우리 정상에 태실이 조성되어 있으며, 주변으로는 좌청룡·우백호가 감싸고 그 앞으로는 물이 흐르고 안산이 위치하고 있다."고 하며, 실제로는 산줄기 내맥과 사방산이라는 풍수의 일반적인 입지조건을 갖추었다는 비판적인 연구결과를 밝힌 바 있다(심현용, 『한국 태실 연구』, 경인문화사, 2016, 158쪽).

〈표 1〉 현존 왕태봉 입지의 지형경관과 유형

왕	태봉의 입지지형 경관	유형
태조	만인산(534미터)에서 동남쪽으로 뻗은 지맥이 골짜기를 형성하면서 손가락처럼 갈래져 그 중 가장 곧고 길쭉한 봉우리 꼭대기에 태실이 들어섰다.	야산입지
정종	황악산(1111미터)의 산줄기가 동쪽으로 직지사 터를 맺은 주산인 태봉산(277미터) 봉우리 꼭대기에 태실이 들어섰다.	산간입지
태종	대황산(486미터) 아래로 남쪽으로 뻗은 지맥이 하천변에 다다라 맺은 봉우리 꼭대기에 태실이 들어섰다. 태봉 아래로는 낙동강 지맥의 하천이 태실지를 에워싸고 동쪽으로 흘러나간다.	들판입지
세종	지리산 삼신봉(1289미터)의 산줄기가 동남쪽으로 뻗어 내려오다 소곡산으로 맺은 봉우리 꼭대기에 태실이 들어섰다.	야산입지
문종	황장산(1077미터)이 동남쪽으로 산줄기를 뻗어 명봉산을 주산으로 명봉사 터를 맺었는데, 그 무량수전 뒷산 봉우리 꼭대기에 태실이 들어섰다.	산간입지
단종	가야산(1432미터)의 산줄기가 서쪽으로 두리봉(1135미터)로 솟고, 두리봉에서 동북쪽으로 맥을 뻗어 형제봉(1022미터)과 장대(615미터)로 이어져 내려오다 태봉으로 솟아오른 꼭대기에 태실이 들어섰다. 태봉 앞으로는 계곡물이 에두르고 서출동류(西出東流)하며 흘러나간다.	야산입지
세조	금오산(977미터)의 산줄기가 남쪽으로 뻗어 내려와서 선석산(742미터)으로 맺고 그 품에 좌우로 양팔을 벌리고 에워싼 봉우리 꼭대기에 태실이 들어섰다.	산간입지
예종	금성산(328미터)이 남쪽으로 산줄기를 뻗어 태봉을 이루고 다시 아래로 큰태봉을 이루는 꼭대기에 태실이 들어섰다. 태봉을 에두르고 마을 하천이 흘러나간다.	야산입지
성종	용인의 보개산에서 갈라지는 경안천의 동쪽 지맥에 태실이 들어섰다. 태봉을 감싸 안으면서 동서로 흐르는 동대천과 직리천과 남북으로 흐르는 경안천과 맞닿아 합수하는 부근에 태실이 입지했다. 현재 지형 모습은 근대화로 개발되면서 지맥이 잘려 분리되어 있으나 원래는 이어져 있었다.	들판입지
중종	불기산(601미터) 산줄기가 동쪽으로 뻗어서 들판의 하천가에 이른 봉우리 꼭대기에 태실이 들어섰다.	들판입지
인종	팔공산(1193미터)의 산줄기가 동쪽으로 뻗어 태실봉(462미터)을 맺는데 그 동편으로 다시 솟은 봉우리 꼭대기에 태실이 들어섰다. 『해동지도』(경상도 영천)에는 태실지가 근원한 산줄기를 '공산'이라 표기했다.	산간입지
명종	상왕산(309미터)의 산줄기가 서북쪽으로 뻗어 돌출한 봉우리 꼭대기에 태실이 들어섰다.	들판입지
선조	청등산(260미터) 산줄기가 남쪽으로 뻗어 돌출한 봉우리(태봉산) 꼭대기에 태실이 들어섰다. 앞으로는 송정저수지가 마주한다.	야산입지
광해군	도덕산(660미터)의 산줄기가 남쪽으로 뻗어 내려와 금호강과 만나기 전에 솟은 봉우리 꼭대기에 태실이 들어섰다.	들판입지
현종	박봉(233미터) 산줄기가 서쪽으로 뻗어 내려와, 신양천이 만든 들판에 이르러 솟은 봉우리 꼭대기에 태실이 들어섰다. 현종 태실지는 개발공사로 훼손되었다.	들판입지
숙종	계룡산(845미터) 산줄기가 서쪽으로 뻗어 이룬 봉우리 꼭대기에 태실이 들어섰다.	야산입지
경종	백운산(1087미터)의 산줄기가 남쪽으로 뻗다가 다시 동쪽으로 내려와 원곡천을 만나는 즈음, 봉긋하게 솟은 봉우리 꼭대기에 태실이 들어섰다.	들판입지
영조	속리산(1058미터)에서 서쪽으로 뻗은 산줄기가 가래산(543미터)에 이르고 그 서편으로 봉긋하게 솟은 봉우리의 꼭대기에 태실이 들어섰다. 본래 자리보다 150여 미터 아래에 이전 복원되었다.[12]	야산입지
정조	계족산(889미터)에서 산줄기가 남쪽으로 뻗어 남한강 줄기에 이르는 즈음 솟아난 봉우리 꼭대기에 태실이 들어섰다.	야산입지
순조	속리산 천황봉(1058미터)에서 서쪽으로 뻗은 산줄기를 타다가 솟아난 봉우리 꼭대기에 태실이 들어섰다.	산간입지
헌종	서원산(473미터)의 산줄기가 남동쪽으로 뻗어 옥계저수지와 만나는 돌출부 정상에 태실이 들어섰다.	야산입지
순종	보개산(274미터)이 남서쪽으로 뻗은 지맥의 구릉지 돌출부 정상에 태실이 위치했다. 태실지(태봉산) 마저 근래 공장지로 개발되면서 없어졌다.	야산입지

12 이규상, 『한국의 태실』, 청원군·청원문화원, 2005, 265~279쪽.

2) 국왕의 태실풍수에 대한 인식과 태도

조선왕실에서 태실은 전례에 따라 관례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시기에 따라 왕들의 태실에 대한 가치와 인식은 달랐다. 국왕 본인의 태실 조성에서 드러나는 태실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어떤지 살펴보기로 하자.

태조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천도遷都 준비와 동시에 본인의 태실을 새로 길지를 구해 조성하도록 했다. 국왕의 태실이 왕실에서 차지하는 상징적 위상과 본인이 생각하는 태실풍수의 의미가 적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정종 역시 왕위에 오르자 곧바로 멀리 삼남(경상·전라·충청) 지방에서 안태安胎할 태실지를 새로 잡게 명한다.

태종도 즉위한 이듬해 하륜을 태실지 선정의 책임자로 윤신달을 실무자로 자신의 태실지를 구하게 했다(하륜은 태조 당시 계룡산 천도를 저지한 중신이었고, 윤신달은 서운관의 관리로 풍수전문가였다). 태실지에 대한 중요성과 풍수적 가치를 크게 인식하였던 것이다. 위 세 왕의 태는 모두 함흥(영흥)에서 옮겨 지방의 길지에 새로 태실을 조성한 것이었다.

세종도 즉위하자마자 태실지 조성에 나선 것은 마찬가지였지만, 전왕前王과 태실을 조성하는 태도가 달랐다. 자신의 태실지를 가봉하는 과정에 태실의 설비 등에 이르기까지 풍수를 신중하게 고려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세종은 국정의 전반을 모두 세세하게 간여하고 파악했는데 태실의 경우도 그랬다. 태실지의 지맥을 해치지 않게 건조물까지 신경 쓰는 모습을 보더라도, 세종이 풍수를 얼마만큼 세심하게 따졌는지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세종은 태실에 대한 허례도 줄였다. 재위 중에 태실안위제胎室安慰祭를 없앤 것이다. 그는 태실을 정비하는 데도 힘을 썼다. 무덤을 쓰는 등 태실지의 훼손을 방지하고, 태실지 수목의 온전한 보전과 관리에 치중했다.

문종 대까지 태실 제도가 내려오면서, 왕실에서는 태실 조성에 과다한 비용과 부담이 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는 가옥의 철거나 논밭의 폐지 등으로 인한 민폐가 컸다. 이로써 문종은 조정에서, 태봉으로 인한 민폐를 고려하여 논밭의 폐지와 가옥의 철거를 중지할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했다. 그 결론은 화재방지를 위해 태봉에 근접한 곳과 풍수보전을 위해 주산 기슭만 보호하는 것으로 났다. 풍수 논리와 현실 사정을 둘 다 감안한 절충적인 판단이었다.

단종이 왕세자로 결정되자 문종은 태실지를 새로 구해서 옮겨 조성했다. 그러나 세조는 단종의 왕위를 강제적으로 빼앗은 후에 태실마저 정치적인 의도로 철거했다(마치 태종의 재위 당시에 도성 안에 있었던 신덕왕후의 정릉을 성 밖으로 내친 것과 같았다). 이런 사실을 통해 왕실에서 가지는 태실의 상징적인 의미와 그에 대한 세조의 인식이 잘 드러난다.

그러나 정작 세조는 본인 태실에 대한 가봉은 길지를 새로 구해서 하지 않았다. 성주 태실군 중에 있던 기존의 표석 대신에 비석만 새로 세워서 구별하게 했다.

성종을 거쳐 중종에 이르면서 태실에 대한 왕실의 비중과 풍수적 가치는 줄고 의심받게 된다. 따라서 왕 태실지도 멀리 지방보다는 가까운 경기에 정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성종 태실지는 경기에

가봉되었다. 당시 왕실에서 태실지의 풍수적 효험이 비판되면서 인근에 태실을 조성하는 편의성을 택했던 것이다.

성종은 풍수에 대한 믿음도 적었다. 풍수설은 크게 길한 감응이 없을뿐더러 허황되고 속임이 있다고 봤다. 태실의 풍수적인 기능과 발복을 의심했던 것이다. 성종의 태실에 대한 단적인 인식은 "태를 갈무리하는 일은 나라의 큰 일이 아니다"[13]는 말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당시 왕실에서 태실이 갖는 가치와 위상은 이미 떨어져있었다는 사실을 여실히 느낄 수 있다. 이런 그의 인식은 태실지의 관리 규제를 완화하는 태도로 반영되었다. 왕실의 태실 조성에 백성의 폐해와 경작 시기를 고려하게 했다. 농사철에 백성을 동원해서 하는 태실 공사를 정지하라고도 명했다.

중종은 "풍수설은 믿을 수 없고, 태실지를 고르고 안태하는 것은 무익無益하다"고 선언했다.[14] 아버지 성종 보다 더 태실풍수의 효과를 믿지 않았던 것이다. 중종의 태실지도 마찬가지로 경기에 두었다. 태실 때문에 담당 관리들이 먼 지방으로 오고가는 어려움과, 태실지가 백성들에게 끼치는 폐단 때문이었다. 중종 대에 이르자, 태실지를 조성하는 데 드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과 폐단에 비추어 풍수적 위상과 가치는 더욱 약화되었다. 그렇지만 중종은 정작 아들인 인종 태실지의 관리에는 엄격했다. 관리 소홀로 태봉에 불이 나서 담당자와 수령에게 책임을 물었는데, 군수까지 곤장을 맞고 파직될 정도로 태실지를 엄중하게 관리했다.

선조는 조선의 국왕 중에서 풍수를 신봉하는 편에 속한다. 왕위에 오르자 태실 가봉을 했다. 길지를 구하려 재정을 낭비하면서 두 차례나 시행착오를 겪다가 3년째 되던 해에야 태를 갈무리했다.

이 일을 두고 사관史官은, 태를 옮겨 갈무리하면서 드는 민폐에 대해 지식인들이 개탄했다면서, 태실풍수가 풍수적으로 근거가 없을 뿐더러 무용하다고 했다. 선조 대에 와서 태실 조성에 조정과 백성의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태실무용론까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선조는 태실 조성의 시기에 있어 농번기를 고려하자는 신하의 건의도 받아들이지 않고 강행하기도 했고, 선왕(명종)의 태봉이 파괴된 데에 관리 책임을 물어 고을 수령을 파직시키기도 했다.

이후의 현종·숙종·영조·정조·순조는 민생과 민폐를 감안해 태실지를 조성하거나 관리했다.

현종은 태실에 대한 민생의 부담을 경감시키려 노력했다. 재위 중 태실의 가봉을 추수 후에 시행했고, 태 봉안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백성의 피해를 보상해 주었다.

숙종은 왕실에서 태봉을 쓸 때 하나의 산을 정해 한꺼번에 조성하도록 조치했다. 영조도 즉위 5년째가 되던 해에야 태실을 가봉했는데, 백성들의 노역을 생각하여 태실 공사를 미룬 까닭이다. 그는 석물 양식도 간소하는 등 태실로 인한 백성의 민폐를 줄이는 시책도 강구했다.

정조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태실에 대한 가봉을 여러 차례 미루었다. 아들 순조 태실지 조성에서도 민생을 살펴 검소하게 수행하도록 했다. 태봉 영역 안에 있는 백성들의 집을 헐지 말고, 밭도 경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조의 태실 가봉은 결국 순조 때에야 했다.

---

13 『성종실록』, 17년 2월 6일.
14 『중종실록』, 12년 11월 23일.

04
맺는 말

조선의 왕실풍수는 사회문화적으로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을 했을까? 긍정적인 역할을 평가하면, 도성과 궁궐의 환경계획과 경관관리에 풍수는 지속가능한 지침으로 작용했다. 길지에 태실을 조성함으로써 생명의 고귀함과 가치를 높였다. 산릉 조성을 통한 죽음의 존엄과 영속의 바람은 의례뿐만이 아니라 장소미학을 통해서도 철저히 구현됐다.

왕실풍수의 사회적 역기능도 적지 않았다. 풍수에 대한 맹신과 길지에 대한 집착으로 태실과 산릉, 궁궐을 무리하게 조성하거나 중건한 적도 많았다. 여러 차례의 능자리 이장은 왕실의 재정을 파탄 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노역을 강제해 피폐하게 했다. 산릉의 이장을 둘러싸고 세력 간의 정쟁이나 권력 암투의 수단으로 풍수가 악용되기도 했다. 고려왕실은 과다한 사찰 조성에 왕조가 기울었고, 조선왕실은 지나친 산릉 조성에 국력을 소모했다.

조선왕실의 풍수 공과를 학술사적으로 평가해 볼 때 일말의 아쉬움도 없지 않다. 같은 반열에 드는 천문과 의학 분야에는 조선의 독자성이 있는 저술을 낳았는데, 지리(풍수) 분야에는 그렇지 못했다. 중국의 풍수서를 현장에 적용하는 노력은 무척 했지만, 조선의 자연지형과 문화역사 조건에 맞추어 조선의 풍수이론라고 할 만한 저술을 생산하지는 못했다. 조선은 중국과 제반 지리적 조건이 엄연히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풍수론을 적극적으로 정립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세종 때만해도 그랬다. 당시에 조정은 조선의 천문 실정에 맞는 역법曆法인 칠정산七政算을 명나라 대통력大統曆을 참고해 만들었다. 선조 때의 허준(1539-1615)은 왕명으로 동의보감東醫寶鑑을 만들어 조선의 의학서로서 표준을 세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문과 의학의 성과에 비견할만한 풍수의 성과는 미약했다. 제도적으로 관상감에 다수의 풍수관원들이 전문지식인으로 활동하고 있었지만, 능자리와 태실지를 정하는 등의 실무적인 일을 하는 데만 치중하였고 창의적인 연구는 부족했다.

조선왕실에서 주도하여 전개한 것으로서 내로라하는 풍수담론이랄 것이 없다는 것도 아쉬움이다. 고려왕조에는 도선道詵으로 대표되는 비보풍수론이 국가의 이념으로까지 기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왕조에는 전왕조에 비견할만한 인물도 담론도 없었다. 조선왕조의 인성풍수도 실제적으로는 사상적 지향성만 있었지 현실적으로는 철저하게 이행하거나 사회전반에서 실천하지도 못하여, 조선왕조의 사회사상을 이끄는 풍수적 패러다임이 되지 못하였다. 조선왕조는 국토 곳곳에 풍수문화의 꽃은 피웠지만, 열매를 채 익기도 전에 일제강점기와 근대의 파고가 닥쳤다.

조선왕실의 풍수 현장은 어떤 공간적인 이미지로 그려질 수 있을까? 가운데는 한양 궁성의 중심축이 있다. 거기에서 산릉이라는 40여개에 이르는 왕실의 뿌리는 도성 100리 안에 사방으로 뻗어 있다. 그리고 태실이라는 수많은 왕실의 씨앗은 광역적으로 전국 곳곳에 심어있다. 한양을 중심으

로 국토 전역의 명당길지마다 일종의 기지국을 둔 셈이다. 마치 고려왕조가 국도 개성을 중심으로 전국의 명산마다 비보사찰을 배치한 것이나 상징적 의미가 다름이 없다. 그것은 중앙권력이 풍수요소의 상징성을 통해 지방통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공간정치적인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조선 왕실풍수 현장의 아쉬움도 없지 않다. 궁성이나 산릉에 비해 태실지의 관리 실태는 거의 방치 수준이다. 일제강점기에 전국의 태실을 고양의 서삼릉으로 옮긴 이후, 정작 원래 자리는 버려져 있거나 민간인 묘소가 들어서 있다. 현종과 순종 태실지처럼 태봉 자체가 개발로 깎여나가 없어진 곳, 태조와 영조 태실지처럼 원 위치를 벗어나 복원된 곳, 예종과 성종 태실지처럼 석물을 옮겨서 전시한 경우도 여럿이다. 일제강점기 때 서삼릉에 모아둔 태실은 아직도 공동묘지의 묘비처럼 그 모습의 생경함이 여전하니, 광복 70주년이 지났지만 문화적인 자주성의 회복은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다.

모든 문화재가 그렇지만, 태실이 태실로서 그 온전한 모습과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조성 당시의 제자리에 있을 때이다. 태실은 건조물을 포함한 태봉 그 자체가 완전성 있는 문화경관 유산이기 때문이다. 이런 태실지에 석물만 똑 떼어 다른 곳에 복원해 전시한들 그 진정성과 심미적 감동은 원래 자리에 있는 것에 비할 수 없다. 토함산 자락에 있는 불국사의 다보탑을 경주의 박물관 실내에서 전시하는 것과 마찬가지 격이다. 특히 풍수와 관련된 역사문화유산은 장소의 현장성이 유산의 존재 이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화재를 경관유산으로 보는 올바른 시선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삼국사기』『고려사』『세종실록』『성종실록』『중종실록』『선조실록』『현종개수실록』『영조실록』『정조실록』
『헌종실록』『순조실록』『승정원일기』「대숭복사비명」『태봉등록』『서운관지』『경산지』『지리신법호순신』
『선원보감』『해동지도』『1872년 지방지도』「장조태봉도」「헌종태봉도」「태봉산도」

민병삼, 「태실의 생명사상」, 『영남학』 31, 2016
심현용, 『한국 태실 연구』, 경인문화사, 2016
이규상, 『한국의 태실』, 청원군·청원문화원, 2005
장지연, 「고려 왕실의 태실(胎室)에 대하여」, 『역사와 현실』 124, 2022
최원석, 『사람의 지리 우리 풍수의 인문학』, 한길사, 2018
최원석, 『조선왕실의 풍수문화』, 지오북, 2021

「조선왕실의 풍수문화와 왕태실의 풍수지리」에 대한 요약문

조선은 풍수문화를 꽃피운 왕조였다. 동아시아의 어느 시대 어느 왕실보다 풍수를 폭넓게 활용했고 철저히 실천했다. 탄생과 삶, 그리고 죽음으로 이어지는 공간생활사 전반에 풍수는 큰 영향을 주었다. 길지를 찾아 태실을 조성했고, 풍수를 따져 궁궐에 살았으며, 생명이 다한 몸을 명당에 묻었다.

조선왕실에서 태실을 조성하는 목적은 길지에 갈무리함으로써 풍수의 좋은 영향을 받기 위해서였다. 태 주인의 건강과 수명, 인성과 화복뿐만 아니라, 왕실의 번영과 왕조의 운명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믿었기에, 태실풍수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취급했다.

이 글은 왕태실(왕태봉)의 풍수지리를 조선왕실의 풍수문화라는 거시적 맥락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세부적인 주제와 내용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왕실 풍수문화의 특색에 관해, 동아시아적 시선으로 살펴보고, 사상적, 이론적, 사회적, 심미적인 측면에서 각각 조명한다.

둘째, 조선왕실의 풍수문화를 토대로 태실풍수를 고찰한다. 태실풍수는 태실의 풍수적 조성과 관리, 왕태실의 풍수지리라는 두 가지 측면을 주로 검토한다.

셋째, 태실의 풍수적 조성과 관리에 관해서는, 태실 입지 관념의 변화, 태실 입지에 풍수를 따진 이유, 태실의 제도적 정비와 풍수, 태실지 조성 절차와 풍수, 태실 및 태봉의 풍수적 관리, 태봉의 그림유산과 풍수, 태실 풍수의 시대적 변화에 관해 살펴본다.

넷째, 왕태실의 풍수지리에 대해서는, 왕태봉의 입지 경관과 국왕의 태실풍수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살펴본다.

맺는 말에서는 조선왕실 풍수문화의 사회문화적 순기능과 역기능, 조선왕실 풍수의 공과功過 평가, 문화재를 경관유산으로 보는 시선 등에 관해 언급하고자 한다.

조선의 왕실풍수는 사회문화적으로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을 했을까? 긍정적인 역할을 평가하면, 도성과 궁궐의 환경계획과 경관관리에 풍수는 지속가능한 지침으로 작용했다. 길지에 태실을 조성함으로써 생명의 고귀함과 가치를 높였다. 왕릉 조성을 통한 죽음의 존엄과 영속의 바람은 의례뿐만이 아니라 장소미학을 통해서도 철저히 구현됐다.

왕실풍수의 사회적 역기능도 적지 않았다. 풍수에 대한 맹신과 길지에 대한 집착으로 태실과 산릉, 궁궐을 무리하게 조성하거나 중건한 적도 많았다. 여러 차례의 능자리 이장은 왕실의 재정을 파탄 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노역을 강제해 피폐하게 했다. 왕릉의 이장을 둘러싸고 세력 간의 정쟁이나 권력 암투의 수단으로 풍수가 악용되기도 했다.

「조선왕실의 풍수문화와 왕태실의 풍수지리」에 대한 토론문

민병삼(공주대학교 교수)

조선왕실의 풍수문화와 태실의 풍수지리에 대한 발표문을 읽고 전체적인 내용은 발표자의 전공분야인 태실의 역사문화 측면의 논리전개는 발표자의 기존의 연구에 대한 성과가 있어서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만, 태실의 역사적 평가와 실제의 태실입지에 대한 풍수지리 실무와 연관되는 태실의 풍수입지에 관한 논리전개에 있어서는 대학원에서 풍수전문가들에게 풍수이론과 실무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많은 부분이 미흡한 논리전개를 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아쉬운 글입니다.

또한, 기존의 연구자들은 한국에 풍수가 전래된 시기를 신라하대 800년대 도선의 등장으로 보았다. 때문에 비록 도선 이전에 고려의 송악을 정해준 또 다른 훌륭한 풍수가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한국의 풍수시작을 도선으로 시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일본서기』에서 백제의 승려 관륵이 천문, 지리, 역법, 기문둔갑 등 방술을 일본에 600년대초기에 전래하였다는 기록에 의거하면, 그 당시의 지리는 요즘 대학의 지리학과에 개설되는 서양의 학문체계의 지구과학적인 지리를 의미하지는 않고 동양학과에 가르치는 풍수고전과 풍수실무라고 믿어도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풍수전래는 기존의 학계에 알려진 도선을 기점으로 하는 신라하대 800년대에서 보다 더 빠른 김유신의 태실이 봉해지는 600년대 이전으로 수정되어야 마땅할 것 같다.

더하여 발표문의 결론에서 조선시대의 천문분야에서는 조선시대의 독창적인 발전이 있었는데, 풍수지리 분야는 새로운 저술도 없고 실무적 운영에만 발달되었었다고 마무리하면서 한국의 태실문화도 원형을 보존하지 못한 채 대부분 일제강점기에 서삼릉으로 이전되어 있기에 태실문화의 보존과 발전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이 견해를 피력하였다. 토론자는 풍수지리가 백프로 접목된 한국의 태실문화는 태 항아리가 비록 다른 곳으로 이전 되어 있더라고 그 자체로 태실의 입지를 복원하고 그 땅의 위치를 알고 있는 것만 해도 태실의 풍수적 측면에는 태실문화가 전혀 손색이 없다고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토론주제는 시간상 문단별로 발표문을 요약하면서 관련하는 질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1. 여는 말

발표문의 서론에서, 조선시대의 풍수는 인간의 태어남과 인생여정 그리고 죽음 전반에 큰 영향을 주었고, 풍수적으로 좋은 땅에 태실을 조성했고, 풍수를 따져 궁궐에 살았으며, 죽으면 명당에 묻었다.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태실을 조성하는 데 풍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었고, 조선시대 태실의 입지는 고려시대의 높은 산지의 영지에서 해발200미터 내외의 작은 봉우리의 길지로 바뀌었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2. 조선왕실 풍수문화의 특색

1) 풍수문화의 동아시아적 변용

발표문에서 풍수는 운명론에 대한 변혁사상이고, 하늘에서 정해진 운명을 땅의 지리요건을 통해 바꿀 수 있는 일종의 사상혁명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배층은 권력을 연장하려 했고, 피지배층은 신분 상승을 도모하려 했지만, 땅의 절대적 영향하에 결정론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순을 안고 풍수문화가 전개되었다고 하였다.[1]

(토론 1)

발표자의 조선시대의 풍수는 변혁사상이 운명을 바꿀수 있는 사상혁명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풍수고전 錦囊經에 나오는 아래 문장 중 '是以君子奪神功改天命'의 의미와 문장을 열거한 것일 뿐 같은 의미인 것 같은데 어떠한지요?

"山은 勢가 비록 험하더라도 그 안에 吉地가 있으니, 산천의 기운이 모이는 곳에 풍수지리의 법에 맞게 장사지내라, 장사는 생기가 들어오는 곳에 시신을 모셔야 하고, 맥이 끊어져 기가 廢하는지 자세히 살피고, 서로 대등한 곳을 선택하고, 해로운 곳은 장사를 피한다. 화복은 하루 아침에 되돌릴 수 없지만, 풍수에 정통한 사람이라면 신의 능력을 빌어 하늘이 정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錦囊經』「山勢篇」, 山者勢險而有也, 法葬其所會, 乘其所來, 審其所廢, 擇其所相, 避其所害. 禍福不旋日, 是以君子奪神工改天命。"

발표문에서 조선시대의 풍수는 중국풍수이론을 사용하여 지형의 따라 적용하고 운용한 측면이 달랐다. 태실은 한국의 독특한 출산 문화유산이다. 태실유적과 문헌이 전해온다. 조선왕실에서 왕릉을 '산릉'이라는 일반명사를 쓰는 까닭은 산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지형적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2]라고 하였습니다.

---

1 토론 1. 풍수고전 '是以君子奪神功改天命'의 의미와 다르게 이율배반적으로 전개되었다는 의미인가?
2 토론 2. 발표자는 산릉을 조선왕실에서 일반명사로 사용했다는 말인데 중국에서도 사용하였다.

(토론 2)

朱子의 「山陵議狀」이란 제목의 '효종의 장지를 정하는 데 있어서 풍수전문가를 보내서 길지를 찾아서 산릉을 구해야 한다.'는 상소문에서 알 수 있듯이 발표자가 설명한 산릉이 조선왕실에서만 사용하던 일반명사는 아닌 듯한데 발표자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朱子集』「山陵議狀」: 右臣竊惟, 至尊壽皇聖帝, 聖德神功覆冒寰宇, 深仁厚澤浸潤生民, 厭世上賓率土哀慕。宜得吉土, 以奉衣冠之藏, 垂裕後昆永永無極。"신이 생각컨대, 지존수황성제 효종임금의 聖德과 신성한 공적은 온 천하를 뒤덮고, 후덕하고 인자함이 온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윤택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세상을 떠나 하늘의 빈객이 되시니 온 나라의 백성들이 슬퍼하고 그리워합니다. 마땅히 吉土를 구하여 의관을 받들어 (땅속에 잘) 감추어 장사지내서, 후대자손들이 넉넉하고 부유하게 영원토록 '無極'에 임하도록 드리워야 합니다."

2) 풍수문화의 사상·이론·사회·심미적 특색

발표문에서 조선왕실의 풍수문화를 개관해 볼 때 그 사상적, 이론적, 사회적, 심미적인 특색은 각각 인성풍수의 윤리와 사상, 명당풍수론의 실천과 산줄기 풍수, 풍수담론의 사회정치, 풍수경관의 자연미학이 그것이다.[3]

(토론 3)

발표자는 풍수고전의 한글화 때문이지 모르지만 자의적으로 많은 새로운 풍수용어를 양산하고 있어 혼란스럽다. 풍수에 입문한 초심자라면 발표자의 글을 따라가겠지만, 풍수고전의 이론적 의미를 정확히 풍수현장에 적용하는 풍수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발표자의 자의적인 새로운 풍수용어의 생산은 많은 부분 그 의미를 모두 담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명당풍수(陰宅風水), 인성풍수(陰宅風水), 비보풍수(物形風水), 산줄기풍수(??), 물줄기(득수), 산줄기(龍-그 용이 산줄기이다), 앉음새(坐向), 모양새(形像) 등 많다.

특히, 龍을 '산줄기'로 사용하는 것은 풍수고전에서 산을 용으로 명칭한 이유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많은 부분에서 적용할 수 없는 단어가 아닌가 한다. 풍수고전에는 용도 生龍, 死龍, 强龍, 弱龍, 順龍, 逆龍, 進龍, 退龍, 福龍, 病龍, 劫龍, 殺龍, 福龍, 應龍, 揖龍, 枉龍, 殺龍, 鬼龍, 劫龍, 遊龍, 病龍, 死龍, 絶龍 등 다양하다. 만약, 단순히 산을 용이라 하지 않고 '산줄기'로 단순히 표현한다면 두 글자로 합한 다양한 풍수고전의 용어를 풀어서 길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혈을 맺으려는 산은 반드시 용이라고 해야지 산줄기라고 하지 않는다.

풍수지리에서는 山과 龍을 구별하여 다르게 부르는 이유는 혈을 맺으려는 신령스러운 산과 일반적인 산을 구별해서 붙인 이유이다. 용경에서는 "山을 山이라 말하지 않고 龍이라고 하는 이유를 龍은 능히 뭍에 잠기고 하늘을 날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小大屈伸으로 변화가 무쌍하다. 오직 순수한

3 토론 3, 산을 용이라하는 이유로 산줄기라고 하면 풍수 용어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 될 것이다.

양의 精氣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때로는 산이나 바다와 강같이 넓은 곳에 숨고 하늘로 날아오르니 마치 하늘을 헤치어가듯 말이 달리는 것 같고, 龍이 구름이 일으켜서 비를 내리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비록 산등성이는 말과 비슷하지 않아도, 山이 神妙한 것을 말하여 龍이라고 한다." 『龍經』, 謝廷柱 撰 : 夫山不曰山而曰龍者, 龍能潛淵飛天, 小大屈伸變化莫測, 惟其純陽之精, 故能若是而山之沒海況江, 撐霄得曰馬, 龍無異興雲致雨, 岡不似馬, 可謂妙于言山者矣。

또한, 『人子須知』에서는 풍수지리에서 산을 용이라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산의 모양은 천태만상이다, 크다가도 작고, 일어나다가도 엎드리고, 뒤로가다거 앞으로 가고, 숨었다가도 나타나고, 지룡의 체단이 항상 일정하지 않고 지척의 움직임도 문득문득 달라지니, 만물 중에 오직 용만이 그러하다. 그러므로 산을 용이라 이름하였다. 그 잠기었다고 나타나고, 날다가 뛰어가고 그 변화를 헤아릴 수 없음을 취해서 산을 용이라 이름했다. 『人子須知』「論龍脈穴砂名義」: 地理家以山名龍, 何也？山之變態千形萬狀, 或大或小, 或起或伏, 或逆或順, 或隱或顯。支龔之體段不常, 咫尺之轉移頓異。驗之於物, 惟龍爲然。故以名之, 取其潛見飛躍, 變化莫測云爾。

발표문에서 일반적인 중국풍수론은 모양새를 중시하는 형세론과 앉음새를 중시하는 방위론으로 대별된다. 각론으로는 용龍·혈穴·사砂·수水·향向 등으로 체계화한다. 그 용이 산줄기이다. 명당을 찾는 순서로 볼 때 산줄기가 처음이다. 그런데 각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 중국풍수는 물이 가장 중요했다. 조선왕실에서 교과서로 썼던 『금낭경』이라는 중국풍수서에서 "득수得水가 우선이고 장풍藏風은 그 다음"이라고 한 것도 그 방증이다.[4] 즉, 중국풍수는 물을 중요시 했고, 한국풍수는 산용을 중시했다는 주장이다.

(토론 4)

『錦囊經』에서 "산을 보는 법에는 龍勢를 보는 것이 가장 어렵고, 그 다음은 形象을 보는 것이 어렵고, 나침판으로 方位를 보는 것이 제일 쉽다."고 했다. 『錦囊經』「山勢編」: 占山地法, 以勢爲難, 以形次之, 方又次之。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龍이다. 중심 용맥은 인체의 척추뼈와 같은 것이다. 용이 고귀하면 귀한 산들이 모여서 산수가 아름답고, 용이 천박하면 반대로 전망도 산들이 보잘 것 없이 추악하다. 땅의 이치는 하나이다. 모든 것은 용이 결정한다. 이것은 산악지의 중국과 한국이 다르지 않다. 그러나 해안지대처럼 전체가 평양용으로 되어 용맥이 미미하여 보기가 어려워 높고 낮은 것을 구분하기 난해하니 용을 볼 때 물에 의거하여 볼 뿐이다. 물이 지나가는 더국 선명하기 때문이다. 高山龍에서는 장풍이 우선이고, 平洋地에서는 득수가 우선이다. 그래서 중국의 항주 같은 산악지형에서는 형세론이 발달되었고, 해안지역에서는 방위론이 성행하게 되었다. "

4 토론 4, 중국풍수는 물을 중시하고 조선시대는 용을 중시했다는 일반론을 동의하기 힘들다.

태실의 입지도 산지의 돌혈과 평양의 돌혈에 설치할 수 있는 데, 산지의 태실은 바람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장풍이 중요하고, 평양의 태실은 물이 환포해서 득수得水를 해야 하는 풍수적 특징을 요구한다.

『금랑경錦囊經』에서 이러한 형상의 길지는 "마치 평지에 솥을 엎어 놓은 것같이 사방이 아래로 절벽같이 가파르고 그 중앙이 솟아오른 곳에 혈을 취하면[突穴] 부유하고 융성함에 이룰 수 있다."

『錦囊經』. "如釜之覆于平地, 四圍垂落, 其中突起處, 取穴也, 則可之致富盛也。"

또, 『人子須知』에서는 "산지의 돌혈과 평지의 돌혈이 그 형성됨이 다르다. 산곡山谷(山地)의 돌혈은 장풍을 요구하므로 산곡의 돌혈은 반드시 좌우를 청룡과 백호가 긴밀히 감싸 주어야 하고, 절대로 홀로 있어 바람에 노출되면 안 된다. 그래서 곽씨가 '산곡의 장풍이 중요하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평양平洋(平地)의 돌혈은 물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므로 사방이 논밭이거나 평탄해도 역시 해롭지 않아야 하므로 물의 경계가 분명해야함이 요구되고 수세水勢가 혈 앞으로 모여들어야 하고 물이 환포해야 아름답다. 곽씨가 '평지에서는 먼저 반드시 득수를 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人子須知』「論突形之穴」. "山谷之穴要藏風。故山谷之突穴, 須左回右抱, 切忌孤露受風。郭氏云"山谷且要藏風"是也。平洋之穴要得水。故平洋之突, 四畔坦夷, 亦不爲害。但要界水分明, 水勢注聚, 或遶抱爲佳。郭氏云"平洋先須得水"

산지山地 돌혈의 태실지는 용호가 높이 내맥을 길게 호룡하면서 청룡과 백호가 요함凹陷하지 않아 바람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고, 혈처에 이르면 특출한 봉우리 천을天乙과 태을太乙이 있어야 합당하다. 평지平地의 태실지는 사방이 평탄하여 논밭을 이루거나 양쪽에 큰 물이 혈장을 회포하여 경계를 이루어야 한다. 용호와 안대는 멀리 있어서 큰 보국保國을 형성한다. 그러므로 산중에 태실지는 용호가 요함하지 않고 좌우를 기가 바람에 노출되지 않도록 잘 막아주어야 한다. 평양지의 태실지는 크게 보국을 이루어 바람의 위험은 없지만 반드시 논밭이나 물이 감싸 경계를 이루고 득수를 해야만 평지 돌혈에 합당하다.

그러므로 중국풍수는 물을 중시하고 조선시대는 용을 중시했다는 일반론을 동의하기 힘들다.

3. 조선왕실의 태실풍수

1) 태실의 풍수적 조성과 관리

발표문에서 왕실의 태실문화는 지덕地德과 풍수에 기댄 왕조 번영의 희구希求였다. 조선왕실이 궁성과 왕릉뿐 만 아니라 태실까지도 풍수원리로 입지를 선정했고 관리했다는 점은 여타 동아시아 왕실의 풍수문화와 비교해 볼 때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이웃 중국과 일본의 왕실만 하더라도 태실 풍수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5]

5 토론 5. 일본에도 태 처리 문화가 있는 것 같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토론 5)

일본에서도 태 처리 문화가 있는 것 같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1) 태실 입지 관념의 변화-영지靈地에서 길지吉地로

발표문에서 한국에서 태실 조성의 역사적 기원은 늦어도 6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국사기』에 "처음 김유신(595~673)의 태를 높은 산에 묻었으므로 지금까지 태령산胎靈山이라 한다."라고 기록했다. 김유신 태실지의 산꼭대기 입지를 풍수의 영향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태실풍수의 영향으로 본다면 이미 6세기 말부터 풍수를 적용한 셈이 되지만, 신라왕실에서 풍수가 정착한 시기로 추정되는 8세기 말보다는 너무 앞서기 때문이다. 정작 풍수에서도 산꼭대기 혈자리 지정은 매우 드문 경우이다. 그렇다면 신라 때의 산꼭대기 태실지 입지는 관습적으로 하늘에 가장 가까운 장소라는 고대적인 상징성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추정된다.[6]

(토론 6)

김유신의 태봉이 이미 6세기 말부터 풍수를 적용한 셈이 되지만, 신라왕실에서 풍수가 정착한 시기로 8세기로 추정되는 되기 때문에 너무 앞선다는 논거는 한반도에 풍수가 들어온 시기를 <일본서기>에 의하면 백제의 고승 관륵이 일본의 비조사(飛鳥寺, 아스카테라) 593년 이전으로 올려져야 할 것이다.

김인덕은 飛鳥寺(아스카테라)의 승정에 선임된 관륵법사가 天文·地理·曆書·遁甲·方術 등 일반 학문(과학)과 각종 도술 등도 전해 주었던 분이었음이 밝혀졌다고 했다. 이것을 통해 백제에 풍수지리 등 여러 가지 방술이 이미 그 이전에 있었다는 것으로 한국에 풍수가 들어온 것을 600년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김유신의 태실지에도 풍수가 적용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공한다. "백제 30대 武王3년(602)에 일본으로 갔던 觀勒法師도 백제의 삼론 고승으로서 624년에 日本 尼를 감독 지도하는 僧官제도로 설치된 僧正에 최초로 선임되거나, 天文·地理·曆書·둔갑·方術 등 일반 학문(과학)과 각종 도술 등도 가르쳐 주었던 분이었음이 밝혀졌다." 김인덕, 「百濟의 三論 高僧」, 『한국불교학 제22권』, 1997.5월

飛鳥寺(아스카테라)의 목탑의 축조는 593년에서 596년 사이에 진행되었는데, 현재는 아스카테라의 목탑과 관련된 행적은 찾아볼 수 없다. 1956과 1957년에 발굴조사한 결과 심초석과 공양석이 지하에서 확인되었다고 한다. 초기 백제 목탑의 형태인 심초석의 지하식 배치, 그리고 목탑지의 평면은 방형으로 백제식 목탑의 형식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日本書紀. 卷 第二十一. 崇峻天皇 元年. 是歲條) これらの職人たちにより、飛鳥地域(飛鳥地域)に日本初の寺院である鳥寺(飛鳥寺)が建てられた。非調査(アスカテラ)の木塔の築造は593年から596年の間に行われたが、現在はアスカテラの木塔に関連した行為は見られない。1956と1957年

6 토론 6. 한국에 풍수 전래는 일본서기의 관륵에 관한 기사를 통해 적어도 600년 이전으로 본다.

に発掘調査した結果、深圳石と供養石が地下で確認されたという。初期百済木塔の形態である深圳石の地下式配置、そして木塔地の平面は方形で百済式木塔の形式と同じである。

(2) 태실 입지에 풍수를 따진 이유

발표문에서 풍수사상이 지배했던 전통시대에 자손의 성품과 건강, 출세 등은 장태藏胎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좋은 땅(길지)에 태를 갈무리함으로써 그 당사자(胎主)가 땅의 감응을 얻어 일신의 건강 뿐 만 아니라 사회적인 성공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묘지풍수가 조상의 뼈를 매개로 땅의 생기와 감응을 통한 후손 발복이라는 경로인데 비해, 태실풍수는 당사자의 태가 길지의 생기에 접해 감응함으로써 본인 발복이라는 경로로서 차이가 난다고 하였다.

발표문에서는 장지연의 논문을 인용하여, “왕실에서 태실을 조성하는 목적도 길지에 갈무리함으로써 풍수의 좋은 영향을 받기 위해서였다. 명당에 묻은 태는 그 사람의 건강과 수명, 인성과 화복뿐만 아니라, 왕실의 번영과 왕조의 운명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믿었다.”라고 태실의 영향력을 확장했다.

이것은 발표자가 윗 문단에서 주장했던 ‘태실풍수는 … 본인 발복이라는 경로로서 차이가 난다.’라고하여 태실 풍수의 영향을 본인의 발복에 한정했는데, 다시 그 아래 문장에는 장지연의 글을 참고하면서 태실은 왕실의 번영과 왕조의 운명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여 앞서 필자의 주장과 다르다.

(토론 7)

태실의 영향을 본인에 한정하는 왕실로 확장하는 하나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7]

2) 왕태실의 풍수지리

(1) 왕태봉의 입지 경관

발표문에서 “무릇 태봉은 산꼭대기에 쓰는 것이 상례이며, 원래 내맥來脈이나 좌청룡·우백호나 안대案對(마주하는 산)는 터 잡는 데에 없다고 합니다.” 『태봉등록』

실제 조선왕실의 왕태봉을 조사해보면, (개발로 훼손된 몇몇 예외적인 태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태봉이 산줄기 내맥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왕태봉의 입지경관 형태도 들판 가운데에 솟은 독봉형獨峰形이라기보다는 산줄기에 이어진 비산비야非山非野의 연봉형連峰形이다. 이렇게 태실의 입지지형에 이론과 실제의 차이가 나는 것은, 산줄기와 산록이 발달한 한국적 산지지형 조건에 기인한 때문으로 보인다.[8]

---

7 토론 7, 태실의 영향을 본인과 왕실 포함 중 하나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8 토론 8, ‘元無’의 번역은 현무이어야 태식잉육이 바르게 번역된다.

(토론 8)

토론자가 태실의 풍수입지를 연구한 것은 2016년도 영남문화원에서 주체한 태실학술대회의 발표문「태실의 풍수적 생명사상연구」을 영남학에 투고하면서 윗 문장에 대하여 기존의 모든 선행연구자와 다르게 감용경의 탐랑편의 글을 인용하면서 원무가 현무라고 처음 발표하였다. 그리고 2021년 경기문화재단 주관『조선왕실의 장태문화』「태실과 풍수」에서 발표했고, 2022년 경북예천박물관 주관『예천의 태실과 조선시대 태실문화』「예천지역 태실의 풍수적 특징: 문종 장조 폐비윤씨 문효세자 오미봉 중심으로」에서 번역문구를 다듬었다. 태봉등록의 태실입지를 번역하면서 수정이 있었고, 2022년 예천지역의 태실의 풍수적 특징에서 다음과 같이 최종 정리하였다.

『태봉등록』의 "凡胎峯例用於山頂元無來脈龍虎案對看擇之事云" 글자수 21개는 적지만 태실의 풍수입지를 설명하는 전체적인 풍수이론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글귀이다. 그동안 많은 선행연구자들이 '원무元無'의 해석을 원레 "~이하는 없다."[9]라고 번역했기에, 태실의 입지를 분석하는 데 명확하게 합당한지의 여부를 판단 할 수 없었다.

『태봉등록』은 조선시대의 것이지만, 고려시대 전해진 당나라 일행선사의『태장경』의 문장을 인용한다.『태장경』의 저자 당나라 일행선사와 가까운 시대의 풍수고전에서 원무元武가 들어있는 문

9 선행연구에서 ①~⑧까지 번역의 오류가 있었다. ⑨에서 한자의 방점을 제대로 찍었고, ⑩에서 문장을 윤문하여 완성하였다. 예천 태실의 논문은 ⑩에서 "무릇 태봉(胎峯)은 산꼭대기[山頂]에 쓰는 것이 예(例)이다. 원무(元武: 玄武)는 없으며, 내맥(來脈: 來龍)·청룡(靑龍)·백호(白虎)·안대(案對: 案山)는(를) 살펴서 택하는 것(일)이라고 한다[凡胎峯例用於山頂, 元無, 來脈龍虎案對看擇之事云]"라고 완성한 번역을 기준으로 태실의 풍수를 평가하는 항목의 기준을 만들었다. 그동안 번역에 오류부터 완성까지 모든 논문을 열거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모두 이 각주에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박주헌은『태봉등록』의 원문 '元無'를 '兀無'로 잘못 판독하였다. "凡胎峯例用於山頂兀, 無來脈, 龍虎案對, 看擇之事云"을 "무릇 태봉은 산 정상에 내맥이 없는 곳이며 용호가 마주보는 곳에 써야 한다."라고 하였다(박주헌,「胎峰의 풍수지리학적 입지특성 연구 -순조, 세종 왕자, 예종 태봉을 중심으로」, 대구한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9쪽).
② 권대영은『태봉등록』의 원문 '元無'를 '兀無'로 잘못 판독하면서 태봉을 주어로 전체문장을 해석하였다. "凡胎峯例用於山頂兀, 無來脈龍虎案對看擇之事云"을 "무릇 태봉은 산의 정상을 쓰는 것이 전례이며, 내맥이나 좌청룡이나 우백호나 안산은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라고 오역하였다(권영대 역해,『國譯 胎封騰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38쪽).
③ 박대윤은 전체를 한 문장으로 해석하면서 원이 원무라는 것을 간과하였다. "무릇 태봉은 산의 정상을 쓰는 것이 전례이며, 내맥(來脈)이나 좌청룡, 우백호, 안산은 따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박대윤,『朝鮮時代國王胎峰의 風水的特性硏究』, 동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29~30쪽). 박대윤·천인호는 "무릇 태봉은 산의 정상을 쓰는 것이 전례이며, 내맥(來脈)이나 좌청룡, 우백호, 안산은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凡胎峯例用於山頂元無來脈龍虎案對看擇之事…)"라고 되어 있다(박대윤·천인호,「조선 성종 태봉(胎峰)의 풍수지리적 특징 비교 -초장지와 이장지를 중심으로」,『한국학연구』33,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5, 342쪽).
④ 김두규는 태봉등록의 원문 '元無'를 '兀無'로 잘못 옮기었다. 때문에 이 문장에서 풍수적으로 가장 중요한 원이 원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凡胎峯例用於山頂兀無來脈龍虎案對看擇之事云), 그리고 "무릇 태봉은 산의 정상을 쓰는 것이 전례이며, 내맥이나 좌청룡 우백호나 안산은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라고 오역하였다(김두규,「성주 세종대왕자 태실과 풍수」,『영남학』28,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5, 228쪽).
⑤ 심현용은 "무릇 태봉은 산 정상에 쓰는 것이 예(例)이며, 내맥(來脈; 來龍)이나 좌청룡·우백호[龍虎]나 안대[案對; 案山]는 원래 간택하는 일(看擇之事)에 없다고 합니다."라고 오역하였다(심현용,『朝鮮時代 胎室에관한 考古學的 硏究』,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74쪽).
⑥ 윤진영은 무릇 태봉은 산의 정상을 쓰는 것이 전례이며, 來脈이 없고, 좌청룡·우백호·안산이 마주 보는 곳도 없어야 한다(凡胎峯例用於山頂 元無來 龍虎案對 看擇之事…)라고 오역하였다(윤진영,「조선후기 태봉도의 사례와 도상의 특징」,『영남학』28,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5, 274쪽).
⑦ 이재완, "태봉은 산의 정상을 쓰는 것이 전례이며, 내맥(來脈: 종산宗山에서 뻗어 내린 산줄기)이나 좌청룡 우백호나 안산은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하였다."라고 오역하였다(이재완,「경북 예천지역 태실에 관한 일고찰」,『고궁문화』6, 국립고궁박물관, 2013, 116쪽).
⑧ 필자도 원무가 현무라는 것을 고증했지만 원무를 통째로 주어로 번역하는 오류를 범했었다. "무릇 태봉은 산 정상에 쓰는 것이 관례이고, 원무[현무]는 내룡과 청룡·백호 그리고 마주대하는 안산이 없는 곳에 간택하는 일이라고 전한다. 凡胎峯例用於山頂, 元無來脈龍虎案對看擇之事云"(민병삼,「태실의 풍수적 생명사상 연구」,『영남학』31,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6, 236쪽).
⑨ 필자는 원무가 현무라는 것을 고증한 후 드디어 원무元無가 '주어+동사'로 방점을 다시 찍어 번역을 또 수정했다. 문장 "凡胎峯例用於山頂, 元無, 來脈龍虎案對看擇之事云"의 올바른 해석은 "무릇 태봉은 산정山頂에 쓰는 것이 예이고, 현무元武는 없으며, 내맥·청룡·백호·안산은 (태실지를) 선택하는 일에 살펴야 한다."라고 번역하였다(민병삼,「태실과 풍수」,『조선왕실장태문화』, 경기문화재단, 2021, 51쪽).
⑩ 다시, 내용과 방점은 경기문화유산학교 발표할 때와 동일하지만, 전체 문장을 알기 쉽게 심현용박사와 다음과 같이 완성했다. "무릇 태봉(胎峯)은 산꼭대기[山頂]에 쓰는 것이 예(例)이다. 원무(元武: 玄武)는 없으며, 내맥(來脈: 來龍)·청룡(靑龍)·백호(白虎)·안대(案對: 案山)는(를) 살펴서 택하는 것(일)이라고 한다[凡胎峯例用於山頂, 元無, 來脈龍虎案對看擇之事云]."

장을 찾아보면, 풍수계에서 저명한 형세론 풍수가 양균송楊筠松(834~900)의 저작에서 그 단초를 찾을 수 있다. 그의 저작은 『감룡경』과 『의룡경』이 있는데, 『감룡경』에서는 원무元武(현무玄武)의 의미를 「탐랑」편에서 다음과 같이 찾을 수 있다. 풍수지리에서 '원무元無'의 번역은 당대 풍수고전 감룡경 참고하면 '현무가 없다.'라고 번역되어야 한다. 감룡경에서 원무元武가 나온는 탐랑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횡으로 보면 산의 정수리이고 측면에서 보면 산봉우리이다. 이것은 탐랑이 출진하는 용이다. 측면에서 보면 봉우리를 이루고 용신은 곧장 앞으로 진행하여 나아가서, 조읍朝揖하는 산이 되지 못하고 지기가 머물지도 못한다. 이곳은 오지 않아도 높은 봉우리를 인식할 수 있으니, 이곳에 이르면 원무[현무]가 그 중앙에 있다. 또한 높은 봉우리가 있으면 이것이 원무[현무]이다. 원무가 낙맥한 곳에는 사수四獸 모인다. 사수四獸가 모이는 곳은 바로 용이 모여서 궁宮이 된다. 사수(현무·청룡·백호·안산)가 서로 돌아보지 않으면 공허한 땅을 만든다. 공망용에서는 진혈을 찾지 말라! 만약 이런 곳에 혈이 있다면 쉽게 멸망한다."라고 되어 있다. 『撼龍經』「貪狼」, "橫看是頂側是峰, 此是貪狼出陣龍。側面成峰身直去, 不是為朝便不住。莫來此處認高峯, 道是元武在其中。亦有高峯是元武, 元武落處四獸聚, 聚處方為龍聚宮, 四獸不顧只成空。空亡龍上莫尋穴, 縱然有穴易歇滅。"

『태봉등록』에 있는 21글자는 태실지의 풍수적 요건을 "凡胎峯例用於山頂元無來脈龍虎案對看擇之事云"이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이 문장에서 원무元無의 원元은 원무元武[10]이다. 이에, <각주 9>에서 상세히 설명하듯이 많은 과정을 통해서 『태장경』에서 제시한 태실입지의 풍수적 요건을 다음과 같이 번역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였다. "무릇 태봉胎峯은 산꼭대기[山頂]에 쓰는 것이 예例이다. 원무元武(玄武)는 없으며, 내맥來脈(來龍)·청룡靑龍·백호白虎·안대案對(案山)는(를) 살펴서 택하는 것(일)이라고 한다[凡胎峯例用於山頂, 元無, 來脈龍虎案對看擇之事云]."[11]이다.

이에, 『태장경』에서 태실입지의 풍수적 요건을 제시한 『태봉등록』 문장의 올바른 번역은 "무릇 태봉은 산꼭대기[山頂]에 쓰는 것이 예이다. 원무元武(玄武)는 없으며, 내맥來脈(來龍)·청룡靑龍·백호白虎·안대案對(案山)는(를) 살펴서 택하는 것(일)이라고 한다.[凡胎峯例用於山頂, 元無, 來脈龍虎案對看擇之事云]"라고 해야 올바르다.

'원무元無'에서 원元은 원무元武을 말하고, 이것은 오늘날 현무를 의미한다. 태봉은 부모산은 있지만 현무가 없이 내룡이 마치 탯줄처럼 길게 100m 이상 이어져 내려오다 '결인속기結咽束氣'하고 비룡승천하여 내맥이 하늘로 솟아 올라 혈장穴場을 만드는 형상을 설명한 태실의 풍수입지이다.

그러나, 조선시대 태실을 살펴보면, 예천의 용문사 초입의 제헌왕후의 태실처럼 태실의 풍수입지에 100% 부합되는 태실도 있고, 문효세자나 문종태실처럼 음택의 풍수입지에 들어있는 태실도 있고, 장조태실처럼 명당이 아닌 곳에 있는 태실도 발견된다. 문종태실은 현무가 있어서 음택지이

10 『태봉등록』에서 원무(元無)의 원(元)은 원무(元武)을 의미한다. 원무(元武)는 『人子須知』에서는 현무(玄武)라고 기술하였지만, 본래 당나라 시대의 풍수고전 양균송의 『감룡경』에는 원무(元武)라고 적고 있다. 그러므로 일행(逐, 683-723)의 '육태안법'은 당나라 시대의 저작이므로 지금의 현무이다. 중국의 당송대 사용했던 원무(元武)는 명대이후 지금 풍수고전에 볼 수 있듯이 현무(玄武)를 의미한다.

11 『태봉등록』 현종조 임인(1622) 2월 초1일. "凡胎峯例用於山頂元無來脈龍虎案對看擇之事云".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역 태봉등록』, 2006, 39쪽에서는 "무릇 태봉은 산의 정상을 쓰는 것이 전례이며, 내맥(來脈: 종산(宗山))에서 뻗어내린 산줄기, 풍수지리용어, 내룡(來龍)이라고도 함)이나 좌청룡 우백호나 안산은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라고 오역했다.

고, 장조태실은 현무는 없으나 백호는 장풍이 않되고 기가 문종태실로 빠져나가는 중간지점이다. 장서각에 보관되어 있는 <장조태봉도>를 풍수적 입장에서 산수를 현장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그 당시 관리들이 그려 올린 잘못된 태봉도는 조정에서 현장을 오판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영조가 장조의 태실지를 문종 태실 뒷 능선으로 선정하는 데는 한양 근교에 태실명당의 부족함도 있었겠지만, 또한 이렇게 현장의 산수를 잘못 그려진 <장조태봉도>와 함께 태실의 입지에 정확하게 부합되지는 않지만 그럴 듯한 땅을 추천하여 설치할 수 있게 한 태실의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12]

태실의 입지는 '태胎·식息·잉孕·육育'의 조건을 가진 길지를 의미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음택은 혈처의 바로 뒷산에 해당하는 현무玄武가 있는 것이 정형이다. 그래서 음택은 현무에서 아래로 내려오다가 살짝 올라 평상처럼 만들어진 혈장에 용사를 하고, 태실은 혈처穴處의 바로 뒷산에 해당하는 현무가 없고 길게 내맥이 내려오다가 갑자기 하늘 높이 솟아올라 둥근 혈장을 만든 곳에 장태를 한다. 이것은 마치 태실지는 태아가 아직 밥 대신 모유를 먹듯이 곧바로 부모산에 접맥接脈이 되어야 하니 중간에 현무玄武(元武)가 필요가 없고, 음택은 태어나 밥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나이에 비유되니 부모와 독립된 또 다른 현무에 연결되어 부모산에서 독자적인 현무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겠다. 그리고 청룡과 백호 그리고 안대는 태실지와 음택지의 경우 모두 유정해야 합당하다.[13]

<그림 1> 태실입지 - 현무가 없다(無玄武)

<그림 2> 음택입지-현무가 있다.(玄武垂頭)

『태장경』에서 제시하는 태실지는 음택풍수에서 요구하는 현무(원무元武)가 없다고 한 점은 특이하다. 그러므로 태실지는 부모산에서 마치 탯줄이 산모에 게 연결된 시작하는 부분이 태胎이고, 내맥은 태에서 이어져 길게 내려오는 내룡이며, 내룡이 내려오다 갑자기 좁아지고 움푹 꺼진 부분을 식息이라 하고, 다시 기가 뭉쳐 마치 임산부의 배처럼 둥글게 만든 혈장을 잉孕이라 하며, 그 잉의

12 민병삼, 「예천지역 태실의 풍수적 특징: 문종 장조 폐비윤씨 문효세자 오미봉 중심으로」『예천의 태실과 조선시대 태실문화』, 2022, 경북예천박물관 발행.
13 상게서

중심부에 태를 매장할 수 있는 혈처가 육育에 해당한다. 풍수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명당을 돌혈이라고 한다. 반드시 현무가 없고 내룡이 길어야 한다.

태실은 주산에서 탯줄처럼 길게 내룡이 내려와 결인속기結咽束氣가 잘되면 갑자기 하늘로 치솟아 하늘을 떠받치듯 비룡승천하여 산봉우리가 형성되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태실은 부모산에서 내룡이 길게 내려오다 결인속기 후 하늘로 솟은 산봉우리 정상에 쓴다. 반면에 대부분의 음택은 현무가 제일 높은 곳이고 음택을 용사하는 지점은 현무에서 아래로 내려가 현무보다 낮은 아래가 혈장이 형성된다.

전국의 태봉을 답사해보면, 모든 태실의 공통점은 모두 산정山頂에 조성되어 있다. 태실지와 음택지의 다른 점은 태실지는 현무玄武가 없고 부모산에서 내맥이 길게 내려와 하늘로 솟은 곳에 정한다는 점이다. 현무玄武는 혈처에서 뒤편에 바로 보이는 산봉우리를 말한다. 태실지에서 바로 뒤에 높은 산이 없기 때문에 태실지는 뒤쪽에 길게 내려오는 내룡이 있어야 하는 것이 다르다. 그러나 뒤에 현무가 있고 내맥이 길게 내려온 것이 없는 태실이 많다. 그러나 『태장경』에서 요구하는 태실의 입지는 현무가 없는 무현무無玄武와 내룡이 길게 내려오는 돌혈이 태실의 올바른 정형이 된다.

4. 맺는 말

발표자는 조선왕실의 풍수 공과를 학술사적으로 평가해 볼 때 일말의 아쉬움도 없지 않다. 같은 반열에 드는 천문과 의학 분야에는 조선의 독자성이 있는 저술을 낳았는데, 지리(풍수) 분야에는 그렇지 못했다. 중국의 풍수서를 현장에 적용하는 노력은 무척 했지만, 조선의 자연지형과 문화역사 조건에 맞추어 조선의 풍수이론라고 할 만한 저술을 생산하지는 못했다. 조선은 중국과 제반 지리적 조건이 엄연히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풍수론을 적극적으로 정립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하였다.[14]

(토론 9)

중국과 한국에 땅의 규모가 다를 뿐, 풍수입장에서 용을 보는 형세론의 입장에서는 그 방법이나 풍수이론이 尋龍, 심혈, 立穴의 논리가 전혀 다르지 않다. 동일하다.

다만, 어떤 형상의 와겸유돌의 명당이 많으냐 적으냐의 또한 용세의 규모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조선시대의 풍수는 유가의 충효사상에 입각하여 작게는 부모의 유체를 편안하게 모시고자 음택풍수가 성행하였고, 왕실은 검증된 명당을 빼앗기도 하고(세종과 세조의 광릉과 세종의 영릉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전국에 방방 곡곡에 태실을 설치한다는 미명하에 전국에 인물이 나오만한 훌륭한 음택지에 태실을 설치하는 등 타성씨에서 인물이 탄생할 것을 경계하고 조선왕실의 번영을 약속하기 위해 일부 태실을 전국의 명당을 찾아 설치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삼은 것도 있을 것이다.

14 토론 9,

천문을 말하자면 중국의 역법은 하늘의 별자리를 측정한 위치가 지역적으로 다르고 또한 천문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조선초기에는 자체적으로 천문을 기록하여 일식을 측정하는 등 한국의 위도와 경도에 맞는 역법과 천문관측이 필요하였다. 때문에 독자적인 천문연구의 결과물이 나오게 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풍수의 측면에서는 새로운 이론적 체계의 저술이 없다고 한국의 풍수를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기원전 2500년전부터(『詩經』 공유편) 기론되어 져 있는 좋은 땅을 찾는 방법이 근본은 없이 풍수고전에 준거하여 조선시대에는 풍수를 실제의 활용적인 측면에서 눈부신 발전을 하였다고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발표자가 생각하는 풍수지리의 논리체계의 새로운 저작이 없다는 것은 미국에서 반도체 트렌지스터가 발명되어 삼성이 일본에서 반도체 메모리 생산기술을 들여와서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우뚝선 한국의 반도체 메모리 산업처럼 이론을 활용하는 응용하는 대 더욱 집중했던 시대가 조선시대이었다고 생각되는 데 발표자는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발표문을 마무리하는 데 많은 기존의 태실과 풍수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아서 구상하는 데 공력이 많이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되는 데, 혹 예의에 벗어나는 문장이 있었다면 양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V

조선 왕실 태실의 진정성과 완정성 연구

A Study of the Authenticity and Integrity of Taesil of the Joseon Royal Family

김경미 | Kim Kyung-mi
고려대학교 초빙교수 | Invited Professor, Korea University

01
머리말

조선 왕실은 왕자나 공주 등이 태어나면 태胎(태반과 탯줄을 총칭)를 항아리에 담아 전국에서 좋은 땅을 골라 석물 안에 봉안한 태실을 만들었다. 이러한 태실胎室[태봉(胎封·胎峰), 태장봉(胎藏峰)]은 태어난 아기의 태胎를 땅에 묻은 태묘胎墓이다. 이 장소는 인간 생명의 근원인 태를 묻어서 태 주인의 발복發福을 기원한 장태 문화유산으로 산에서 뻗어 내리다가 햇볕이 잘 들게 솟아오른 봉우리에 자리한다. 이러한 조선왕실 태실은 우리나라 특유의 생명 존중 사상이 풍수지리 사상과 조화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독특한 장태 문화유산으로서 조선시대 동안 계속 조성되었다.

조선 왕실 태실은 가봉태실, 왕비태실, 아기씨 태실로 구분된다. 아기씨 태실은 왕자와 왕녀의 태를 묻은 곳이고, 가봉태실은 왕자 가운데 왕에 오른 아기씨 태실을 정비하고 가봉비를 세워 품격을 높인 것이다. 대부분의 아기씨 태실은 좋은 길지에 한 개의 태를 묻는 단독 태실로 조성되었다. 반면, 성주 세종대왕자태실은 세종대왕의 18명의 왕자와 1명의 원손 태실을 조성한 특이한 모둠태실의 유형으로 조성되었다. 왕비태실은 연속성이 없이 잠시 동안 조성되었다. 가봉태실은 왕자가 왕이 되면 태실 석물을 장엄 가봉加封하고, 귀부龜趺와 이수螭首를 갖춘 또 하나의 태실비를 세워서 위계를 높인 것이다. 이러한 태실은 전국에 걸쳐 약 146개소가 확인되고 있다(경기문화재연구원, 2021, p. 35).

우리나라의 태실은 조선시대에 원래 자리에서 잘 유지되었으나,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옮겨진 아픈 역사를 지녔다. 해방 이후 태실을 복원하여 원형 가치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가봉태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새롭게 정비되는 가봉태실은 역사성을 회복하고자 초장지에 원래 사용한 석물을 사용하고, 훼손된 석물 일부만을 대체하여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되어야하는 조선왕실 태실이 지닌 진정성에 관한 근거와 그 토대인 속성 고찰, 그리고 완전성을 세계유산 운영지침을 통해서 파악함으로써 조선왕실 태실 중에서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대상이 될 수 있는 해당 유산가치를 찾고자 한다.

02
조선 왕실 태실의 진정성(authenticity)

1. 진정성과 조선 왕실 태실

가봉태실의 속성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첫째, 태실은 태실 풍수에 의해 좋은 길지를 택해 일정한 의례 절차에 따라 왕자와 공주 등 왕실 사람들의 '태'를 보관한 태항아리와 이를 장엄한 석조 조형물로 구성된다.

둘째, 가봉태실은 왕자가 왕위에 오른 후 태실을 재단장한 후 석물을 설치하여 태실비를 세워 신성함을 더하였다. 이러한 태실 주변에는 표석을 세우고, 금표로 접근을 제한하여 왕실의 안녕과 발복을 기원하였다.

셋째, 가봉태실 석물과 태항아리는 돌과 도자기로 만들어진 재질로 시대에 따라 변화된 발전단계를 보여준다.

넷째, 가봉태실의 조성과 관련한 절차는 문헌기록인 『의궤』와 그림자료인 〈태봉도〉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파악할 수 있다.

조선 왕조에서는 왕자나 공주 등이 태어났을 때 그 태胎(태반과 탯줄을 총칭)를 씻어 항아리에 담아 전국에 봉안하는 의례가 일반화되었다. 조선 왕조 태실은 태를 장엄하기 위해 조성된 석물과 석함에 봉안된 유물의 총칭이다. 태실胎室, 태봉胎封, 태봉胎峰, 태장봉胎藏峰 등으로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러한 태봉 풍수는 전통적인 풍수지리 사상의 하나로 땅의 기운이 국운과 사람의 기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정신적 요소를 보여주며, 그 원리 안에는 햇볕이 잘 들고 물길을 피해서 수해로부터 보호하는 등 자연재해에 효과적으로 사람들이 사는 토지를 이용하는 과학의 논리가 담겨있다. 태실은 입지와 주변 환경의 측면에서 태봉, 들판, 야산 등 풍수지리 사상에 기초하여 길지로 택해진 장소를 택하여 태를 봉안한 곳이다. 태실의 위치는 서울(당시의 한양) 도성에서 100리(40km) 안에 있었던 왕릉과 달리 전국에 걸쳐 좋은 땅에 분산했다. 당시 태실증고사가 전국 태실지를 미리 조사해 등급을 매겨뒀다가 명당으로 판단되는 곳을 장태지藏胎地로 정하였다.

태실 조성은 왕실 아기씨가 태어날 무렵에 산실청을 설치하여 태항아리를 준비한다. 태항아리는 내호에 태를 씻어 밀봉하고 외호에 넣어 산실에 안치하여 무병장수를 기원한다. 왕실 아기씨가 출생하면 태실도감을 설치하여 전국에 안태사를 파견하여 태실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장태지를 선정하고 장태일을 결정한다. 태를 봉안할 태봉의 선정과 태를 안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인 안태사(장태사)는 정2, 3품의 품계를 가진 당상관급의 관리로 임명되었다. 태봉의 입지는 명당의 조건에

따라 3등급으로 나뉘는데, 대왕 1등급, 대군 2등급, 왕자 3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윤석인, 2013, p. 79). 이 과정 동안 태를 항아리에 봉안하고 있다가 태실지로 이동하는 장태행렬 이후 태항아리를 장태하고, 석물을 조성하여 후토제와 태실안위제와 같은 안태의식 제례를 하여 태실을 제작한다. 왕실 장태 행사는 예조에서 주관하며, 장태에 관해서 여러 기록이 제작되었다.

태실 조성과 수리와 관련된 일차 기록은 『장태(안태)의궤』, 『태봉등록』, 『수궤의궤』 등이고, 『조선왕조실록』, 『일성록』 등에서 안태 과정, 관리체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으로 그려진 〈태봉도〉는 주변 배경을 함께 그렸다. 현재 전하는 장조·순조의 태봉도에서 태실 주변의 수호사찰이 표현되었다. 이러한 사실성은 태실 유산이 조선왕조의 생명존중 사상과 안태문화를 보여주는 독특한 가치를 지닌 속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조선 왕조는 태실을 조성할 때 일정한 의례에 따라 엄격하게 시행하였다. 태실을 조성하는 것과 관련한 직접적인 기록물인 『태봉등록胎封謄錄』, 『안태의궤安胎儀軌』, 『가봉의궤加封儀軌』에서는 태실 형식, 봉안 절차, 담당 부서 등과 같이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은 일종의 보고서로서 매우 사실적이고 기록되었고, 삽도를 첨가하여 유형 특징을 명확히 전달하는 기록물의 가치가 매우 높다. 또한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와 같은 왕실 기록물에서는 태실에 관한 가치, 보존관리에 대한 사상을 담고 있는 기사 내용이 조선 초부터 조선 말까지 꾸준하게 확인된다. 이러한 관련 문헌기록을 통해서 태실은 태를 좋은 땅에 묻어 태주의 복을 바라는 생명존중 사상이 한국의 전통적인 풍수지리 사상과 결합한 독특한 문화를 형성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기록물에 그려진 사실적인 도안은 태실의 일정한 형태 및 조형물에 관한 정보를 빠짐없이 그대로 전해주고 있다. 이러한 태실 조성과 형식은 동아시아에서 의례 행위면서도 유형기념물을 포함한 독특한 유산의 형태로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현황이며, 오늘날에는 사라진 전통의 한 모습을 지닌 유산으로 등재기준(iii)을 충족한다.

조선 왕조에서는 재위 중인 왕의 직계 자녀인 왕자[원자, 원손, 대군, 군]와 왕녀[공주, 옹주]가 태어나면 아기태실阿只胎室을 조성하고, 왕에 오르면 새로 꾸며서 가봉태실加封胎室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세종~성종대까지 짧은 기간에 조성된 왕비태실이 있지만, 왕비태실은 현재 대부분 훼손되었다. 따라서 조선왕조 태실의 형태와 디자인은 모둠형태의 성주 세종대왕자태실, 그리고 대부분 단독으로 길지에 조성된 아기씨태실을 가봉한 가봉태실로 구분할 수 있다. 가봉태실은 태조시기부터 조성되었다. 이러한 보편성에서 조선왕조 태실이 더욱 빛나는 가치를 지닌 점은 자연재해에도 지속적인 보존관리를 통해서 조선말까지 그 원형을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세계유산 운영지침'에서는 진정성에 관한 내용을 paragraph 79-86에서 제시하였다(Operational Guidelines, 2021). 80조에서는 '유산에 속한 가치를 이해하는 능력은 해당 가치에 대한 정보원이 어느 정도의 신뢰성과 진실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정보원에 대한 지식과 이해는 문화유산이 본래 지닌 특성과 이후 보유하게 된 특성,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축적된 특성의 의미와 관련해 진정성의 모든 측면을 평가하는 데 필수적인 토대이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처럼 진정성은 거짓 없는 진실한 정보출처를 통해서 유산의 진정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그런데 조선 왕조 동안 잘 유지관리되었던 우리나라의 태실은 일제강점기인 1928~34년에 걸쳐 왕

과 왕자·공주의 태실 총 54기가 고양 서삼릉으로 태항아리와 태지석을 옮겨가고, 남은 석물은 방치되고 훼손되었다. 이 사건으로 원래의 초장지에서 강제로 옮겨진 조선왕실 태실의 진정성은 불가피하게 훼손되었다. 그 결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하는 커다란 과제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운영지침 86조'에서 "복원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는데, 복원은 완전하고 상세한 기록에 근거할 때만 수용될 수 있으며, 절대 추측에 근거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에 주목해보자.

이러한 측면에서 고려한다면, 조선 왕실 태실은 일제강점기라는 식민지를 겪으면서 불가피하게 정통성이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복원의 정당성을 지닌다. 복원의 기초가 되는 의궤 및 태실관련 문헌자료를 통해 태실 형태, 장소 등을 완전하고 상세하게 파악하여 복원했다는 점에서 진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김경미, 2022, p. 17). 그리고 복원 과정에서 태실 초장지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석물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너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석물 일부만 대체하여 구성요소의 속성 역시 충실하게 지키고 있다. 일제강점기 이안과정은 전국 태실을 경기도 고양 서삼릉으로 옮기는 과정을 1928~1930년 사이에 작성한 자료인 이왕직李王職이 편집한 『태봉胎封』을 참고할 수 있다.

복원된 태실은 대부분 가봉태실이다. 가봉태실은 초장지에서 원래의 석물을 갖추어 재료와 물질 구성요소인 돌로 만든 태실 중앙태석과 도자기로 만든 태항아리를 통해 당대의 시대 변화와 발달 단계를 반영하여 진정성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즉, 복원된 태실이더라도 명확한 기록물을 통해서 전통, 기법, 관리체제에 대한 속성을 충분히 반영한다면 진정성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조선 왕실 태실의 형식과 진정성을 파악하는 대상 태실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원래의 자리에서 있으면서 왕자와 왕의 가봉태실 형태를 모두 포함한 모둠태실 형태인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 둘째, 왕의 단독태실이면서 복원한 가봉태실, 셋째, 일제강점기에 조선의 태실을 옮겨서 모아놓은 고양 서삼릉 태실이 대상이다. 고양 서삼릉 태실은 비록 조선시대에는 조성되지 않았지만, 조선왕실 태실의 마지막 역사발전 단계를 보여준다는 면에서 연속유산으로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김경미, 2022, 참조). 가봉태실은 현재 복원이나 복구 재건된 태조태실, 세종태실, 문종태실, 단종태실, 세조태실[세종 대왕자태실], 예종태실, 성종태실, 중종태실, 인종태실, 명종태실, 선조태실, 인조태실, 숙종태실, 경종태실, 영조태실, 정조태실, 순조태실, 헌종태실 등의 태실이 해당한다. 이러한 가봉태실 중에서 초장지에 완전한 석물을 갖춘 태실은 세종대왕자태실, 문종, 인종, 명종, 경종, 순조태실이 해당되며, 복원이 불완전한 중종과 헌종 태실, 창경궁에 있지만 처음 원형을 완전히 유지한 성종태실이 진정성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조선 왕실 태실의 속성(attribute)

'운영지침 82조'에서는 "문화유산의 유형과 그것의 문화적 맥락에 따라 아래와 같은 다양한 속성을 통해 (제시된 등재신청 기준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그 문화적 가치가 진실하고 신뢰할 수 있게 표현되었다면 그 유산은 진정성의 조건을 충족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진정성과 관련한 8

개의 속성을 ① 형태와 디자인(form and design) ② 재료와 물질(materials and substance) ③ 용도와 기능(use and function) ④ 전통, 기법, 관리체계(traditions, techniques and management systems) ⑤ 위치와 주변 환경(location and setting) ⑥ 언어, 다른 형태의 무형유산(language, and other forms of intangible heritage) ⑦ 정신과 감정(spirit and feeling; and) ⑧ 다른 내부와 외부 요소(other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로 소개하였다. 진정성의 속성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 반드시 기술하는 등재신청서의 OUV 서술의 근거가 되며, 등재 이후에 보존 활용의 방향성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1) 형태와 디자인(form and design)

① 모둠형태의 왕자태실 : 성주 세종대왕자태실

성주 세종대왕자태실은 1438년부터 1442년까지 대군 태실 7기, 군 태실 11기, 원손 태실 1기 등 총 19기가 있다. 성주 세종대왕자태실은 여러 태실을 모아둔 모둠태실의 형태를 보여주며, 관리체제 구성요소인 수호사찰인 성주 선석사를 함께 갖추고 있는 태실로 조선 초 분청사기로 제작한 태항아리와 팔각형의 개첨석, 원형의 중동석, 사각형의 사방석을 지닌 중앙태석 석물구조로 초기 태실 형식을 나타낸다〈그림 1, 2, 3〉.

〈그림 1〉 세조태실 중앙태석

〈그림 2〉 성주 세종대왕자태실 전경

〈그림 3〉 세조(진양대군) 태항아리뚜껑(1438년 장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② 단독형태의 가봉태실

원래의 자리에서 처음 조성되었을 때 만든 석물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진정성을 지닌 문종, 성종, 중종, 인종, 명종, 경종, 순조, 헌종태실의 가치는 태실 석물의 조형 및 태항아리의 형식이 시대양식을 반영하고 있다.

태식 중앙태석의 형식 변화는 3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정성을 갖춘 가봉태실의 초기 예인 세조태실[성주 세종대왕자태실] 이후 부터이므로 이후 포함된 가봉태실의 석물변화로 본다면, 1단계인 팔각형의 개첨석, 원형 중동석, 사각형의 사방석과 2단계인 팔각형 개첨석, 원형 중동석, 팔각형 사방석으로 변화하는 단계를 보여준다. 이 태실 형식은 한 개의 태실만을 단독으로 조성하였다〈표 1〉.

〈표 1〉 가봉태실의 중앙태석 형식과 태실 형식

성종태실 중앙태석	명종태실(1546)	순조태실 중앙태석
문종태실	인종태실	경종태실
중종태실	성종태실, 창경궁	헌종태실

자료: 명종태실(문화재청), 나머지 태실(세계유산연구소)

③ 서삼릉태실

서삼릉 태실은 현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201-102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54기의 태실이 봉안된 모둠태실의 형태이다. 이중 왕의 태실은 태조, 태종, 세종, 예종, 중종, 명종, 숙종, 영조 등 19기, 왕자 태실은 왕세자 이구, 안양군, 완원군 등 20기, 왕녀 태실은 숙명공주, 숙정공주, 명성공주, 와유옹주 등 12기와 기타 덕흥 대원군 등의 태실 3기를 포함하고 있다. 이곳은 현재 사적 제200호 지정되어 보존, 관리되고 있다.

태실은 돌의 재질에 따라 오석烏石비군, 화강석비군으로 나뉘며, 오석비군은 왕과 황제, 황태자 태실 22기, 화강석비군은 왕실과 황실가족 32기 태실로 구성되어 있다. 서삼릉 태실은 조선왕조 태실의 발전단계에서 불가피하게 훼손된 태실의 진정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연속유산으로 포함되어 발달단계를 보여주는 구성요소로 평가할 수 있다.

2) 재료와 물질(materials and substance)

재료와 물질 측면에서 태실을 구성하는 중요한 구성 물질은 땅 위의 중앙태석과 지대석, 난간석, 땅 아래의 태항아리와 석함, 태지석이다. 이들 구성물의 재질은 땅 위 중앙태석과 지대석, 난간석, 석함, 태지석은 돌로 조성되고, 태항아리는 도자기로 제작되었다. 각각의 구성물은 제작을 담당하는 업무가 분리되어 돌로 만드는 석물의 경우 태실이 있는 지방에서 물자를 직접 조달했고, 귀한 태를 담은 태항아리는 예조의 관리 아래 국가기관인 장흥고에 소속된 도공이 당시에 가장 뛰어난 도자기술로 제작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은 시기에 따라 형식이 변하고 있다.

난간석은 정형화된 팔각형의 평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중앙 석물은 약 3개의 형식으로 변화된다. 태항아리는 성종태실을 전후로 분청사기 태호, 순백자 태호가 사용되었다. 순백자 태항아리의 형식은 어깨 형식이 넓다가 차츰 좁아지는 형식으로 변화면서 크기가 작아지고 있지만, 어깨에 4개의 고리가 있어서 고정하는 기능을 지속하고 있다.

3) 용도와 기능(use and function)

용도와 기능면에서 석물과 태항아리는 태를 봉안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형물이다. 외부로 노출되는 태실을 꾸민 석물은 돌로 제작하여 내구성을 지니며, 자기를 재료로 중요한 태를 담은 태항아리는 귀한 백자기를 사용하여 위계를 놓이는 효과를 지닌다. 태실은 결국 태를 보호하는 용도와 기능의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은 조선 말까지 지속되고 있다.

4) 전통, 기법, 관리체계(traditions, techniques and management syste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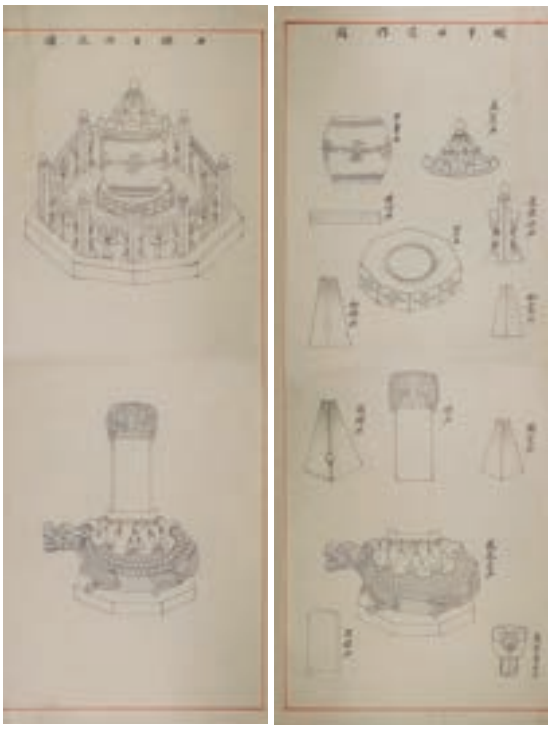
태실의 진정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성요소 중에서 정확한 제작연대와 형태, 제반 준비과정 등을 알 수 있는 의궤, 시대양식을 반영한 태를 담았던 태항아리 양식의 형태 및 성격을 알 수 있는 기록물, 석물 및 원형을 증명하는 태봉도 등을 통해서 태실의 전통, 기법, 관리체계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조선시대 태실과 관련된 기록은 『호산청일기護産廳日記』, 『안태의궤安胎儀軌』, 『태실가봉의궤胎室加封儀軌』, 『태봉등록胎峯謄錄』 등이 남아 있다. 특히 장서각에 소장중인 『대군공주어탄생의제大君公主御誕生の制』에는 출산 전前 단계에서부터 출합出閤에 이르기까지 총 34항목으로 왕실의 출산과 탄생에 관한 의례를 기록하고 있다(충청남도, 2021, pp. 11-12).

특히, 의궤儀軌는 조선시대에 왕실 및 국가의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그 행사의 준비 과정과 진행 과정, 의식의 절차, 소요 경비, 참가 인원, 논상論賞 및 사후 처리 내용 등을 상세하게 정리한 보고서 형식의 책이다. 의궤儀軌는 의례·의식의 궤범軌範이라는 뜻으로 왕실이나 국가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그 일의 전말과 경과, 의식 절차, 인원과 비용, 포상 등을 기록해놓은 책이다.

그 형식은 (1) 태봉을 정하고 태실을 만들어 태를 안치하기까지의 절차를 기록한 장태(안태) 등록과 의궤, (2) 손상된 태실 석물의 수리와 보수 경과를 기록한 개수改修(改竪) 의궤, (3) 태실의 주인공이 후일 국왕으로 즉위한 경우 석물 추가 배설 과정을 기록한 가봉(조배) 의궤로 나눌 수 있다. (4) 등록은 특정 태실에 대한 문서라기보다 왕자와 왕녀의 장태, 국왕 태실의 가봉과 개수, 태실의 관리 상태에 관한 여러 문서(등록)를 합쳐놓은 것이다. 이중 왕실 장태와 관련되어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행해지면서 의례적 성격의 안태관련 기록 의궤와 등록은 정조 7년(1783) 문효세자와 철종 9년(1858)의 아기씨, 순조 9년(1809)의 효명세자 장태기록인 『원자 아기씨 장태의궤』, 정조 14년(1790) 순조의 장태기록인 『원자 아기씨 안태등록』, 순조 27년(1827) 헌종의 장태기록인 『원손 아기씨 장태등록』 등이 있다.

이 기록은 태실 봉안 절차와 형식을 기록한 장태보고서로 매우 정확하게 사실을 기록하여 태실의 조성 및 형식에 대한 진정성을 제공한다. 아기씨태실을 가봉한 『가봉의궤』는 현재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를 추진 중인 유산의 진정성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이다. 현재, 영조, 정조, 순조, 익종, 헌종의 태실을 가봉한 기록이 전하고 있는데, 이중 정조, 순조, 헌종태실의 형식은 현재까지 의궤에서 볼 수 있는 구성요소의 형식을 잘 유지하고 있어서 자료 출처가 명확하고 진실하다. 그리고 태실 석부재의 보수를 기록한 수개修改를 정리한 『세종태실석난간수개의궤』(1601), 『세종·단종태실수개의궤』(1730), 『세종·단종태실표석수립의궤』(1734) 등이 있다. 이러한 기록은 조선 초기부터 제작되었을 테지만, 많은 전란으로 조선 전기의 것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조선 후기의 것만 전하고 있다. 이러한 의궤에는 태실 석물 구조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데, 『정조대왕태실가봉의궤』(1801), 『경종대왕태실 석물 수개 의궤』(1832) 등에서 그 형태와 석물의 구조를 정확하게 도설로 그려놓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그림 4〉.

『경종태실석물수개의궤』, 1832년	『정종대왕태실가봉의궤(正宗大王胎室加封儀軌)』, 1801년
	

〈그림 4〉 의궤의 석물 형태(경종태실석물개수의궤, 정종대왕태실가봉의궤)

〈그림 5〉 인종태실 난간석(세계유산연구소)

조선시대 태실 의궤에서 확인되는 가봉석물의 전체 평면은 8각형으로 가운데 중동석을 중심으로 방사형의 판석을 깔고 주변에 석조 난간을 배치한 형태가 일반적인 양식이다. 이러한 태실은 지속적으로 보수되고 있는데, 1546년에 조성된 인종 가봉태실은 숙종 6년(1680)에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였다. 당시 인종대왕 태실 개수는 "강희 19년(1680)에 파손된 곳을 수리하면서 난간석 5개, 연엽석 3개를 모두 새 돌로 갈아서 끼웠으며, 상석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틈이 생기니 곳은 만듯하게 하고 돌가루를 들기름에 개어 발랐으며 사면을 벌초하여 햇볕이 들어오도록 사방 40보 거리의 나무를 범록하고 전에 썼던 과거 석물들은 깨끗한 곳으로 택하여 땅에 묻었다."라고 하였다. 인종태실 역시 이러한 난간석과 연엽석의 형식을 확인할 수 있어서 자료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5〉.

태실 경관을 그린 〈태봉도〉는 형태와 디자인, 재료와 물질, 위치와 주변 환경 같은 시각자료로서 가치가 높다. 〈장조 태봉도莊祖胎封圖〉(1785), 〈순조 태봉도純祖胎封圖〉(1806), 〈헌종 태봉도憲宗胎封圖〉(1847)는 비록 조선 후기에 제작되었지만, 주변 경관 안에서 태실 위치와 석물 등과 함께 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기록물로 태실과 태봉의 입지 현황과 조화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각 자료이다.

장서각에 전하는 〈장조태봉도〉, 〈순조태봉도〉, 〈헌종태봉도〉는 가봉이 이루어진 이후에 지방 화가가 그림을 족자 형태로 제작하여 왕실에 올린 것이다. 지방에서 만들어 올린 태봉도는 왕이 열람한 뒤, 역대 임금의 자료를 모아둔 창덕궁의 봉모당奉謨堂에 수장되었다(윤진영, 2018, p. 7).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중엽에 그려진 이들 태봉도에는 맨 위쪽에 중심 태봉을 그리고 아래쪽 능선에 석물을 설치한 가봉태실을 화면 중앙에 그리고 있다〈그림 6〉. 이러한 태봉도는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장조태봉도〉(1785)와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태실 가봉을 기록한 『정종대왕태실가봉의궤正宗大王胎室加封儀軌』(1801)의 의궤 도설을 비교해보면 그 형식이 일치되는 점을 볼 수 있으므로 그림과 기록이 일치하는 진정성을 증명한다.

장조 태봉도, 1785년	순조 태봉도, 1806년	헌종 태봉도, 1847년

〈그림 6〉 장서각 소장 태봉도

태실의 관리체계(management systems)는 보존관리를 위한 구성요소로 금표禁標, 화소火巢, 하마비下馬碑, 태실 수호사찰를 설치하였다. 여기에 봄·가을에 관리官吏를 파견하여 태실 상태를 점검하였다. 가령 『세종실록』 권84, 세종 21년 1월 16일 기사에서, "예조에서 아뢰기를, 중궁의 태실에는 일찍이 품관 8인과 군인 8명을 정하여 수호하게 하였사오니, 지금 동궁의 태실을 수호하는 자는 품관 4인과 군인 4명으로 정하게 하소서."라는 기록으로 볼 때 왕비와 동궁의 신분 차이에 따라 숫자를 달리한 관리인을 두고 있다. 이러한 태실지기는 조선 말까지 유지되었다.

왕은 300보(540m), 대군과 공주는 200보(360m), 왕자는 100보(180m)가량 떨어진 사방에 금표禁標를 설치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이 지역 안에서 채석·벌목·개간·방목 등 일체의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관할 구역의 관원은 봄, 가을로 태실을 순행해 이상 유무를 확인한 뒤 보고하게 되어 있었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p. 23.).

이처럼 태실의 관리체계는 태실 주변에 금표 및 화소 구역이 있었고, 일 년에 2회의 순찰이 이루어지는 것이 확인된다. 오늘날까지 금표가 전하고 있는 곳은 정조 태실과 법주사 등 몇 곳이 알려져 있다. 화소火巢 구역은 산불 발생을 막기 위해서 일대의 나무와 풀을 모두 없애서 불이 났을 때 불이 번지지 못하도록 불에 잘 타는 환경을 제거하여 태실을 보호하였다. 왕릉의 경우 능 주변의 8km까지 화소구역을 두었다. 순종태실과 순조태실에서 화소 표석을 확인할 수 있다.

하마비는 조선시대 건물 입구에 세워서 그 앞에서는 말에서 내려 예를 갖추는 의미를 지닌다. 태실에 설치한 하마비는 경종태실 앞 경종태실비(1726년)를 보수하면서 세운 충주 괴동리 하마비(1726년 추정), 순조태실의 수호사찰인 법주사 안에 있는 하마비와 화소 표석이 있다. 인종태실의 수호사찰인 은해사 안에 있는 하마비, 문종과 장조태실의 수호사찰인 명봉사에는 '예천 명봉리 경모궁 태실 감역 각석문' 등이 확인된다. 이러한 하마비의 배치가 포천에 있는 추존된 익종(효명세자)태실에도 있고, 보통 아기씨태실의 하마비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가봉태실에 한해서 있었던 듯하다.

수호사찰은 태실의 조성과 함께 태실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정한 사찰이다. 조선 초에는 제례 기능을 담당했지만, 화재 등으로부터 태실을 지키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모든 가봉태실이 수호사찰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제례 의례도 계속 유지되지 않았다. 수호사찰로는 성주 세종대왕자태실의 수호사찰인 선석사, 인종 태실의 수호사찰인 은해사, 문종 태실의 수호사찰인 명봉사, 순조 태실의 수호사찰인 법주사가 여기에 해당된다.

5) 태실의 무형유산(other forms of intangible heritage) 및 정신과 감정(spirit and feeling) 가치

전통적인 풍수지리사상에 입각하여 생명존중사상과 태주의 행복을 발원하는 조선 왕조의 발원이 함께 어우러진 전통적인 한국의 문화유산이다. 태실 풍수를 국가적으로 관리한 증거는 지리(풍수) 분야의 과거 시험 과목으로 태를 안치하는 방법과 효험을 기록한 태장경을 포함한 것이다. 태장경은 태실 풍수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무엇보다 전국에 태胎, 봉封, 태실胎室, 태봉胎封 등 태실과 관련한 지명이 전국적으로 많은 것은 조선 왕실의 태실 문화가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에 그만큼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03
조선왕실 태실의 완정성(integrity)

조선 왕실의 가봉태실중에서 세계유산의 완전성을 충족시키는 조건은 운영지침 88조에 의하면, 완전성의 온전성(wholeness), 무손상성(intactness), 위협요소의 부재(absence of threats), 보호관리를 위한 적절한 규모를 토대로 진정성과 완전성을 갖춘 가봉태실을 파악할 수 있다. 즉, 유산의 구성요소를 파악하여 모두 온전하게 포함하고있는가, 진정성을 보여주는 속성을 보여주는 적절한 규모인가, 부정적 영향과 위협요소의 없음을 충족해야 한다.

조선 왕실 태실은 태실 보존 상태와 완전성에 기반하여 주요 석물이 온전한가를 토대로 개발 및 토지이용, 보존관리를 고려하여 파악하였다. 검토대상 가봉 태실은 진정성이 확실한 명종태실, 세종대왕자태실 등을 제외한 중종태실, 성종태실, 정조태실, 선조태실, 숙종태실, 순조태실, 영조태실, 태조태실, 헌종태실, 단종태실, 문종태실, 세조태실, 세종태실, 예종태실 등을 분석하여(건국대학교 세계유산연구소, 2021), 2022년 현장조사 및 답사를 통해서 10개소의 태실이 진정성과 완전성을 갖추었다고 파악하였다(건국대학교 세계유산연구소, 2023). 이들 진정성을 충족한 태실은 입지, 구조, 형태, 발전 단계를 나타내는 석물 등의 구성요소를 모두 온전하게 보존한 세종대왕자, 문종, 성종, 중종, 인종, 명종, 경종, 순조, 헌종, 서삼릉태실이 해당된다. 이들 태실은 가봉태실의 발전 단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연속유산으로 묶을 수 있다.

조선왕실 태실의 유산은 태실이 입지한 지리 환경인 태봉과 가봉 태실의 석물로 크게 분류하여 볼 수 있다. 태실 자체는 유산구역으로 포함되겠지만, 태봉을 비롯한 완충구역에 포함될 구성요소 역시 완전성과 결부하여 보존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태봉 인접 지역에 위치한 농지와 주택이 있는가, 이들의 위치가 태봉 구역에 영향을 미치는 범주에 있는가 등 유산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토지 사용 등에 대한 파악이다.

가봉태실의 중요한 구성 물질은 석조이다. 따라서 돌을 사용하여 구성한 형태에 대한 면밀한 상태 파악을 통해 지반 침하, 파손과 같은 보수 필요성도 확인해야 한다. 다행히 여러 지자체 및 건국대학교 세계유산연구소에서 파악한 본존관리 현황에서 가봉태실의 석물은 모두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신청 유산의 보존 상태는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유산 구역가운데 성주 세종대왕자태실, 창덕궁 안의 성종태실, 고양 서삼릉태실에는 관리원이 있어서 유산의 사회·문화적 사용과 관련한 관광 입장객에 대하여 적절하게 통제되고 있다. 조선왕실 태실에서 진정성을 갖춘 태실로 고려되는 10개소의 태실 가운데 성종·서삼릉태실 제외한 8개소의 태봉은 2023년 현재까지 『문화재보호법』과 『매장문화재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이들 법률은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앞으로는 각각 개정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리될 예정이다. 이러한 법률에 의거해서 태실과 태봉이 속한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그리고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은 건물이나 교통 인프라의 건설 및 확장, 토질과 지형의 변화를 일으키는 행위, 그리고 무단 발굴 등 문화유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 왕실 태실의 보호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조선왕조 태실 법적보호 현황(한승우, 2023, pp. 164)

태실명	문화재지정	관계법령	보호구역
세종대왕자태실 (세조태실 포함)	사적	문화재보호법	• 태실 문화재구역 • 태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문종태실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문화재보호법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 태실(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 태봉(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성종태실	사적(창경궁)	문화재보호법	• 태실 문화재 구역
중종태실	가평군 향토문화재	매장문화재법 가평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 태실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 태봉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인종태실	보물	문화재보호법	• 태실 문화재보호구역 • 태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명종태실	보물	문화재보호법	• 태실 문화재보호구역 • 태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경종태실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 태실 문화재보호구역 • 태봉 문화재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순조태실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 태실 문화재구역 • 태봉 문화재구역
헌종태실	비지정	매장문화재법	• 태실: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 태봉: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서삼릉태실	사적(서삼릉)	문화재보호법	• 태실 문화재구역

문화재청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https://gis-heritage.go.kr/main.do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오픈플랫폼 https://map.vworld.kr/map/ws3dmap.do
건국대학교 세계유산연구소, 2021, 조선왕조 태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기초연구 용역보고서.

3
맺음말

조선왕실 태실은 독특한 장태문화로서 일정한 형식으로 통일성을 갖추어 장엄 효과를 높인 형태와 규칙적인 디자인을 통해 통일성을 지녔다. 외부로 노출되는 태실을 꾸민 석물은 돌로 제작하여 내구성을 지니며, 자기를 재료로 중요한 태를 담은 태항아리는 귀한 백자기를 사용하여 위계를 놓이는 효과를 지닌다. 태실은 결국 태를 보호하는 용도와 기능의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봉태실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옮겨지면서 어떻게 진정성의 가치를 회복할 것인가가 많은 고심거리였다. 그러나 제작현황을 기록한 『의궤』가 원형 가치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자료를 가지고 있으며, 초장지에 구성요소를 잘 보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유산 가치를 충족할 만한 진정성과 완전성은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해서는 보존관리 및 활용 프로그램의 확대 등을 통한 홍보를 통해 지역주민의 이해가 필요하다. 한편, 전국에 걸쳐 있는 연속유산 성격을 지닌 태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관리단체의 설립을 세계유산관련법에 의거하여 접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경기도·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 태봉 태실』, 경기문화재단, 2021.

건국대학교 세계유산연구소, 『조선왕조 태실 세계유산 확장등재를 위한 기초연구 용역』, 2022.

----------, 『조선왕조 태실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을 위한 심화연구』, 2023.

김경미, 「조선 왕실 태실의 연속유산을 위한 진정성 검토」, 『세계유산연구』 8-1, 2022.

------. 「조선 왕실 태실 수호사찰의 세계유산 속성 연구」, 『인문과학연구』 37, 2023.

심현용, 「조선시대 가봉태실의 중앙태석에 대한 양식과 변천, 대구사학 113, 대구사학회, 2013.

윤석인, 「조선 정조 대왕 태실 연구」, 『문화재』 46,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윤진영, 「조선 왕실의 장태문화와 태실 관련 회화자료」, 국립고궁박물관, 2018.

충청남도·충남역사연구원, 『충청남도 태실문화재 실태연구』, 충남역사연구원, 2021.

UNESCO,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2021.

「조선 왕실 태실의 진정성과 완정성 연구」에 대한 요약문

조선 왕실 태실은 우리나라 특유의 생명 존중 사상이 풍수지리 사상과 조화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독특한 장태 문화유산으로서 조선시대 동안 계속 조성되었다. 아기씨태실과 가봉태실 유형으로 분류되는 조선 왕실 태실은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조성·보존관리가 잘 유지되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인 1928~34년에 걸쳐 총 54기의 태실이 고양 서삼릉으로 태항아리와 태지석이 옮겨가고, 남은 석물은 방치되고 훼손되었다. 이 사건으로 원래의 초장지에서 강제로 옮겨진 조선왕실 태실의 진정성은 불가피하게 훼손되었다.

<세계유산 운영지침>(2021)에서 진정성은 거짓 없는 진실한 정보출처를 통해서 유산의 진정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하는 커다란 과제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운영지침 86조'에서 "복원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는데, 복원은 완전하고 상세한 기록에 근거할 때만 수용될 수 있으며, 절대 추측에 근거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 아래 복원된 조선왕실의 가봉태실이 진정성을 갖출 수 있는 근거는 태실 조성 절차 및 진행 과정을 철저히 기록한 『장태(안태)의궤』, 『태봉등록』, 『개수의궤』, 『가봉(조배)의궤』 같은 관련 자료가 여러 점이 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복원된 태실이 진정성(authenticity)은 '초장지에 있는가. '원래 재료를 사용하여 복원한 것인가', '정확한 근거를 갖추고 재건 또는 복원이 이루어졌는가' 등을 검토하여, 불가피하게 복원한 유산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조선왕실 태실은 일제강점기라는 식민지시대에 전통성이 불가피하게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복원의 정당성을 지닌다. 복원은 기초가 되는 의궤 및 태실관련 문헌 자료를 통해 태실 형태, 장소 등을 완전하고 상세하게 파악하여 복원하였고, 복원 과정에서 태실 초장지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석물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너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석물 일부만 대체하여 속성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정성을 찾을 수 있다.

'운영지침 88조'에 의하면, 완전성의 온전성(wholeness), 무손상성(intactness), 위협요소의 부재(absence of threats), 보호관리를 위한 적절한 규모를 통해서 완전성을 갖춘 가봉태실을 파악할 수 있다. 즉, 유산의 구성요소를 파악하여 모두 온전하게 포함하고있는가, 진정성을 보여주는 속성을 보여주는 적절한 규모인가, 부정적 영향과 위협요소의 없음을 충족해야 한다. 조선 왕실 태실

은 태실 보존 상태와 완전성에 기반하여 주요 석물이 온전한가를 토대로 개발 및 토지이용, 보존관리를 고려하여 파악하였다. 그 결과 진정성을 충족한 가봉태실의 조건으로 입지, 구조, 형태, 발전 단계를 나타내는 석물 등의 구성요소를 모두 온전하게 보존하고 있는가를 평가하였다. 세종대왕자, 문종, 성종, 중종, 인종, 명종, 경종, 순조, 헌종, 서삼릉태실이 해당된다. 이들 태실은 가봉태실의 발전 단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연속유산으로 묶을 수 있다.

조선왕실 태실의 유산은 태실이 입지한 지리 환경인 태봉과 가봉 태실의 석물로 크게 분류하여 볼 수 있다. 태실 자체는 유산구역으로 포함되겠지만, 태봉을 비롯한 완충구역에 포함될 구성요소 역시 완전성과 결부하여 보존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태봉 인접 지역에 위치한 농지와 주택이 있는가, 이들의 위치가 태봉 구역에 영향을 미치는 범주에 있는가 등 유산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토지 사용 등에 대한 파악이다. 그리고 가봉태실의 중요한 구성 물질은 석조이다. 따라서 돌을 사용하여 구성한 형태에 대한 면밀한 상태 파악을 통해 지반 침하, 파손과 같은 보수 필요성도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 앞으로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해서 활용 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한 홍보를 통해 지역주민의 이해가 필요하다. 한편, 전국에 걸쳐 있는 연속유산 성격을 지닌 태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관리단체의 설립을 세계유산관련법에 의거하여 접근하기를 기대한다.

「조선왕실 태실의 진정성과 완전성 연구」에 대한 토론문

김영재(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조선왕조 태실의 조성과 배경과 관련해서 현재 남아 있는 태실들을 토대로 시기별 변화 양상과 의궤 들의 문헌적 증거를 통해서 진정성 및 완전성의 근거를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자께서 현재 남아 있는 진정성과 완전성이 확보된 명종태실, 세종대왕자태실, 중종태실, 성종태실, 정조태실, 선조태실, 숙종태실, 순조태실, 영조태실, 태조태실, 헌종태실, 단종태실, 문종태실, 세조태실, 세종태실, 예종태실 등의 유산을 가지고 연속유산의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고, 이들 태실 유산들이 시기별 변화상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부여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발표자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조선왕릉과 비교해서 구조상에서 난간부 기반부 등에 유사성도 보이고, 전반적으로 태실구조와 석물구성에서 규모가 작으므르 가봉비, 태실부 등 차별성과 아기씨태실에서 왕이 된 후에 가봉태실로 변화되는 과장에서 태봉입지, 태실지 이동 장태행렬 이후 태항아리 장태하고, 안태의식 등의 의례과정에서 봉분이 사라지고 석물로 대체되는 과정이 조선왕조시기 동안 반복적으로 행해 왔다는 점이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즉 이러한 제례규범에 맞춰서 가봉태실로 되었을 때 건축화 하는 과정이 있었고, 중앙태석(사방석, 중동석, 개첨석), 난간석(주석, 동자주석. 횡죽석) 등에 대해서 시기별 형식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가치해석의 과정에서 이러한 변화양상들에 대해서 당시 사회적, 미적, 역사적, 학술적 가치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관리계획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표자님의 생각과 동일하게 학술적 및 역사적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증거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선왕조가 추구했던 유교적 관념과는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어 다른 외국태실문화와는 차별화된 가치를 규명하기 위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미적 측면에서 석물구성과 형태의 양식변화들에 대한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선왕릉의 경우에도 석물구성이 시기별로 다르고 봉분구조도 변화가 있고 특히 현궁 설치와 구조에도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기별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변화와 릉을 조성하고자 하는 관념의 변화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어러한 측면들을 본다면 중앙태석(사방석, 중동석, 개첨석), 난간석(주석, 동자주석. 횡죽석)에서 보이는 양식변화들에 대한 사상적, 정치적, 사회적 배경 등을 통한 명쾌한 가치해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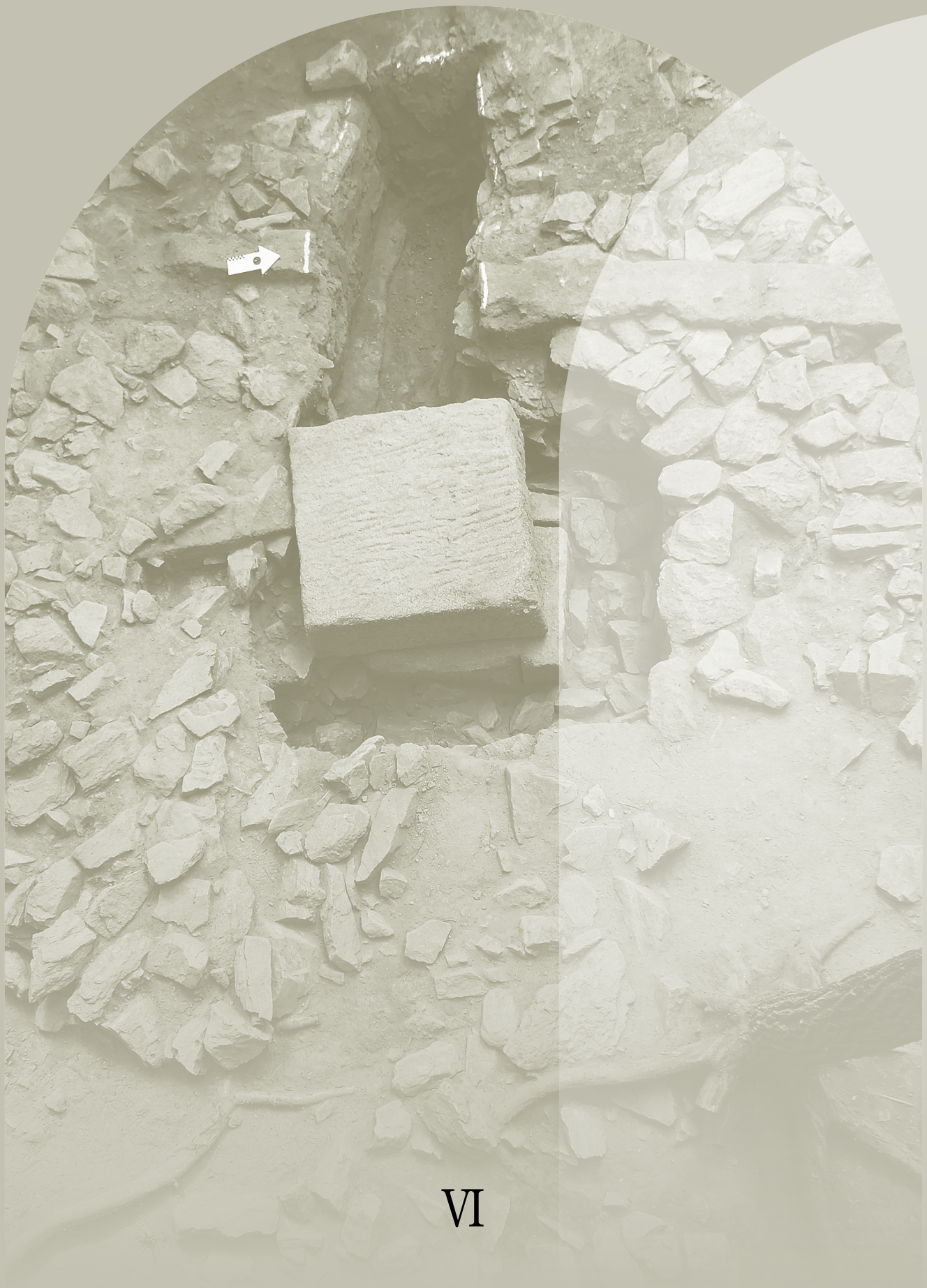
가치해석에 기반하여 보존조치가 논의되고, 향후에 각각의 태실에 대한 관리계획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세계유산 등재과정과 관리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공동체와 대중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합니다. 과거처럼 금표를 통해서 접근을 못하게 하는 방식에 근거해서 관리원을 통해 유산의 사회·문화적 사용과 관련한 관광 입장객에 대하여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 보다는 대중과의 교감도 보호 만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연속유산을 선정하는 부분에서 태실 유산을 가봉태실에 한정할지 태실이 완성되는 전체 과정을 보여줄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가봉태실에 한정할 경우, 현재 잘 보존되고 있는 가봉태실에 집중할지 아니면, 조선왕릉과 같이 모든 왕들의 가봉태실에 집중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소실된 가봉태실에 대해서 복원작업이 진행할 경우, 유적 발굴, 문헌고증, 유구보존 또는 복원을 통해서 조선왕조 모든 왕의 태실을 보존관리하는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지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복원에 있어서 유구를 토대로 원상유지에 초점을 맞출 건지 문헌적 고증과 현존하는 태실과의 비교를 통해서 완전 복원할 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가치평가의 문제와 이에 맞는 보존논의를 통해서 보존관리활용을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발표자께서 생각하시기에 향후에 세계유산등재과정에서 구체화되어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VI

가봉태실 세계유산화를 위한 추진과제

Initiatives for the World Heritage Site of Gabong Taesill

김회정 | Kim Hoe-jung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 Researcher, Chungnam Institute of History and Culture

이 글에서 사용하는 '세계유산화'라는 용어는 좁게는 가봉태실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시키는 과정과 결과를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며,
넓게는 등재에 실패하더라도 등재과정에서 확보하게 될 유산으로서 지속가능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주기 바란다.
가봉태실을 통해 인류가 생명탄생의 고귀한 가치를 공유할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01
머리말

유네스코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들을 발굴 및 보호, 보존하고자 1972년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약칭 '세계유산협약')을 채택하였다. 한국은 1950년 6월 유네스코(UNESCO)에 가입한 이래, 1988년 이 협약을 비준하면서 한국의 세계유산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95년 「석굴암과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의 등재를 시작으로 「가야고분군」까지 총 16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가야고분군(Gaya Tumuli)」[1]은 최근 개최된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2023.9.17)에서 '고분의 입지, 묘제의 변화, 배치방식 등을 통해 가야 문화의 성립과 발전, 소멸의 전 과정 및 가야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독보적인 증거물'로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이하 OUV)가 인정되어 등재기준 (iii)을 적용, 최종 세계유산등재가 결정되어 한국의 16번째 세계유산이 되었다.[2] 주목할 것은, 한반도 고대사의 주요 국가와 관련된 유산들이 모두 등재되었다는 점이며, 이는 우리 한반도의 역사가 인류 보편적이지만 그 가운데 탁월함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한다. 한국의 다음 세계유산은 어떤 것이 될지 궁금증을 더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가봉태실'은 탄생, 삶, 죽음, 그리고 기억으로 압축해 볼 수 있는 인간의 일생 중 삶의 중요한 첫 단계인 생명 탄생을 기념하는 상징물이다.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생물학적 삶의 중요한 단계를 집단이 기억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문화적 행위의 결과물로서 보편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조선왕실의 가봉태실은 전세계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독보성을 지니고 있으며, 문화적으로 가장 고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편적 삶의 과정을 문화적으로 탁월한 경지까지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세계가 함께 기념할 만하다 하겠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편적 인간의 삶을 조선 왕의 삶으로 대응시켜 살펴보면, 왕의 '삶'과 관련된 궁궐(창덕궁, 1997년 등재), '죽음'과 관련된 왕릉(조선왕릉, 2009), '기억'과 관련된 영묘(종묘, 1995)로 설명되었지만, '탄생'과 관련된 상징물이 아직까지 세계유산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었다. 가봉태실은 왕의 탄생과 관련된 유산으로 한 인간(왕)의 삶을 유산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전체 구성을 완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1 '전북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경북 고령 지산동 고분군', '경남 김해 대성동 고분군', '경남 함안 말이산 고분군', '경남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경남 고성 송학동 고분군', '경남 합천 옥전 고분군' 등 총 7개 유적이 함께 이름을 올린 연속유산이다.

2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홈페이지:http://www.gayatumuli.kr/community

또한, 전쟁이라는 거대한 태풍 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지는 촛불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저출산으로 국가의 존폐위기를 논하는 현대사회의 대중들에게 역사적 유산이 전하는 생명존중의 메시지를 상징하는 유산이기도 하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의료산업의 발달로 생명탄생의 소중한 문화적 기억은 이미 대부분 사라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세계유산화는 우리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유산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활발한 세계유산화 움직임은 우리유산에 대한 해석을 다시금 새롭게 하고, 유산의 보존을 위한 움직임에 활기를 더한다는 점 등에서 매우 반가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우리가 논의할 대상으로 다루고 있는 '조선왕실의 가봉태실'은 아직 잠정목록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한 상태이다. 넘어야할 산도 많고, 경쟁 아닌 경쟁을 해야 할 국내 유산들도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모든 것에는 처음이 있다. 처음이라는 때는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시기이다. 문제는 두려움이다. 두려움은 적절하게 잘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제를 위해서는 두려움의 원천을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대처해야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분히 즐길만한 설렘과 함께 앞으로 약 10년 행보의 핵심이 될 두려움의 통제이다. 그러기 위해 현재의 우리를 제대로 인식하고 파악하여, 문제점을 찾고, 각각의 문제에 대한 답을 마련해야한다.

오늘 이 글은 '국제학술대회'라는 이름에 맞는 논문형식으로 작성되지 못했다. 제목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연속유산(Serial Heritage) 성격을 지닌 가봉태실의 세계유산화를 위한 시작점에서 같은 목표를 가진 이해당사자들이 성공적으로 이 여정을 함께 완주하기 위한 '적극적 동참'을 유도하고자 작성되었다.

02
세계유산제도와 등재 경향

1. 세계유산제도

세계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1972)」에 의거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뛰어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 유산이다. 세계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Operational Guideline)에 제시된 10가지 '등재기준(criteria)' 중에서 반드시 한 가지 이상 충족해야한다. 또한 기본적으로 재질이나 기법 등에서 유산의 '진정성(authenticity)'이 확보되어야 하며, 유산의 가치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제반 요소를 보유하여 '완전성(integrity)'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에 법적, 제도적 '보존 및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2000년 세계유산위원회는 다수의 유산 소유국과 제도 발상지인 유럽 중심의 세계유산 등재 편중을 시정하고 등재되지 않은 국가의 등재를 유도하기 위한 조처로 사실상 유산별 1국 1건 신청주의[3]를 결정하게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아직 불균형과 편중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운영방향과 세계유산 사업의 미래에 대해 새로운 전략을 모색 중이다.

2. 등재절차

당사국의 유산이 세계유산 등재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될 때 세계유산센터에 등재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제출된 신청서는 자문기구를 통해 평가받아 매년 개최되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가 결정된다. 그러나 세계유산 등재신청은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적어도 신청서제출 1년 전에 잠정목록[4]에 반드시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잠정목록은 세계유산센터 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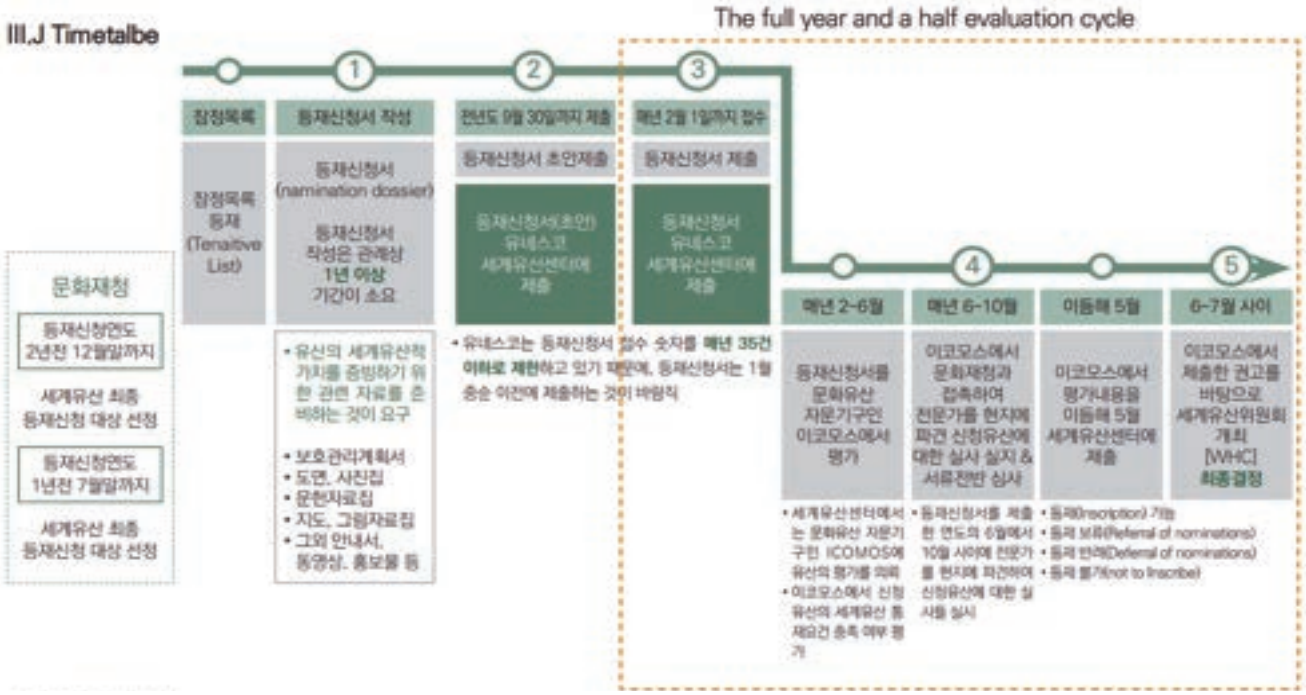
3 세계유산위원회 2018년 2월 1일까지는 자연유산 또는 문화경관 관련이라는 전제하에 1국 최대 2건 신청이 가능했고, 매년 등재를 검토하는 수량도 재심, 확장, 월경, 연속유산신청을 포함해 45건으로 제한하였지만, 2018년 2월 2일부터는 1국 1건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신청대상도 총 35건으로 한정하고 있다.

4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Operation Guideline 랫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의 II.C. Tentative Lists(잠정목록)

62. '잠정목록'은 각 당사국이 자국영토상에 위치한 유산으로서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될 만하다고 판단한 대상의 목록이다. 따라서 당사국은 잠정목록을 작성할 때,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다고 생각되는 문화유산 및(또는) 자연유산으로서 향후 신청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유산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한다.〈세계유산협약 제1조, 제2조 및 제11조 1항.

63. 신청유산이 당사국의 잠정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서는 검토되지 않는다.

64. 당사국은 유적관리자와 지방정부, 지역사회, 원주민, NGO와 기타 이해 관계자, 협력자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와 권리자가 충분하고 효율적으로 성 평등을 고려해 참여하여 자국의 잠정목록을 준비하도록 한다. 원주민의 땅이나 영역, 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유산의 경우 당사국은



〈그림 1〉 세계유산 등재절차(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20, p.22)

에서의 특별한 절차는 없지만 당사국(한국) 내에서는 특히 문화재청(문화재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침에서 안내하고 있는 등재절차는 등재신청서 작성을 시작으로 최종결정까지 5단계로 요약해 안내하고 있다.**〈그림 1 참조〉**

유산을 보유한 지역에서 해당유산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인식하고, 세계유산화를 위한 준비시작하는 시점에서부터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최종결정을 받기까지를 단계 별로 정리해보면 대략 14단계 이상으로 정리할 수 있다.**〈표 1, 그림 2 참조〉**

1단계는 각 시도지사(연속유산일 경우 공동주체)는 신청유산의 잠정목록 등재를 문화재청에 신청한다.[5] 2단계는 문화재청은 잠정목록 등재 신청유산에 대해서 조사하고[6], 3단계에서 문화재청은 잠정목록 등재 신청 대상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유산의 잠정목록을 확정한다.[7] 다음 4단계는 확정된 잠정목록 등재신청서를 유네스코 사무국에 제출한다.[8] 5단계는 이들 전체 잠정목록 중에서 우선등재 대상을 선정하여 등재신청서 초안 작성을 준비하도록 하며, 매년 2~4개 대상을 우선등

잠정목록 대상 유적을 포함해,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 인지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원주민을 대표하는 기관과 성실히 협의하고 협력한다.

65. 당사국은 신청서 제출 최소 1년 전에 사무국에 잠정목록을 제출한다. 당사국은 적어도 10년에 한번 잠정목록을 재검토해 다시 제출하기 바란다.

66. 당사국은 부록 2A와 부록 2B(국가간 유산과 월경유산의 신청)의 표준양식을 사용해 유산의 명칭과 지리적 위치, 유산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해당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 잠정목록을 영어 또는 불어로 작성해 제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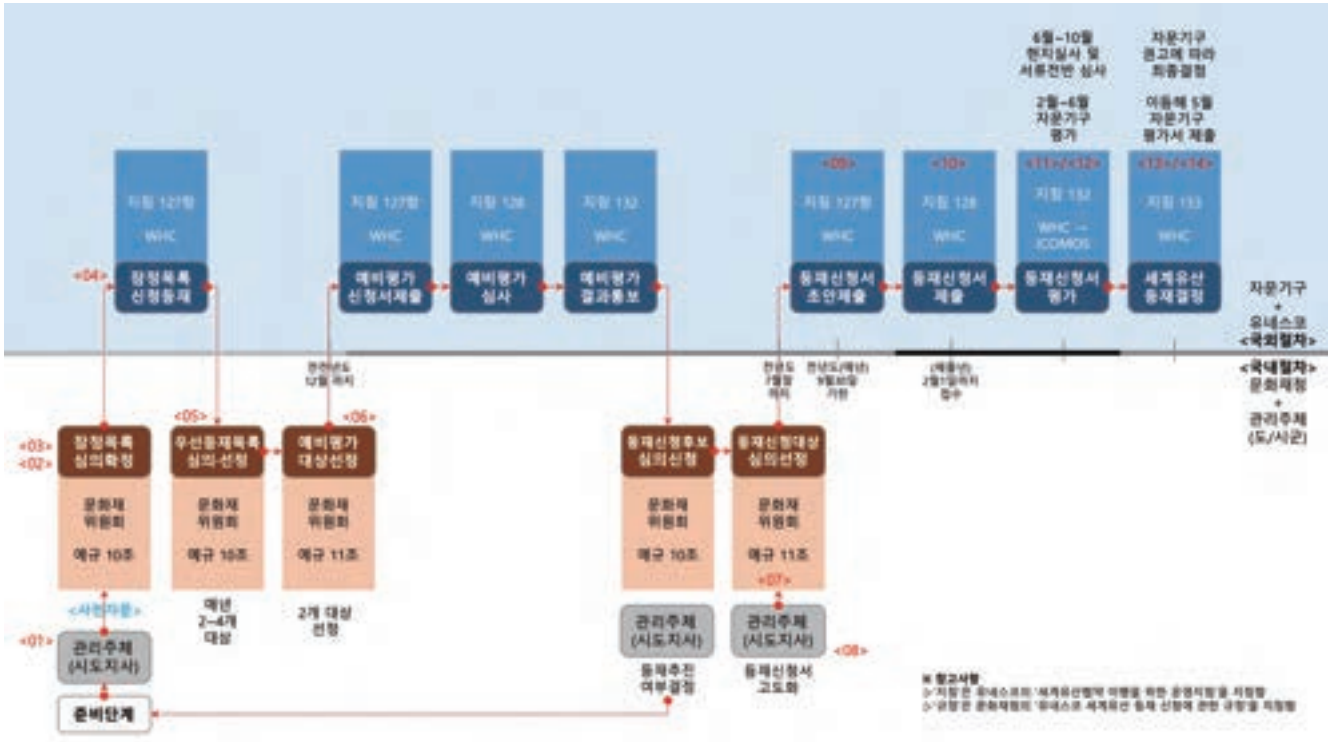
5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제4조(잠정목록 대상 유산 신청)
6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제5조(잠정목록 대상 유산 조사)
7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제6조(잠정목록 대상 유산 선정)
8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제7조(유네스코에 잠정목록 등재신청서 제출)

재 대상으로 유지한다.[9] 6단계는 등재신청서 제출 전전년 12월 말까지 이들 우선 등재대상 중에서 2개를 선정하여 각 관리주체에 통보한다.[10] 7단계는 등재신청할 대상을 등재신청서 제출 전년 7월말까지 최종 선정하여 본격적인 등재를 준비하도록 한다. 8단계는 신청유산의 관리주체(시도지사)는 등재신청 하는 해의 전년도 8월 말까지 문화재청에 초안을 제출해야하며, 제출한 초안은 문화재청 차원에서 검토를 거쳐 9단계를 준비한다.[11] 9단계는 앞 단계에서 제출된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초안(draft)'을 유네스코 사무국에 제출하는 과정으로 등재신청서를 제출하는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모든 서류가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제출되어야 한다.[12] 10단계부터 14단계는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계유산 등재 공식 절차에 해당한다.

〈표 1〉 **세계유산 등재절차**(단계별, 문화재청)

단계	시기	주체	내용
1단계	-	시도지사	점정목록 대상 유산을 문화재청에 신청
2단계	-	문화재청	잠정목록 대상 유산 조사
3단계	-	문화재청	잠정목록 등재 신청 대상 확정
4단계	-	문화재청	잠정목록 등재신청서를 유네스코 사무국에 제출
5단계	-	문화재청	세계유산 우선등재 목록 선정(매년 2~4개 유지)
6단계	등재신청연도 전전년 12월 말까지	문화재청	세계유산 등재 신청 대상 선정 (2개)
7단계	등재신청연도 전년 7월말까지	문화재청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 선정
8단계	등재신청연도 전년 8월말까지	문화재청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초안을 문화재청에 제출
9단계	등재신청연도 전년 9월30일까지	문화재청	세계유산등재신청서 초안을 유네스코 사무국에 제출
10단계	등재신청연도 2월 1일까지	문화재청	세계유산등재신청서 최종본을 유네스코 사무국에 제출
11단계	등재신청연도 8~9월	유네스코 자문기구	유네스코 자문기구 현지실사
12단계	등재신청연도 9~12월	유네스코 자문기구	유네스코자문기구 보충자료 요구
13단계	등재신청년도 익년 4월	유네스코 자문기구	유네스코 자문기구 심사결과를 유네스코에 통보
14단계	등재신청연도 익년 6~7월경	세계유산 위원회	세계유산위원회 결정

9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제9조(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선정)
10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제11조
11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제11조
12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제13조,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제127항



〈그림 2〉 세계유산 등재절차 모식도

현재 가봉태실은 제1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사전준비 단계정도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잠정목록에 등재하는 것'이며, 이를 준비하는 기간으로서 절차상 주목해야할 것은 '사전자문', '예비평가'이다.

〈표 2〉 예비평가제도와 사전자문 비교(문화재청)

구분	사전자문 Upstream	예비평가 Preliminary Assessment
의무여부	선택사항	의무사항
현장실사	필요시 현장실사 진행 가능	문서검토만 진행
이행범위	잠정목록 수정 등 등재절차 전반에 관한 자문 가능	잠정목록에 기 등재된 유산에 한하여 이행
이행비용	일반적으로 요청 당사국이 부담	평가절차 비용 전반에 포함
이행일정	별도 규정된 일정 없음 (당사국 잠정목록 준비 수정 시점이 이상적)	운영지침 168항에 명시된 일정에 따름
이행순서	사전자문이 예비평가 절차에 선행됨	

1) 사전자문(Upstream)[13]

사전자문(Upstream)제도는 평가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등재신청수를 조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신청대상유산 관리자의 판단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며, 예비심사 및 신청서 준비 전에 진행하는 자문·협의·분석을 포함한다. 등재신청과정의 가장 이른 단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잠정목록 작성 또는 수정시점에 실시하거나 예비평가 신청서 제출 이전단계에서 실시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사전자문은 제출된 서류검토를 기반으로 진행되지만, 신청자가 필요시 현장실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비용은 신청자 즉 해당유산 관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매년 3월 31일 이전에 지자체가 문화재청과 외교부를 통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요청할 수 있으며, 자문 결과는 심사에 반영되지 않는다.

국내에서는 「충남 내포권역의 천주교 유적군」에서 처음으로 사전자문을 받았으며, 2019년에 신청하여 2020년 선정, 2021년 현지실사를 통해 내포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대상영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의 자문을 받았다. 2023년에는 신청 지자체가 없어 사전자문은 실시되지 않았다.[14]

2) 예비평가제도(Preliminary Assessment)

세계유산 목록의 균형성, 신뢰성의 회복과 세계유산 등재의 질을 개선하고 당사국과 자문기구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예비평가는 자문기구(ICOMOS)에서 현장실사 없이 데스크 리뷰(Desk Review)로 진행되며, 평가결과를 토대로 등재추진을 지속할 것이가에 대한 여부를 당사국에서 결정하게 된다. 해당 유산의 잠재적 OUV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언급하고, 당사국의 등재신청서 작성 지원을 위해 권고형식의 구체적인 지침과 자문 제공한다.

특히, 현재는 예비평가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을 위한 등재절차 전환기간으로 2027년 세계유산위원회에는 예비평가 받지 않은 등재 신청 유산도 심사가 가능하지만, 2028년 세계유산위원회는 예비평가를 받은 등재신청 유산만 심사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2024년부터는 예비평가 신청서 제출이 의무사항이 된 것이다. 자문기구의 예비평가 보고서 유효기간은 5년이며, 당사국에게 보고서가 전달된 시점부터 5년째가 되는 해의 2월 1일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봉태실은 예비평가를 이행해야하는 상황이다.

13 제32차 세계유산위원회(퀘벡, 2008)에서 시작된 세계유산 협약의 미래에 대한 논의 과정의 일환으로 현재의 등재신청과정을 강화하고 발전시킬 방법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업스트림 과정' 제안되었다.

14 가봉태실의 경우 성주군에서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건국대학교 세계유산 연구소의 『조선왕조 태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기초연구용역』을 통해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기초연구와 추진방향설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전자문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3. 세계유산 등재 경향

세계유산등재는 세계유산협약과 관련 지침의 이해도 중요하지만, 최근 갈수록 등재가 까다로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선례들을 통해서 등재경향을 살피는 것 또한 중요하다. 세계유산 등재가 자국의 문화국가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인지도를 높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사국들의 관심은 고조 될 수밖에 없다. 당사국 당 매년 1건의 유산만을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한다면 경쟁이 치열해 지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다. 여러 선례들을 살펴보면 등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자진 철회하는 경우를 비롯해 심사결과 등재불가, 보류 등 공들여 준비한 세계유산 등재가 자의반, 타의반 불발되는 경우들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최근의 등재 경향[15] 을 면밀히 살펴 등재추진의 방향설정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① 유산 개념과 종류의 다변화
② 보존관리계획의 실효성 있는 기획·실행·평가 요구
③ 진정성, 완전성 및 OUV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 유산으로 충실한 비교연구 필요
④ 연속유산으로 묶을 때 OUV가 살아나는 유산 대상 증가경향
⑤ 지역주민 등 폭넓은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으로 참여한 지방자치단체 추전 유산 중시경향
⑥ 국가간 월경유산으로 발전될 수 있는 유산 증가
⑦ 역사유적도시, 전통·생활·문화·산업 등 무형유산적 가치을 포괄하는 유산 등재경향 확대
⑧ 등재건수 증가로 사후 관리·통제 강화를 위해 6년 주기(대륙별)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

이러한 등재 경향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등재전략을 꾸려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가 더욱 집중해서 살펴야 할 것은 등재실패 사례들로 다음과 같은 경향[16]을 보이고 있다.

① 등재 타당성에 대한 설명 부족한 경우
②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경우
③ 유산자체의 국내적 가치를 강조한 경우
④ 유산의 문화적, 역사적 가치만을 강조한 경우
⑤ 유산의 OUV를 증명하기 위해 선사시대~현재까지 모든 가치를 망라한 경우

15 허권, 「한국세계유산 잠정목록의 신규 발굴 연구」,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규 발굴 심포지엄』, 국립고궁박물관, 2012.05.10
16 이상해, 「세계유산 제도와 등재 절차에 대한 이해」, 전통사찰세계유산등재추진회의(2차) 발표자료, 2012. 08.10, 문화재청

제31차 세계유산회의(Christchurch, New Zealand, 2007.06.23.~07.02)에서 '세계유산 전략목표(The World Heritage Strategic Objectives)'로 '5C'[17]를 채택하였다. 전략목표 채택 이후 세계유산 등재 경향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① 경관(Landscape)에 대한 개념의 확대와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최근 세계유산위원회가 '살아있는 유산(living heritage)'을 강조[18]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② 점 단위 유산이 아닌 입체적 단위로 유산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주민들의 참여와 무형적 요소가 중시되는 경향이 있다. 거주민과 무형문화유산을 중시하는 입체적 단위의 보존이 중요시 되고 있다.

③ 연속유산(Serial nomination)의 등재신청이 증가되고, 확장등재도 증가추세에 있다. 다국가(transnational) 연속유산을 장려하는 것에서 비롯되었으며, 다국가 연속유산은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유산의 OUV를 보존하는 세계유산협약의 기조와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제협력 및 공유적 접근을 통해 보다 나은 관리와 보존 실천을 위한 도구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④ 보존관리 체계가 강조되어 등재보다는 관리(management)와 사후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관리계획은 세계유산 등재 이후의 등재된 OUV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기술하는 부분으로 과거에는 공약성空約 계획이 주를 이뤘던 반면, 최근에는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기술하는 추세이며, 이행여부는 6년마다 실시되는 정기보고서(Periodic report)를 통해 세계유산위원회에 보고된다. 관리의 방법으로는 문화유산에 있어서 '가치에 기반한 관리(value-based management)'[19]의 개념이 대두되어 강조되고 있다.

⑤ 등재기준의 적용이 보다 강화되어 비교연구(comparative analysis)의 비중이 증가되고 있다. 2014년 38차 세계유산위원회 결정에 따라 세계유산의 수가 1,000개를 넘어서게 됨에 따라 신청 유산에 대한 OUV와 차별성을 입증하기 위한 비교연구의 비중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자연유산뿐만 아니라 문화유산에 있어서도 차별성을 입증하기 위해 과학적 자료에 기반한 다양한 비교분석표를 제시[20]하고 있다.

17 https://whc.unesco.org/en/convention/ ① Credibility(신뢰성) : 논리성에 기초하여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함. ② Conservation(보존) : 보존을 위해 법적 안전장치를 포함한 신청 주체의 강한 의지가 포함되어야 함. ③ Capacity Building(역량강화) : 가차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충분한 능력. ④ Communication(소통) : 이해당사자 간의 끊임없는 소통. ⑤ Communities(공동체) : 전통적 이해당사자로 유산의 실제적 관리 주체

18 세계유산협약 제5조에 근거를 둘 수 있으며, 제5조 내용의 핵심은 '공동체와 삶의 결합'이다.

19 가치의 이해와 속성의 입증을 통해 유산을 관리하고, 가치들 사이의 대립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20 비교분석을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자료들은 ① 세계유산목록 및 세계유산 잠정목록의 신청관련 서류들, ② IUCN 및 ICOMOS 주제연구, ③ 보호지역에 관한 세계 데이터베이스(World Database on protected area), ④ 기타 전문연구자료, ⑤ 국제적, 국가적 전문가들의 분석 자료 등이다.

03
한국의 잠정목록 현황과 선행사례

1. 한국이 보유한 세계유산과 잠정목록 등재 유산

2023년 「가야고분군」의 등재로 한국은 16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중 14건이 문화유산으로 분류되는데, 등재기준은 (iii)번이 가장 많이 적용되었다. 각각의 유산들은 대부분 국내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유산들이 대부분이며, 연속유산 성격의 유산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잠정목록은 3건의 자연유산이 등재되어 있으나 대부분 문화유산으로 등재기준 (iii)을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다. 1994년 잠정목록에 등재된 「강진도요지」를 시작으로 여러시기에 걸쳐 등재되었는데, 등재순서와는 무관하게 등재가 이뤄지고 있다. **<표 3 참조>**

2 「성주 세종대왕자태실[21]」 : 가봉태실 세계유산화의 마중물

성주군은 세종대왕자태실을 보유한 곳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을 상징하는 문화유산으로 활용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역 특산물인 '참외축제(2004~)'를 '생명문화축제(2010~)'로 확대·개편하여 세종대왕자태실의 가치를 더욱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태실을 다른 어떤 지역에서도 다루어진 적 없는 특색 있는 관광자원으로서 가치에 집중할 수 있었다.

특히 성주군은 2007년 이후 매년 5월 성주군의 생명문화축제일에 맞춰 경복궁에서 태항아리 '봉출의식'을 거행하고 축제행사장에서 '봉안의식'을 상징적으로 개최함으로서 수도권에 지역축제를 홍보하고, 성주군이 태실의 고장임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해가 거듭되면서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축제에 머무르지 않고, 세종대왕자태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가운데 세계유산등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의견의 파장은 생각보다 크게 나타났다. 성주군으로서는 지역의 문화유산, 조선왕실의 유산 정도로 다소 제한적으로 인식했던 대상이 세계유산이라는 일종의 의식의 확장 또는 각성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세계유산 등재는 근본적으로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자긍심을 지역주민에 심어줄 수 있으며, 무엇보다 유산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명분과 동력이 확보되며, 이를 통해 지역의 문화산업은 물론 관광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들에 대한 기대효과를 예상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세계유산화에 돌입하게 되었다.

---

21 사적 제444호로 지정되었다. 조선왕실의 태실 중에서 가장 먼저 주목 받은 것은 경북 성주군의 사적 제444호「성주 세종대왕자 태실(2003년 지정)」이다. 세종대왕의 장자인 문종의 태실을 비롯하여 세조와 세종대왕의 왕자들, 그리고 손자 단종의 태실까지 총 19기가 한곳에 조성되어 있다.

〈표 3〉 한국의 세계유산 등재현황 및 잠정목록

등재 시기	유산명	등재기준										비고
		문화유산						자연유산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x	
1995	석굴암과 불국사	●			●							연속
	해인사 장경판전				●		●					
	종묘				●							
1997	창덕궁		●	●	●							
	수원화성		●	●								
2000	경주역사유적지구		●	●								연속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								
2007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	●			연속
2009	조선왕릉			●	●		●					연속
2010	한국의 역사마을:하회와 양동			●	●							연속
2014	남한산성		●		●							
2015	백제역사유적지구		●	●								연속
2018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								연속
2019	한국의 서원			●								연속
2021	한국이 갯벌										●	연속
2023	가야고분군			●								2019, 연속
잠정 목록	강진도요지		○	○	○	○	○					1994
	염전			○		○						2010
	대곡천암각화군			○								2010
	중부내륙산성군			○	○	○						2010
	외암마을			○	○	○	○					2011
	낙안읍성			○	○	○	○					2011
	한양도성		○	○	○		○					2012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	○		○	○							2017
	양주회암사지유적			○								2022
	남해안일대 공룡화석지								○	○	○	2002
	설악산천연보호구역							○			○	1994
	우포늪							○			○	2011
조선왕실 가봉태실(가제)			○	○	○							

2014년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 세계유산 등재추진 학술연구'를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에 의뢰하면서 세계유산화를 위한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학술연구에는 기초조사, 객관적 기술과 등재신청의 근거 제시, 유산 등재신청과 관련된 제반사항 및 국내외 유사유산과의 비교연구, 태실의 보존과 관리에 대한 검토 및 기본방안의 수립,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서 초안 작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22]

22 학술대회개최: 「성주 세종대왕자태실의 세계유산적 가치(2014)」, 「성주 세종대왕자태실 세계유산 등재, 어떻게 할 것인가?(2015)」, 「한국의 태실과 세계의 장태문화(2016)」,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의 종합적 검토(2016)」 등과 연구총서 발간: 「별고을 성주, 생명을 품다(2015)」,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과 세계의 장태문화(2015)」,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의 종합적 검토(2016)」등이 있으며, 태실 관련 자료집으로 , 「역사서 및 문집 소재 태실 관련 기록 집성(2015)」, 「태실 관련 등록 및 의궤 집성(2015)」, 「일제강점기 태실관련 자료 집성(2017)」 등이 있다.

연구결과, '태를 묻는 시설인 태실을 조성하는 문화는 발견하기 어려우며, 태실은 장태문화라는 점에서 세계적인 보편성을 지니지만, 그 구체적인 실천안에서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했기 때문에 한국의 생명존중문화의 전통을 보여주는 독보적이며 특출한 증거'로서 등재기준 (iii)을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연구진은 종합적인 검토결과를 토대로 볼 때, 단독유산등재 이외에도 연속유산등재, 등재이후에 확장등재의 장단점을 파악하였으며, 이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나 단독등재로 가닥을 잡고 진행되었다.

추진방향의 설정이후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연구용역 발주는 물론 학술연구 진흥을 위한 학술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총서를 간행하는 등 세종대왕자태실의 세계유산적 가치 규명을 위한 노력에 집중하였다. 하지만, 국내 학계는 물론 문화재분야에서 이 당시까지만 해도 태실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었다.

2018년 4월 잠정목록에 등재하였으나, 여러 차례의 심의를 거쳐 2020년 1월 잠정목록에서 삭제되었으며, 현재는 건국대학교 세계유산연구소와 함께 세종대왕자태실을 넘어 조선왕실의 태실에 초점을 맞춰 새운 방안을 구상 중에 있다.

경북 성주군의 노력은 충분히 가봉태실의 세계유산화를 위한 충분한 마중물이 되었으며, 현재 충남, 경기, 경북, 충북이 함께 모여 가봉태실의 세계유산화를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단언할 수 있다. 이 글을 빌어 가봉태실 세계유산화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진으로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지금까지의 10년과 앞으로의 10년 그리고 등재이후, 이 지난한 과정을 회상할 때 경북 성주의 노력이 더욱 빛나기를 기대한다.

3. 가야고분군[23] 세계유산 등재

2011년 경남과 경북은 공동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였다. 시작단계에서 등재대상유산은 3개 지역의 고분군이 제시되었고, 등재기준 (ⅰ), (ⅱ), (ⅲ), (ⅳ)를 적용하였으며, 잠정목록 등재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면서 2013년 등재기준 (ⅲ), (ⅳ)적용하여 잠정목록에 등재하였다. 이후 우선등재 추진대상으로 2015년 선정되었으며, 당시 다시 등재기준은 (ⅱ), (ⅲ), (ⅳ)를 적용하는 것으로 재검토되었다. 이후 이해당사자인 경남과 경북이 협약을 체결하고, 2017년 등재추진단을 발족시켰다. 하지만, 3개 고분군만으로는 대표성이 부족하는 의견을 받아 들여, 등재대상을 7개로 확대하여 다시 잠정목록에 등재를 시도하였다.

23 2013년 잠정목록에 등재한 3개 유적은 '김해, 함안 가야고분군'과 '고령 지산동 대가야고분군'이었으며, 2018년 잠정목록을 확대하여 7개 유적은 '김해 대성동 고분군', '함안 말이산 고분군', '합천 옥전 고분군', '고령 지산동 고분군', '고성 송학동 고분군',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창녕 교통과 송현동 고분군'이다.

〈표 4〉「가야고분군」세계유산 등재과정(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22)

시기	내용	비고
2011	「가야유적」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경남·경북지역 3개 유적 대상 등재기준 (ⅰ), (ⅱ), (ⅲ), (ⅳ) 적용검토
2013.12	잠정목록 등재	등재기준 (ⅲ), (ⅳ)적용
2015.03	우선등재 추진대상	등재기준 (ⅱ), (ⅲ), (ⅳ) 적용 재검토
2015.10	공동등재 MOU체결	경남·경북
2017.02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발족	경남·경북
2017.12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 선정 보류	3개고분군 대표성 부족
2018.05	등재대상 고분군 7개로 확대	경남·경북·전북지역 7개 고분군으로 확대
2019.01	「가야고분군」 잠점목록 등재	
2019.03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선정	
2020.09	세계유산 최종 등재신청 대상 선정	
2021.01	등재신청서 제출	등재기준 (ⅲ) 적용
2021.09 ~2022.03	자문기구(ICOMOS) 심사	
2022.06	세계유산 등재예정 - 러시아 카잔 개최 WHC연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2023.09	세계유산 등재 -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	

2019년 「가야고분군」으로 등재신청대상에 선정되어 2021년 등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등재신청서에 적용된 등재기준은 (ⅲ)이 최종적으로 적용되었다. ICOMOS의 심사를 거쳐 2022년 등재최종결정을 앞두고 있었으나 개최지 러시아 카잔이 전쟁으로 인해 WHC가 연기되어 2023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최종 등재가 결정되었다.

가봉태실과 연속유산 측면에서 유사성 큰 점을 고려할 때 「가야고분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이해당사자 간의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둘째, 등재과정에서 등재대상 유산이 변할 수 있다는 점, 셋째, 등재기준 또한 수차례 변경되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보면 가봉태실이 앞으로 등재과정 중에 비슷한 상황을 겪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유연하고 전략적으로 세계유산등재라는 본질적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임을 시사한다.

04
가봉태실의 세계유산화를 위한 향후 과제

가봉태실의 세계유산화를 위한 현재 우리의 노력은 전신이 되었던 '성주 세종대왕자태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당시의 시각은 현실적으로 중첩된 여러 한계들로 인해 성주 세종대왕자태실에 국한되었고, 이는 세계유산제도의 취지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어찌보면, 우리는 당시의 한계를 파악하고 극복해야하며,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할 것이다. 기존의 진행과정을 토대로 살필 수 있는 가봉태실의 세계유산화에 있어 필요한 점들과 약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간략화해 볼 수 있다.

첫째, 가봉태실 관련 유산에 대한 학술연구가 비교적 부족한 편이다. 조선시대 유산으로 왕실과 연관된 유산이지만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가봉태실은 최근 주목을 받으면서 연구가 활발해 지고 있으나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가봉태실이라는 뚜렷한 대상이 있지만 개별유산에 대한 조사나 기록화도 매우 부족한 편이며, 일제강점기 훼손에 대한 연구에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둘째, 세계유산화를 위한 '비교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국가적·국제적 맥락에서 신청유산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진정성과 완전성을 포함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비교연구가 필수사항이다. 동아시아 문화권 간의 비교연구(한중일 비교), 전세계 문화권별 비교연구(종교문화권별, 지리적 구분의 문화권별 비교연구와 같은) 등이 필요하다.

셋째, 가봉태실분야 전문연구자가 부족하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 분야에 대한 사회적, 학술적 관심이 부족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연구진흥을 통해 연구자들을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지원체계(정책과 조직)가 뒷받침되어야한다.

넷째, 세계유산으로서 '진정성' 설명의 보완이 필요하다. 필자는 가봉태실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데 있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은 일제강점기에 감행된 서삼릉 이전이라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확보해야하며 이를 위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유산의 가치인식 부족이다. 전통적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유산의 경우 사회가 기억하고 가치를 인식하고 있지만, 가봉태실과 같이 단절을 경험한 유산은 재인식의 계기가 필요하다. 가봉태실에 대한 재인식은 최근 점차 늘어나고 있는 연구성과와 문화재지정과 같은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전문연구자들 중심의 연구에 그치지 않고 대중들과 가치를 공유함으로서 세계유산등재라는 방향성을 얻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산가치 인식의 확장을 위해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들을 대비하고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번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하나 하나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중 필자가 생각하는 중요한 사항들을 제안과 함께 열거해 보고자 한다.

1. 잠정목록등재 준비

잠정목록(Tentative List)은 각 회원국들이 자국의 영토에 위치한 유산 중에서 탁원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복합·자연유산으로서 앞으로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될 만하다고 판단한 유산을 선정하고 이를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하여 반영시킨 목록이다. 협약 가입국은 세계유산협약 제11조에 의거 해당되는 유산이 있을 시, 그 목록을 소정의 양식에 의거해서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할 수 있다. 세계유산센터는 특별한 이견이나 문제가 없을 때에 이를 매년 개최되는 세계유산위원회 정기회의에 상정하여 보고하고 그해 신청된 세계유산 목록을 일괄 채택하고 있다.[24]

현재 대한민국의 잠정목록 등재현황은 아래 표[25]와 같다. 1994년 등재된 문화유산 '강진 도요지(Kangjingun Kiln Sites)'와 자연유산 '설악산 천연보호구역(Mt. Soraksan Nature Reserve)'을 시작으로 2019년 등재되었다가 2023년 등재가 확정된 가야고분군(Gaya Tumuli)를 제외하면, 문화유산 8개소, 자연유산 3개소 등 총 11개소가 등재되어 있다.

〈표 5〉 대한민국의 잠정목록 등재 현황(이코모스한국위원회, 2021년 10월 기준)

구분		소재지	등재시기	비고
문화유산 (8)	강진 도요지	전남 강진군	1994.09.01	
	중부내륙산성군	충북 보은군, 청주시, 괴산군,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등	2010.01.11	연속
	염전	전남 신안군, 영광군	2010.01.11	연속
	대곡천 암각화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2010.01.11	
	낙안읍성	전남 순천시	2011.03.11	
	외암마을	충남 아산시	2011.03.11	
	서울 한양도성	서울특별시	2012.11.23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	전남 화순군	2017.01.24	
	가야고분군	경남 김해시, 함안군, 합천군, 고령군, 고성군 등	2019.01.28	2023.09.17 등재확정 연속
자연유산 (3)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강원도 인제군, 속초시 등	1994.09.01	연속
	남해안 일대 공룡화석지	전남 해남군, 보성군, 여수시, 화순군, 경남 고성군	2002.01.25	연속
	우포늪	경북 창녕시	2011.01.11	

24 문화재청, 2011, 『한국 세계유산 잠정목록 시규 발굴 연구사업』 보고서, p.6
25 ICOMOS-KOREA, 2021, 『2021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규발굴』 연구보고서, 문화재청, 15p.

태실과 관련된 기존의 '성주 세종대왕자태실'은 성주군의 여러 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현시점의 잠정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있지 못했다[26]. 하지만, 최근 세계유산에 등재된 가야고분군의 사례를 보면 잠정목록 등재일이 오래되었다고 세계유산 등재가 먼저인 것은 아니다. 실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도 잠정목록을 항구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회원국의 희망에 따라 매년 수정, 변경, 삭제, 추가될 수 있다.[27] 다만, 잠정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유산은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할 수 없으며, 등재신청서를 제출하기 최소 1년 전에 세계유산센터에 잠정목록에 등재되어 있으면 된다. 잠정목록 등재가 중요한 이유는 잠정목록 등재이후 1년이 경과했을 때 비로서 세계유산 등재신청자격을 갖추기 때문이다.[28]

앞서 언급한 등재절차를 고려해 볼 때, 가봉태실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잠정목록 등재'와 우선등재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잠정목록에 제대로 이름을 올리기 위한 준비가 현 단계에서 필요하다. 앞선 경험을 토대로 보다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전자문(upstream)'과 문화재청의 '잠정목록 지원사업'[29]에 응모하여 잠정목록등재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한다.

2. 추진조직체 구성

세계유산 등재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그런 관점에서는 연속유산의 형식을 갖추게 될 가봉태실에 있어, 여러 지방정부들과 이해당사자들이 협업을 통해 일을 도모해야한다. 앞 서 언급한 굵직한 사항들 뿐 아니라 산적해 있는 다양하고 소소한 연계사항들까지 전체를 체계적으로 관장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논의되고 준비되어야 할 대상은 추진조직체의 구성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연속유산 등재 사례로 가깝게는 「가야고분군」과 「한국의 서원」 등과 같은 사례들이 있으며, 왕실유산으로서는 「조선왕릉」과 같은 참고 할 만 한 사례들이 충분히 있다. 연속유산의 특성상 잠정목록에서부터 최종 세계유산등재까지 「세계유산 등재추진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등재추진업무만으로도 충분히 중요하고 무거운 임무를 수행해야한다.

---

26 ICOMOS-KOREA, 2021, 『2021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규발굴』 연구보고서, 문화재청, 26p: 2018.4.26. 잠정목록에 등재하였으나, 2020.01.28. 심의에서 「충남 내포권역의 천주교 유적군」 등과 함께 빠지게 됨.

27 UNESCO,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2017, 제65항

28 http://heritage.unesco.or.kr

29 현재 문화재청에서는 2023년 하반기 잠정목록지원사업을 공모하고 있으며, 참여할 이해당사자들간의 합의가 필요하겠으나,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응모하여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선결되어야 연속유산이 지닐 수밖에 없는 문제가 하나 있다. 바로 '등재대상 문화재의 선정'에 관한 문제이다. 이는 다수의 이해당사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연속유산이 지닌 숙명이랄까 등재 과정에서 등재전략의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30] 특히, 일제강점기 심각한 훼손기를 겪은 가봉태실의 경우 등재전략에 있어 여러 차례 수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31]. 다만, '세계유산화'의 관점에서 비록 해당 지역의 가봉태실이 최종 등재대상 유산목록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있어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참여해야할 것이다.

추진조직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등재대상 유산으로 선정된 태실을 보유한 지역을 중심으로 협약을 통해 별도의 조직(사무국)을 마련하고, 세계유산 관련 경험을 갖춘 적절한 전문가로 조직을 갖추어 잠정목록 등재는 물론 예비평가를 비롯해 신청서 작성까지 지속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책과 예산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3. 통합보존관리 계획의 수립 : 토지매입과 문화재지정

세계유산 등재에서 꼭 필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당사국의 유산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법적, 제도적 보존 및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는 유산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항목이다.[32]

현재 가봉태실 중 2건은 국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다.[33] 그 외 시도지정문화재가 다수 확인되지만 대부분 석물이 온전치 못하거나, 초장지(원태봉지)에서 이탈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태봉의 토지소유는 대부분 민간소유로 보존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환경이 확보되어야 한다. 기본적인 보존관리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재 지정연구를 전제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세계유산 등재 대상 유산으로서 각각의 가봉태실은 국내법에 따른 문화재지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비지정문화재인 경우 우선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거나 문화재청장 직권으로 국가지정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도지정문화재의 경우 연구보완을 통해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하는 방안이 있으며, 국가지정인 2건의 보물은 세계유산 관점에서 태봉을 포함한 주변 지형을 적절하게 포함시켜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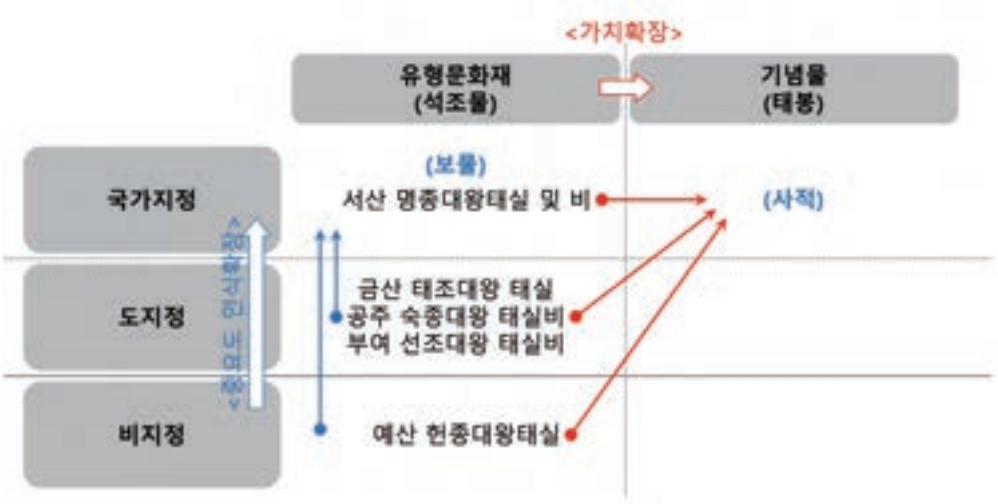
---

30 「가야고분군」의 경우 등재를 준비하던 초반기에는 3개 고분을 등재대상유산으로 설정하였으나, 많은 논의 끝에 등재전략을 수정하면서 완전성을 설명하기 위해 7개 고분군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신청하였으며, 전략대로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었다.

31 건국대학교 세계유산연구소, 성주군, 2023 : 가봉태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고, 가봉태실 각각의 상황들을 검토하여 10개 대상을 등재대상 유산으로 선정하였다.

32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II.F 보호와 관리 (제 96항, 제97항).

33 「서산 명종대왕 태실 및 비」(보물, 2018.03), 「영천 인종대왕 태실」(보물, 2022.08): 다만 아쉬운 것은 태실 석물의 조영가치에 초점이 맞춰져 보물로 지정되었다는 점이다. 세계유산등재를 위해서는 태봉이 지정사항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3〉 가봉태실 문화재지정 방향 (충남지역 가봉태실 예시)

가봉태실 중 비지정문화재부터 도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를 모두 포함한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비지정인 헌종대왕태실의 경우 문화재청장 직권으로 태봉과 태실석물을 동시에 지정하는 방안, 금산 태조대왕태실(유형문화재), 공주 숙종대왕 태실비(문화재자료), 부여 선조대왕 태실비(문화재자료)는 자료를 보완하여 국가지정(보물과 사적 동시)으로 승격을 추진 하고, 서산 명종대왕 태실 및 비는 주변 지형을 포함하는 사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야한다.

문화재지정 과정을 통해 원태봉지에 대한 토지매입 근거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 결과로 원태봉지로부터 석물이 이탈된 도지정 3곳의 경우 원태봉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면밀한 복원고증 연구를 통한다면 추가적으로 등재대상 유산으로 포함시켜 볼 수 있는 여지를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원태봉지 토지매입과 적극적인 문화재지정은 등재과정의 초기단계에 추진해야 한다.

이와함께, 문화재지정과 함께 설정되는 문화재구역의 경우 세계유산 등재 시 필요한 유산구역(core-zone)과 완충구역(buffer-zone) 설정을 고려하여, 가봉태실이 입지한 태봉의 정상부는 물론 태봉 자체까지 유산구역으로 설정하고, 완충구역은 이로부터 풍수를 고려하여 태봉 주변 분수령을 경계로 설정하거나, 경관적 경계지점을 경계로 설정할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세계유산 등재이후 유산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들도 고려된 구역 설정이 필요하다.

4.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통한 연구진흥

앞서 언급한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일종의 '지대석'이 되어줄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를 진흥하기 위한 정책과 이를 수행할 전문 연구인력의 양성이 함께 이뤄져야한다. 비교적 최근에 알려지기 시작한 태실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연구성과가 부족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다.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보다 더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자문기구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라도 꾸준한 연구성과의 누적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그간의 관련 연구성과를 살펴 단기적으로는 세계유산화에 있어 직접적으로 필요한 분야를 찾아 집중적인 연구를 지원(일종의 기획연구, 전문연구기관)하여 전략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태실분야 연구가 활발해 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연구진흥을 뒷받침 해야한다.

태실의 유산가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연구과제를 세심하게 파악하여 연구성과물들을 조속히 마련해 두어야 한다. 특히 세계유산 등재를 전제로 초기단계에 집중해서 전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 세부 주제들은 다음과 같은 방향[34]이 고려되어야 한다.

① 가봉태실의 건립 시기와 발달 단계를 예증하는 구성요소와 대응한 태항아리와 태지석 등의 편년,
② 태실의 수호군, 수호사찰 등 전통·관리체계,
③ 태실 풍수의 원리와 양택·음택 풍수와의 비교,
④ 태봉과 태실 지명을 포함한 관련 전승 설화 수집과 연구,
⑤ 등재기준 (iv)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시기별 태실 석물 조성형식과 유형적 특징 등의 변화상 연구,
⑥ 태실의 복원·재건·복구의 수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원형 고증,
⑦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이왕직이 서삼릉으로 이봉한 기록자료 조사와 해석,
⑧ 국내외 비교연구의 지속적 보완. 탄생과 관련한 속성 위주로 세계유산 비교연구 확대,
⑨ 가봉태실을 대상으로 연속유산을 선정한 논리를 지속적인 보완,
⑩ 통합보존관리체계를 위한 토지 소유권 및 문화재 지정 방안 강구 등이다.

이러한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쌓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구진흥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단기적 집중 연구진흥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 매년연합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연구서(시리즈) 편찬
- 개별 가봉태실의 고증복원연구(종합고증, 석물원형 고증 등)
- 개별 가봉태실의 고고학적 연구(태봉 지표조사, 태실 발굴조사)

34 건국대학교 세계유산연구소, 『조선왕조 태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기초연구』용역 보고서, 성주군, 2021

- 보존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태실별 종합정비계획 수립 추진
- 비교연구를 위한 진흥(연구지원사업) : 해외 연구자들 섭외하여 연구진행

또한 장기적으로 연구의 진흥과 가치확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전문연구자 양성 및 연구성과 확보를 위한 연구진행 : 예산지원, 학술연구지 만들기
- 태처리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민속학적 연구(기반문화에 대한 종합연구)
- 한국의 지역별 태처리 민속문화에 대한 조사(구술채록 등)
- 인류 공통의 태처리문화에 대한 문화권별 비교연구
- 태처리문화를 포함하는 산속産俗 관련 연구
- 저개발국가의 태처리 문화 기록화(무형유산)[35]
- 풍수와 경관적 차원의 심화연구[36]

35 가봉태실이 인류의 생명탄생을 상징하는 유산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된다면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가봉태실의 유산 보존관리에 머무르지 않고, 현대의학의 발달로 인해 사라진 선진국의 태처리 문화에 대해 조사 기록화 함과 동시에 아직 태처리 문화가 남아있는 저개발국가에 대해서는 기록화하고 연구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기관으로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36 등재이후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과연 경관을 포함하는 것이 좋은지 등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해볼 필요가 있다.

05
맺음말

문화유산 연구자로서 애정을 가지고 연구하는 가봉태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알아주는 것만으로 설레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보다 본질적으로 더 반갑고 감사한 점은 세계유산등재 여부를 떠나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됨으로 인해 해당유산을 보존할 수 있는 명분과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기회를 만난다는 점이다. 우리 주변에는 보호받아야 할 많은 유산들이 있지만, 태실과 같은 기회가 주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날로 극심해 지는 기후변화와 같은 자연재해는 물론 개발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역사에 기록되지도 못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많은 유산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울 따름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제도의 본질적인 가치는 이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가봉태실은 이제 이번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아 세계유산등재가 꼭 이루어 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 앞서 살핀 것처럼 연속유산으로서 여러 이해당사자들 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는 본질적 목표가 세계유산 등재임을 반드시 최우선 고려 사항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2024년에는 먼저 문화재청의 잠정목록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사전자문까지 받고, 건국대학교 세계유산연구소의 기초연구가 있었지만 필요시 추진전략 수립에 대한 추가연구를 기초연구를 통해서라도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 설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모쪼록 오늘 우리의 고민이 10년 쯤 후 가봉태실이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성과로 이루어지길 소망한다.

[참고문헌]

건국대학교 세계유산연구소, 「조선왕조 태실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을 위한 심화연구」 최종보고서, 성주군, 2023

김희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추진 현황과 과제 :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향토문화』 제35집, 향토문화개발협의회, 2016, pp.93~134

건국대학교 세계유산연구소, 『조선왕조 태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기초연구』 용역보고서, 성주군, 2021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2021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규발굴』 연구보고서, 문화재청, 2021

UNESCO,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2017

문화재청,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2020.12.16. 시행

박재관,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의 세계유산 등재추진」, 건축(대한건축학회지) 제61권 제9호 통권 460호, 2017, pp.62~66

http://heritage.unesco.or.kr

「가봉태실 세계유산화를 위한 추진과제」에 대한 요약문

가봉태실은 탄생, 삶, 죽음, 영면으로 압축해 볼 수 있는 인간의 일생 중 삶의 중요한 첫 단계인 생명 탄생을 기념하는 상징물이다.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생물학적 삶의 중요한 단계를 집단이 기억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문화적 행위의 결과물로서 보편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조선왕실의 가봉태실은 전세계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독창성을 지니고 있으며, 문화적으로 가장 고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편적 삶의 과정을 문화적으로 탁월한 경지까지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세계가 함께 기념할 만하다 하겠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편적 인간의 삶을 조선 왕의 삶으로 대응시켜 살펴보면, 왕의 '삶'과 관련된 궁궐(창덕궁, 1997년 등재), '죽음'과 관련된 왕릉(조선왕릉, 2009), 영면과 관련된 '기념'공간(종묘, 1995)으로 설명되었지만, '탄생'과 관련된 상징물이 아직까지 포함되지 못하고 있었다. 가봉태실은 왕의 탄생과 관련된 유산으로 한 인간(왕)의 삶을 유산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전체 구성을 완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세계유산화는 우리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유산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활발한 세계유산화 움직임은 우리유산에 대한 해석을 다시금 새롭게 하고, 유산의 보존을 위한 움직임에 활기를 더한다는 점 등에서 매우 반가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가봉태실은 아직 잠정목록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한 상태이다. 시작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째, 잠정목록등재가 조속히 이뤄져야하며, 이 과정에서 문화재청 잠정목록 지원사업과 사전자문등을 고려해야한다. 둘째, 세계유산등재는 다자의 이해당사자가 함께 수행할 장기프로젝트로 단일화된 '추진조직체 구성'이 필요하다. 셋째, 유산의 보존관리 관점에서 토지매입과 문화재지정은 관리주체(시군)단위에서 조속히 진행해야할 사항이다. 넷째, 안정적이며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통한 연구진흥을 통해 충분한 설명자료를 확보해야한다.

「가봉태실의 세계유산화를 위한 향후과제」에 대한 토론문

길지혜(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선임연구원)

김회정 박사님께서 세계유산 등재절차 및 동향, 성주 세종대왕자태실에서 시작한 가봉태실의 세계유산 준비 관련 일련의 진행 과정을 꼼꼼히 설명해주셔서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향후 과제로 제시해주신 잠정목록 등록 준비, 추진조직체 구성, 통합보존관리 계획 수립, 연구진흥, 이 네 가지 방향은 그동안의 박사님의 여러 경험에서 비롯한 세계유산화 준비에 꼭 필요한 사항들이라고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안해주신 향후 과제들이 세계유산 준비에 있어 선행되어야 할 과제임에 동의하며, 특히 조선왕실의 가봉태실 문화에 대한 연구, 개별 태실별 역사적 연구는 가봉태실을 이해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덧붙여 제가 직·간접적으로 세계유산 관련 연구에 참여하였을 때, 세계유산 등재 준비에 있어 대상 자체에 관한 연구와 함께 세계유산 제도에 맞춘 전략적인 연구방식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관련하여 몇 가지 사안을 좀 더 강조하고 이에 대해 김회정 박사님의 추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연구 세부 주제에서 언급해주신 내용으로, 등재를 목표로 하는 연속유산 대상에 관한 사안입니다. 조선왕실의 가봉태실 문화를 살펴보다 보면, 처음 태실이 위치한 산봉우리의 입지 특성이 기록과 도설로 잘 남아있어 이 부분이 굉장히 독특한 물리적 특성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여러 태실이 이전하여 자리잡은 것도 현재 우리가 처한 역사적 현실입니다. 여러 변화가 혼재하는 가운데 세계유산으로의 신청대상을 현재 남아있거나 이전된 태실에 한정할 것인지, 과거 태실이 자리하였던 태봉 유적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 태실 중 등재대상으로 삼을 태실에 대해서도 조선왕조 태실의 완전성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기의 전제조건에 따라 연구내용이나 앞으로의 보존관리계획이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에 신청대상에 대한 여러 논의가 초기 단계에서 필요하리라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현재 상황에 대해 좀 더 추가하여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앞으로의 세계유산 등재신청에서 의무화된 예비평가 작성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예비평가는 새롭게 도입한 절차로, 세계유산으로의 잠정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 단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평가서 항목 중 등재신청서에 더해 새롭게 강조하고 있는 항목은 '신청

후보유산이 세계유산협약 맥락에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과 '세계유산목록상 격차 및 등재가 적은 주제'인지를 기술하는 것입니다. 2023년 기준, 세계유산 수가 1,199개에 이르는 상황에서 세계유산협약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 미래 세대에 전승해야 할 유산으로서 다른 유산과 중복되지 않는 가치가 있음을 중요하게 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읽으며 가봉태실은 생명과 탄생이라는 귀중한 키워드를 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등재가 적은 주제라는 측면에서도 그 가치를 찾아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 문화는 인류 보편적 특성이 강해 세계 각국에 다양한 의례와 풍습으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중 유형적 실체로서 가봉태실의 가치가 논리적으로 잘 설득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태 문화에 대한 여러 국가와 문화권별로 비교하는 주제연구가 면밀히 이루어져야 하며, 세계유산 목록과 각국의 잠정목록 유산, 무형유산 중 관련 대상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태 문화는 무형적 특성으로 민간에 전승되는 사례가 많이 전해지기에, 문화 차원으로 대상을 확장해 비교하는 것이 인류 보편적이면서도 탁월한 가치를 강조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지역주민의 참여에 관한 부분입니다. 세계유산협약에서 공동체의 참여는 협약 이행을 위한 주요 전략목표 중 하나로 중시되고 있으며, 앞에서 언급한 예비평가서에서도 현지 공동체와 관련한 사안은 별도의 항목으로 기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 관련한 사안은 최근의 세계유산 등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지역주민 참여 없이 제대로 된 세계유산 보존관리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 등재 준비를 하면서 지역주민을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지역주민의 삶 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만큼 시간과 노력도 많이 필요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해야 하는지도 많은 고민이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역주민 참여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고 실행해가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박사님의 의견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토론문에서는 몇 가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세계유산 등재 준비에 있어 통합된 추진조직체 구성, 통합된 보존관리계획 수립, 연구의 지속적인 진흥은 공통으로 진행되어야 할 기본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등재한 다른 세계유산 사례에서 보았을 때 세계유산 등재를 준비하고 또 등재 이후의 과정에서 유산에 대한 전문적 그리고 보편적 이해와 관심의 폭과 깊이가 크게 확장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어, 세계유산의 긍정적 영향 중 하나로 볼 수 있었습니다. 가봉태실은 생명과 그 근원인 태를 소중히 대하였던 조선왕실의 문화와 관련한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인 만큼, 연구와 관련 사업이 함께 진행되어 앞으로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